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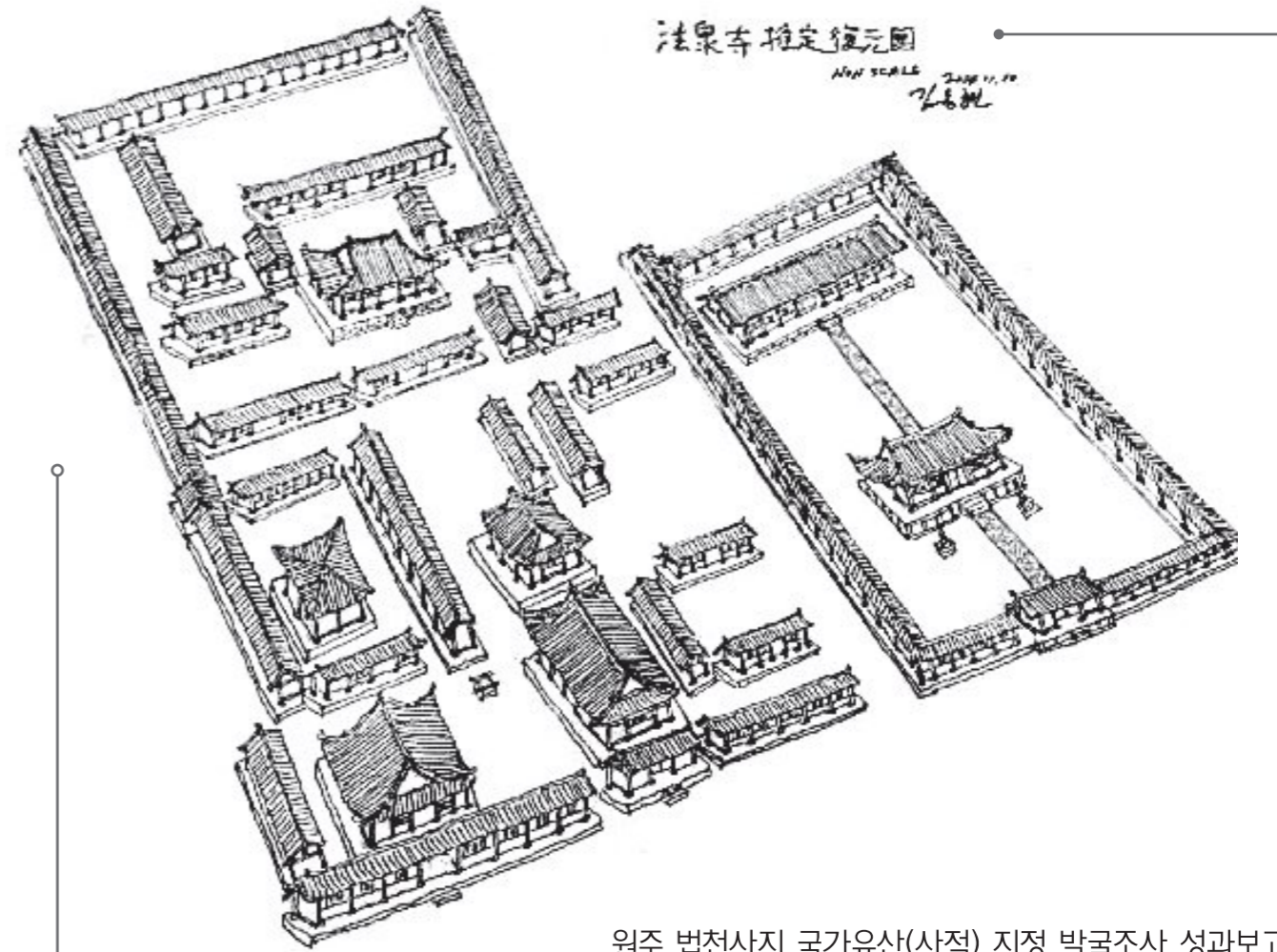


원주 법천사지 국가유산(사적) 지정 발굴조사 성과보고

# 원주 법천사의 시·공간적 가치 옛 길에 발 맞추는 새 걸음

원주 법천사지 국가유산(사적) 지정 발굴조사 성과보고  
원주 법천사의 시·공간적 가치

원주시 역사박물관 · 강원고고문화연구원




원주 법천사지 국가유산(사적) 지정 발굴조사 성과보고  
원주 법천사의 시·공간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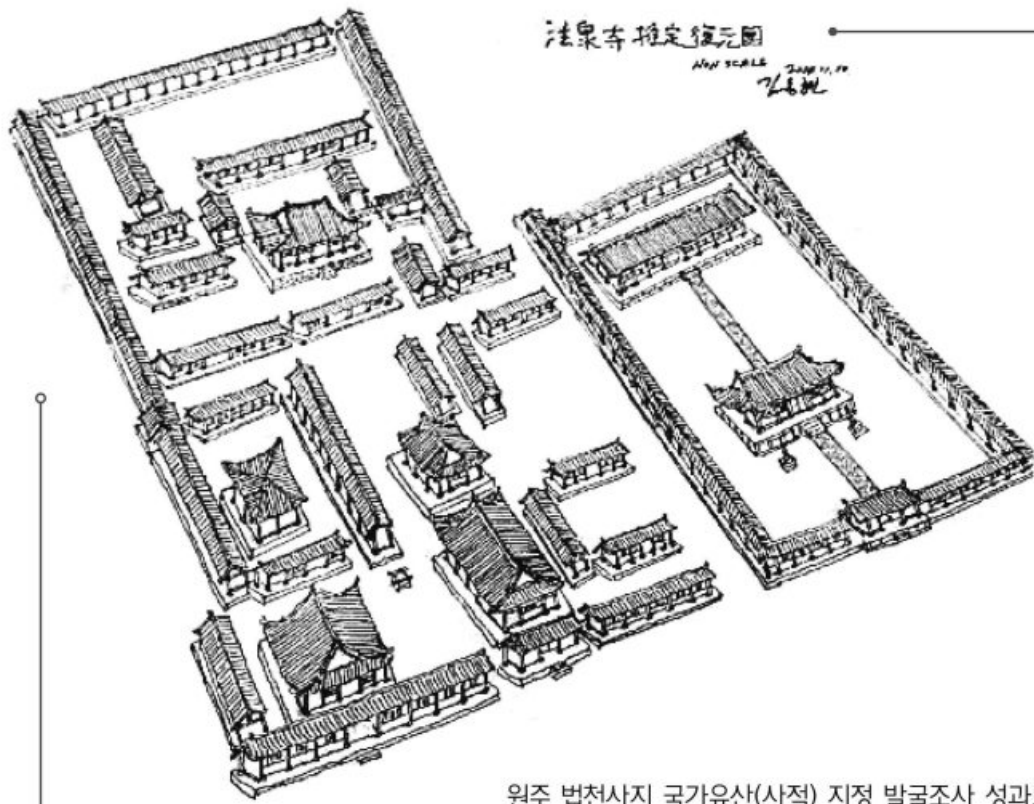
# 옛 길에 발 맞추는 새 걸음

2025.9.24<sup>WED</sup>

10:00 - 18:00 원주문화원 문화공연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로 235)

주최  원주시역사박물관

주관  평안강원고고문화연구원





원주 법천사지 국가유산(사적) 지정 발굴조사 성과보고  
 원주 법천사의 시·공간적 가치

# 옛 길에 발 맞추는 새 걸음

2025.9.24<sup>WED</sup>

10:00 - 18:00 원주문화원 문화공연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로 235)

주최  원주시역사박물관

주관  전남강원고고문화연구원





원주 법천사지 국가유산(사적) 지정 발굴조사 성과보고

## 원주 법천사의 시·공간적 가치 옛 길에 발 맞추는 새 걸음

진행 홍주희(강원고고문화연구원 실장)

시 간	프로그램	
10:00 - 10:20	식전행사	
10:20 - 10:30	장내정리	
10:30 - 11:00	기조강연 고려시대 사원 편제와 별원	발표 한기문(경북대학교 명예교수)
11:00 - 11:25	제 1주제 법천사의 공간구성	발표 한지만(명지대학교 교수) 토론 김왕직(명지대학교 교수)
11:25 - 11:50	제 2주제 법천사 중심사역의 배치 및 건축특징	발표 현승욱(강원대학교 교수) 토론 한 욱(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11:50 - 12:50	중 식	
12:50 - 13:15	제 3주제 법천사 고승공간	발표 황정욱(강원고고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토론 박만홍(국토문화유산연구원 실장)
13:15 - 13:40	제 4주제 법천사지 IV구역 공간구성에 대한 검토	발표 신유리(강원고고문화연구원 팀장) 토론 조상순(국립중앙문화유산연구소장)
13:40 - 14:05	제 5주제 법천사의 난방시설 검토	발표 이상목(강원고고문화연구원 연구원) 토론 이승연(건축문화고고스튜디오 실장)
14:05 - 14:15	휴 식	
14:15 - 14:40	제 6주제 법천사지 출토기와의 시·공간적 검토	발표 최영희(강릉원주대학교 초빙교수) 토론 최정혜(전 북한박물관장)
14:40 - 15:05	제 7주제 출토자기를 통해 본 고려시대 법천사의 변천과정	발표 김귀한(민족문화유산연구원장) 토론 한혜선(이화여자대학교 연구교수)
15:05 - 15:30	제 8주제 법천사지, 앞으로의 조사방향과 정비	발표 최태선(중앙승가대학교 교수) 토론 박성진(신라왕경사업추진단 연구관)
15:30 - 15:50	장내정리	
15:50 - 17:50	종합토론	장준식(국원문화재연구원장)
17:50 - 18:00	폐 회 사	지현병(강원고고문화연구원 원장)



●●●●●  
 ●●●●●  
**목 차**

	<b>기조강연</b>	
	고려시대 사원 편제와 별원 .....	7
	한기문 (경북대학교)	
	<b>제1주제</b>	
	법천사의 공간구성 .....	27
	한지만 (명지대학교)	
	토론문 김왕직 (명지대학교) .....	56
	<b>제2주제</b>	
	법천사 중심사역의 배치 및 건축특징 .....	59
	현승욱 (강원대학교)	
	토론문 한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70
	<b>제3주제</b>	
	법천사 고승공간 .....	73
	황정욱 (강원고고문화연구원)	
	토론문 박만홍 (국토문화유산연구원) .....	94
	<b>제4주제</b>	
	법천사지 IV구역 공간구성에 대한 검토 .....	97
	신유리 (강원고고문화연구원 탐장)	
	토론문 조상순 (국립중앙문화유산연구소) .....	117
	<b>제5주제</b>	
	법천사의 난방시설 검토 .....	121
	이상목 (강원고고문화연구원)	
	토론문 이승연 (건축문화고고스튜디오) .....	144

	<b>제6주제</b>	
	법천사지 출토 기와의 시·공간적 검토 .....	147
	최영희 (강릉원주대학교)	
	토론문 최정혜 (전 복천박물관) .....	169
	<b>제7주제</b>	
	출토자기를 통해 본 고려시대 법천사의 변천과정 .....	171
	김귀한 (민족문화유산연구원)	
	토론문 한혜선 (이화여자대학교) .....	190
	<b>제8주제</b>	
	법천사지, 앞으로의 조사방향과 정비 .....	193
	최태선 (중앙승가대학교)	
	토론문 박성진 (신라왕경사업추진단) .....	207

기조강연  
고려시대 사원 편제와 별원

한 기 문  
(경북대학교)



# 고려시대 사원 편제와 별원

한기문(경북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 목 차

- I. 머리말
- II. 사원 편제의 성립
- III. 사원의 별원 형성과 성격
- IV. 맺음말

## I. 머리말

고려시대 사원은 불교 이념의 대중화에 따라, 각 종단의 수행과 의례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사회 기간 시설, 왕실의 신성성을 중심으로 지배 이념의 확산 거점이기도 하였다. 사원의 성립에는 각 종파의 불교 신앙과 교의가 반영될 뿐만 아니라, 국가나 각 행정단위의 지배이념 확산으로 이루어졌다. 사원의 구성과 장엄은 궁궐과 관아의 수준을 넘는 예술성이 반영되며 입지와 종단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었다.

고려 사원의 편제를 태조 대의 사원 지원을 중심으로 어떤 관념으로 ‘문적화’ 하는지를 통해 살피고, 전 국토의 공간에서의 분포 범주를 당대의 인식으로 살핀다. 이를 바탕으로 사원의 공간 구성에서 금당과 불탑, 승방, 생활 부속 시설의 기본에 여러 시설이 ‘별원’으로 추가되면서 사원의 기능과 성격, 그리고 위상 등의 변화를 고찰한다.

고려 사원은 불교사의 맥락을 바탕으로 정치·사회사적으로 시야를 확대하면서 연구하여야 한다. 각종 문헌자료에서 그러한 사례를 유형별로 나누고 사지 발굴 성과를 참고하여 정리한다. 이로써 고고학적 사지 조사에서 이미 발굴된 성과를 재음미하고 새로운 발굴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면 다행이겠다.

## II. 사원 편제의 성립

고려 태조는 訓要에서 “통일과정에 불교의 도움이 커서 선종과 교종의 사원을 창건하고 주지를 파견하여 불사를 닦게 하며 그 업[종파]에 충실하여 서로 바꾸거나 빼앗는 일이 없게 한다. 모든

사원은 도선이 지정한 산수의 순역에 따라 개창된 것이니 함부로 창조하지 말 것이며 그래야 地德과 國祚를 보전할 것이다”라<sup>1)</sup> 하였다.

통일과정에서 부처의 호위를 받았기에 그 보답으로 사찰을 건립하고 주지를 파견하고 불사를 닦게 하며 각 종파를 인정하며 독자성[인맥과 사원 소속]을 유지하게 하였다. 국조를 유지하기 위해 사원을 남설 하지 않고 적정하게 유지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사원에 대한 이념과 편제방식을 포괄하여 성립한 것이 禪補寺社였다.<sup>2)</sup>

후삼국 쟁패 중의 태조에 협조와 관련하여 창사, 중수, 사액 등을 한 사원들, 그리고 고승 탐비 건립 사원 7개소, 개경에 십사를 위시하여 창건한 사원 등으로 크게 태조 대의 비보사사의 범위를 정리할 수 있다. 후대 기록에 자주 나타난 ‘祖宗時 開創禪補寺社’, ‘密記付禪補寺社’ 등을 말한다. 1405년(태종 5) 11월 의정부 상서에 ‘太祖所創不出密記之外’라 한 데서<sup>3)</sup> 밀기부비보사사는 태조대에 성립된 사원으로 생각된다. 1402년(태종 2) 기사에 ‘密記付京外七十寺外其餘禪補所載京外各寺’라<sup>4)</sup> 하여 고려 태조 개창 사원의 숫자는 70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其餘禪補所載京外各寺’라는 구절에서 태조의 건국과 연관이 없었던 통일신라시기 이전부터 창건되거나 그 이후의 사원도 비보기에 등재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고려 중기 혜심은 「常住寶記」에서 ‘凡寺院者無非爲國朝及州縣禪補所置也’라 하여 모든 사원을 국가와 지방의 비보사사의 관념으로 인식하였다. 또 수선사의 재정 내역에 ‘國立油香寶’라<sup>5)</sup> 하여 ‘국립 사원 유지 재단’이라 이해하여 수선사를 ‘국립 사원’으로 인식한 것 같다. 一然이 청도의 ‘郡中古籍禪補記’에서<sup>6)</sup> 청도군의 전현직 호장층의 인적 사항 일부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기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인용하지 않은 나머지는 사원 관계나 산천의 형세에 관한 내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 세종 때 春秋館에서 ‘州府郡縣禪補寺社創立文籍’에 주부군현의 산천형세가 기록되어 있어서 지리지 찬집에 참고하기 위해 충주사고에서 서울로 가져오게 한 것에도,<sup>7)</sup> 사원 뿐만 아니라 산천 형세의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고려 말 普濟寺의 소속 종파나 그 변화의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그 소속 종파를 확정 짓는 데 참고한 것이 ‘山川禪補記’라는 문서였다.<sup>8)</sup> 사원 소속 분쟁은 사원에 딸린 田民의 쟁탈이 원인인데, 조선 초 태종 2년 서운관의 상서에 ‘禪教各宗 爭執有土民之寺 請載禪補之籍’이라 하였다. ‘비보지적’에 사원의 재정상황도 기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230년(고종 17)에는 五道 按察使를 통해 전국사원을 재조사한 바도 있다. 계수관을 위시한 지방관도 수시로 사원 현황을 조사·보고하였다. 조선 초 사례이지만 태종 8년 2월에 濟州의 法華寺, 修正寺의 노비수를 정할 때 근거한 것이 ‘濟州牧使呈州境禪補二處’였다는 것에서<sup>9)</sup> 짐작된다.

조선 세종조의 관찬인 『龍飛御天歌』 第百七章 小注에 ‘高麗用道說 推占山川順逆 開創寺社 禁人

1) 『고려사』 권2 세가 태조 26년 4월, “其一曰 我國家大業 必資諸佛護衛之力 故創禪教寺院 差遣住持焚修 使各治其業 後世 姦臣執政 徇僧請謁 各業寺社 爭相換奪 切宜禁之 其二曰 諸寺院 皆道說推占山水順逆而開創 道說云 吾所占定外 妄加創造 則損薄地德 祚業不永 朕念後世國王公侯后妃朝臣 各稱願堂 或增創造 則大可憂也 新羅之末 競造浮屠 衰損地德 以底於亡 可不戒哉”.

2) 한기문, 「고려시대 비보사사의 성립과 운용」, 『한국중세사연구』 21, 2006.

3) 『태종실록』 권10 태종 5년 11월 계축.

4) 『태종실록』 권3 태종 2년 4월 갑술.

5) 혜심, 「常住寶記」, 『無衣子詩集』 卷下(『韓國佛教全書』 6, p.66).

6) 『삼국유사』 권4 의해5, 보양이목.

7) 『세종실록』 권28 세종 7년 6월 경자.

8) 「廣通普濟禪寺碑」, 『韓國金石全文』, p.1204.

9) 『태종실록』 권15 태종 8년 2월 정해.

私自創造以損地德 名之曰 裨補所<sup>10)</sup>라<sup>10)</sup> 한 기록에 따르면, ‘비보소’는 새로운 사원 창건이 개인 판단으로 산수에 어울리지 않게 형성되는 것을 막으려는 데서 비롯했다. 태종 2년 4월 書雲觀의 上言에는 密記付外의 寺社田을 軍資에 속하게 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이는 서운관에서 밀기부사사 곧 비보사사문적을 보관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서운관은 고려시기에 사천대였고 주로 천문, 복서, 풍수에 관한 소임을 맡고 있어서 산천 형세에 따른 사원 입지를 판단하는 전문 관서였다. 1045년(정종 11) 삼각산 沙峴에 弘濟院과 棲仁館을 개창할 때 국왕이 司天丞 潘周寶를 보내 ‘相地’ 한 예도 있다.<sup>11)</sup> 「수선사형지기」 문서에 ‘司天臺印’이 찍혀있어서<sup>12)</sup> 사원 관련 문적을 발급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상에서 비보사사의 조사와 등재는 안찰사와 지방관이 하고 그 문적의 보관은 각 행정단위와 중앙의 사천대였다. 내용은 사원 소속 종파와 변화, 그리고 사원재정, 산천형세, 재지세력 등도 기재되어 있었다. 비보지적을 통해 사원재정과 종파별 사원 소속을 공증하여 사원을 국가기관으로 파악하였다.

전 국토 공간의 사원 분포에 대한 인식은 『고려사』에는 ‘外山名寺’, ‘外山諸寺’, 혹은 ‘中外’ 등으로 표현하여 ‘개경과 지방’으로 크게 나누는 인식이 있었던 듯하다. 조선왕조 초기 기사에는 ‘京外’라 하여 이를 뒷받침한다. 고려말 趙浚은 국가비보소로서 ‘경성에 소재한 사원’과 ‘외방에 소재한 사원’으로 나누고 토지 분급에 차등을 둘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고려실록을 근거로 고려 역사를 정리한 『고려사』의 기록은 당대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의 초기 부분 기사는 조선 건국 후 60년이 지나 정리한 『고려사』보다 더 고려 당대의 인식에 접근한다고 생각된다. 조선 태종대에 사원을 대거 정리하면서 남긴 사원의 공간적 분포에 대한 기록은 『고려사』에 전하는 구분보다 더 자세하다.

新舊都各寺內禪教各一寺…各道界首官禪教中一寺…各官邑內資福 給田二十結奴婢十口常養十員 邑外各寺 給田六十結奴婢三十口常養三十員(『태종실록』 권11, 6년 3월 정사)

議政府請以名刹 代諸州資福 從之 啓曰 去年寺社革去之時 自三韓以來大伽藍 反在汰去之例 亡廢寺社 差下住持者 容或有之 僧徒豈無怨咨之心 若擇山水勝處大伽藍 以代亡廢寺院 則庶使僧徒得居止之處 於是 諸州資福寺 皆代以名刹(『태종실록』 권14, 7년 12월 신사)

위의 기사는 태종 6년과 7년의 기사로서 조선 초기의 인식이지만 고려 사원의 분포 관념을 반영한다. ‘新舊都各寺’, ‘各道界首官寺’, ‘各官邑內資福’, ‘邑外各寺’, ‘山水勝處大伽藍’ 등으로 보아, 고려시에는 ‘개경 사원’과 ‘계수관 사원’, 그 이하 ‘군현 읍내 사원[자복사]’, ‘읍외 사원’, 그리고 ‘산수승처 대가람’ 등으로 나누어진다.

개경의 범위는 관인들의 柴地 범위까지 포함하는 공간에 있는 사원을 개경 사원으로 인식할 수 있다. 개경 사원은 진전사원이 諳陵이 분포한 지역에 있으므로 赤縣이 위치한 범위까지 포함하여 개경 사원의 분포를 이해할 수 있다. 태조시 개경의 불교적 권위를 위한 창사에서 비롯하여 역대 왕의 원찰과 관인층의 원찰 건립이 있었다.

10) 『龍飛御天歌』, 아세아문화사영인, 1972, p.1023.

11) 「칠장사혜소국사비」, 『한국금석전문』, pp.490~491.

12) 송광사성보박물관, 『삼보종찰 인장전』, 불기 2567년 봄 송광사성보박물관 특별전, 2023, p.136.

개경 사원은 국왕의 불교적 권위를 반영하는 여러 기능을 담당하였다. 신흥사 공신당 무차대회, 연등회 봉은사 태조진 행향, 팔관회 법왕사 행향, 내원당 불아 첨경, 외제석원 국왕 생일절 도량, 대내에서 국왕의 보살계 수계, 국왕의 회경전에서의 장경도량과 인왕도량 주관, 그리고 부왕의 원찰에서 진전재를 행하였다.<sup>13)</sup>

다음으로 계수관 사원인데 계수관은 광영역과 그 광역의 으뜸 치소를 의미한다. 그 광역을 대표하는 首官 사원으로서 국왕 생일절의 축수 도량과 인왕회 반승, 연등회, 경행 등을 여는 사원이었다. 각관은 계수관을 포함한 행정단위를 의미하므로 ‘계수관’과 ‘각관’은 다 행정단위이다. 각관 읍내 가까운 곳 대체로 邑司에서 오리 정도 떨어진 곳에 분포하며 고을의 복을 비는 사원이 있었는데, 이를 ‘자복사’라 하였다.<sup>14)</sup> 그리고 각관의 읍에서 좀 더 떨어진 곳에 있는 읍외의 사원들이 분포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수승처 대가람인데 이는 수로와 해로 및 명산의 교통과 수행하기에 좋은 사원 등을 포괄하여 표현한 사원으로 생각된다. 고개, 수로와 해로 요충의 사원은 국가의 교통 시설인 역과 진·포를 보완하여 성립되었다.

특히 명산의 사원은, 통일신라시기 오악이 성립되면서 경주 일원을 벗어나 확대된 통일신라에 맞는 영토 관념의 결과로, 사원을 통한 鎮護 관념과 불교 신앙이 산악신앙과 결합하고 불교 교학과 수행을 심화할 수 있는 역할이 확대되면서 성립되었다. 이후 선종이 성행하면서 선 수행을 위한 ‘勝地’로서 성립되고, 명산 주위로 여러 종파 소속 사원이 공존하여 사상과 신앙을 교류하고 새로운 체계를 모색하면서 교학과 수행이 증진될 수 있었다. 신라말 고려초 ‘華嚴大學 十所’는 이러한 인식에서 나올 수 있었다. 명산에는 여러 종파의 사원이 존재하는 양상이 전개되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태조는 ‘사원의 소속종파를 함부로 바꾸지 말라’ 하였고 비보지적에 소속종파를 명시하여 분쟁을 막고자 하였다. 이로 보아 고려에서는 사원이 종파별로 소속 체계를 정비하였다. 개경에 각 종단별로 중심사찰을 두고 외방에 그 종단의 여러 사찰이 분포하였다.

선종은 9세기 초 도의 이후 유학생들이 대거 귀국함에 따라 전체 사원에 차지하는 선종 사원의 비중이 과반을 상회하였다. 태조가 친히 쓴 「흥법사 진공대사비」에는 ‘五百禪宇’를 창건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지만, 선종 사원이 그만큼 다수이며 대세를 이룬다는 의미를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선종에서는 개경의 普濟寺가 중심이며 외방에 叢林이라는 거점 사원과 다수의 사원이 존재하였다. 스승과 제자의 인맥에 따라 구산파로 정립되었는데 산파별 총림이 있고 거기서 선발된 인원이 보제사에서 최종 승과에 응시할 자를 뽑았는데 이를 ‘談禪大會’라 하였다. 최종고시는 廣明寺 선불장에서 보았다. 이러한 체계는 승과제도가 성립된 광종대 이후 2년마다 열리는 진사시의 예에 따라 최종고시에 응시할 자를 뽑는 예비 선발대회 곧 답선회 개최를 바라는 貞雙 등의 요청을 받아들인 정종대에는 그 체계가 정립된 것으로 보인다.

승과 체계 성립 이전의 태조 대에도 보제사가 선종의 도회소 역할을 한 것은 十寺의 하나로 성립되었고 개경 십자로 위치하며 크다는 의미의 ‘唐寺’ 혹은 ‘大寺’로도 표현되었으며 선승을 상징하는 羅漢을 모신 전각이 굉장함을 『고려도경』에 서술되어 있다. 외방의 선종사원은 고승비문에 나온 것만 들면 다음과 같다. 회암사, 도봉사, 봉암사, 옥룡사, 보림사, 월남사, 쌍봉사, 흥녕사, 진전사, 굴산사, 오룡사, 성주사, 봉림사, 단속사, 운문사, 인각사, 영원사, 태자사, 석남사, 수선사 등이다.

13) 한기문, 「고려전기 수도 개경 사원의 성립과 기능」, 『한국중세사연구』 59, 2019.

14) 한기문, 「고려시대 주현 자복사와 향도의 역할」, 『동국사학』 59, 2015.

화엄종은 처음 개경 사원 靈通寺, 歸法寺 등이 중심이었다가 문종대 眞殿 사원으로 성립한 개경의 興王寺가 본거가 되었다. 외방에는 신라 이래의 화엄 사찰이 분포하였는데 고승비, 화엄관련 전적 간기 등에서 정리할 수 있다. 서봉사, 해인사, 화엄사, 귀신사, 송천사, 부석사, 개태사, 보원사, 보현사, 김생사, 계룡갑사, 승장사, 비마라사, 법수사, 금성사, 반응사, 각화사, 용수사, 용암사, 부인사, 미리사, 동천사, 범어사 등이 보인다. 화엄종 승려대회인 '海會'가 열렸고 승과 체제가 갖추어진 이후는 예비시험 성복선, 최종고시인 대선 등으로 정비되었다.

유가종[법상종]은 현종이 창사한 개경 玄化寺와 외방의 여러 유가종 사원이 있었다. 고승비에서 정리할 수 있는데 칠장사, 법천사, 향림사, 금산사, 발연사, 법주사, 남백월사, 유가사, 동화사, 원흥사, 기림사, 기비사 등이다. 승과는 예비시험 성복선과 최종고시 대선체제가 갖추어졌다. 화엄종과 유가종의 최종고시는 왕륜사 대선에서 뽑았다.

의천에 의해 성립된 천태종의 경우는 속종대 창사된 國淸寺가 중심 사원이며, 六山으로 표현한 거둔사, 신평사, 고달사, 영암사, 지곡사, 선봉사 등과 동백련사, 남백련사, 영국사 등이 외방 사원이었다. 육산 중 선봉사를 제외한 5개 사원은 원래 선종 사원에서 천태종으로 소속된 것이다. 천태종의 승과에 대해서는 「선봉사비문 음기」에 의천이 직접 100인을 선발하여 봉은사에서 최종고시를 보아 40인을 뽑은 천태종선 첫 사례를 전하였다. 조계, 화엄, 유가와 나란히 4대엽[4대종파]이 되었다고 하였다.

4대엽에 들지 못한 소수종파인 神印宗은 태조 대 성립된 現聖寺가 본거가 되고, 경주 돌백사·사천왕사·갑산사·덕방원 등과 서경의 흥복사·영명사·장경사·금강사 등, 그리고 동계의 진정사가 외방에 분포하였다.

대개 개경 중심사원에서 정기적 승려대회를 통해 단합과 교리를 토론하여 각 종단을 유지하였다. 종단의 승려 중 국사, 왕사로 책봉되는 경우 종단 본거 사원에 주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가종의 본거 현화사에서 대장경 조조를 주도하였고, 韶顯이 나서서 석가여래와 현장, 규기와 해동 6조상을 그려 모시고 모든 유가종 사찰을 총괄하는 繕理官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화엄종단의 본거인 흥왕사는 현화사에서 주도한 대장경 조조 사업을 계속하고 義天이 그 풀이서인 교장 사업도 敎藏司를 설치하여 운영 재원 敎藏寶를 마련하여 주도하였다. 신인종의 본거인 현성사도 외방의 신인종 승이 개경에 머물 때는 현성사에 있었던 사례가 보여서, 중심 사원의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현종대부터 의종대까지는 불교계는 유가종과 화엄종이 주도하였다. 국사, 왕사도 거의 두 종파에서 배출되었다.

무인정권기에는 수선사와 백련사가 주도적 위상에 있었지만, 원간섭기에는 천태종, 선종, 유가종이 주도하였다. 천태종에서는 개경에 묘련사가 새로 창건되어 국청사와 함께 천태종의 중심사원 역할을 하였고 영원사는 선종과 천태종의 소속 분쟁사원이었다. 원간섭기를 벗어난 공민왕대에는 화엄종 천희가 국사로, 우운이 내원당으로 활동하였고, 선종의 보우, 나옹 등이 국사로 책봉되어 활동하였다.

고려의 사원 분포는 종단별로 개경의 본거 사원을 두고 외방의 지방 행정단위와 산수승처를 중심으로 성립되었다. 그리고 각 종단의 독자적 인맥과 소속 사원을 인정하여 종단의 예비승과를 실시하게 하고 최종고시를 통해 선발하여 각 종단 주지나 의학승, 승록사 관원 등으로 발령하는 승려 인사를 시행하였다. 예부에서 주관하여 종단의 독자성을 존중하여 협의하고 국왕이 최종 결재하였다. 국왕이 국사에 인사권을 맡기는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국왕이 행사하였다. 고려 사원은 국가기관인 셈이었다.

### Ⅲ. 사원의 별원 형성과 성격

각 사원의 내부 공간에서 국가 성격과 각 종단의 교리·신앙, 세속과의 관계 등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별원’의 성립을 살펴본다.

불교의 발상지 인도에서는 ‘僧伽藍摩’라 하였는데 복수의 승이 ‘승가’이고 람마는 ‘園林’이라는 의미이다. 불교도는 무리를 지어 원림에서 수행 생활하였는데 승들이 잘 수 있는 시설 곧 승방이 갖추어진 것이 기본이고 여기에 석가와 대화할 수 있는 강당좌가 더해졌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기원정사, 죽림정사였다. 석가의 입멸 후 유골을 제사하는 불탑을 중심으로 승가람마가 경영되었다. 대·소승 분리 이후 現身佛을 모시는 불탑 외에 理佛을 모시는 불당(금당)을 조영 운영하는 대승 불교도가 주도하였다.<sup>15)</sup> 우기와 습한 날씨에도 견딜 수 있는 영구 거처로 석굴을 이용하면서 승들이 기거하는 승원굴과 예배를 위한 예배굴이 생겼고 이 둘이 결합 되는 석굴 사원이 유행하였다.<sup>16)</sup>

불교의 중국으로 전래는 후한 명제 때인데 전래하여 오는 고승을 관서에 모셨는데 白馬寺라 하였다. 관서寺는 궁전과 같이 평탄지에 남면하는 방형구획지 안에 좌우 균정하게 건물을 배치하였다. 漢 대 平原城의 3~5층의 고층 전망 망루를 모방한 고층 목조 건물을 개조하여 불탑이 금당 남면에 세워졌다. 이러한 형식이 중국에 정착되었다. 이는 주로 평지 사원에 적용되었다.<sup>17)</sup> 한편 석굴 사원은 실크로드 상에 전파되어 각지에 석굴 사원 군이 이루어졌다. 중국에서는 북위에서 조영한 운강석굴 군과 천도한 북위와 당대에 주로 경영한 용문석굴 군이 유명하지만, 대부분 사원은 관서 형식의 평지 남면이었다.

당대에 새롭게 유행한 선종에서는 불전을 세우지 않고 오직 법당만 세우는 건축 원칙이 유행하였다. 산문이 추가되고 집단생활에 필요한 고원[주방], 승당, 욕실, 동사[화장실] 등이 중심이었다가 여기에 남송대에 불전이 더해지면서 선종 7당가람이라 불렀다. 교종에서는 탑, 금당, 강당, 종루, 장경루, 승방, 식당 등을 칠당이라 하였다. 선종에서는 법당이 중요시되었고, 교종에서는 금당이 중시되었다. 곧 선종에서는 수행을, 교종에서는 종교성을 우선시한 것으로 보았다.<sup>18)</sup>

고구려에는 1탑 3금당의 회탑식이 주로 확인되고, 백제에서는 1탑 1금당이, 고신라에서는 1탑 3금당의 병렬식이 유행하였다. 통일신라시기에는 쌍탑식이 유행하였다. 금당과 탑을 둘러싸는 회랑은 ‘열반적정’의 ‘무생’의 佛地 공간과 승의 생활공간인 僧地 공간의 경계를 나타내는 시설로 여러 진단의식구 매장을 통한 結界를 갖춘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세속인과 관련한 俗地 등 3분되는 공간 배치가 經典儀範에 따라 조영되었다는 사원 공간 특성을 고찰하였다.<sup>19)</sup>

고려시기에는 태조의 통일과정에서 불교의 권위를 빌려 왕실의 신성함과 사회 시설 등을 보완해 갔다. 사원 공간 구성에 여러 시설이 부속되면서 사원의 성격과 위상이 높아졌다. 먼저 왕실의 국왕과 왕비의 초상화를 모시고 조상숭배하는 眞殿 시설이 들어서면 진전사원을 들 수 있다.

15) 대·소승의 사원 형태의 분리는 대승불교 출현 이후 수 세기 지난 4세기 이후에 가능하다는 견해가 『근본설 일체유부율』을 분석하여 제기되었다(그레고리 쇼펜 저·오다니 노부치요 일역·임은정 한역, 『대승불교 흥기시대 인도의 사원 생활』, 운주사, 2021).

16) 石田茂作 監修, 『新版 佛教考古學講座』第2卷 寺院, 雄山閣, 1975.

17) 김봉렬, 『한국미의 재발견 불교건축』, 솔, 2005.

18) 윤창화, 『당송시대 선종사원의 생활과 철학』, 민족사, 2017, pp.224~258.

19) 최태선, 『신라고려전기 가람의 조영 연구-경전의범과 공간조성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광종대 태조의 진전을 둔 奉恩寺와 광종 모후의 진전을 둔 佛日寺, 광종의 鄉里인 충주의 모후 진전이 있는 崇善寺, 혜종의 소상이 모셔진 향리인 나주의 사원 등에서 비롯하였다. 고려 전기 새로운 국왕이 즉위하면 자신의 진전사원을 만드는 관행이 예종대까지 이어졌다.<sup>20)</sup>

진전에는 진전직, 산직장상이 배치되는 등 이를 지키는 관리, 경호 인력을 배치하고 그들의 머물 시설이 딸린 공간 구획이 상정된다. 현화사의 서북쪽에 현종의 부 安宗의 진전을 둔 구획이 있었다는 비문 기록으로 미루어<sup>21)</sup> 진전은 경계 담장을 두른 공간에 진전을 건립하고 그 공간으로 들어가는 三門을 두고 경비 인력이 상주하는 공간도 인근에 두었을 것으로 보인다. 안화사에는 서쪽에 齋宮이 있는데 왕이 그 절에 오면 심방문부터 그 위로 나아가는데 앞문은 凝祥, 북문은 嚮福이며 가운데는 仁壽殿이고 뒤는 齊雲閣이라 하였다.<sup>22)</sup> 이는 곧 예종의 진전으로 추정되며 문이 있고 경계 담장이 있는 진전 구역으로 보인다.

광종은 태조 추모숭배를 위한 진전을 지방 사원에 다수 건립하였다. 알려진 문헌과 유적은 연산 개태사의 태조진전,<sup>23)</sup> 영유현 봉진사 태조영전, 죽주 봉업사 태조진전, 가은현 양산사 태조진전 등이 확인된다. 그 외에도 기주, 천안군의 사원에도 태조진이 있었다고 추측된다. 개태사, 봉업사, 양산사 등의 태조진전이 있었다고 짐작되는 유적은 잘 정면한 석재로 장대하게 쌓은 석축이 남아 있다. 사원지의 금당과 탑과는 구획을 달리한 격을 높인 진전이 설치된 것으로 짐작된다. 고려초 태조의 후삼국 정패전의 중요지역에 태조의 진을 설치함으로써 다시 있을지 모르는 반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고려 왕조의 굳건한 성립을 그 지역 민에 알리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한 대의 郡國廟와 당 태종이 격전지의 공적비를 사원에 세운 사례에서 비롯한 것으로 짐작된다.<sup>24)</sup>

국가에서 왕의 행궁이나 교통 보완 시설을 사원에 두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현종은 현화사를 창건하기 전에 흥경사를 창건하고 서쪽 한 구역에 客館 한 구역 80간을 두고 廣緣通化院이라 이름하였다.<sup>25)</sup> 숙박, 음식, 말의 꼴, 도적 방비 고루 등의 시설을 두었다. 현종은 『법화경』의 중도화성 실현자로서 부를 추모하기 위해 창사 동기를 밝혔다. 현종은 父 안종을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추송하여 현화사 진전에 모시기 위하여 그 첫 시도로 흥경사를 창건하고 광연통화원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왕실에서 역이 설치되지 않아 교통이 불안한 지역에 사원의 별원으로 설치하여 그 추송의 의미를 알리고자 하였다고 생각된다. 원은 사에 속한 일정 구역에 특별한 기능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공간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김부식이 쓴 「혜음사신창기」에 따르면 예종이 측근 신하 소천과 묘향산사 주지 혜관으로 하여금 봉성현 남쪽 20리 작은 절이 폐한지 오래되었는데 향인들이 ‘석사동’이라 하고 동남의 백군에서 경도로 오는 길목인데 호랑과 구적의 피해가 있어서 그 해를 제거하고 사람들을 편안케 사원을 복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별원’ 한 구역도 조영하였는데 불만하다고 하였다.<sup>26)</sup> 이곳이 바로

20) 허홍식, 「불교와 융합된 왕실의 조상숭배」, 『고려불교사연구』, 일조각, 1986.

21) 「현화사비」, 『한국금석전문』, p.449, “仍命於寺內西北地 別開眞殿一座 安置我皇安宗憲景英文孝懿大王 皇妣孝肅仁惠順聖大王太后 并皇姉成穆長公主 元貞王后眞影 以奉良緣 冀伸如在 必資佛天之福善 亦承靈鑒之儲祥”.

22) 『고려도경』 권17 사우 정국안화사, “其西有齋宮 王至其寺 則自尋芳門 過其位 前門曰凝祥 北門曰嚮福 中爲仁壽殿 後爲齊雲閣”.

23) 종래 보고서에서 개태사 1,2구역은 불전영역으로 보았으나, 불상이 있는 곳이 불전 영역이고 이 구역은 태조진전영역이 분명하다고 하였다(오세덕, 「고려 태조 왕건 사찰의 가람배치와 건축특징」, 『문화사학』 58, 2022).

24) 한기문, 「고려시대 개경 봉은사의 창건과 태조진전」, 『한국사학보』 33, 2008.

25) 「흥경사갈」, 『한국금석전문』, p.471, “又於寺西 對立客館一區 計八十間 号曰廣緣通化院 斯亦溫廬冬密 涼屋夏寬 積以糗糧貯之 芻秣施賙窮急 設雍伯之義漿 防備盜奸 列陳留之鼓樓”.

‘혜음원’ 기와 명문이 나온 행궁으로 생각된다. 예종 대 창사를 시작하였지만, 완공은 인종 대에 하고 혜음사로 사액하였다. 혜음사에 ‘혜음원’이 別院으로 존재하여 行宮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인종이 남경 순행을 위한 시설로 보인다.

종단 사원의 신앙과 계율, 출판, 고승 추모와 관련한 시설이 있는 별원을 살펴본다. 각 종단에서 주존불을 모신 금당의 경우 선종 사원에는 비로자나불이 주존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선사들이 처음 『화엄경』을 공부한 후 선종으로 전향한 예가 많았으며, 『화엄경』의 사상이 선사상과 같이 여래성이 일어난다는 뜻의 性起思想이기 때문이다. “일체중생은 모두 다 여래의 지혜덕상을 갖추고 있다. 다만 망상집착이 있으므로 깨달아 얻지 못한다”라는 이 경전의 구절에서 알 수 있다고 한다.<sup>27)</sup>

선종의 개경 본거라 할 수 있는 普濟寺에는 금당이 있고 나한전이 있는데<sup>28)</sup> 나한보전이 정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sup>29)</sup> 한다. 「최사위묘지명」과 『고려도경』의 기술에 차이가 있다. 전자는 2개 소 건물을 말하고, 후자는 하나의 건물에 주존과 나한이 함께 있는데 방명을 ‘나한보전’이라 하여 1개 소 건물을 언급한 것 같다. 전자의 기록을 신빙하면 아마도 금당에는 비로자나불이, 나한전에는 금선, 문수, 보현 3상과 옆에 오백나한 등이 봉안되었는 것 같다.<sup>30)</sup> 같은 선종 사원인 안화선원은 『고려도경』에 따르면, 무량수전, 능인전, 미타전 등 3 영역이 있는데 능인전이 휘종의 어서로 된 것으로<sup>31)</sup> 보아 중심 전각인 것 같다. 능인은 석가불을 의미하므로 석가불이 주존으로 추정된다.

화엄종은 노사나불이나 비로자나불이 주존이 되었는데 노사나불은 60권 『화엄경』에서, 비로자나불은 80권 『화엄경』에서 강조하는 존상이다. 신라에서 경남 산청군 석남암에서 석조비로자나불상이 766년(혜공 2)에 조성되었다는 명문이 발견되었다.<sup>32)</sup> 그런데 부석사의 경우에는 무량수전이 금당으로 보쳐 없이 아미타여래만 있을 뿐이었다. 1054년(문종 8)에 건립된 「원용국사비」에 따르면 一乘 논리에 의해 像殿에 아미타상만 있고 보쳐 보살상을 두지 않으며 影塔 또한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sup>33)</sup> 그런데 원효의 사상을 공감한 의천의 사상을 이은 화엄종승 戒膺의 문도가 창사한 龍壽寺의 장엄에는 관세음보살상이 감실에 변당으로 장식하여 모셔진 사실을 알 수 있다.<sup>34)</sup> 적어도 주 존상을 알 수 없으나 부석사와는 달리 아미타 독존상은 아닌 것은 알 수 있다. 문종대에 창사된 화엄종 본거라 할 수 있는 흥왕사의 3층 대전 금당의<sup>35)</sup> 주존은 알 수 없지만, 慈氏殿

26) 「혜음사신창기」, 『동문선』 권64, “峯城縣南二十許里 有一小寺 弛廢已久 而鄉人猶稱其地爲石寺洞 自東南百郡趣京都 與夫自上流而下者 無不取道於此…又謂若乘輿南巡 則不可知其不一幸而駐蹕於此 宜其有以待之 遂營別院一區 此亦嘉麗可觀 至今上卽位 賜額爲惠陰寺”.

27) 이기영, 『불전해설』, 한국불교연구원, 1978, pp.92~101.

28) 「최사위묘지명」, 『고려묘지명집성』(김용선편,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3, p.26, “創立修營寺舍宮室者 一十五所也 普濟寺金堂及羅漢殿”.

29) 『고려도경』 권17 사우 광통보제사, “正殿極雄壯 過於王居 榜曰羅漢寶殿 中置金仙文殊普賢三像 旁列羅漢五百驅儀相高古 又圖其像於兩廡焉”.

30) 『고려사』 권54 지8 오행2 신우 7년 4월 임오, “演福寺金堂”. 연복사는 고려말에 보제사를 바꿔 부른 것이다.

31) 『고려도경』 권17 사우 정국안화사, “…中建無量壽殿…其後有殿 曰能仁殿…院後有殿 曰彌陀…”.

32) 「영태이년명 비로자나불 조상기」,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3,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pp.316~318.

33) 「부석사원용국사비」, 『한국금석전문』, p.483, “是寺也 義相師遊方西華 傳炷智嚴 後還而所創也 像殿內 唯阿彌陀佛像 無補處 亦不立影塔 弟子問之 相師曰 師智嚴云 一乘阿彌陀無入涅槃 以十方淨土爲體 無生滅相故 華嚴經入法界品云 或見阿彌陀 觀世音菩薩灌頂授記者 充諸法界補處 補闕也 佛不涅槃 無有關時故 □□補處 不立影塔 此一乘深旨也”.

34) 한기문, 「용수사 개창비와 화엄종의 동향」, 『고려 불교 금석문 연구』, 경북대학교출판부, 2023.

35) 『고려사』 권55 지9 오행3 인종 4년 4월 경자, “興王寺三層殿 主佛頭 無故自落”.

을 건립하고<sup>36)</sup> 미륵을 모셨다. 흥왕사에는 복합 금당이 병존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지 조사에서 동원과 서원, 그리고 중원으로 나누어진다고<sup>37)</sup> 보고하였다.

유가종에서는 신라시기부터 주존상이 미륵상이고 강당에 아미타상이 모셔진 설화가 전하고 있다.<sup>38)</sup> 같은 유가종이라도 진표계는 점찰법과 참회를 행하면서 미륵신앙과 지장보살을 신앙하고 지방사회에 전파하였다. 태현계는 유식 교학을 바탕으로 미륵과 아미타 정토를 신앙하면서 경주에서 활동하였다. 두 계통은 미륵과 지장, 미륵과 아미타 등 造佛 방식이 달랐다.<sup>39)</sup> 따라서 미륵은 주존이고 또 다른 불전을 조성하여 아미타상이나 지장상을 모셨을 것으로 짐작된다. 복합 금당이 별원으로 존재했을 것 같다. 현화사에는 동·서 양원이 있었다. 각기 다른 불상이 안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유가종 소현은 금산사의 속원인 광교원 내의 금당에 노사나불을 조성하고 현장과 규기의 상도 함께 모셨다고 한다. 그렇다면 금산사의 금당에는 미륵상, 별전에는 지장상, 그리고 광교원에는 노사나 등 세 곳의 별원 불전이 존재한 셈이다.

유가종 법천사에도 금당에는 미륵상이 모셔졌을 것이다. 그런데 법천사지 매장 문화유산으로 발굴된 광명대의 명문에 “무자년에 법천사의 아미타불 앞에 광명대 22개를 바쳤다”라 하였다.<sup>40)</sup> 아미타전이 법천사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유가종 사찰에는 미륵전이 금당 주존인데 아미타전이 불지 공간에 따로 조성된 것이면 복합 금당이 존재한 셈이며 법천사는 태현계의 유가종 사원으로 생각된다.

천태종은 천태육산 곧 거둔, 신평, 영암, 지곡, 고달, 선봉사 등의 근본 사원인 국청사를 중건하면서 석가여래와 두 보살상을 조성하고 만금으로 장식하였다고 하였다.<sup>41)</sup> 천태종 사원에는 두 보처보살을 둔 석가상이 주존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천태종승 천책은 아미타신앙을 강조하고 있어<sup>42)</sup> 천태종 사원에도 별원에 아미타전을 두었을 가능성이 크다.

사원에는 종파와 관계없이 대장경과 교장을 보관하는 시설이 있었다. 신라시기부터 사원에 ‘經樓’ 혹은 ‘古藏’으로 표현된 불교전적 보관 건물이 오랜 전통을 유지한 사찰에는 있었다. 고려 초부터 대장경을 송과 거란에서 수입하여 선종 대에는 초조대장경판이 완성되어 각 사원에 대장경을 인성하여 비치할 수 있게 되었고 궁성의 회경전에서 장경도량이 국행으로 성립되었으며, 송에서 전장의례가 도입되어 대장경에 대한 신앙체계가 성립되었다. 대장경을 인성하여 비치하는 데는 많은 재력과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준비하는 시주를 받기 위해 轉藏儀禮를 통한 대장경 신앙체계가 성립되었다.

전장은 경전을 輪藏에 비치하고 이를 돌림으로써 경전을 읽게 되었다는 공덕을 쌓는 의례 방식이다. 이는 경전을 읽고 이해하기 어려운 대중을 위해 창안된 신앙 방식으로 보인다. 이 윤장을 兩輪 혹은 輪臺藏 등으로도 표현하였다. 윤장과 인성 대장경을 비치하는 건물을 大藏堂 혹은 藏經閣, 經藏, 海藏之堂, 大藏殿 등으로 표현하였다. 개인 발원으로 불대장 오천권을 인성하여 비치하는 ‘別殿’을 창성하는 天神寺 사례도 보인다.<sup>43)</sup> 崇敎寺 ‘經院’은<sup>44)</sup> 대장당을 갖춘 별원 형태임을

36) 『고려사』 권8 세가 문종 24년 2월 병인, “幸興王寺 以新創慈氏殿 設慶成大會 經宿而還”.

37) 황수영, 「고려 흥왕사지의 조사」, 『백성옥송수기념불교학논문집』, 1957.

38) 『삼국유사』 권3 탑상4 남백월이성 노힐부득 달달박박.

39) 문명대, 「신라 법상종의 성립문제와 그 미술(하)」, 『역사학보』 63, 1974.

40) 무자명 청동 불교공예품의 제작시기에 대해서는 이용진(「법천사지 출토 무자명 불교공예품 연구」, 『불교미술』 23, 2012)은 1168년(의종22)을, 한기문(「경북대학교 박물관 소장 광명대 명문」, 『고려 불교 금석문 연구』, 경북대학교출판부, 2023)은 1228년(고종 15)을 제시하였다.

41) 「국청사금당주불석가사리영이기」, 『동문선』 권68.

42) 허홍식, 『진정국사와 호산록』, 민족사, 1995.

말해준다.

초조대장경 조조를 주도한 현화사와 흥왕사에는 대장전이 있었고 각기 반야경보, 교장보 등 재단이 있었다. 그런데 이 대장당은 사원의 어느 공간에 건립되었는지 잘 알 수 없다. 신라시기 금당 남면에 탑의 좌, 우에 經樓를 둔 예에 비추어 금당 앞의 공간에 대장당이 성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규모는 신륵사 대장각의 경우 2층 건물에 비로자나, 문수, 보현의 삼존상을 봉안하였다.<sup>45)</sup> 불상이 봉안된 것으로 보아 하나의 구획에 건물과 부수 시설 및 장엄이 더해진 별원의 형태로 생각된다.

고려 후기 민지가 쓴 「고려국대장이안기」에 따르면 “대장을 인성한 것으로 遼本, 宋本, 鄉本이 있는데 향본은 현재 유행하는 판이기 때문에 내외의 이름난 절에 있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sup>46)</sup> 하였다. 유명 절에는 재조대장경 인본을 비치하였다는 것인데 그 규모로 보아 대장당 건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대장경의 풀이인 각종 장소류의 출판에 위한 시설이 있는 원이 사원에 마련되었다. 구체적 사례로는 소현이 금산사 남쪽 60보쯤 일원을 창설하고 액호를 ‘광고’라 하고 筆刻으로 경판을 彫造하여 원에 두고 원중에 金堂一所를 조성하여 노사나불과 熒·基 二師像을 그려 그 당에 함께 하였다. 1083년부터 그의 말년까지 窺基의 장소 32부 353권을 수집 고정하고 工人을 모집하여 개판하고 사재로 紙墨을 갖추어 印施하여 유통하였다.<sup>47)</sup> 이로 보면 광고원은 하나의 구획지에 금당과 출판에 위한 시설 등이 갖추어진 금산사 별원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소현은 현화사에 주석하면서 석가여래, 장·기이사, 해동육조상 모두 1탱을 그려 그 절에 봉안하였다.<sup>48)</sup> 유가종의 역대 고승의 계통을 세우고는 이를 어떤 당에 모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일종의 유가종 ‘祖師堂’이 마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현화사의 많은 별원 중의 하나일 수 있다.

의천은 흥왕사에 교장사를 설치하고 송과 요, 국내에서 수집한 장소를 간행하였다. 『원종문류』 간기에 흥왕사 흥교원 소속 義學僧 5인이 보이므로, 교장사 설치와 교장 간행은 흥교원일 가능성이 크다. 흥교원도 금산사 광고원처럼 흥왕사의 별원으로 생각되는데 흥왕사의 어디에 창설된 것인지 알 수 없다. 의천은 소현이 현화사에 해동육조상을 모신 것처럼 흥원사에 화엄 九祖堂을 설치 완공하였다.<sup>49)</sup> 흥원사의 별원에 구조당 건물이 들어섰을 것으로 짐작된다.

사원에는 특별한 의례를 위한 단석이 있었다. 그 구체적 사례는 神印宗 사원에 문두루도량소의 설치·운영한 예이다. 신라 통일기 四天王寺에 문두루도량을 설치하여 당병을 물리쳤다는 사례가 일연의 『삼국유사』에 전한다. 바다로 침범하는 당병을 물리치기 위해 채백으로 절을 임시로 꾸미

43) 한기문, 「고려시대 사원 전장의례의 성립과 성격」, 『한국중세사연구』 35, 2013.

44) 「박속묘지명」, 『고려묘지명집성』, p.153, “薨于崇教寺經院”.

45) 「신륵사대장각기」, 『한국금석전문』, p.1216, “遂於寺之南 起閣二層…中置花山毗盧遮那一軀…普賢一軀…文殊一軀 以起四衆瞻禮之敬焉”.

46) 「高麗國大藏移安記」(허홍식, 『高麗佛教史研究』, 一潮閣 1986, p.708), “印成者有遼本宋本鄉本 鄉本則現有流行之板 故內外名刹 靡不有焉”.

47) 「금산사혜덕왕사비」, 『한국금석전문』, p.544, “師曾於金山寺 選勝于寺之南 走六十許步地 創設一院 額號廣教 仍筆刻經板 置于院 院之中 別造金堂一所 并繪畫盧舍那及獎基二師像其堂 自太康九年 至師之末年 搜訪慈恩所撰 法華玄贊 唯識述記等 章疏三十二部 共計三百五十三卷 考正其本 募工開板 私具紙墨 印布流通 以廣法施也”.

48) 「금산사혜덕왕사비」, 『한국금석전문』, p.545, “師居玄化寺時…募得虎頭名手 畫成釋迦如來及獎基二師 海東六祖像 都一幀 各安于其寺”.

49) 「영통사대각국사비」, 『한국금석전문』, pp.579~580, “辛巳春二月 上以洪圓寺九祖堂成 請師重修而落之 前世爲祖譜不一 今以馬鳴龍樹天親佛陀光統帝心雲華賢首清涼爲九祖 師所定也”.

고 풀로 오방신상을 만들어 유가명승 20인으로 하여금 명랑을 우두머리로 문두루비법을 지으니 당병과 신라병이 교전하기 전에 풍랑이 사납게 일어나 당선이 모두 침몰하였다. 그 후 절을 고쳐 짓고 사천왕사라 하고 지금까지 단석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였다.<sup>50)</sup> 이러한 의례의 내용은 『관정경』에 근거한 것임과 사천왕사지의 금당지 북쪽에 여러 석재에서 그 의례 壇石으로 추측한 바 있다.<sup>51)</sup>

고려 태조는 개경에 신인종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었는데 現聖寺이다. 현성사에는 문두루도량을 열고 국왕이 친행한 사례가 『고려사』에 전한다. 그런데 이 신인종 계열 사원은 동경에 사천왕사, 돌백사, 갑산사, 덕방원 등이 있고, 서경에 흥복사, 영명사, 장경사, 금강사 등이 있으며, 동계의 진정사가 있었다.<sup>52)</sup> 이 사원에는 무두루도량을 설할 수 있는 단석이 사원 내에 특정 구역에 별도로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普濟寺의 오백나한재, 妙通寺의 마리치천도량, 毘沙門寺의 사천왕도량 등 ‘고려정행법석사원’에는 단석이나 불전이 있는 별원이 존재했다고 생각된다.

고려 전기에는 출가한 승려가 구족계를 받는 의례를 특정 사원에서 시행하였다. 구족계를 수계한 이후 승려 생활의 나이가 계산되어 일대기인 비명에 기록한 것으로 보아 본격적 승려 생활은 구족계 수계 이후인 셈이다. 구족계를 수계한 특정 사원에는 戒場이나 戒壇이 있는 구역이 마련되고 구족계 수계 의례는 律師가 진행하였다. 그 사례는 이미 신라시기부터 시행된 사례가 보이는바, 慈藏에 의해 독자적 계단 설립이 通度寺에 있었고, 眞表도 金山寺에 매년 단을 열고 있었다. 강주 엄천사, 전주 금산사·화엄사, 무주 영신사, 한주 장의사·장곡사, 웅주 보원사, 삭주 법천사, 양주 통도사, 명주 복천사, 금성 영묘사, 상주 심묘사 등으로 추측된다. 이 중 엄천사, 화엄사, 복천사 등은 ‘官壇’이라 명시하였다. 9주에 망라되어 국통과 주통, 그리고 계단 사원에 있는 율사 등이 관리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계단이 설치된 구역은 별원으로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罔運은 ‘가야’에 나아가 도를 묻기 위해 善融 화상에게 예를 올리고 스승으로 하여 삭발하고 874년 당산 ‘修道院’ 곧 가야산의 수도원에서 구족계를 받았다.<sup>53)</sup> 수도원은 곧 계단이 설치된 가야산사의 별원 수도원을 의미한다. 898년 玄暲은 가야산사에서 구족계를 받은 사실로<sup>54)</sup> 보아 罔운과 현훈이 수계한 계단은 같았다고 생각한다.

고려에서는 수계 사례를 통해 계단이 설치된 사원은 11개 소가 검출된다. 그중 개경의 흥국사·영통사·복흥사·용흥사 등은 관단이라 명시되어 있다. 개경에는 개국사, 승법사, 불일사도 있었다. 지방 사원의 예는 보원사, 동화사, 금산사 등이 보인다. 정종대에는 계단에서 수계뿐만 아니라 경을 시험하도록 법제화하였다. 개경 불일사에는 관인 자제의 출가 후 구족계 수계 사례가 8번 보인다. 신라말 9주에 설치된 계단 사원은 고려에도 그대로 수계 기능을 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55)</sup>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석초는 912년 출생하고 918년 출가하고 928년 法泉寺 계단에 나아가 賢眷律師로부터 구족계를 수계 하였다.<sup>56)</sup> 고려의 성립 후에 법천사는 계단

50) 『삼국유사』 권2 기이2 문호왕법민.

51) 장충식, 「신라 낭산유적의 제문제(1)-사천왕사지를 중심으로」, 『신라와 낭산,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 17, 1996.

52) 한기문, 「고려시대 개경 현성사의 창건과 신인종」, 『역사교육논집』 26, 2001.

53) 「비로암진공대사비」, 『한국금석전문』, p.297, “所以問道迦耶…禮善融和尚…咸通十五年 受具足戒於當山修道院”.

54) 「정토사법경대사비」, 『한국금석전문』, p.321, “乾寧五年 受具於伽伽山寺”.

55) 한기문, 「고려전기 수계와 계단」, 『고려사원의 구조와 기능』, 민족사, 1998.

56) 「지곡사진관선사비」, 『한국금석전문』, pp.424~425.

사원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흥국사나 금산사의 계단은 방등 계단으로 출가자뿐만 아니라 일반에도 개방된 보살계 수계도 하였다. 그런데 고려후기에는 체발과 함께 구족계 수계가 있고 계단 사원이 명시되지 않는다. 開國寺는 임진년[1232년]에 불탄 후 중수하지 못하여 계단은 빈터가 되었다고 하였다.<sup>57)</sup> 등단 수계제도가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계단 사원에는 특정한 곳에 계장, 계단을 만들고 올라가 머물 수 있는 건물도 있는 등 신라말 가야산사의 '수도원'과 같이 별원의 형태로 존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불일사와 금산사 등에서 계단은 실물로 확인된다. 불일사지 서쪽 구역 앞쪽 75m 거리에 40×32m 방형 평면으로 주위에 담장을 두른 별도구역이 있는데 이곳의 중앙에 방형의 사리단이 있다.<sup>58)</sup> 불일사 계단이 별원으로 존재한 것을 알 수 있다.

통일 신라시기부터 국사제도가 성립되었고 신라말에는 국사로 선승들이 거의 책봉되었다. 고려에는 국사에 이어 왕사제도가 마련되었다.<sup>59)</sup> 신라시기 국사로 책봉되어 입적한 경우 승탑과 탑비명, 영당을 건립하여 추모하였다. 이는 국사의 사상과 문도, 그리고 그 지역 사회의 후원자들에게서도 지지를 얻는 국왕의 불교정책의 하나였다.

8세기 후반에 산지 사원이 들어서고 9세기 초, 선 수행과 '祖師'를 중시하는 선종이 유행하면서 조사 추모에 따른 승탑과 탑비, 영당 등은 선종 사원의 특징이 되었다.<sup>60)</sup> 이는 선승의 추모 순례지가 되었다. 872년 「대안사 적인선사비」 건립 이후 선종 고승의 장송의례로서 승탑, 비명이 건립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시호, 탑호가 내려지고 비문이 작성되고 비석이 건립되었다. 시호, 탑호는 선승의 시적 그해에 내려졌지만, 비문 작성과 건립은 수년이 걸렸다. 문도의 행장 작성과 국왕의 조서를 받아 비문을 작성하는 과정이 수년 이상 경과 되었다. 그동안 문도와 지역 후원 세력 등과 조정의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비문의 작성은 신라말 성립된 국왕 직속의 문한기구가 확장되면서 그 소속 문한관들이 작성하여 국왕의 선승우대에 대한 정치적 의도와 문도의 요구가 반영되었다. 대안사, 보림사, 쌍계사, 성주사, 월광사, 심원사, 봉암사, 봉림사 등 10개소의 탑비명이 현존한다. 여러 기록에서 추론하면 모두 20개소의 선승비가 있었던 것 같다.<sup>61)</sup>

승탑과 비명이 함께하면서 석축을 쌓아 '비전지'를 성립한 사례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선승의 전등 법계를 중시하는 경향은 影堂을 중요시설로 하였다. 성주사의 '七祖祠堂', 쌍계사의 '六朝影堂', 진전사의 '道義 眞影' 등의 사례가 있다. 국왕이 선승의 영정을 그려서 내려 주었는지 문도들이 자발적으로 그려 봉안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승탑, 비명, 영당 등을 별원 공간에 함께 조성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고려 태조는 신라 왕실의 선승 우대를 계승하여 7개의 탑비를 건립하였다. 광종대부터는 국사·왕사제도의 확립에 따라 국사·왕사의 하산지에 승탑, 비명 등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선사의 승방인 방장과 설법 공간인 법당이 중시되었다. 선종 사원의 공간 구조를 보여주는 고문서 「수선사형지안」, 「태안사형지안」 두 건을 비교 분석하여 상원공간을 실증하였다.<sup>62)</sup> 신라말~고려시기 금석

57) 「중수개국율사기」, 『동문선』 권69, “火于壬辰 莫爲重新 僧寮佛宇 無以風雨 戒壇墟矣 講肆蕪矣 日月以殞 幾至於無矣”.

58)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 문예출판사, 1996, p.218.

59) 허홍식, 「국사·왕사제도와 그 기능」, 『고려불교사연구』, 일조각, 1986.

60) 한기문, 「신라말 선종사원의 형성과 구조」, 『한국선학』 2, 2001.

61) 한기문, 「신라말 선승비문과 선종에 대한 당대인의 인식」, 『불교연구』 41, 2014.

62) 최연식, 「고려 사원형지안의 복원과 선종사원의 공간 구성 검토」, 『불교연구』 38, 2013.

문 자료와 사지 사례를 고고건축학적으로 분석하여 방장과 법당 공간을 '상원공간'으로 증명하여 선종 사원의 특성으로 이해하였다.<sup>63)</sup>

개경 선종 보제사와 안화사에는 법당이 있었다. 보제사에는 정전 뒤에 法堂이고 그 곁은 僧居인데 100명을 수용할 만하다고<sup>64)</sup> 하였다. 대구모 승방이 법당 옆에 있었다. 안화사에는 '善法'이라는 방명의 중문 뒤에 善法堂이 있다고 하며, 법당과 미타전 사이에 두 건물에 하나는 관음상, 다른 하나는 약사상을 봉안하고 동무는 조사상을 그려 봉안하고 서무에는 지장왕을 그려두고 나머지는 승도거실로 하여<sup>65)</sup> 법당에 연접하여 승도거실이 법당과 함께 별도 영역으로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금당과 탑, 강당의 구조에 상원공간이 더해지는 선종 사원이 나타났다. 당에서처럼 불전을 두지 않고 오직 법당만 두는 구조는 아니었다. 이는 우리나라 선종 사원의 특성으로 보였다. 그 배경은 선사들이 교종 사원에서 출가 후 선종으로 전향하였고, 왕실에서 선종이 기존 교종 사원을 점유해 가도록 지원한 때문이라 한다.<sup>66)</sup>

당의 4조 道信 때부터 시작된 집단 수행의 전통이 신라말에도 그대로 계승되어 선종 사원에는 승려들이 거주 공간이 확장되고 그 부속한 지원시설인 원주, 도유나, 전좌, 직세 등의 사원 업무 총괄 지원 조직과 직임이 있었다. 그리고 사원 건물과 시설이 있는 사역 범위를 넘어 농장과 토지를 포함한 경계를 설정한 예도 보인다. '長生標', '放生境界', '禁殺標' 구획 등의 사례는 이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설정된 광역의 사원 경계 내에 '별원', '암', '난야' 등 소규모 사찰이 들어서는 양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선종의 대유행에 대응한 교종의 종세 확장으로 기류가 바뀌었다. 유가종 세력의 지원으로 즉위한 현종대를 기점으로 유가종과 화엄종의 종세가 확장되었다. 그 지표는 국사·왕사의 책봉에서 읽을 수 있는데, 두 종파에서 집중·배출되었다. 승탑, 탑비 건립은 오직 선승 예우였는데 국사·왕사 제도의 성립에 따른 예우로 교종승 국사·왕사에게도 건립되었다. 대구모로 정면한 석축 위에 복건물지, 동·서건물지가 승탑과 탑비를 에워싼 형태로 조성되었다. 복건물지에 승탑 주인공인 고승 영정이 봉안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sup>67)</sup> 공양, 찬유, 탄문, 해린 등의 국사 장송례에 초상화가 만들어졌다.<sup>68)</sup> 이외의 국·왕사비에는 초상화 제작이 생략된 것인지 보이지 않는다. '탑원',<sup>69)</sup> '부도전지' 혹은 '비전지'라 한다. 이로써 下山所로서의 사원위상이 격상되었다. 고달사지, 법천사지, 삼천사지, 영통사지 등의 사례가 조사되었다.<sup>70)</sup> 영통사에 대각국사비가 건립된 추모 시설 일곽을 '敬先院'이라는 별원으로 1104년(숙종 9)에 시작하여 1113년(예종 8)에 완공한 것에 대해서는 「대각국사묘실급비명안립사적기」에서<sup>71)</sup> 알 수 있다.

63) 이승연, 「신라말~고려전기 선종사원의 상원영역 형성에 관한 연구-법당출현과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한국의 선종사원과 회암사가람」, 『한국중세사연구』 75, 2023.

64) 『고려도경』 권17 사우 광통보제사, “後爲法堂 旁爲僧居 可容百人”.

65) 『고려도경』 권17 사우 정국안화사, “中門曰善法 後有善法堂…堂殿之間 有兩厦 其一 以奉觀音 又其一 以奉藥師 東廡 繪祖師像 西廡 繪地藏王 餘以爲僧徒居室”.

66) 최태선, 앞의 논문, 2016.

67) 조원창, 「법천사 부도전의 권역 성격과 축조기법 특성」, 『고려사지와 건축고고』, 서경문화사, 2016.

68) 공양 장송시에 眞影使를 보냈고(「봉암사정진대사비」, 『한국금석전문』, p.387), 찬유·탄문 장례에는 眞影一幀을 조성하였으며(「고달원원종대사비」, 『한국금석전문』, p.397; 「보원사법인국사비」, 『한국금석전문』, p.418), 해린은 입적 전에 국사의 邊幅[초상화]을 그렸다고 하였다(「법천사지광국사비」, 『한국금석전문』, p.524).

69) 황나영,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원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70) 기전문화재단연구원, 『고달사지Ⅱ』, 2007; 강원문화재단연구소, 『원주 법천사Ⅰ 제1구역 발굴조사보고서』, 2009; 서울역사박물관, 『북한산 삼천사지 발굴조사보고서』, 2011.

71) 「영통사대각국사비」, 『한국금석전문』, pp.583~584, “聖旨許立 國師碑靈通寺 至甲申年 經始敬先院…至癸巳年

또 문도 역시 대집단화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선종 사원과 교종 사원의 큰 차이는 점차 사라졌다고 생각된다. 교종 사원에도 講會가 많아졌고, 대규모 법회가 개경 중심사원에서 연례적으로 시행되었다. 교종 국·왕사 비문의 음기에 기재되는 문도수 역시 대규모로 나타났다.<sup>72)</sup> 이에 따라서 강회 공간이나 승려 거주시설 규모가 교종 사원에도 점차 확장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원은 세속과의 관계를 통해 법회를 통한 불교 이념과 국가 지배 이념을 전파하였다. 그 과정에서 신도를 확보하고 시납을 유치하는 한편 사회적 편의와 구호역할도 하였다. 이러한 관계에서 사원에 들어서는 시설을 정리한다.

사원의 교통편의 시설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sup>73)</sup> 「칠장사혜소국사비」에 따르면 1045년(정종 11) 삼각산 沙峴에 寺館을 개창하였는데 이곳은 호랑과 도적이 많지만, 갈림길의 요충이기도 하여 관을 지어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원의 이름은 弘濟로 하고 館은 棲仁이라 하였다.<sup>74)</sup> 비문의 결락 부분이 있어 명확한 해석은 어렵지만, 삼각산 사현 일대는 교통요지이나 험지여서 흥제원에 관(객관)을 지어 교통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였다는 것을 대략 알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한성부 역원조에 흥제원은 삼각산 사현 북쪽에 있다고 하였다. 흥제원은 어느 사의 별원 인지 아니면 소규모 사원을 지칭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유가종 정현의 주도로 교통과 관련한 원관을 개창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화엄종의 의천은 어떤 사람이 ‘永新 前路는 百郡에서 출입하는 바인데 옛날에 館院이 있었으나 무너져 없어졌다’라 고하자, 門人에게 새로 짓고 관의 이름은 指南, 원은 兼濟로 하도록 하였다. 예종 대에 土田이 내려졌다.<sup>75)</sup> 『고려사』 지리지에 따르면 영신은 水州 속현 영신현을 말하는 데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振威縣 고적조에 ‘영신폐현’으로 나온다. 진위현 형승에는 하륜은 ‘路通南北’, 서거정은 ‘處三道樞轄之地’라 기록하여 교통요충지로 알렸다. 지금은 경기도 평택 일대로 추정한다.<sup>76)</sup> 화엄종단에서도 유가종과 같이 원관을 중수하여 역의 기능을 보완하는 데 노력하였다.

이규보가 1196년에 쓴 남유시에 따르면, 상주에서 계림령 곧 대원령을 지날 때 ‘彌勒院’에서 숙박하면서 자신에게 주찬을 베풀고 위로한 스님에게 사례한 시가 있다.<sup>77)</sup> 그리고 이 일대를 발굴한 보고서에 따르면 1192년 작성 기와 명문에 ‘大院寺住持’라는 구절이 나온 것과 연관하면 대원사의 별원으로 숙박시설 미륵원이 있었다. 미륵리 안말 부락에 회랑처럼 긴 건물지가 온돌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곧 미륵원지로 추정된 그것이다.<sup>78)</sup> 주찬을 베풀 것으로 미루어 주방과 우물, 식자재 창고, 음식을 만드는 인력도 함께할 수 있는 시설이 정비되어 대원사와는 구획과 시설이

十一月日 敬先院成…斷作龜形 安置敬先院東閣”.

72) 한기문, 「고승비 음기의 문도 구성과 성격」, 『고려 불교 금석문 연구』, 경북대학교출판부, 2023.

73) 최연식은 여행객 숙박시설인 관 혹은 객관과 그에 따른 시설이 있는 사원을 ‘원관 사찰’로 개념화하였다. 11세기에 출현하여 13세기 이후 원간섭기 역로망의 권세가에 의한 수탈과 병행하여 소멸되어 갔으며 14세기 공민왕대 다시 정비되었으나 불사의 기능이 없는 예가 많아지면서 조선초 불사와는 무관한 원관이 다수 성립된 것으로 보았다(「고려시대 원관 사찰의 출현과 변천과정」, 『이화사학연구』 52, 2016). 김선·장기동은 죽령로의 단양 용부원리사지를 중심으로 원관 사찰의 구조와 성격을 고고미술사적 관점에서 밝혔다(「통일신라~고려시대 원관사찰 연구-단양 용부원리사지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 38, 2021). 필자는 위의 연구성과를 수용하여 대원사의 다양한 별원의 하나로서 원관이 성립되는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74) 「칠장사혜소국사비」, 『한국금석전문』, pp.490~491, “乙酉歲 開創三角山沙峴寺館 茲地也 虎狼所畜 賊寇頗多…實岐路之要衝…上適從願…乃令司天丞潘周寶相地…額院曰弘濟 館曰棲仁”.

75) 「영통사대각국사비」, 『한국금석전문』, p.581, “或告永新前路 是百郡之所出入 舊有館院而壞亡 卽指授門人 作新之名館曰指南 院曰兼濟 至睿考 錫以土田”.

76) 박종기, 『고려사 지리지 역주』,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6, pp.114~115.

77) 『동국이상국집』 권6 고을시, 十九日宿彌勒院.

78) 청주대학교박물관, 『증원 미륵리사지 5차 발굴보고서 대원사지 미륵대원지』, 1993.

별도인 별원이라 생각된다.

고려말 권근은 「견탄원루기」에서 원래 호계현 북쪽 견탄 가에 원이 있었으나 무너진 지 오래되어 지나는 사람이 쉬어 갈 곳이 없어서 화엄대사 眞公이 그 문도를 거느리고 와서 수년에 걸쳐 그의 무리와 나그네가 머물러 잘 곳을 마련하였는데 尊卑의 자리가 다르고 人畜의 처소가 다르게 하였으며, 그 남쪽에 누각 두어 간을 두어 쉬어 가고 구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에서 역을 두어 사명을 전달하고 원을 두어 商旅들의 혜택을 보게 하니,公私 분별과 上下의 분별이 분명한 일이라 하였다.<sup>79)</sup> 역에는 관리가 그 직제를 받들지만, 원에는 단지 발만 주어 사람을 모집하여 주인 노릇을 하게 하는데 잘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고 화엄대사 진공이 사람에게 이익되는 길과 다리를 수축하고 원관을 세운 공덕은 크다고 하였다. 전지를 지급하여 사람을 모으고 어떤 시설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이타심과 역량을 가진 것은 불교계밖에 사실상 없다고 생각된다.

권근은 불교계에서 무너진 원을 수축하고 여러 건물과 누각을 건립하여 그 기능을 되살렸으며 자신과 문도들이 거주하며 나그네의 원관 기능도 하여 사원과 교통 시설을 겸하여 驛의 공적 기능을 보완하였다고 하였다. 1196년 호계현까지 船遊한 이규보가 船中에서 숙박하며 龍源寺 스님을 맞이한 것을 보면,<sup>80)</sup> 견탄원은 무너지기 전에는 용원사의 별원으로서 원관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용원사는 후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전하는 烏井寺를 말하는 것은 아닌가 한다. 견탄원으로 추정되는 일대를 발굴한 보고서에는<sup>81)</sup> 불교 유물이 다수 출토되어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예는 보주 용문사의 원관인 頭川院의 운영에서도 볼 수 있다. 「중수용문사기」에는 조옹이 1170년 대선사가 되어 鳴鳳寺에 주지하면서 叢林[승과 예비고시 응시자 선발]을 열었음을 보아 총림 사원으로서 위상을 가지고 음죽현 黑石院, 경북산 大興寺, 보주 龍門寺, 보주 두천원 등을 수리하였다. 그런데 보주의 두천원은 곧 동남 땅 행인이 가고 돌아오는 요충 길에 있는데 그 건물이 낡고 무너져서 1179년(명종 9) 용문사의 주지를 맡은 조옹의 제자 資嚴이 재목과 기와를 갖추어 중수하고 해마다 여름과 겨울에 음식을 행인에 베풀었다고 하였다.<sup>82)</sup> 이로 보아 두천원은 용문사의 별원이었던 것이다. 시내 가에 있다는 의미의 ‘두천원’ 원명과 동남 땅 요충지에 있다는 것으로 보아 현재 예천 읍내 천변의 개심사 석탑이 있는 일대를 말하는 것은 아닐까 한다.

자비령의 羅漢堂,<sup>83)</sup> 금강산 서북 고개의 都山寺,<sup>84)</sup> 대동가 가의 永明寺, 임진강 가의 課橋院[慈濟寺로 사액],<sup>85)</sup> 임진의 普通院,<sup>86)</sup> 벽란강 가의 普達院,<sup>87)</sup> 남한강 가의 神勒寺, 法泉寺, 낙동강

79) 「견탄원루기」, 『양촌집』 권12, “灘之上舊有院 頽廢既久 行旅無所憩息 華嚴大師眞公嘗過于此 慨然欲起廢 卽率其徒誅茅畝舍 且以待行旅 善誘諸人 集其財力 伐材植瓦 以事經營 豎屋幾間 以爲從旅止宿之所 尊卑異位 人畜異處 又於其南 起樓幾間 使行者又息 觀者又登 勞者得休 熱者得涼 不數年間 其功訖成 又與其徒鑿去狼石 鏟平傾坳 以脩串岬之道 狹經危棧 一皆坦夷 行者自是如履平地 徒不足踟 騎不魂慄 無復有危墮之患 師之用心 可謂勤矣 其利於人 可謂弘矣…國家置驛以傳使命 置院以惠商旅 公私之辨 上下之分明矣 然驛各有吏 以供厥職 若院則只給田以募人爲主耳 故雖在平原沃壤之中 院有舊址 而無人爲主者往往皆是 況於深山巉薄之地乎…吾友嘗聞浮屠之法 凡有利益於物者 靡所不爲 故修道梁作院館 皆其中之一事”.

80) 『동국이상국집』 권6 고을시, 八月七日 過洛東江…泊水灘 江上有龍源寺…因題二首.

81) 영남문화재연구원, 『국군체육부대 이전부지내 문경 견탄리 유적-전견탄원지』, 2014.

82) 「중수용문사기」 최근 판독문은 한기문, 『고려 불교 금석문 연구』, 경북대학교출판부, 2023, p.180 참조, “甫州頭川院 迺東南地行人往返要途 屋宇頽廢 鞠爲茂草 於己亥年 與龍門大師資嚴 備材瓦重修 每於冬夏設施作”.

83) 「자비령나한당기」, 『목은문고』 권3.

84) 「창치금강산도산사기」, 『가정집』 권3.

85) 『고려사』 권6 세가 정종 11년 2월 무자삭, “賜臨津課橋院 號曰慈濟寺 先是 津無船橋 行人爭渡多致陷沒 命有司作浮梁 自此 人馬如履平地”.

86) 『고려사』 권8 세가 문종 18년 4월 경인, “制自五月十五日至七月十五日 於臨津普通院 設粥水蔬菜 以施行旅”.

87) 『고려사』 권128 열전 반역 이의민, “至榮 以碧澗江普達院 爲願刹”.

가의 元興寺,<sup>88)</sup> 仁興社, 祇毘寺 등 고개와 수로 상에 있는 사원은 원관을 운영했을 가능성이 크다. 흑산도의 無心禪院, 진도 占察院, 완도의 法華寺, 태안 지령산 安波寺, 자연도 濟物寺의 濟物院 亭, 군산도 資福寺 등은 해로 상의 사원으로서<sup>89)</sup> 원관을 별원 형태로 경영했을 것으로 보인다.

별원 형태이되 객관 시설이 필수적으로 있으면 ‘관원’ 혹은 ‘원관’으로 불렸다. 흥경사 광연통 화원, 흥제원, 견탄원 등에는 각기 鼓樓, 樓閣이 있었다. 누각은 경관 감상, 휴식만이 아닌 호랑과 도적 침해에 대한 경계와 방어용인 것 같았다. 그리고 겨울과 여름에 음식을 베푸는 두천원의 예로 보아 원관에는 賑災場을 열기도 하였다.

대가람에는 다수의 별원이 속해 있었다.<sup>90)</sup> 예컨대 玄化寺에는 東西 兩院이 있고 각각 茶亭을 두었다.<sup>91)</sup> 上淸院,<sup>92)</sup> 安性院,<sup>93)</sup> 淸寧齋,<sup>94)</sup> 長興院,<sup>95)</sup> 奉天院<sup>96)</sup> 등의 별원 있었는데 청녕재 남쪽에는 丁字閣의 衆美亭<sup>97)</sup> 조성되었다. 佛日寺에는 龍日院, 普生院, 龍臺院 등이 있었다. 興王寺에는 사지 조사결과 동서 兩院으로 구성되어 있고, 感德院,<sup>98)</sup> 樂寂齋,<sup>99)</sup> 正覺院,<sup>100)</sup> 興教院,<sup>101)</sup> 薦福院, 弘教院, 無相院<sup>102)</sup>, 大施院,<sup>103)</sup> 등의 별원이 보인다. 龍興寺에 德賢院,<sup>104)</sup> 慈雲寺에 善積院,<sup>105)</sup> 佛恩寺에는 菩提院,<sup>106)</sup> 眞觀寺에는 道樹院이 있었고, 妙智寺에는 德海院이 있었다. 靈通寺에는 善炤院, 重閣院 등과<sup>107)</sup> 崇福院이<sup>108)</sup> 있었다. 개경 성동 沙川의 龍淵寺 남쪽에 延福亭이<sup>109)</sup> 있었다. 歸法寺에 普光院이<sup>110)</sup> 있었다. 崇教寺에도 別院이 있었는데 惠永이 1292년(충렬왕 18) 國尊으로 책봉된 곳이 여기였다.<sup>111)</sup> 金山寺의 별원 廣教院도 보인다.

불일사, 진관사, 묘지사 등의 별원과 흥왕사 흥교원은 『원종문류』 간기의 교정 의학승의 소속에서 찾을 수 있었다. 별원이 대가람 가까이 있었는지 원격지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금산사 광교원과 흥왕사 흥교원은 章疏를 출판하기 위한 별원임은 앞서 서술하였다. 흥왕사 천복원은 숙종비 明懿 태후 柳氏가 불도를 닦는 곳으로 지은 별원인데 의천이 모후를 위해 완성하였다.<sup>112)</sup>

88) 한기문, 「고려시기 선산 원흥사의 입지와 역할-‘元興寺’ 명문와의 발견-」, 『문화사학』 26, 2006.

89) 한기문, 「고려시대 해로 사원과 해양불교신앙」, 『역사교육논집』 79, 2022.

90) 이병희는 고려시기 ‘원’ 조성 사례를 정밀하게 검출하여 교통 기능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 위치, 기능 등을 검토하였다(「고려시기 원의 조성과 기능」, 『고려시기 사원경제 연구』, 경인문화사, 2009). 여기서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대사원의 별원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핀다.

91) 『고려사』 권18 세가 의종 13년 3월 을해, “幸玄化寺 東西兩院僧各設茶亭 迎駕競尙華侈”.

92) 「정각수좌의광묘지」, 『한국금석전문』, p.754.

93) 「증지수좌관오묘지」, 『한국금석전문』, p.759.

94) 『고려사』 권18 세가 의종 20년 4월 신축, “王宴于淸寧齋 則玄化寺東嶺新營別館也”.

95) 『고려사』 권18 세가의종 20년 6월 임오, “御玄化寺長興院”.

96) 「법천사지광국사비」, 『한국금석전문』, p.523.

97) 『고려사』 권18 세가 의종 21년 3월 신유, “先是 淸寧齋南麓 構丁字閣 扁曰衆美亭”.

98) 「흥원사광제승통총서묘지」, 『한국금석전문』, p.622.

99) 「흥원사초오승통교용묘지」, 『한국금석전문』, p.720.

100) 「영통사대각국사비」, 『한국금석전문』, p.584.

101) 「흥왕사중수흥교원낙성회기」, 『가정집』 권2.

102) 「영통사대각국사비」, 『한국금석전문』, p.584.

103) 『고려사』 권12 세가 예종 3년 9월 갑술, “幸南京 王太后率諸王公主 出次興王寺大施院”.

104) 「원항묘지명」, 『고려묘지명집성』, p.109.

105) 「최사추묘지명」, 『고려묘지명집성』, p.38, “關東慈雲寺善積院”.

106) 「최윤의묘지명」, 『고려묘지명집성』, p.199, “關南佛恩寺菩提院”.

107) 「영통사대각국사비」, 『한국금석전문』, p.584.

108) 『고려사』 권15 세가 인종 2년 6월 무신, “幸靈通寺 命有司 修葺崇福院”.

109) 『고려사』 권18 세가 의종 21년 6월 경오, “城東沙川龍淵寺南有石壁…構亭其側名延福”.

110) 『고려사』 권18 세가 의종 20년 11월 병오, “幸歸法寺普光院”.

111) 「동화사흥진국존비」, 『한국금석전문』, p.1079, “迎入崇教寺別院 二十二日 冊爲國尊”.

홍교원은 의종대에는 장소연구와 출판 기능에서 의종의 원자 탄생을 기원하는 원당으로 변화되면서 弘眞院으로 바뀌었다.<sup>113)</sup> 이외 대가람의 별원은 원관, 조사당, 장소연구, 개인 원당, 경관 감상, 고승 수행 등 여러 성격이 반영되어 성립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가람이 원격한 사원을 경제적으로 예측하여 ‘下院’으로 하였던 사례도 보인다. 화엄종 왕사 樂眞은 歸法寺를 燕息之所로 하였는데 法水寺를 香火之所로 한 바 있다.<sup>114)</sup> ‘향화’의 의미가 사원유지 재정의 의미가 있으므로 경제적 예측을 의미하며 이는 본사에 말사 격으로 편입됨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1309년(충선왕 1) 丁午를 國淸寺에 주석하게 하면서 五臺, 水岩, 槽淵, 安樂, 碼瑠 등 5사를 국청사의 하원으로 삼게 하였다가<sup>115)</sup> 되돌린 일이 있었다. 1315년(충숙왕 2) 정오는 국청사에 석가여래와 두 보살상을 조성하고 만금으로 장식하면서 ‘六山名德’ 3000여 명을 불러 경찬회를 열었다. 국청사는 ‘六山根本’이라 하였다.<sup>116)</sup> 국청사를 중심으로 천태종의 6개소 사원이 결속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육산은 곧 거둔, 신평, 영암, 지곡, 고달, 선봉 등의 6사를 말한다. 선봉사지 발견 1325년(충숙왕 12) 기와 명문 자료에는 ‘六分寺’라 하였다.<sup>117)</sup>

이상에서 사원에 별원의 형성 사례를 통해 그 의미와 구조, 성격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원은 사에 비해 작은 규모이며 ‘庭’이 있었다. 궁궐의 別宮처럼 제이의 궁궐, 離宮의 의미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사에 속한 ‘속원’이라는 뜻이지만 이 용어는 각종의 사례에는 보이지 않고 「영통사비」에 ‘別開一院’이라 한 것과 「혜음사신창기」에 ‘別院’이란 용어가 보이므로 이를 사용하는 것이 당대 용어로 적절할 것 같다.

별원의 구조는 하나의 구획된 경계를 가지며, 별원이 형성되는 계기와 성격에 따라 불전, 누각, 관, 계단, 진전, 비전, 대장당 등의 필요 단석과 건물, 그리고 庭과 같은 공간이 있었다. 별원은 사원 내에 위치하거나 사원과 일정 거리에 구획된 곳에 위치하는 예도 있었다. 원관 같은 경우는 교통 요지에 들어서는 것이 우선하므로 본사와는 상당히 떨어져 있기도 하였다. 때로는 본사의 경제적, 종파적 예측과 관련하여 ‘하원’이라는 용어로 위상이 낮은 사원을 의미하였다.

#### IV. 맺음말

고려시대 사원의 분포 체계와 내부 공간 구성을 이해하기 위해, 편제 양상과 별원의 형성과 성격을 살폈다. 요약하여 맺음말로 삼는다.

고려에서는 사원을 ‘비보지적’에 등재하여 국가 사원으로 파악하고 사원전을 분급한 만큼 사적 사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개경 사원과 각 행정단위의 자복사와 읍외 사원, 산수승처 사원 등으로 크게 분포 범주를 정할 수 있는데, 개경에 소재한 사원은 왕실의 조상숭배와 국가불교의례를 담당하였으며, 각 행정단위에도 고을의 복을 비거나 국가불교의례의 일부를 시행하였다. 산

112) 「영통사대각국사비」, 『한국금석전문』, p.581, “始師之幼 太后謂言 吾願於興王寺內 別開一院爲 若異日行道之所 伴來卜地 至後營構 號之薦福”.

113) 의종이 홍교원을 원자 탄생을 기원하는 곳으로 하여 금자 화엄경 2부를 안치하고 수리하면서 弘眞院으로 개역하였다(『고려사』 세가 권18 의종 10년 4월 갑오).

114) 「반야사원경왕사비」, 『한국금석전문』, p.570, “上以歸法寺爲師燕息之所 以法水寺爲師香火之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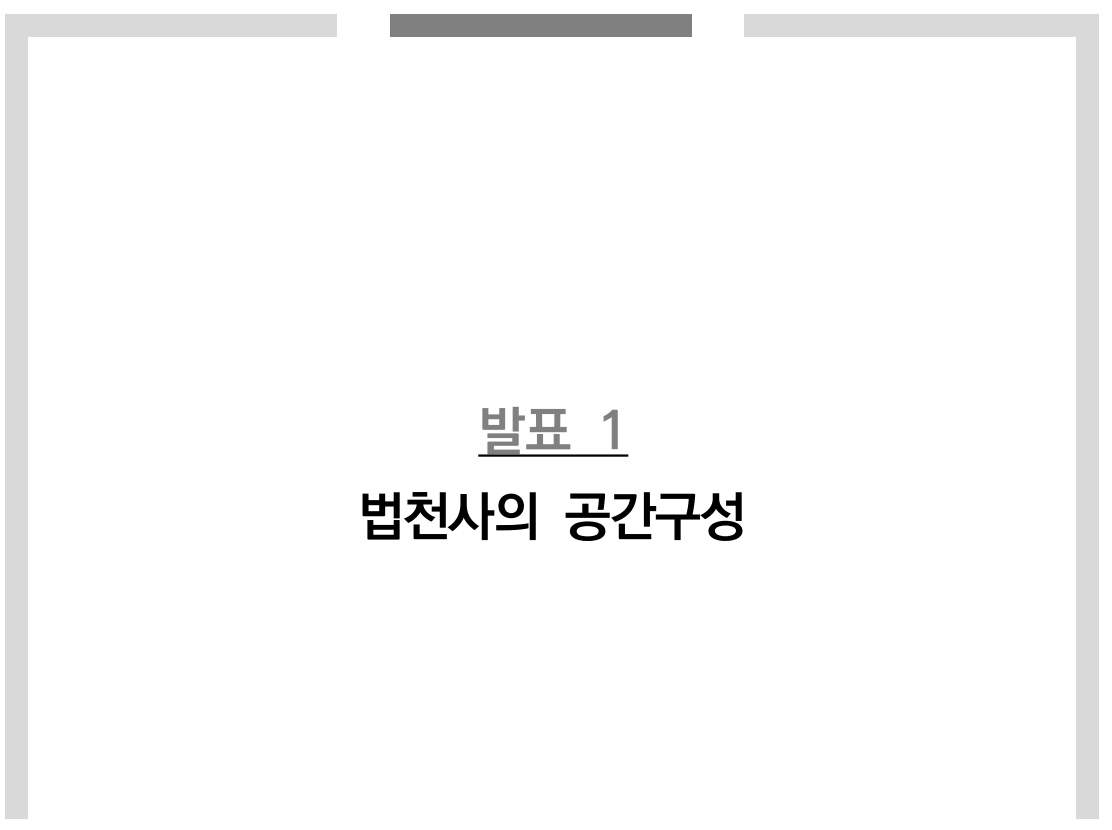
115) 「영봉산용암사중창기」, 『동문선』 권68, “上命移住國淸寺 以五臺水巖槽淵安樂瑪瑠等五寺 屬于是寺 爲下院也”.

116) 「국청사금주불석가사리영이기」, 『동문선』 권68, “國淸爲六山根本”.

117) 한기문, 「고려 선봉사지 출토 명문 기와 검토」, 『고려 불교 금석문 연구』, 경북대학교출판부, 2023, pp.312~314.

수승처 사원은 교통과 불학연구나 수행의 역할을 주로 하였다. 개경에는 각 종단의 중심사원이 존재하고 외방에는 ‘諸宗寺刹’이 분포하였으며 승과와 승정은 국왕이 최종 결재하되 종단과 협의하는 형태였다.

각 사원의 별원 형성은 국가와 관련하여서는 왕실 조상숭배 시설로서 진전, 승려 수계 관련 계단, 국·왕사 하산소의 탑비전, 국왕 행차 관련 행궁 등의 설치와 관련되었다. 종단 차원의 신앙과 교학 연구 차원으로는 주 금당 외에도 불전이 형성되어 불지에 복합적으로 별원으로 성립되거나, 대장경이 봉안되는 대장당 건물이 들어서면서 형성되며, 신앙의례의 사천왕도량, 마리지천도량, 오백나한재, 문두루도량 등의 단소로서의 형성 등이 있었다. 그 외 驛과 진·포의 보완 시설로서 해로, 수로, 고개 등 교통 요충지에 안전과 숙박 편의를 위한 ‘院館’이 형성되었는데寺와 가깝거나 혹은 원격지에 설치된 경우도 다수 있었다. 개경 대가람에는 조사당, 장소 연구 및 출판, 개인 원당 등 다양한 경위로 많은 별원이 부수되었다. 종단의 중심사원이 경제적 혹은 기타 이유로 계열 사원을 하원으로 삼아 결속하는 수도 있었다.



발표 1  
법천사의 공간구성

한 지 만  
(명지대학교)



# 법천사의 공간구성

한지만(명지대학교 건축학부 전통건축전공)

## 목 차

- I. 머리말
- II. 법천사지 연혁과 유적 현황
- III. 고려시대 법상종의 전개와 사원의 양상
- IV. 맺음말

## I. 머리말

근래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원주 법천사지는 고려시대 전기에 활약한 법상종(法相宗)의 고승 지광국사(智光國師) 해린(海麟, 984-1070)이 처음으로 불법을 배웠고, 국사(國師)의 소임을 다하고 만년에 하산소(下山所)로 지정받아 주석하다가 입적한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법상종 사원이다.

발굴조사를 통해 이곳에는 고려시대 이전부터 사원이 있었고, 1067년(문종 21) 해린의 하산을 계기로 대대적인 가람의 중창이 있었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기존 고려시대 가람의 틀을 유지하며 사세가 이어지다가 임진왜란 때 폐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람의 형태는 회랑으로 구획된 여러 원(院)들로 구성된 다원식(多院式) 가람이었다. 각 원은 예불과 의례, 고승 기념, 사원 운영 등과 관련된 기능들을 수행했을 것이다. 이 중에는 해린이 하산해 거처했던 공간이 당연히 있었을 것이며, 또 행려객들이 묵어갈 수 있는 원관(院館)의 역할을 했던 원도 있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그리고 중심사역 남측 외곽에서도 고려시대 법천사와 관련된 건물로 판단되는 유적들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법천사지는 한국 역사상 불교가 가장 번성했던 고려시대의 법상종 거점 사원 유적의 전체 윤곽이 드러난 유적이라는 점, 그리고 고려시대 법상종의 전성기인 11-12세기에 조성된 가람의 모습을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교사 및 건축사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만 유적에 조선 후기 이래로 서원(書院)과 마을이 들어서고 20세기 말까지 마을 내 주택 증개축 공사와 경작이 지속되면서 고려시대 건물지 대부분이 초석 이상 부분이 멸실된 상태로 확인되어, 당시 건물의 기능을 유추하기가 어렵게 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여기에서는 고려시대 유력 법상종 사원의 유적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고려시대 법천사가 어떠한 기능의 공간들로 구성되어 있었는지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법천사지 연혁과 유적 현황

### 1. 법천사지 연혁

법천사의 창건 시기를 포함해 연혁을 전하는 문헌 기록은 거의 없다. 발굴조사에서 삼국시대 불상 이외에, 6-7세기로 편년되는 신라 토기, 7세기 중반까지 올려볼 수 있는 단판 연화문 수막새,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로 편년되는 인화문토기, 9세기 초로 편년되는 중국 월주요 청자편 등이 출토되어 고려시대 이전부터 사원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sup>.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은 981년(경종 6)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곡사 진관선사비(智谷寺眞觀禪師碑)」이다. 비문에 의하면 진관선사(眞觀禪師) 석초(釋超, 912-964)는 중원부(中原府, 지금의 충북 충주) 출신으로, 918년(신라 경명왕 2, 고려 태조 1) 영암산 여흥선원(麗興禪院) 법원대사(法圓大師) 밑으로 출가했다. 그리고 928년(신라 경순왕 2, 고려 태조 11) 법천사(法泉寺) 현권율사(賢眷律師)로부터 구족계를 받고, 강경하는 소리에 귀를 막고 글상자를 덮어 마음을 깨달았다(卷篋悟心), 즉 선문(禪門)에 들었다고 했다. 출가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선종과 인연을 맺어왔기 때문에, 928년 구족계를 받은 법천사도 선종과의 연관성을 의심해 볼 수 있겠으나, 고려시대 관단 사원에서는 반드시 해당 관단(官壇) 사원이 속한 종파의 승려들에 대해서만 수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sup>2)</sup> 단언하기 어렵다. 다만 나말·려초의 10세기 전반 법천사는 관단이 설치된 지역 거점 사원이었다는 점은 짐작된다.

「법천사 지광국사탑비(法泉寺 智光國師塔碑)」(1085)에 의하면 해린은 원주(原州) 출신으로 초년(韶年, 7-8세) 시절인 990년대 초 법고사(法臯寺)의 관웅대사(寬雄大師)를 찾아가 수학하던 중, 관웅을 따라 개경으로 가서 해안사(海安寺)의 준광(俊光)에게서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고 했다. 여기서 법고사는 만년에 해린의 청원으로 하산소(下山所)로 지정받은 법천사(法泉寺)일 것이다. 해린이 스승 관웅을 따라가 삭발했다는 개경의 해안사는 해린을 포함한 고려 전기 법상종 고승들이 주석했던 사원으로 확인되므로, 990년대 초 해린이 출가한 법천사(법고사) 역시 법상종에 속해있던 것이 분명하다.

이후 혜소국사(慧昭國師) 정현(鼎賢, 972-1054)이 수좌(首座)의 법계로 칠장사(七長寺)에 주석하다가 덕종(德宗, 1032-1034 재위)의 명으로 법천사로 이석(移錫)한 바 있다<sup>3)</sup>. 1067년(문종 21) 무렵 해린의 법천사 하산<sup>4)</sup>을 즈음하여 대대적인 가람의 증창이 이루어진 것이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현재 발굴조사를 통해 노출, 정비되어 있는 유적은 기본적으로 이 시기에 조영된 모습을 전한다.

인종대(1123-1146)에는 원증승통(圓證僧統) 덕겸(德謙, 1083-1150)이 수좌(首座) 시절에 왕명으로 승려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법천사로 이석해 그들을 잘 다스렸고, 이로 인해 승통(僧統)의 법계를 받았다<sup>5)</sup>. 1146년(인종 24) 증지수좌(證智首座) 관오(觀奧)가 역시 수좌 때 왕명으로 법

1) 강원고고문화연구원, 『원주 법천사 V』, 2023, p.25.

2) 한기문, 『고려사원의 구조와 기능』, 민족사, 1998, p.372.

3) 「칠장사 혜소국사비(七長寺 慧昭國師碑)」(1060)

4) 「법천사 지광국사탑비」

5) 「원증승통 덕겸 묘지명(圓證僧統 德謙 墓誌銘)」(1150). 인종대에 이자겸(李資謙, ?-1126)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가 있자 이자겸의 아들 의장(義莊)이 현화사 승려들을 동원하면서 덕겸을 가담시키려 하니, 덕겸은 이를 피해 삼각산 향림사(香林寺)로 피했고, 법상종을 후원했던 이자겸의 세력이 쇠퇴하자 이에 반발하는 법천사 승려들을 잠재우기 위해 인종이 덕겸을 파견한 것이다. 강원고고문화연구원, 『원주 법천사 III』, 2017, p.41.

천사에 주지로 부임하여 머물다가, 1154년(의종 8) 왕명으로 수리사로 옮겨갔다<sup>6)</sup>. 해린을 비롯 해 정현, 덕점, 관오 모두 고려 전기 법상종의 고승들이다.

이후의 기록은 1216년(고종 3) 고려를 침공한 거란군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확인된다.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는, 거란 침략 이듬해인 1217년(고종 4) 7월 전군병마사(前軍兵馬使) 김취려(金就礪, 1172-1234) 장군이 중군병마사(中軍兵馬使) 최원세(崔元世, ?-?) 장군과 함께 거란군을 충주(忠州)와 원주(原州) 사이의 법천사(法泉寺)까지 추격해, 이튿날 인근의 맥곡(麥谷)에서 전투를 벌여 크게 이겼다는 기록이 있다<sup>7)</sup>. 전투가 벌어진 ‘맥곡(麥谷)’은 법천사가 위치한 부론면 법천리 서원말(院村)에서 메골로 넘어가는 ‘불근덕고개’를 이르는 말로, 아직도 이 마을에는 김취려 장군과 관련된 전설이 전한다<sup>8)</sup>. 발굴조사를 통해 당시 이곳에서 벌어진 전투 때 법천사가 피해를 입었다가 복구된 흔적이 사역의 서북쪽 일대에서 확인되었다<sup>9)</sup>.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태조대부터 세종대까지 단행된 일련의 사원 축소 정책 중에서, 1407년(태종 7년)에 시행된 7종 88개의 자복사(資福寺, 국가의 복을 비는 사원)를 인정하는 정리안에 법천사가 화엄종 소속 자복사로 등재되었다<sup>10)</sup>. 이 개정안은 전년도의 정리안을 개정한 것인데, 당초 1406년 개정안에는 지방의 자복사의 경우 10명의 승려를 인정하고, 승려 1명당 토지 2결, 노비 1명을 부가한다고 했으니<sup>11)</sup>, 1047년 개정안에 자복사로 추가 등재된 법천사의 상거승(常居僧)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법천사는 조선 초에도 지역 거점 사원으로 인정은 받고 있으나, 법상종의 법맥은 유지되지 못하고 화엄종에 편입되었다.

1530년(중종 25)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原州牧」 「佛宇」 조)에, 태재(泰齋) 유방선(柳方善, 1388-1443)이 법천사에 머물며 학문을 강의했고 권람(權擘, 1416-1665), 한명회(韓明澮, 1415-1487), 강효문(康孝文, ?-1467), 서거정(徐居正, 1420-1488) 등이 이곳에 와서 배웠으며, 이들이 절의 탑을 주제로 썼던 시가 남아있다고 하여, 16세기 전반까지 사원의 존재 사실이 확인된다.

법천사는 16세기 말 임진왜란을 거치며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1609년(광해군 1) 9월 28일에 허균이 쓴 「유원주법천사기(遊原州法泉寺記)」(『성소복부고(惺所覆瓿稿)』卷6 「文部」3 「記」)에, 1589년(선조 22)까지 유지되고 있던 사원이 병란으로 폐허가 된 터에 부서진 초석이 흩어져 있는 모습(而燬於兵, 只有餘址頽礎, 縱橫於兔閑鹿逕之間)이 묘사되어 있다. 이 병란은 시기로 보아 임진왜란일 것이다. 이후 『여지도서(輿地圖書)』(1757-1765), 『관동지(關東誌)』(19세기 전반), 『원주읍지(原州邑誌)』(19세기 전반) 등 조선 후기의 지지(地誌)에는 ‘今廢’로 적혀있어, 임진왜란 때 폐사된 이후 조선 후기 동안 재건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1717년(숙종 43) 우담(愚潭) 정시한(丁

6) 「증지수좌 관오 묘지명(證智首座 觀奧 墓誌銘)」(1158)

7)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제15권 「고종안효대왕(高宗安孝大王二)」2·丁丑4년(1217): 중군, 전군이 거란병을 충주(忠州)·원주(原州) 사이의 법천사(法泉寺)로 추격하여, 독점(秃岾)에 이차(移次)하였다. 최원세가 말하기를, “내일 나가는 길이 두 갈래인데, 내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좋겠는가?” 하니, 김취려가 말하기를, “군사를 나누어 각각지세(掎角之勢)를 베푸는 것이 역시 좋지 않겠는가.” 하였다. 원세가 이 말을 따라, 다음날 맥곡(麥谷)에서 모여 적과 더불어 싸워서 적의 목 3백여 급을 베고, 제주(堤州)의 냇가까지 바싹 뒤쫓으니, 물에 떠오른 시체가 내를 덮어 떠내려갔다(中軍前軍, 追丹兵于忠原兩州間, 法泉寺, 移次秃岾, 崔元世曰, 明日之路, 有二歧, 吾行何如則可, 金就礪曰, 分軍掎角, 不亦可乎, 元世從之, 翼日, 會于麥谷, 與賊戰, 斬獲三百餘級, 迫于堤州之川, 流屍蔽川而下).

8) 강원고고문화연구원, 위의 보고서(2023), p.27.

9) 강원고고문화연구원, 위의 보고서(2023), p.41.

10) 『조선왕조실록』 태종 7년(1407) 丁亥 12월 2일조.

11) 정병삼, 『한국불교사』, 푸른역사, 2020, p.441.

時翰, 1625-1707)의 위패를 봉안한 도동서원(道東書院)이 들어섰다. 도동서원은 한국전쟁 때 불탔고<sup>12)</sup>, 현재 법천사지 동쪽 산자락에 그 터가 남아있다.

## 2. 유적 현황



그림 1. 법천사지 일대 항공사진(네이버지도, 2024. 9. 13일 검색)

유적의 발굴조사는 크게 네 구역으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는데, 편의상 이 분에 따라 유적의 개요를 설명한다. 사역 동편 산록의 I 구역은 지광국사탑과 탑비가 있는 탑원(塔院) 영역이다. 구릉의 서사면에 동-서방향 축대 3개를 쌓고 남향하는 4개 단지로 조성한 다음, 최북단에 지광국사탑과 탑비를 중심으로 북, 동, 서 세 면에 건물을 두고, 남쪽 축대 중앙의 계단 아래에 회랑과 문을 두어 일자형 배치의 탑원을 이루었다. 이 남쪽으로 동-서, 남-북 방향의 세장한 건물지와 중심 사역에서 탑원에 이르는 접근로, 계단, 문지가 있으며, 북쪽과 동쪽 산과의 경계부에는 담장으로 구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심 사역은 평지의 II 구역에 위치한다. 북쪽 가까운 거리에 법천천이 서쪽으로 흐르다가 서북 모서리 부근에서 남쪽으로 크게 감아 돈다. 사역의 북동쪽 일부를 제외한 사방의 네 면을 회랑이 감싸고 있고, 서쪽과 북쪽면에는 회랑 바로 바깥으로 다시 담장을 설치한 흔적이 있다. II 구역의 내부는 동-서, 남-북 방향 회랑으로 4개 원으로 구획되어 전체적으로 田자형 배치를 이룬다. 이

법천사지는 원주시 부론면 법천2리의 서원말이 있던 자리로, 사지 동북쪽의 손곡리에서 발원해 흘러내린 법천천(法泉川)과 그 동편의 구릉지 사이에 입지한다. 법천천이 유적 가까이에서 북쪽과 서쪽을 돌아 남류하다가 다시 서쪽으로 흘러 남한강대교 아래에서 북류하는 남한강에 합류한다. 여기서 북쪽으로 4km 거리의 섬강(蟾江)이 남한강에 합류하는 흥호리에 고려시대 정종대(1035-1046)에 완성된 세곡우송체제의 13조창(漕倉) 중의 한 곳인 흥원창(興元倉)이 있었다. 이 일대는 강원도(원주), 경기도(여주), 충청도(충주)의 접경지로 일찍부터 교통과 운송의 거점으로 중시되었다<sup>13)</sup>.

유적의 발굴조사는 크게 네

12) 강원고고문화연구원, 위의 보고서(2023), p.29.

13) 홍금수, 「고려시대 흥원창과 법천·거둔·흥법 원주 3대 강변사찰」, 『대한지리학회지』, 제54권 제6호, 대한지리학회, 2016, pp.580-5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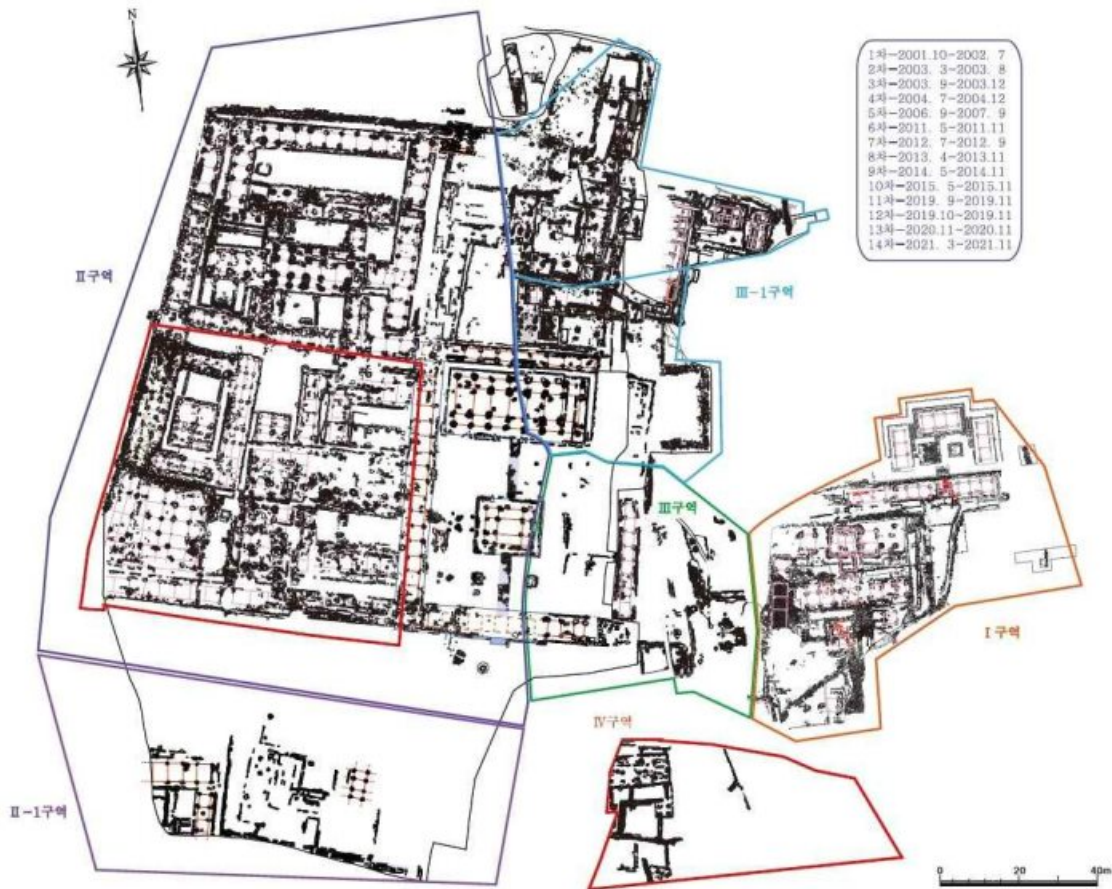


그림 2. 법천사지 유구 배치 현황 (자료: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23)

중에서 동남쪽 원에 중문, 쌍탑, 금당, 강당지가 있는 당탑원(堂塔院)이다. 남쪽 회랑 중앙부에 중문지가 있고, 중문 안쪽에는 좌우에 삼층석탑이 있었고, 양 석탑 앞에는 공양보살상을 놓았던 육각형 기초가 남아있다.

당탑원의 동반부는 III구역에 해당한다. 강당지의 동반부는 18세기 도동서원의 강당이 위치했던 곳이며 그 동쪽 산록에 서원의 사당지가 있었다. 서원 강당지 아래에서는 이전 법천사의 강당지가 확인되었지만, 서원 영역에 있었던 동회랑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

당탑원 북쪽, 즉 북동쪽 원은 대부분 III-1구역에 속한다. 원의 북쪽 부분에서 물을 가두거나 저장시설로 추정되는 석축 유구 2기가 확인되었다. 두 유구 모두 상부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었던 흔적이 남아있다<sup>14)</sup>. 이것은 이 원의 기능을 짐작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되는데, 이곳은 주방과 그에 부속된 창고, 식당, 그리고 이것들을 담당하는 각종 역승들의 요사 등 사원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능을 수행하는 고원(庫院)<sup>15)</sup>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원의 북측 담장 서단부에

14) 강원고고문화연구원, 『원주 법천사 II』, 2014, pp.84-90.

15) 고원(庫院)은 사원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주방을 비롯해 창고, 그리고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수행하는 역승들의 요사 등으로 이루어진 공간으로, 종파와 무관하게 사원 내 한 영역을 이루고 있었다. 중국의 불교 사원 관련 사료를 보면 늦어도 당대 사원부터 확인되며, 그 위치는 대체로 가람의 동쪽으로 짐작된다(한지만, 「송대 선종사원의 승당과 고원 배치 전통」, 『건축역사연구』 25권 4호, 2016. 8, pp.45-56). 다만, 한국의 고려시대 사원에서는 이 영역을 구체적으로 어떤 명칭으로 불렀는지 분명하지 않다. 여기에서는 서술의 편의상 고원으로 지칭한다.

외부로 통하는 별도의 문지가 있는 점, 북쪽 가까이에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법천천이 흐르고 있는 점도 이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Ⅲ-1구역 동편 산록에는 정교하게 가공된 기단석과 고맥이석, 고맥이초석을 갖춘 2기의 건물지가 ㄱ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동편에서 서향하는 1호 건물지에 후행해 북편에서 남향하는 2호 건물지가 조성된 것으로 조사되었다<sup>16)</sup>. 2호 건물지는 내부에서 불단 기초부가 남아있다. 이 공간의 서편 축대 아래로 중심 가람 영역으로 통하는 계단과 회랑, 문지 등이 확인되었다.

당탑원 북서쪽 원(Ⅱ-가 구역)은 전체적으로 고려 전기 11세기 유구 위에 13세기에 조영된 건물지들이 중첩되어 있는 상태로 발굴되었다. 이 원은 1217년 법천사 인근에서 벌어진 거란군과의 전투에서 피해를 입었다가 재건된 부분으로 보인다. 재건된 건물의 형태와 규모는 기존 고려 전기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최하부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유물이 확인되었다<sup>17)</sup>.

중앙에서 남쪽으로 약간 치우쳐 정면 5칸, 측면 3칸의 대형 건물지(6호 건물지)가 있고 동(8호 건물지)·서(7호 건물지) 양측으로 측면 1칸의 소형 건물지가 연접해 있는데, 이 원의 중심 건물지군이다. 고려 전기에는 중앙 건물 양측으로 동·서 익사가 이어진 형태였으나, 13세기에 복구되는 과정에서 현재와 같이 서로 분리되고 동·서 비대칭이 된 것으로 본다<sup>18)</sup>. 이 건물지군 앞 마당도 소형 건물에 의해 세 부분으로 구획되어 각기 독립된 영역을 이룬다. 이중에서 중앙 건물지와 서측 익사지 영역에는 남측 회랑에 각각 출입문지가 있고, 문 안쪽에는 진입축에 맞춰 시선을 차단하는 내외담의 기초로 추정되는 유구와 그 북측에 접해 화단의 흔적으로 보이는 유구가 각각 확인되었다<sup>19)</sup>. 이 기초 유구 동서 양쪽으로 보도석렬이 조성되어 있다.

원의 서측 회랑(12칸)지는 내부에서 2칸 마다 하나씩 ㄷ자형 노지(爐址)가 출토되어 생활시설로 추정되었다<sup>20)</sup>. 이상의 유구 양상으로 보아 다탑원 서북쪽에 위치한 이 원(Ⅱ-가 구역)은 주지를 포함해 사원 소속 승려들이 기거하는 승원(僧院)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067년 법천사로 하산한 해린이 머문 곳도 이 공간 안에 있었을 것이다.

당탑원 서쪽 원은 발굴팀에서 서북쪽의 회자형 배치를 이루는 Ⅱ-나 구역과 나머지 Ⅱ-다 구역으로 구분했다. Ⅱ-나 구역의 회자형 건물지군은 고려 전기 11세기에 조영된 것으로 파악되었다<sup>21)</sup>. Ⅱ-다 구역의 건물지들은 조선시대 전기에 조성된 것인데<sup>22)</sup>, 조선 전기에는 이 영역을 중심으로 사원이 운영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유구의 배치 양상으로 보아, 대규모 건물지가 있지만 이곳에서 본존을 봉안하고 예불과 의례를 행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만, 11세기에 조영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회자형 건물지군은, 행려자(行旅者)들의 숙박과 휴식을 위해 고려시대 사원에 설치되었던 원관(院館)의 한 유형인, 사방이 회랑 형태의 세장한 건물로 구획된 영역 내부에 이층의 원루(院樓)가 있는 형식<sup>23)</sup>과 매우 유사하다. Ⅱ-다 구역의 조선시대 건물지 하부에 대한 유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단언하기 어렵지만, 당탑원 서쪽의 원은 고려시대 법천사 내에 설치되었

16) 강원고고문화연구원, 위의 보고서(2014), p.49.

17) 강원고고문화연구원, 『원주 법천사 Ⅲ』, 2017, p.185.

18) 강원고고문화연구원, 위의 보고서(2017), p.214, p.246.

19) 강원고고문화연구원, 위의 보고서(2017), p.187, p.215.

20) 강원고고문화연구원, 위의 보고서(2017), p.308.

21) 강원고고문화연구원, 위의 보고서(2017), p.397.

22) 강원고고문화연구원, 위의 보고서(2017), p.446.

23) 박만홍, 『고려시대 사찰의 院館 建築 연구』, 2023, pp.173-189. 다만 이 논문에서 박만홍은 고려시대 법천사에도 원관이 운영된 것으로 보았으나, 그 위치는 중심 사역에서 남쪽으로 약 300m 거리의 유적전시관 부지에서 출토된 일련의 건물지 군을 법천사 소속 원관지로 보았다(pp.119-121).

던 원관 영역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해 본다.

중심사역 남측 회랑 바깥에도 일련의 건물지들이 확인되었다. 그중에서 남동쪽의 IV구역에서는 해린 하산 무렵에 조성된 건물지들이 확인되었고, 하부에서 나말·려초 유구가 있었다<sup>24)</sup>. IV구역의 3호 건물지에서는 건물지 내부에서 ㄷ자형 평면의 화덕 유구 4기, 내부에 슬러그편과 노벽체편, 송풍관 소편 등이 출토된 수혈 2기가 있어 단야작업을 했던 대장간으로 추정되었다<sup>2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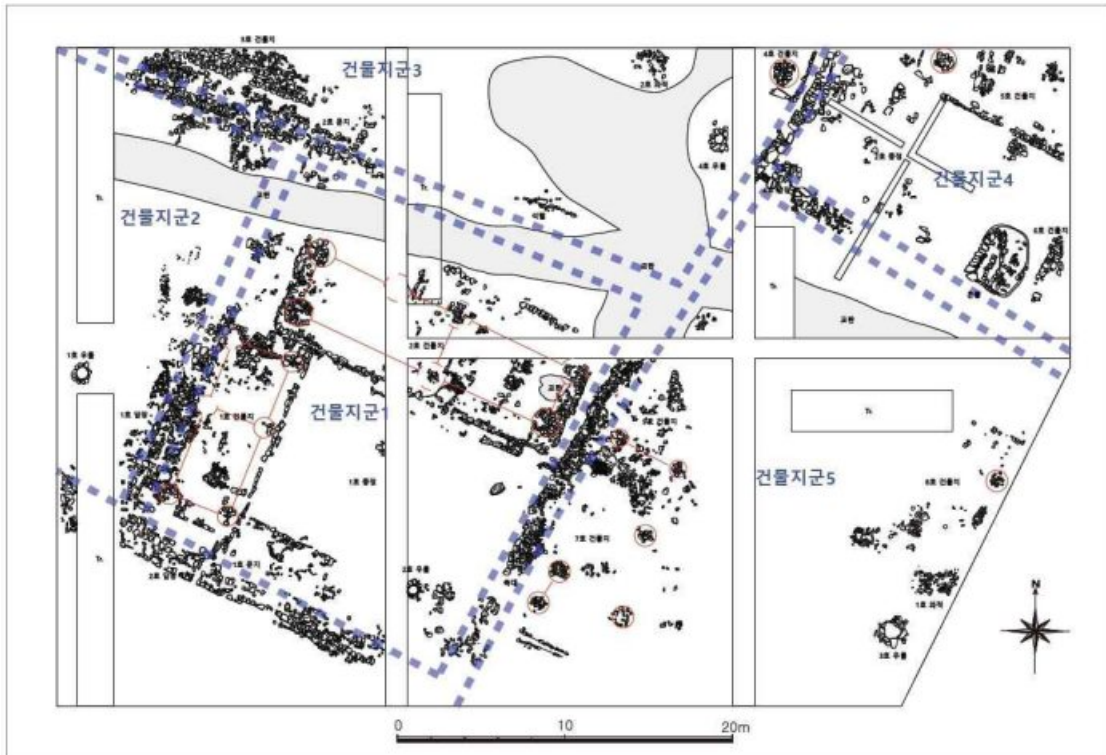


그림 3. 법천사지 7구역 전시관 부지 유구 배치 현황 (자료: 국강고고학연구소, 2021)

중심사역 남쪽 약 300m 거리에 위치한 유적전시관 부지(VII구역 남부)에서는, 마당을 중심으로 건물지와 담장이 ㄷ자형으로 배치된 건물지군 5개가 서로 연결해 있는 형태로 발굴되었다(그림 3). 개별 건물지군의 규모는 길이가 20-25m 정도이며, 건물지군 사이에 규모의 차이는 있다. 건물지군이 조사지역 밖으로 이어지고 있어, 사역 남쪽 일대에 광범위하게 배치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건물지군의 배치가 정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전체적인 계획하에 조성되었고, 건물지군에는 내부에 건물지 외에 우물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생활 공간으로 운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전체적인 건물 구조와 형태는 중심사역과 많이 다르며, 조사단에서는 법천사에서 운영한 역참이나 객사와 같은 별도의 공간으로 추정했다. 출토된 기와의 문양과 형태 등으로 볼 때, 유적의 이용 시기는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로 확인된다. 즉, 통일신라시대에 형성되어 고려시대에 가장 번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운영 시기는 중심 사역의 연대와도 부합한다<sup>26)</sup>.

24) 강원고고문화연구원, 위의 보고서(2023), p.140.

25) 강원고고문화연구원, 위의 보고서(2023), pp.140-141.

26) 국강고고학연구소, 『원주 법천사 IV』, 2021. pp.142-147.

### Ⅲ. 고려시대 법상종의 전개와 사원의 양상<sup>27)</sup>

#### 1. 고려시대 법상종의 전개

한국 불교에서 종파의 성립은 통일신라시대 무렵부터 나타나<sup>28)</sup> 고려시대를 통해 종파별로 고유한 구성 형식을 갖는 가람이 운영되었고, 억불정책이 시행되고 종파가 강제 통합되는 속에서도 조선 전기까지 유지되고 있었다<sup>29)</sup>. 그중에서 법상종은 삼국시대에 전래된 유식학(唯識學) 연구의 토대 위에 8세기 후반 태현(太賢)과 진표(眞表)에 의해 두 계통으로 성립되어 화엄종과 경쟁하며 교학 불교의 핵심이 되었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두 계통이 통합되어 부침을 거치며 교단을 유지해갔다.

법상종의 사상적 기반은 유식학이다. 모든 인식과 존재의 출발점을 마음의 작용으로 보는 유식사상의 이론체계는 인도의 무착(無着, 310-390)과 세친(世親, 320-400) 형제에 의해 집대성되었다<sup>30)</sup>. 유식사상은 남북조시대(420-589)부터 중국에 소개되었고, 유학생들을 통해 한국에도 그 사상과 경론이 소개되었다.

중국에서 유식학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당 초기의 현장(玄奘, 602-664)이 인도에 유학(639-645)해 유식학을 배워 귀국한 이후부터다. 현장의 유식학은 제자 규기(窺基, 632-682)에 의해 법상종의 성립으로 이어졌고, 이후 혜소(慧沼, 650-714), 지주(智周, 668-723)로 계승되었지만 그 이후로는 단절되고 만다.

현장의 유식학은 당시 장안의 서명사(西明寺)에 주석하고 있던 신라 출신의 원측(圓測, 613-696)에게 소개되었고, 원측은 유식학 경론을 섭렵한 끝에 규기보다 넓은 관점에서 그 사상을 제창하며 많은 저술을 남겼다. 원측의 유식학은 제자 도증(道證)이 귀국(692)하면서 신라에 전해졌다.

신라에서는 이미 원측 이전의 유식학이 소개, 연구되고 있었고, 원효(元曉, 617-686)는 이것과 새로 소개된 현장의 유식학을 종합하고 많은 저술을 남겼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유식학은 삼국통일 이후 화엄학과 경쟁하며 신라 교학 불교의 주류가 되었고, 8세기 경덕왕대(742-765)에 신라 유식학의 조사로 추앙받는 태현에 의해 법상종이 성립하고, 이어서 진표 계통의 교단이 나타났다<sup>31)</sup>.

태현 계통의 법상종은 고신라 지역을 중심으로 왕실과 귀족의 후원을 받았고, 교학연구 위주로 활동하며 미륵과 아미타불을 신앙했다<sup>32)</sup>. 『삼국유사』(권4「意解」5「賢瑜伽海華嚴」)에는 태현이 남

27) 3장은 한지만, 「진표계 법상종 사원의 가람 구성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30권 4호, 한국건축역사학회, 2021. 8, pp.57-58.의 일부를 정리하고 추가한 것이다.

28) 정병삼, 위의 책, pp.215-218

29) 김봉렬, 「조선시대 사찰건축의 전각구성과 배치형식 연구: 교리적 해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pp.173

30) 전설에 따르면 무착이 도솔천(兜率天)에 올라가 미륵보살로부터 유식사상의 가르침을 듣고 이를 지상에 전했다고 하며, 유식사상의 기본 이론과 그것을 체득하기 위한 수행법을 종합 정리한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역시 무착이 미륵보살의 가르침을 기록한 것이라고 전한다. 최연식, 「신라 유식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 불교사 연구 입문-상』, 지식산업사, 2013, p.315

31) 이상 유식학의 전개와 법상종 성립 과정에 대해서는 김남윤, 「신라 중대 법상종의 성립과 신앙」, 『한국사론』 11, 1984.6., pp.96-115; 최연식, 위의 글, pp.313-32; 정병삼, 위의 책, p.132을 참조했다.

산 용장사(葺長寺)에서 석조 미륵장륙상을 돌며 미륵을 신앙하고 법상종 교학 연구에 매진했다는 기록이 전한다<sup>33)</sup>.

진표 계통의 법상종에서는 참회(懺悔)와 점찰법(占察法)을 바탕으로 미륵과 지장보살을 신앙하며 수행과 실천을 강조했고, 옛 백제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지방의 민중을 대상으로 교세를 폈다<sup>34)</sup>. 점찰법은 『점찰경(占察經)』<sup>35)</sup>에 기초해 간자(簡子)<sup>36)</sup>로 과거와 현세의 업보와 길흉을 점쳐 그 결과에 따라 참회 수행하는 것이다<sup>37)</sup>. 『삼국유사』(권4「意解」5「關東楓岳鉢淵戴石記」)에는 진표가 미륵상 앞에서 오체투지(五體投地)의 투철한 정진 끝에 지장과 미륵보살의 현신을 얻어 계본(戒本)과 간자, 그리고 미래에 도솔천에 왕생할 것이라는 수기(授記)를 받았다고 했다.

태현과 진표 계통 모두 법상종 소의경론<sup>38)</sup>의 핵심인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의 설주(說主) 미륵보살을 받들며 엄격한 수행을 통해 도솔천(兜率天) 왕생을 염원하는 미륵상생신앙을 주로 한다. 부차적인 신앙의 대상은 아미타불과 지장보살로 각각 달랐지만, 근기가 낮은 대중을 대상으로 망자 구제라는 내세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상통한다<sup>39)</sup>. 신앙형태가 가람으로 구현된 결과로 태현 계통에서는 금당에 미륵존상을 안치하고 강당에는 아미타여래를 봉안했다<sup>40)</sup>. 진표 계통에서도 역시 금당에 미륵을 봉안했으며<sup>41)</sup>, 지장보살은 명확하지 않지만 강당에 아미타존상을 봉안한 태현계 사원이 참조된다.

통일신라 말에 선종이 흥기하면서 교종은 약화되었다. 법상종에서는 학파불교적 성격의 태현 계통의 약화가 상대적으로 현저했고, 실천 위주의 진표계 법상종이 고려로 이어졌다<sup>42)</sup>.

32) 김남윤, 위의 논문, p.129.

33) 문명대는 남산 용장골 용장사지에 현존하는 석불좌상과 마애불이 8세기에 조성된 미륵장륙상과 아미타여래상이며, 용장사를 태현이 창건한 법상종 사찰로 추정했다. 문명대, 「太賢과 葺長寺의 佛敎彫刻」, 『백산학보』 17, 1974.12, pp.135-142.

34) 김남윤, 위의 논문, pp.130-135. 진표의 개종에 대해 법상종이 아닌 점찰교법의 개창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김남윤은 『삼국유사』권4「意解」5「眞表傳簡」에서 일연이 '비록 性宗은 아니지만 相敎의 大乘으로는 또한 넉넉하다고 밝힌 점을 들어 대승의 相敎, 즉 法相宗의 한 계통으로 보았고, 정병삼(위의 책, pp.132-133) 역시 8세기에 성립한 법상종의 한 계통으로 진표계 법상종을 포함했다.

35) 『점찰선악업보경(占察善惡業報經)』. 지장보살이 부처를 대신해 말세 중생들이 참회법(懺悔法)을 닦아 업장을 소멸하고 대승으로 나아가길 수 있는 길을 밝힌 것이다. 김남윤, 위의 논문, p.136.

36) 나무를 깎아 만든 점대. 이것을 던져 전·현생의 업보와 길흉을 점치고 결과에 따라 참회를 행해 업장 소멸과 정도왕생을 기원한다.

37) 김남윤, 위의 논문, pp.136-137; 정병삼, 위의 책, p.169.

38) 법상종의 소의경론에는 6경(經) 11론(論)이 있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해심밀경(解深密經)』, 『화엄경(華嚴經)』, 『능가경(楞伽經)』과, 미륵(彌勒)의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무착(無著)의 『섭대승론(攝大乘論)』, 미륵과 세친(世親)의 『중변분별론(中邊分別論)』, 무착의 『현양성교론(顯揚聖敎論)』, 호법(護法)의 『성유식론(成唯識論)』 등이다. 김남윤, 위의 논문, p.102.

39) 김남윤, 위의 논문, pp.141-146.

40) 문명대, 「신라 법상종(유가종)의 성립문제와 그 미술(하): 감산사 미륵보살상 및 아미타상과 그 명문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63, 1974.9, p.158. 핵심 근거는 『삼국유사』권3「塔像」에 나오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南月山(亦名甘山寺)」조에 수록된 감산사(甘山寺)의 불상조성기(佛像造成記)로, 법상종에 심취했던 중아찬(重阿飡) 김지성(金志誠)이 719년(성덕왕 18)에 감산사를 짓고 죽은 모친을 위해 금당에 미륵존상을 봉안하고, 죽은 부친을 위해서는 아미타상을 조성해 봉안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南白月二聖 努昝夫得 怛怛朴朴」조의 내용으로, 노힐부득(努昝夫得)과 달달박박(怛怛朴朴)이 백월산(白月山)에서 미륵과 미타를 염원하며 수행한 끝에 미륵불과 무량수불이 되어 구름을 타고 가버렸는데, 757년(경덕왕 16) 왕이 사자를 보내 백월산남사(白月山南寺)를 짓고(764) 미륵과 아미타 존상을 조성해 각각 금당과 강당에 봉안한 것이다. 문명대는 백월산남사처럼 감산사의 아미타상도 강당에 봉안한 것으로 추정했다.

41) 『삼국유사』권4「意解」5「關東楓嶽鉢淵戴石記」조에서 진표가 지장보살과 미륵보살로부터 교법을 얻은 다음 감산사를 중창하고 미륵장륙상을 만들어 금당에 봉안한 사실이 확인된다.

42) 김남윤, 위의 논문, pp.145-146.

고려시대의 법상종은 11세기에 들어와 현종(1009-1031 재위)이 부모의 원찰로 현화사(玄化寺)를 창건하고(1021) 법상종의 왕사 법경(法鏡)을 주지로 임명하는 등 왕실 지원으로 화엄종과 더불어 교종의 핵심 종파로 부상했다. 이후 문벌 인주 이씨의 후원이 더해지며 현화사를 중심으로 교세를 진작하며 귀족불교로 되어갔다. 즉, 혜소국사 정현과 지광국사 해린 등이 현화사 주지를 역임하며 왕사나 국사가 되어 교단을 이끌었고, 인주 이씨 이자연(李子淵, 1003-1061)의 아들 혜덕왕사(慧德王師) 소현(韶顯, 1038-1096)은 해린에게 출가하고, 문종(1046-1084 재위)의 여섯째 아들 도생승통(道生僧統) 왕탱(王鑑)은 소현에게 출가하는 등 법상종 교단은 11세기를 통해 왕실과 문벌귀족의 든든한 후원 속에서 교세를 확립해갔다<sup>43)</sup>.

현종이 친히 제액을 쓴 「현화사비(玄化寺碑)」(1021)에 의하면, 현종은 1017년(현종 8) 부친의 능을 개경의 금신산(金身山)에 이장하고 그 동쪽 인근 영취산(靈鷲山)에 현화사 창건을 명해 4년 만에 완성했다. 금전(金殿)과 법당에 더해 진전(眞殿)을 지어 부모의 진영을 봉안하고 명복을 빌었다. 그리고 7층석탑을 세워 사리를 안치하고 송에서 보내온 대장경을 봉안했다. 완성된 가람이 마치 도솔내원(兜率內院) 같다고 했으니<sup>44)</sup> 미륵상생을 염원하는 신앙이 실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매년 봄, 가을에 각각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미륵보살회(彌勒菩薩會)와 부모의 명복을 비는 미타도량(彌陀道場)을 개설토록 했다. 이 현화사는 고려시대 법상종 사원의 신앙형태와 가람 구성을 이해하는 바탕이 된다.

교학 면에서는 새로운 발전보다는 당시까지 나온 법상종 관련 전적과 사상을 종합하고 정리한 것으로 평가되며, 소의경론 중에서 특히 『화엄경』이 중시되어 필수적으로 강의 연구되었다<sup>45)</sup>. 신앙 면에서는 태현과 진표의 계통이 합쳐졌다<sup>46)</sup>. 주불로서 도솔천의 미륵보살을 신앙하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부차적으로는 현화사에서 보듯이 아미타정토가 신앙되었고, 동시에 진표 계통의 점찰회도 널리 베풀어졌다<sup>47)</sup>.

고려 후기의 법상종은 이자겸의 난(1126)과 무신정권기(1170-1270)를 거치면서 위축되었다. 그러나 원 간섭기(1259-1356)에 들어와 원의 요청에 따른 사경승(寫經僧) 파견을 법상종에서 주도하며 형성된 원 조정 및 부원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토대로 다시 불교계의 주류가 되었다<sup>48)</sup>.

## 2. 고려시대 법상종 사원의 양상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현화사는 현종이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해 건립한 원찰로, 1021년(현종 12)에 완공되고 같은 해에 「현화사비」가 건립되었다. 비문을 진히 지은 현종은 완성된 가람이 도솔내원(兜率內院)<sup>49)</sup>과 같다고 하여, 이곳이 법상종 사원임을 분명히 했다.

43) 정병삼, 위의 책, pp.286-287.

44) 殿堂崇嚴, 宛類乎兜率內院.

45) 모든 존재는 識의 작용일 뿐이라는 唯識說을 확립한 유가유식파에서 『화엄경』에 나오는 ‘三界唯心’과 ‘一切唯心造’의 교설은 유식 교설의 중요한 근거이다. 김남윤, 「고려중기 불교와 법상종」, 『한국사론』 28, 1992.2, pp.116-137.

46) 정병삼, 위의 책, p.287.

47) 김남윤, 위의 논문(1992), p.148.

48) 정병삼, 위의 책, p. 357.

49) 도솔천의 내원으로 이곳에는 현재는 보살로서 먼 미래에 부처가 되어 지상에 출현할 미륵보살이 성불을 준비하며 수도하고 있다고 한다.



그림 4. 일제강점기 개성 현화사지 전경 (자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진판 사진)

비음기에는 창건 당시 현화사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 적지 않은 내용이 적혀있다. 먼저 현종은 사원 안 서북쪽에 별도로 진전(眞殿) 한 채를 지어(命於寺內西北地, 別開眞殿一座) 왕의 부모와 죽은 누이 성목장공주(成穆長公主), 비 원정왕후(元貞王后, ?-1018)의 진영을 봉안하고 명복을 빌게 했다.

칠층석탑 하나를 세우고 모친의 고향 황주(黃州)에서 출현했다는 진신사리와 부친의 능 인근의 보명사(普明寺)에서 나타났다는 불아(佛牙)를 봉안케 했다. 또 상주(尙州) 관할의 중모현(中牟縣)에서 나타난 사리 50과를 가져와 그중 50과를 현화사 본존불 안에 안치하고, 소상을 만들어 공양하도록 했다(五十餘粒來就當寺, 於主佛中心安置了, 乃令擔塑裝成供養).

그리고 금전(金殿)과 강당에 대하여 '처음 절을 지을 때 강당(講堂)의 터를 파다가 검은 수정 구슬 한 알을 주웠고, 경신년(庚申, 1020, 현종 11) 금전의 터를 팔 때 자수정 구슬 하나를 주워 주존불의 백호 사이에 안치했다(剏理講堂基地之, 內忽拾得有黑水精珠一顆, 後又於去庚申歲內, 剏修金殿基地之次, 更拾得紫水精珠一顆, 乃於主佛毫間安着)'라고 했다. 이에 의하면 강당 터에서 나왔다고 하는 검은 수정 구슬은 강당에 봉안된 본존의 백호에 안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고려시대 법상종의 신앙 형태로 보아 당시 현화사 강당에 안치된 본존은 아미타여래, 불전의 본존은 미륵불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매년 봄 4월 8일부터, 가을 7월 15일부터 각기 3일 밤낮으로 개설했다는 미륵보살회와 미타도량은 각각 미륵불을 봉안한 주불전과 아미타여래를 봉안한 강당에서 설행되었을 것이다.

중국 황제가 대장경과 함께 보내준 물감으로 불전과 법당(=강당), 진전의 단청을 칠했다고 했



그림 5. 개성 현화사지 칠층석탑  
(자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전판 사진)

다. 금종(金鐘)과 법고(法鼓)가 완성되자 왕이 행차해 함께 종을 쳤다고 했으니, 종과 북을 걸어두는 누각이 있었을 것이며, 대장경을 보관하는 경장(經藏)이 있었다. 이밖에 승경전(崇慶殿)과 봉래전(蓬萊殿)이라는 전각도 보이는데 기능은 알 수 없다.

통일신라시대에 진표계 법상종 사원으로 중창·건립되었다가 고려시대에도 교세를 떨쳤던 금산사(金山寺), 법주사(法住寺), 동화사(桐華寺)의 고려시대 모습도 법천사지의 공간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된다.

금산사는 진표가 변산의 불사의방(不思議房)에서 3년 동안 미륵상 앞에서 정진한 끝에 762년(경덕왕 21) 지장과 미륵보살로부터 계본과 간자, 도솔천 왕생 수기를 얻어 금산사 중창에 착수해, 766년(혜공왕 2) 미륵장륙상을 주조해 에 금당에 봉안하고, 금당 남쪽 벽에 미륵보살이 계법을 주는 장면을 그렸다고 한다<sup>50)</sup>.

고려시대에 들어와 미륵전 북쪽 송대(松臺)에 조성된 방등계단(方等戒壇) 앞 오층석탑이 982년(성종 1)에 완공된 것이 확

인되었다<sup>51)</sup>. 그리고 이것을 포함해 금산사에 현존하는 주요 석조 유구인 방등계단, 석조연화대좌, 노주석(露柱石), 대장전 앞의 석등은 모두 10-11세기 무렵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52)</sup>. 이어 1079년(문종 33) 실력자 이자연의 아들로서 해린의 제자가 된 소현(韶顯)이 왕명으로 주지에 부임해, 절 남쪽에 광교원(廣敎院)을 짓고 법상종 조사의 장소(章疏) 32부 353권을 교정, 개간(改刊)해 유통시켰다. 또 광교원 안에 금당을 짓고 법상종에서 중시하는 『화엄경』의 주불인 노사나불(盧舍那佛)과 현장, 규기의 상을 봉안했으며, 1096년(숙종 1) 금산사 봉천원(奉天院)에서 입적했다. 소현이 입적하자 당시 법주사에 주석 중이던 제자 왕명(王鏡, 문종의 6남)이 금산사의 주지를 겸했다<sup>53)</sup>. 11세기 후반 소현이 중창한 금산사는, 미륵을 봉안한 주불전이 있는 대사(大寺) 영역과 봉천원 이외에 노사나불을 봉안한 금당이 있는 광교원 일곽이 새로 확장되어 세 개의 원으로 구성된 대가람이었다<sup>54)</sup>.

50) 『삼국유사』권4, 「意解」5, 「關東楓岳鉢淵藪石記」.

51) 「모악산금산사오층석탑중창기(母嶽山金山寺五層石塔重創記)」(1492): 右塔昔書載錄, 大平興國四年(979)起始, 大平興國七年壬午歲(982)畢造焉.

52) 새한건축사사무소, 『금산사 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 1987, pp.309-342; 『금산사 미륵전 수리보고서』, 김제시, 2000, pp.90-94; 태창건축사사무소, 『김제 금산사 대장전 정밀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11, pp.211-217; 김남윤, 이응목, 소재구, 『금산사』, 대원사, 2017(2000), pp.92-112; 박광연, 「관단 사원과 계단: 고려전기 금산사의 교단에서의 위상」, 『한국불교학』 88, 2018.11, pp.7-30; 아리건축사사무소, 『김제 금산사 석련대 정밀실측조사보고서』, 김제시, 2019, pp.85-93.

53) 「금산사 혜덕왕사비(金山寺 慧德王師碑)」(1111)

현재 금산사(그림 6)의 주불전으로 송대 남쪽에 서향으로 놓인 3층 미륵전(1635년 재건) 자리는 진표 중창 당시 미륵장륙상을 주조해 봉안한 금당 자리이다. 그리고 송대 서쪽에서 남향하는 대적광전(1635년 재건, 1986년 화재로 소실 후 1994년 재건) 자리는, 진표 중창 당시에는 지장보살을 봉안한 강당이었다가, 고려 전기 11세기 무렵 아미타여래 입상 봉안한 강당으로 개건되었고, 현재 대적광전 동남쪽 모서리에 남아있는 11세기 양식의 석조연화대좌는 당시 아미타여래 입상의 대좌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현재의 미륵전과 대적광



그림 6. 1980년대 금산사 배치도 (자료: 한지만, 2021. 8)

전의 축이 교차하는 지점에, 진표 중창 이래 고려시대까지 목탑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55)</sup>.

법주사는 8세기 말, 속리산의 영심(永深)이 진표로부터 간자를 전해 받아 그의 법통을 계승했고, 진표가 이전에 점지해 둔 속리산의 길상초(吉祥草)가 난 자리에 영심이 사원을 짓고 길상사(吉祥寺)라 부르고 점찰법회를 연 것에서 비롯하며<sup>56)</sup>, 고려시대 이후는 법주사 또는 속리사(俗離寺)로 불렸다.

현재 원통보전과 능인전의 기단, 그리고 쌍사자석등, 석련지(石蓮池), 사천왕석등, 희견보살상(喜見菩薩像)과 팔상전 기단 등이 창건 당시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57)</sup>. 그중에서 건물 기단을 제외한 석조 유물로 원위치를 지키고 있는 것은 팔상전 북쪽의 쌍사자석등 하나뿐이다. 현재 원통보전 서쪽의 희견보살상, 대웅보전 남쪽의 사천왕석등, 천왕문 밖 서남쪽의 석련지는, 본래 목탑이었던 팔상전 서쪽에 동서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고, 그 서쪽의 산 아래에는 19세기 말까지 청동제 미륵장륙상이 봉안된 주불전 산호전(珊瑚殿)이 동향으로 자리하여 팔상전과 동-서로 구성축을 이루고 있었다. 팔상전 북쪽에 위치한 쌍사자석등으로 보아 창건 당시에는 석등 북쪽에 지장보살을 봉안한 강당이 목탑을 중심으로 금당과 직교하는 구성축을 이루고 있었을 것이다<sup>58)</sup>. 이

54) 1943년 包光 金映遂가 편찬한 『金山寺志』(「八堂宇」) 에는 정유재란으로 소실되기 전의 금산사는 大寺, 奉天院, 廣敎院의 세 구역으로 되어 있다고 했다.

55) 이상 한지만, 위의 논문(2021. 8), pp.57-58.

56) 『삼국유사』권4, 「意解」5, 「眞表傳簡」, 「關東楓岳鉢淵藪石記」.

57) 이상의 석조 유구와 유물의 조성 시기는 배병선, 「법주사 연혁 및 배치」, 『법주사 팔상전 수리공사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p.54; 최현각, 김봉렬, 소재구, 위의 책, p.44 참조. 고당건축사사무소, 『법주사 원통보전 실측·수리보고서』, 문화재청, 2000, p.135에서는 원통보전 기단 남쪽 약 50cm 거리의 지면 아래에서 고려시대 이전으로 소급될 수 있는 기단의 지대석이 확인되었다고 보고했다.

58) 장현석·최효승, 「속리산 법주사 가람배치의 변천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4권3호, 2005.9, pp.81-



그림 7. 법주사도(정영복 소장, 18세기)의 전각 배치  
(자료 : 한지만, 2021. 8)

러한 가람의 기본 골격은 영심의 스승 진표가 앞서 증창한 금산사와 매우 유사하다. 고려시대에 들어와 목탑(팔상전 자리) 북쪽의 지장보살을 봉안한 강당은 본존이 아미타여래로 바뀌었을 것으로 보이며, 조선시대에는 이 자리에 극락전이 있었다<sup>59)</sup>.

현재 팔상전 북쪽의 가장 안쪽에 자리한 대웅보전(1618년 재건)에는 1626년(인조 4)에 조성된 비로자나 삼신불이 봉안되어 있는데<sup>60)</sup>, 전각의 명칭과 본존불이 서로 맞지 않다. 이 건물의 1715년 중수 상량문에는 명칭이 대광명보전(大光明寶殿)으로 되어 있고, 「법주사사적기」에는 정유재란 이후 재건 이전의 명칭이 대웅대광명보전이다.

즉, 조선 전기 이전부터 이 자리에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나불이 본존으로 봉안 불전이 있었다. 그리고 현재 대웅보전의 기단은 고려시대의 건축 유구이다<sup>61)</sup> 이것과 관련해 1128년(인종 6)에 이자겸의 난(1126) 때 억울하게 죽은 원혼을 달래고 왕의 치병을 위해 법주사에서 개최한 점찰법회<sup>62)</sup>를 위해 김부식이 쓴 「속리사점찰회소(俗離寺占察會疏)」에는 『화엄경』이 언급되어 있어 참고가 된다<sup>63)</sup>. 고려시대 법상종에서 『화엄경』을 중시하고 그에 대한 연구와 강설을 필수로 했다는 점에 비추어 그 실천 도량으로서 비로자나불을 봉안한 불전을 조성한 것으로 생각되며, 그 시기는 고려 전기를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앞서 1079년에 금산사 주지에 오른 소현이 금산사 남쪽에 조성한 광교원의 금당에 노사나불을 봉안했다는 사실도 참고할 만하다.

82에서도 창건 가람의 배치 구조를 이처럼 목탑을 중심으로 금당과 강당의 배치축이 직교하는 것으로 보았고, 법주사가 진표계 법상종 사원이라는 점과 『삼국유사』(권4「意解」5「心地繼祖」)에 심지(心地)가 영심(永深)이 속리산(법주사)에서 개최하는 과증법회에 참가해 참회수행을 할 때 지장보살이 현신해 심지를 도왔다는 기록을 들어 당시 법주사 강당에는 지장보살이 봉안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59) 한지만, 위의 논문(2021. 8), pp.14-15.  
60) 본존불 및 좌우보처불 「造成記」(1629); 이강근, 「17세기 법주사의 재건과 양대 문중의 활동에 관한 연구」, 『강좌미술사』26, 2006, p.450. 「造成記」 원문은 삼성건축사사무소, 『법주사 대웅전 실측수리보고서(상)』, 문화재청, 2005, pp.302-307 참조.  
61) 이강근, 「조선전기 불전건축 내부공간의 장엄」, 『불교미술연구』 1, 1994, p.79; 최현각, 김봉렬, 소재구, 위의 책, p.44.  
62) 『고려사』권15「세가」15「인종」1·인종 6년(1128) 정월 정해일 : 왕이 병들자 재추(宰樞)와 백관이 종묘(宗廟)와 사직(社稷), 산천(山川)과 불사(佛祠), 도우(道宇)에서 기도를 올렸다(王不豫, 宰樞百官禱于廟社山川佛祠道宇).  
63) 『동문선』권110「疏」·「俗離寺占察會疏」: 모든 참회의 궤범과 의식을 설치하여 참회의 마음을 일으키는 방편을 드러냈습니다. 보현보살의 열 가지 서원은 『화엄경』에 설해져 있으며, 진표 스님의 부지런함은 마침내 미륵불에 감동하였습니다(設諸懺悔之軌儀, 示之發起之方便, 普賢之願, 具宜說於華嚴, 眞表之勤, 終感通於彌勒). 민족문화추진위원회의 번역본을 참고로 일부 수정하였다.

고려 전기 11세기 후반 법주사에는 문종의 아들로 혜덕왕사 소현의 제자가 된 도생승통 왕탱이 주석했다. 이어서 1119년(예종 14)에는 예종의 아들로 혜소국사 정현 밑에서 출가한 광지대선사(廣智大禪師) 지인(之印, 1102-1158)이 왕명으로 주지에 부임했다<sup>64</sup>. 고려 후기의 원종 연간(1260-1273)에는 자정국존(慈淨國尊) 미수(彌授, 1240-1327)가 주석하며 왕명으로 경론의 주해 92권을 찬술했다. 미수는 말년에 다시 이곳으로 하산했고, 1327년(충숙왕 14)에 입적하자 왕명으로 산호전 동쪽 모퉁이에 부도를 세웠다<sup>65</sup>. 이처럼 고려시대를 통해 법주사는 법상종의 유력 고승이 주석하는 사원으로 명성을 떨쳤다.

금산사의 진표가 법주사의 영심에게 전한 간자는 다시 팔공산(八公山)의 동화사를 창건한 심지(心地)에게 전해졌다. 『삼국유사』(권4「意解」제5「心地繼祖」)에는 헌덕왕(808-826 재위)의 아들 심지가 법주사에서 영심이 개최하는 점찰법회에 참석해 그로부터 간자를 얻어 팔공산으로 돌아와 동화사를 창건한 내력이 전한다. 창건 시기는 헌덕왕의 재위 기간에 비추어 대략 9세기 중반 이전 무렵으로 추정되며, 고려시대까지 명칭이 동수(桐叢) 또는 동사(桐寺)로도 불렸다.

지금의 동화사는 대웅전 일곽과 그 남쪽의 비로암 일곽, 그리고 그 동편 계곡 너머의 금당암 일곽이 핵심 사역을 이루고 있다(그림 8). 이 중에서 통일신라시대 양식으로 된 당간지주, 석탑, 기단과 초석, 불상 등 창건기의 유구는 금당암, 비로암 일곽에 집중적으로 남아있다. 대웅전 일곽은 임진왜란 이후 재건 과정에서 확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66</sup>.

창건 가람의 중심 영역은 당간지주와 동·서삼층석탑 등이 있는 금당암으로, 극락전과 동·서 삼층석탑, 그 북쪽의 수마제전(須摩提殿)<sup>67</sup>이 이루는 일곽과 그 동편의 금당선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불전인 극락전(1622년 재건, 1629년 본존 아미타삼존불 조성)은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이고, 기단부에는 고식의 가구식 기단, 원형 주좌와 고맥이좌를 둔 초석과 고맥이석, 그리고



그림 8. 동화사 가람배치도 (자료 : 한지만, 2021. 8)

64) 「공지대선서지인묘지명(廣智大禪師之印墓誌銘)」(1158)

65) 「법주사 자정국존비(法住寺 慈淨國尊碑)」(1342)

66)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동화사 실측조사보고서』, 대구직할시, 1993, pp.34-35; 한지만, 「팔공산 동화사의 가람 구성 변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7권 5호, 2021.5, pp.108-109.

67) 수마제(須摩提)는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를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어 sukḥāvātī의 한자 음역이다. 동국역경원 불교사전(<https://abc.dongguk.edu/ebti/c3/sub1.jsp>). 현재 수마제전에는 고려시대에 제작된 철조 아미타여래좌상이 봉안되어 있다.

전후면 여칸에 신방석이 남아있다. 기둥배치도 도 이주나 감주법을 이용해 불단을 뒤로 물리거나 불단 앞에 넓은 예배공간을 만들지 않은 고식의 정치법으로 되어 있다. 이 건물은 창건 당시의 위치와 규모, 기단과 간살 구성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심지의 창건 당시에는 법상종 사원의 금당으로서 미륵불이 본존으로 봉안되어 있었을 것이다<sup>68)</sup>.

1969년 동탑 해체수리 때 탑 안에서 발견된 탑지(塔誌) 중에서 조선 전기 1544년(중종 39) 수리 때 작성된 제1탑지석의 내용을 통해 동·서 삼층석탑의 조성 경위와 창건 당시의 가람 배치의 윤곽을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내용의 핵심은 원래 지금의 동탑은 강당 남쪽에 있었는데, 875년(경문왕 15) 금당 서쪽에 새로 탑을 건립하면서 금당 동쪽으로 옮겼다는 것이다<sup>69)</sup>. 이것에 의하면 창건 가람은 앞뒤로 배치된 금당과 강당 사이에 탑을 두는 독특한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강당에도 중요한 예불의 대상을 봉안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진표계 법상종 사원인 점을 감안하면 지장보살상일 가능성이 크다<sup>70)</sup>. 그리고 875년에 서탑이 건립되면서 통일신라에서 유행한 쌍탑식 가람의 한 형태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보다 앞서 심지는 863년(경문왕 3) 무렵 지금의 비로암 자리에 경문왕(861-875 재위)의 발원으로 민애왕(838-839 재위)의 명복을 비는 원당을 짓고 그 앞에 삼층석탑을 건립했다<sup>71)</sup>. 현재 이 탑 북쪽에 위치한 대적광전에는 양식상 석탑과 같은 시기인 9세기 중반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는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 봉안되어 있고<sup>72)</sup>, 기단 위에도 그 무렵 것으로 추정되는 초석이 일부 남아있다. 이것은 법상종의 교학에서 중시했던 『화엄경』의 주불 비로자나불을 봉안한 불전의 건립이 통일신라시대부터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려시대에 들어와 법상종이 교종의 주류로 부상한 11세기 전반 무렵 동화사는 법상종의 주요 거점 사원으로서 승과가 치러지는 관단사원(官壇寺院)으로 운영되고 있었다<sup>73)</sup>. 또한 고려 후기에 들어 위축되었던 법상종의 교세가 원간섭기에 회복된 이후에도 동화사의 위상이 확인된다. 사경승을 이끌고 원에 다녀온 홍진국존(弘眞國尊) 혜영(惠永, 1228-1294)은 동화사로 하사소로 지정받아 내려와 이곳에서 입적했고<sup>74)</sup>, 자정국존 미수는 1321년(충숙왕 8) 하산소로 정해진 법주사로 내려가는 길에 동화사에 들러 1375년(우왕 1)까지 머물기도 했다<sup>75)</sup>.

고려시대의 가람 구성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로, 인근 계곡에 위치한 와요지에서 신라 말에서

68) 민병찬, 「동화사 비로암 석조여래좌상 연구」, 팔공산 동화사, 그래픽네트, 2009, p.221

69) 무릇 삼층석탑은 가람 창건 때부터 乾符2년(875) 9월까지 강당 남쪽에 있었다. 그런데 금당 아래에 새 탑을 건립하면서 부득이 탑을 당(금당) 위로 옮기게 되었다(若夫三層石塔者, 從迦藍治成, 到於乾符二季乙未(875)九月, 任於講堂南. 然而於金堂下建新塔已, 不獲已故塔傳在於堂上). 여기서 875년 금당 아래에 새로 건립한 탑이 지금의 서탑이다. 따라서 이어지는 동탑이 옮겨 간 당의 위는 금당의 동쪽이라는 뜻이 된다. 원문은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에서 인용.

70) 한지만, 위의 논문(2021. 5), pp.106

71) 비로암 삼층석탑에서 발견된 납석제 사리호에는 다음과 같은 기문이 새겨져 있다. 國王奉爲敏哀大王追崇福業造石塔記. …(중략)… 桐藪願堂之前, 創立石塔. …(중략)… 時咸通四年歲在癸未(863). 기문 말미에 나열된 건립 공역 관계자 명단의 맨 앞에 나오는 인물이 專知大德 心智인데, 학계에서는 이를 동화사 개창조 心地로 본다. 김창겸, 「신라 승려 心地 연구: 『삼국유사』 「心地繼祖」와 관련하여」,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34, 2013.4, p.230.

72) 민병찬, 「동화사 비로암 석조여래좌상 연구」, 『팔공산 동화사』, 그래픽네트, 2009, pp.214-225.

73) 『고려사』 권6 「세가」 정종 2년(1036) 5월 신묘일 기사에 의하면, 왕명으로 네 명의 아들을 둔 자는 그중 한 명의 출가를 허락하되, 영통사(靈通寺), 승법사(崇法寺), 보원사(普願寺), 동화사 등의 계단에서 소속 종파의 경률(經律)로 시명을 치르게 했다. 고려 전기에는 화엄종, 법상종, 선종 등의 각 종파별로 승과가 시행되었다. 정병삼, 위의 책, p. 292.

74) 「동화사 홍진국존비(桐華寺 弘眞國尊碑)」(1298)

75) 「법주사 자정국존비」

고려 초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편년되는 ‘桐蔭彌勒堂’ 명 기와가 출토되었다<sup>76)</sup>. 이것은 창건 이래 고려시대에 걸쳐 동화사의 주불전이 미륵당이었음을 입증하는 유물이다.

그리고 1957년 금당암 서탑 해체 수리 때 발견된 「塔重修記」(1852)에는 고려 후기 1319년(충숙왕 6)과 조선 전기 1544년(중종 39)년의 수리 내용이 필사되어 있어 가람 구성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고려 후기 수리의 개요는, 승려 현변(玄旻)이 왕명으로 연경(燕京)에 다녀온 뒤 1317년부터 동화사에 주석했는데, 이듬해 왕이 하사한 향을 가지고 통도사에 가서 축원하고 얻은 사리를 가지고 동화사로 돌아와 무량수전에 봉안하고 기도한 끝에 분신사리 20매를 얻었고, 이것을 탑(서탑)에 안치했다는 것이다<sup>77)</sup>. 조선 전기의 수리 내용은 1544년에 동·서 두 탑을 수리할 때 무량수전의 기단도 함께 수리한 것이 핵심이다<sup>78)</sup>.

이것은 적어도 고려 후기 이전부터 조선 전기에 걸쳐 동화사에 아미타불을 봉안한 무량수전이 부불전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현재 금당암 극락전 후방에 위치한 수마제전(1702년 재건)에 봉안된 고려시대 철조 아미타불좌상<sup>79)</sup>이 바로 당시 무량수전의 본존이었고, 무량수전의 전신은 창건 가람의 강당이었을 것이다.

금당과 강당 사이에 탑이 배치된 창건 동화사의 가람배치는 선행하는 금산사나 법주사와 배치 윤곽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탑을 매개로 금당과 강당의 배치축이 구성된다는 점에서 가람배치의 개념을 공유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고신라 영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가람 조영에 신라왕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동화사의 경우, 창건 얼마 후 당시 신라 지역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던 쌍탑식 가람으로 변모한 점은 매우 흥미롭다.

권적(權適, 1094-1146)이 지은 「지리산수정사기(智異山水精社記)」(『동문선』64권, 「記」)은 이자겸의 난 직후 법상종의 교세가 크게 침체<sup>80)</sup>하기 시작한 1129년(인종 7)에 낙성된 법상종 사원 지리산 수정사(水精社)의 가람 구성과 사원

	통일신라시대(8-9세기)	고려시대(11세기 이후)
금산사		
법주사		
동화사		
비고	A:미륵보살 B:지장보살 C:아미타불 D:비로자나불 □:탑	

그림 9. 진표계 법상종 사원의 가람 구성 변화 모식도 (한지만, 2021. 8)

76) 윤용진, 『대구 용수동 와요지 조사보고서』, 대구직할시, 1986, pp.11-12.

77) 歲在丙辰(1316)孟夏, 比丘玄旻承王命赴燕京, 次年丁巳(1317)三月得住茲寺. 越戊午(1318)三月奉御香下山, 次年己未(1319)三月, 到通度寺燒香祝, 乞得舍利五枚, 還山四月設大會焉. 是年八月十四日, 使隨院僧起役, 壞而見之, 塔中無安舍利. 至第五日朝, 奉持向者舍利五枚, 置于無量壽殿, 而徒弟及役夫僧許多人念釋迦, 六七百聲懇禱, 至得分身二十枚. 雖曰未運, 佛法靈驗, 有如是也, 猶自慶哉, 至翌日安于此塔. 원문은 이흥직, 「동화사 금당암 서탑 사리장치」, 『아세아연구』 1-2, 1958.12, pp.88-91에서 재인용.

78) 嘉靖二十三年甲辰(1544)孟夏初六日始, 仲夏十二日畢役. …(중략)… 何幸智祖比丘如干鳩財, 而其時無量壽殿階築破落, 故兩塔重新焉. 원문은 이흥직, 위의 논문, pp.88-91에서 재인용.

79) 국립대구박물관, 『팔공산 동화사』, 그래픽네트, 2009, p.55

80) 허홍식, 「유가종의 계승과 소속사원」, 『고려불교사연구』, 일조각, 1997(1986), p.212.

운영, 그리고 고려시대 법상종 사원에서 행했던 점찰법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하에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수정사를 창건한 진억(津億)은 11세에 출가해 당시 현화사에 주석하고 있던 혜덕왕사 소현 밑에서 공부했다(投玄化寺, 慧德王師受業). 공부가 깊어지자 속세로부터 아주 떠날 생각을 하던 중, 지리산에 오대라는 폐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聞智異山有廢寺曰五臺), 그곳으로 가서 터를 닦았다. 이 터는 일찍이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 1055-1101)이 돌아보고 큰 법이 머물만한 곳(大法住處)이라고 말한 곳이었다.

공사는 1123년(인종 1) 7월에 시작해 1129년 10월에 마쳤다. 해인사(海印寺)의 주지 승통(僧統)인 익승(翼乘)과 공배사(功倍寺)의 주지 승록(僧錄) 영석(瑩碩)이 크게 사재를 희사하여 그 경비를 원조했고, 담웅(曇雄)과 지웅(至雄)은 단신(檀信)을 모으고, 순현(順賢)이 직접 공인(工人)을 데리고 연장을 잡고 일을 서둘러서 건물 86간을 지었다(順賢躬率工人, 操斤斧疾作, 凡爲屋八十有六間). 3일에 걸쳐 열린 낙성법회(落成法會)에 인종은 윤언이(尹彦頤, 1090-1149)를 보내 분향하고 은 2백냥을 내리며 격려했다.

가람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우선, 수좌 법연이 무량수불(無量壽佛) 주상(鑄像) 한 구를 봉안하고, 승통 익승은 석탑 하나를 세우고, 선사 영성(永誠)은 인쇄한 대장경을 모셨다(首座法延安無量壽鑄像一軀, 僧統翼乘安石塔, 禪師永誠安印本藏). 그리고 진억이 수정(水精)한 개를 찾아내어 무량수불 앞에 걸어서 밝은 믿음을 표하고, 그것으로 사(社)의 이름을 지었다(師乃索水精一枚, 懸無量壽像前, 以表明信, 因以名其社)고 했다. 즉, 사원에 석탑 하나를 세우고, 무량수불 한 구를 주조해서 봉안했으며, 경장(經藏)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진억이 수정을 무량수불 앞에 걸어 믿음을 표방했으니, 수정사의 주불전에는 무량수불, 즉 아미타불이 본존으로 봉안되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엄격한 계율의 수지와 수행을 통해 도솔천 왕생을 염원하는 법상종의 기본 종지로 보아, 미륵불을 봉안한 주불전이 있었을 가능성을 이 기문만으로는 배제하기 어렵다.

사원의 운영에 대해서는, 먼저 우수한 사람이나 덕망이 높은 이로서 사원(社院)에 거처하는 이에게는, 일정한 법규에 구애되지 않고 경을 읽고 염불을 하든가, 좌선을 하든가, 공부를 하든가 간에 마음대로 자유롭게 지내도록 했다(不拘常法, 諷經念佛, 坐禪修慧, 惟意所適, 使之優遊而自得也). 그리고 대중과 상의하고, 나라에서 명령을 내리시어 일정한 규정을 삼을 것을 청했는데, 그것은 곧 지금부터 덕을 이루어 사원(社院)에 거주하는 이들 중에서 번갈아 가면서 사주(社主)가 되며, 기한은 3년 전후로 정하고 서로 교대하여 감히 어기지 못한다는 것이니, 이것은 오래도록 지속하기 위한 방법이다(與大衆謀, 請命于朝, 立爲彛則. 自今以成德居社院者, 輪爲社主, 限三數年相代, 無敢違越, 蓋持久之道也)고 했다. 수행은 자유롭게 하되, 사원 소속 대중과 의논하고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운영 규칙으로서, 소속 승려들 중에 덕망을 갖춘 이들 중에 사원 운영을 책임지는 사주를 뽑되 그 재직 기한은 3년으로 제한하고 서로 교대하며 말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수정사에서 행했던 법상종 고유의 점찰법회의 진행 방식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어 소개한다. 이처럼 보름마다 대중들이 모여 자신과 타인의 해탈을 위해 점을 치고 참회하는 법회가 개최된 공간은 아미타여래가 봉안된 강당이었을 것이다.

사(社)에 참가한 모든 이들의 생존여부를 불문하고 나무쪽에다 이름을 새겨두었다. 15일마다 점찰업보경(占察業報經)에서 말한 바에 의하여 나무쪽을 꺼내어 바퀴에 던져서 선악(善惡)의 보응(報應)을 점쳤다. 점쳐서 나온 대로 선과 악을 두 개의 상자에 나누어 놓고, 악보(惡報)에 빠

진 사람은 회원들이 그를 위하여 대신 참회하고, 다시 바퀴에 던져서 선보(善報)를 얻게 한 후 그만둔다. 또 처음에는 선보를 얻었다가 나중에 악보로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마침내 다시 1년마다 한 번씩 바퀴에 던져 점을 쳐서 만일 다시 떨어져 버린다면 곧 처음과 같이 대신 참회한다. 이것은 구름처럼 모여든 대중과 함께 해탈을 얻어서 미래의 세계에까지 꺼지지 않는 법의 등불을 전하려 함이니, 이른바, “집 밖을 나서지 않고도 자신과 타인의 두 가지 이익에 모두 넉넉하다.”는 것이다(凡與於入社者, 無問存亡, 刻名爲簡, 每值半月, 依占察業報經說, 出簡擲輪, 占善惡之報. 以所得善惡, 分爲兩函, 其陷惡報者, 會衆爲之代懺, 還復擲輪, 得善報乃已. 又慮其有初得善報而後墮惡報, 乃復於每年, 一擲輪以占之, 如或顛墜, 則復代懺如初. 欲與雲集之衆, 同一解脫, 限未來際, 傳無盡燈, 所謂不出一堂. 而二利俱足者也).

법상종 사원의 원관 운영과 관련해 「칠장사 혜소국사비」(1060)에 혜소국사 정현의 활약이 주목된다. 비문에 의하면, 안성 출신 정현이 수좌 때 덕종(1032-1034 재위)의 명으로 법천사에 주석했고, 이어 승통(僧統)에 임명되어 개경의 현화사 주지가 되었다. 얼마 후 1044년(정종 10)에는 개경의 광제사(廣濟寺) 절 문 앞에 솔을 걸어놓고 밥을 지어 배고픈 이들을 먹였다. 그리고 이듬해 1045년(정종 11)에는 삼각산에 도적과 호랑이 피해로부터 행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현사(沙峴寺)를 창건하자, 왕이 홍제원(弘濟院)이라는 원액(院額)과 서인관(棲仁館)이라는 관액(館額)을 써서 보냈다<sup>81)</sup>. 홍제원은 정현이 창건한 사현사에서 운영한 원관의 이름이고, 서인관은 원관 내의 중심 건물에 걸었던 편액일 것이다<sup>82)</sup>.

1021년(현종 12) 형궁(迥兢)이 왕명을 받아 지금의 천안시 성환읍에 창건한 홍경사(弘慶寺)와 광연통화원(廣緣通化院)도 법상종에 속했고, 건립 배경 역시 도적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었다<sup>83)</sup>.

이 시기 법상종은 왕사, 국사를 연이어 배출하며 교세 매우 흥했는데, 당시 법상종의 고승 정현이 왕실의 지원을 받아 백성들에게 보시하고 원관을 갖춘 사원을 창건·운영한 사실은, 이 무렵 고려 법상종 사원의 일면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된다.



그림 10. 홍제동 오층석탑  
(사현사지 오층석탑, 국립중앙박물관 소재, 자료: 국립중앙박물관)

81) 이후 정현은 1054년(문종 8) 봉은사(奉恩寺)에서 국사에 임명되었고, 그의 청에 따라 칠장사로 하산해 그해 11월 15일 세수 83세, 승랍 74세로 입적했다. 「칠장사 혜소국사비」.

82) 박만홍, 위의 논문, p.47.

83) 이인재, 「법천사 연구의 새로운 진전을 위하여」, 『운곡학회연구논총』 제2집, 운곡학회, 2007, p.110.

## IV. 고려시대 법천사의 공간 구성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비」(1085)에 전하는 해린의 행적은 당시 불교의 주류를 접한 법상종 고승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 해린은 21세 때(1004년(목종 7) 무렵) 왕륜사(王輪寺) 대선장(大選場)에서 대덕(大德)에 임명되고, 1014년(현종 5) 왕으로부터 대사(大師)의 법계를 받았다<sup>84)</sup>. 이후 왕명으로 태평년중(太平年中, 1021-1030)에 수다사(水多寺), 1030년(현종 21)에는 해안사(海安寺)에 주석했고, 덕종대(1031-1034)에 삼중대사(三重大師), 수좌(首座)를 거쳐, 1045년(정종 11) 승통(僧統)직에 올랐다. 중희년중(重熙年中, 1032-1054)에는 외척으로 권력을 장악한 이자연의 5남 소현(韶顯)을 제자로 받으며, 해린과 법상종은 왕실과 외척 권력으로부터 막강한 후원을 받게 되었다. 1054년(문종 8)에는 왕명으로 현화사(玄化寺)로 이석해 가람 보수공사를 주도했고, 보수를 마친 가람의 장려함이 마치 도다사(觀史多), 즉 도솔천의 천궁(天宮)을 옮겨 놓은 것과 같았다고 했다. 1056년(문종 10) 왕사(王師), 1058년국사(國師)에 책봉되었다. 1067년 해린의 청으로 법천사로 하산해 있다가, 3년 뒤 1070년에 입적했다. 왕은 원주(原州) 창고에 있는 양곡으로써 장례식 경비를 충당하도록 하는 등 마지막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당시 왕실의 지원은 현재 지광국사현묘탑(智光國師玄妙塔)과 탑비(塔碑)의 조형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11세기 전반 법상종 고승 해린이 불교계에서 차지한 위상으로 볼 때, 해린이 하산할 무렵 법천사에도 대규모 가람 증창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발굴조사를 통해 비록 유구의 잔존 상태가 양호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해린이 하산할 무렵 대규모 증창이 이루어졌던 11세기 후반 이후의 가람 윤곽이 드러났다. 경내는 회랑에 의해 여러 원으로 구획된 다원식 가람의 전형을 보여주며, 각각의 원은 고유한 기능이 부여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하에서 소속 종파인 법상종과 더불어 교세가 가장 번성했던 11세기 후반 이후 고려시대 법천사의 공간 구성 양상에 대하여 영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 1. 승탑원

중심 사역 동편 구릉에 조성된 지광국사 승탑원은 해린이 입적한 1070년 직후에 조성되었고, 이전의 나말·려초부터 이 일대에는 전각들이 조영되어 있었다. 승탑원은 경사지에 3개의 축대를 조성해 계단형으로 대지를 조성하고, 가장 안쪽인 북쪽 위의 제1단에 승탑과 탑비를 놓았다. 영역 중앙의 서편에 승탑을 세우고, 그 동편에 탑비를 승탑을 바라보는 방향인 서향으로 놓았다.

유명한 지광국사현묘탑(국보 101호)과 탑비(국보 59호)는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걸작이다<sup>85)</sup>. 해린의 승탑과 탑비가 고려시대에 조성된 동류의 작품 중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조각기술 역시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는 것은, 건립 당시 그를 왕사, 국사에 책봉했던 문종의 특별한 관심과, 당시 최고 문벌이었던 인주 이씨 이자연의 5남인 혜덕왕사 소현이 해린의 제자였기 때문일 것이다<sup>86)</sup>.

84) 이 사이 1010년(현종 1) 해린은 자신이 처음으로 불법을 배웠던 법고사(法阜寺=法泉寺)로 돌아가는 길에 도강(都講)인 진조(眞肇) 스님을 만나 역산(曆算)을 배웠다고 했다.

85) 김대식, 「지광국사현묘탑비에 나타난 고려의 용화세계」, 『고문화』 제70집,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007, 12, pp.18.

86) 홍대환,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과 탑비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제60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5, 2, p.93.

그중에서 탑비의 비신 측면에는 화려한 용문양이 조식되어 있는데 이러한 형태는 고려시대 법상종계 비의 특징으로 알려져 있다<sup>87)</sup>. 탑비는 현화사비(1021), 삼천사 대지국사비(11세기 중엽), 칠장사 해소국사비(1060), 금산사 혜명왕사응진탑비(1111)와 공통적인 조형 요소를 보이는데, 이들 사찰이 법상종에 소속되었던 관계로 법상종 미술로 구분하기도 한다<sup>88)</sup>. 특히 현화사비, 칠장사 해소국사비, 그리고 법천사 지광국사탑비의 공통적인 특징은 비신의 좌우 측면에 쌍룡문양을 조각한 것인데, 고려시대에는 3기의 탑비 이외에는 확인되지 않는다<sup>8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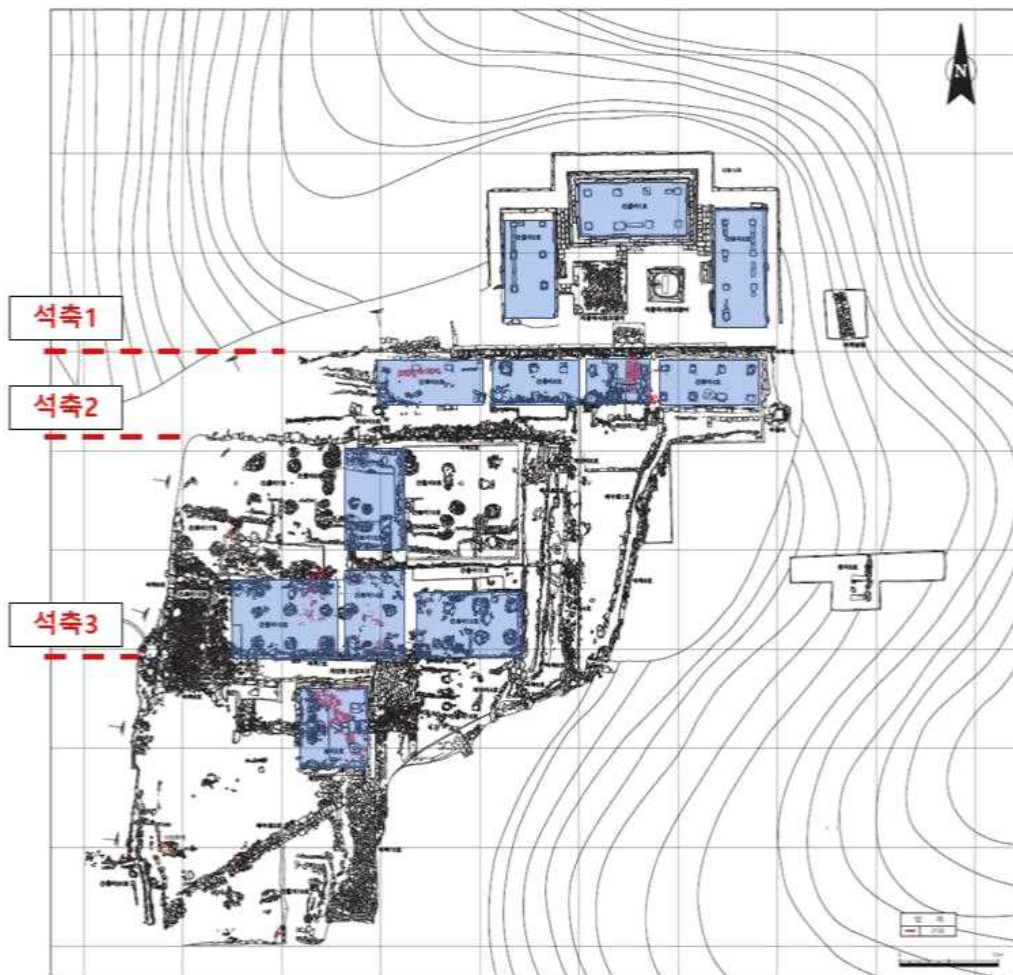


그림 11. 법천사지 승탑원 유구 배치(자료: 강원문화재연구소, 2009 도면 위에 표기)

탑비 양식에 더해 탑원을 이루는 건축 방식에서도 법상종의 특징이 보인다. 법천사지의 지광국사 승탑원은 승탑과 탑비가 있는 마당의 북, 동, 서 세 면에 건물을 배치하고, 남쪽 축대 아래에 문과 회랑을 두어 일곽을 완성했다. 이러한 탑원의 건축 구성과 배치 형태는 북한산 삼천사지에서 조사된 대지국사(大智國師) 법경(法鏡)의 승탑원과 같다. 법경은 도승통(都僧統) 왕사로서 삼각산 삼천사의 주지로 있다가, 1021년(현종 12)에 현화사가 완성되자 왕명으로 현화사의 초대 주

87) 정성권, 「고려전기 남한강 유역 탑비의 현상과 조성배경」, 『한국고대사탑구』 30호, 한국고대사탑구학회, 2018, pp.385.

88) 홍대한, 위의 논문, pp.96-97.

89) 홍대한, 위의 논문, p.99; 김대식, 위의 논문, p.25.

지가 되었다. 덕종(1032-1034 재위)이 정현을 승통에 추대하고 현화사의 제2대 주지로 임명했을 때, 만년의 법경은 현화사 주지를 사임하고 삼천사로 하산해 그곳에서 입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90)</sup>. 삼천사의 대지국사 승탑원은 역시 현화사의 주지를 역임한 법천사의 지광국사 승탑원으로 그 건축 공간 형식이 계승되었다. 이것은 앞서 소개한 탑비의 양과 더불어 11세기 법상종 교단 내에서 하나의 정형으로 인식되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1969년 칠장사의 혜소국사비 일대를 촬영한 사진(그림 13)을 보면, 탑비 뒤쪽으로 건물의 기단과 계단 유구가 남아있는데<sup>91)</sup>, 삼천사지와 법천사지 승탑원의 건축 구성과 유사성이 의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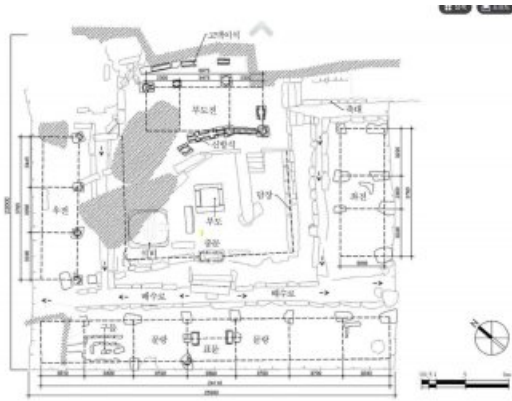


그림 12. 삼천사지 승탑원 유구 배치  
(자료: 서울역사박물관, 2008)



그림 13. 1969년 칠장사 혜소국사비 주변 전경  
(자료: 역사건축기술연구소, 2018)



그림 14. 현화사비(좌), 칠장사 혜소국사비(중),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비(우)

90) 최성은, 「고려중기 법상종 사원의 불교조각」, 『미술자료』 제94호, 국립중앙박물관, 2018. 12, p.26.  
91) 현재 이 기단 석물들은 칠장사 원통전 기단과 축대에 사용되어 있다. 역사건축기술연구소, 『칠장사 원통전 학술조사 보고서』, 안성시, 2018, p.55.

## 2. 당탑원

중심 사역의 당탑원에서 핵심 관건은 탑의 배치와 금당(불전)과 강당의 본존불이다. 우선 탑의 배치에 대해 살펴보자.

법천사지의 당탑배치는 전형적인 신라 하대 이래의 쌍탑식 가람배치 양상을 보인다. 지금의 원주 일대는 신라가 진호왕대에 북쪽 한강 수계까지 영토를 넓힌 이후로 신라 영역이 되었고, 삼국통일 후 678년(문무왕 18)에는 북원소경(北原小京)이 설치되었다<sup>92)</sup>. 늦어도 신라 하대부터 이곳은 신라의 지방 거점 도시로 중시되었고, 왕경 일대의 문물과 문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었을 것이다. 지광국사탑비에에는 9세기 법천사 관단(官壇)에서 수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나말·려초 이전부터 법천사지가 불교계에서 가졌던 위상과, 신라 중심부 문물의 유입 가능성을 시사한다.

발굴조사를 통해 금당지 앞 동서 양쪽에서 석탑지가 조사되었다. 석탑지 앞에는 공양보살상을 안치했던 육각형 기초 유구가 확인되었다. 발굴조사 과정에서 흩어져 있던 석탑 부재가 수습되었고, 조사팀에 의해 방형 평면의 이중기단을 갖춘 삼층석탑으로 복원되었다. 방형 이중기단을 갖춘 이 삼층석탑은 9세기에 조성된 통일신라 석탑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통일신라 석탑의 양식적 요소를 충실히 계승하고 있지만, 정성권은 양식상 이 탑을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신라계 석탑으로 편년하고, 해린이 법천사로 하산하는 1067년 이전의 11세기 중엽에 중심 사역이 대대적으로 증창될 때 함께 조성된 것으로 보았다<sup>93)</sup>.

다만 탑의 배치와 관련하여, 11세기 증창 이전, 즉 창건 당시부터 이러한 쌍탑으로 조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된 바가 없다. 그리고 9세기 중반 심희가 창건한 팔공산 동화사의 경우, 당초에는 금당과 강당 사이에 탑 하나를 두는 배치였다가, 875년 현재의 서탑을 새로 만들면서 기존의 탑을 금당 동쪽으로 옮겨 지금과 같은 쌍탑식 가람배치로 변했다. 이러한 동화사의 당탑 배치가 7세기 후반 이래로 신라 중심부 문물이 유입되고 있던 원주 지역에 전해져 법천사에 구현되었을 가능성 또한 향후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또 탑 앞의 공양보살상은 고려 전기의 독특한 도상으로 논산 개태사지, 강릉 신복사지, 평창 월정사에 확인되는데<sup>94)</sup>, 이들 사원과의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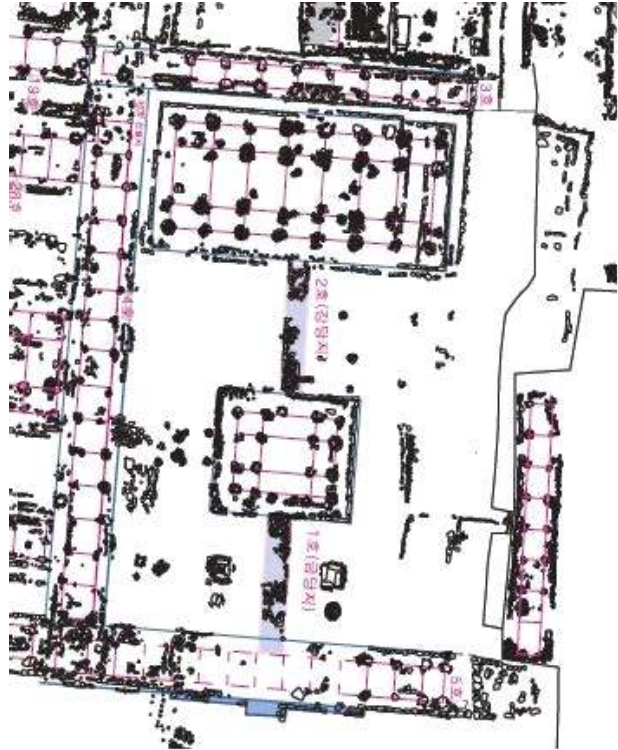


그림 15. 법천사지 당탑원 유구 배치  
(자료: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7)

92) 『삼국사기』권7「신라본기」7 문무왕 18년(678) 1월조.

93) 상대갑석 하부에 부연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며, 옥개받침의 경우 초층부터 삼층까지 모두 4단으로 조성된 점, 하대괴임과 하대면석이 한 돌로 만들어진 점은 이 석탑이 고려시대 석탑임을 말해준다. 정성권, 「원주지역 주요 사지 석탑의 편년과 의의 - 거둔사지, 흥법사지, 법천사지 석탑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탑구』 25호, 한국고대사탑구학회, 2017, pp.358-361.

관성 또한 검토되어야 한다.



그림 16. 법천사지 삼층석탑 복원도(좌), 탑전 공양보살상(우)  
(자료: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7)

다음으로 11세기 법천사 금당과 강당에 봉안된 본존불에 대해, 이인재는 고려시대 전기 법상종의 제 양상에 근거해 금당에는 미륵보살상이 봉안되고, 강당에는 아미타불상이 봉안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sup>95)</sup>. 우선 금당에 봉안되었던 본존은 당연히 미륵이었을 것이다. 문제는 강당에 과연 본존이 봉안되어 있었는지, 봉안되어 있었다면 그것이 고려시대 법상종에서 미륵과 함께 망자 추선을 기원하는 대상이었다고 알려진 아미타불이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우선 해소국사 정현, 지광국사 해린, 혜덕왕사 소현 등 법천사와 관련이 있는 11세기 법상종 승려들은 모두 중앙 불교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현화사의 주지를 역임했는데, 법천사에서든 개경의 현화사에서처럼 정기적으로 아미타회(阿彌陀會)가 설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96)</sup>. 이것을 증명해 주는 유물로서, 법천사지 출토로 알려진 청동향완, 청동현로(懸爐), 청동 광명대(光明臺, 燭臺), 청동반자(飯子, 金口)에는 ‘무자년에 법천사 미타상 앞의 22개의 광명대를 만들어 봉안했다(戊子二月日, 法泉寺稱陀前光明臺, 廿二內大三, 棟梁信懷惠堅則岡景申里文, 木次知造納, 都重八十四斤三兩)’, ‘무자년에 법천사 미타회의 현로 3점을 만들었다(戊子二月日, 法泉寺彌陀會, 懸爐三, 都卜七斤七兩, 信懷木五人造納)’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또 청동향완(靑銅香壇)에는 ‘무자년 2월 아미타부처 앞에 모셔진 향완 3개. 무게는 11근, 신회 등 5명이 만들어 바쳤다(戊子二月日, 彌陀前香壇三, 都卜十一斤, 信懷木五人, 次知造)’, 무자명법천사번(戊子銘法泉寺燔)에는 ‘무자년 3월 법천사 아미타부처 앞의 번이다. 무게는 1근 12량이다. 신회 등 5명이 만들어 바쳤다(戊子三月日, 法泉寺彌陀前燔城三, 入卜一斤十二兩, 信懷木五人造成)’는 명문이 있다. 이것을 통해

94) 강원고고문화연구원, 『원주 법천사 III』, 2017, p.585.

95) 이인재, 위의 논문, p.118.

96) 최성은, 위의 논문, p.33.

무자년 법천사에서 미타회가 설행되었고, 아미타불 혹은 아미타전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sup>97)</sup>.

이상의 무자명 청동제 범구들은 법천사의 아미타불, 관음, 대세지보살상으로 구성된 아미타삼존불상의 각 상 앞에 놓았던 것들로, 향로, 현로, 번이 각각 1개씩 놓이고 좌우에 대형 광명대가 놓였을 것이며, 명문의 '戊子年'은 1168년(의종 22)으로 추정되었다<sup>98)</sup>. 이것은 11세기 법천사의 강당에 아미타삼존이 본존으로 봉안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곳에서 매년 가을 7월 15일부터 3일 밤낮으로 망자 추선을 위한 미타회가 설행되었을 것이다.

### 3. 추정 고원 및 비로전 영역

당탑원 북쪽에 인접한 원은, 사원의 주방과 연관된 각종 기능을 수행하는 전각들로 구성된 고원으로, 그 동편의 산록에 위치한 일련의 건축군은 비로전 영역으로 추정하였다. 먼저 당탑원 북쪽 원을 고원으로 추정한 단서는 이 영역 최북단에 위치한 석축과 석실 유구 때문이다(그림 17). 북측 단부에 위치한 석축 유구는 바닥에 부분적으로 점토 다짐한 것이 확인되어 조사단에서는 물을 가두어 두었던 시설로 추정하였다<sup>99)</sup>. 그리고 상대적으로 잔존 상태가 양호한 동측 석축 상부에 초석으로 볼 수 있는 석재가 잔존하여 상부에 지붕을 설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sup>100)</sup>. 이 석축 유구의 동남쪽에 접해 있는 석실 유구는 북쪽으로 열린 ㅁ형 평면을 하고 있고 조사단에서는 저장시설로 추정하였다<sup>101)</sup>. 이 석축 유구 역시 상면의 석재 양상으로 보아, 상부에 목조 건축을 세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7. 추정 고원 석축 석실 유구  
(자료: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4)

북쪽 외곽 가까이에 법천천이 흐르고 있어 물을 이용하기 편한 위치라는 점도 고원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다. 다만, 대규모 화덕 등과 같은 조리시설의 흔적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을 고원으로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추정 고원 동측 산록에는 축대를 쌓아 평탄하게 조성한 장방형의 대지의 북쪽과 동쪽편에 각기 장방형 건물지가 한 동씩 놓여 ㄱ자형 배치를 이루고 있다(그림 18). 조사단에서는 북쪽에서 남향하는 2번 건물지가 동편에서 서향하는 1번 건물지보다 나중에 지어졌으며, 2번 건물지를 지을 때 1번 건물지를 폐기하고 그 기단 위에 남-북 방향의 담장을 쌓은 것으로 확인되었다<sup>102)</sup>. 1호 건물지에서는 고려시대 기와와 자기편 등이 출토되었고<sup>103)</sup>, 2호 건물지에서는 내부에 불단 기초가 있고, 나발이 있는 불두편과 조선시대 기와편, 분청사기 등이 출토되었다<sup>104)</sup>. 이런 상태를 근거

97) 최성은, 위의 논문, p.33.

98) 이용진, 「법천사지 출토 무자명 불교공예품 연구」, 『불교미술』 23호, 동국대학교박물관, 2012, pp.47.

99) 강원문화유산연구원, 위의 보고서(2014), p.90.

100) 강원문화유산연구원, 위의 보고서(2014), p.90.

101) 강원문화유산연구원, 위의 보고서(2014), p.84.

102) 강원문화유산연구원, 위의 보고서(2014), p.43.

103) 강원문화유산연구원, 위의 보고서(2014), p.43.

104) 강원문화유산연구원, 위의 보고서(2014), p.49.

로 조사단에서는, 이곳에는 당초 고려 중기에 부도전이 있었다가, 사세가 기운 조선 중기 이후에 암자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sup>105)</sup>.

2번 건물지는 잘 가공된 장대석 기단이 사용되었고, 기단 위에는 역시 잘 가공된 고백이초석과 고백이석, 그리고 정면 어칸에는 판문을 설치했던 신방석이 잘 남아있다. 건물지에서 조선시대 유물들이 수습되었지만, 기단과 초석의 다듬은 솜씨는 사세가 기운 조선시대의 작품으로 보기는 어렵다. 만약 이 건물이 고려시대부터 있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와 수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내부에 봉안된 본존은 무엇이였을까? 앞서 살펴본 고려시대 법상종 사원들 중 금산사는 혜덕왕사 소현이 광고원을 짓고 안에 비로자나불을 봉안한 금당을 지었다고 했고, 법주사에도 지금의 대웅보전 자리에 고려시대에는 역시 비로자나불을 봉안한 불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동화사에는 9세기 중반 개산조 심지가 지금의 비로암 자리에 비로자나불을 봉안한 전각과 삼층석탑을 건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고려시대 법상종에서 소의경론 중 특히 『화엄경』이 중시되어 필수적으로 강의 연구되었던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상과 같은 고려시대 법상종 사원의 양상에 비추어 볼 때, 2번 건물지가 있는 이 일곽은 고려시대에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나불을 봉안한 비로전 영역으로 운영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일곽 서편에 연접한 남북으로 긴 3번 건물지와 6번 건물지 등은 중심가람 영역에서 이곳으로 오르는 통로 역할을 했던 건물 유구로 판단된다.



그림 18. 추정 고원 및 비로전 영역 유구 배치도  
(자료: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4 위에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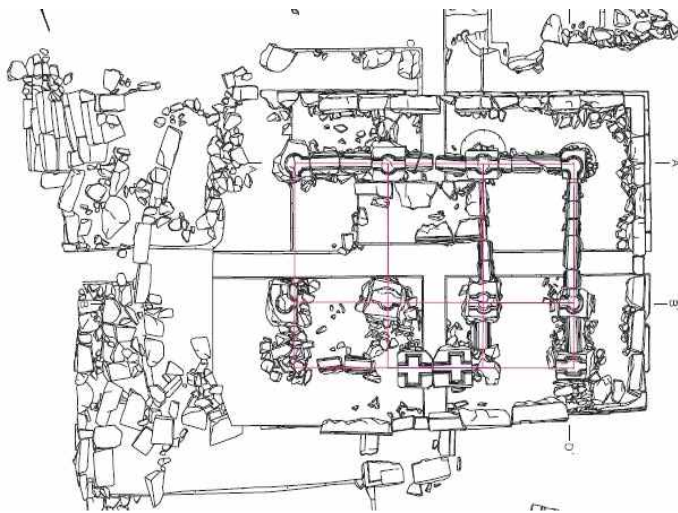


그림 19. 추정 비로전 유구(2호 건물지) 평면도  
(자료: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4)

105) 강원문화유산연구원, 위의 보고서(2014), pp.274-275.

#### 4. 승원과 원관 영역

당탑원의 서북쪽 원은 고승, 주지를 포함한 사원 소속 승려들이 기거하는 승원으로 추정되고, 그 남쪽, 즉 당탑원 서쪽의 원은 고려시대 법천사에서 운영했던 원관으로 보았다. 이것과 관련한 내용은 앞의 2장 2절에서 그 추정의 근거와 함께 기술하였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여기에서 추가 기술은 하지 않겠다.

### V. 맺음말

이상에서 고려시대 법상종 사원의 제양상에 비춰 법천사이의 가람 유구들, 공간 구성의 측면에서 거칠게 고찰해 보았다.

우선 법천사지는 고려시대 다원식 가람의 온전한 형태가 확인된 유구라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사원의 남측 외곽으로도 멀리 당간지주가 있는 곳까지 사원의 기능을 보좌하는 부속 공간들이 배치되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도 중요한 성과라 할만하다.

법천사지는 고려시대에 법상종이 가장 번성했던 11세기에 운영되고 있었던 법상종 사원의 모습을 보여주며, 전체적인 공간 구성은 승탑원, 당탑원, 고원과 비로전 영역, 고승을 포함한 승원 영역, 그리고 원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당탑원의 쌍탑식 배치는 신라 하대 복원소경의 거점 사찰로 중앙 문물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점과, 신라 왕자 출신 심지가 개창해 신라 왕실의 지원을 받으며 가람을 조성한 팔공산 동화사와의 관련성이 그 배경으로 추측된다.

당탑원의 금당에는 법상종의 주불인 미륵불이, 강당에는 고려시대 법상종에서 망자 추선을 위한 예불의 대상이었던 아미타불이 봉안되어 있었고, 매년 봄·가을 국가의 안위와 망자의 추선을 염원하며 미륵보살회와 미타도량을 개설했을 것이다.

11세기에 왕들이 사원의 원관 건립을 지원했고, 당시 주로 법상종 승려들이 그것을 주도한 점에 비추어, 당시 법천사에도 원관이 운영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람의 공간 구성 내용과 주요 전각에 봉안된 주존의 종류 이외에, 승탑원의 구성과 탑비의 양식에도 11세기 법상종 사원에서 보이는 공통점들이 법천사지 승탑원에서도 잘 나타난다.

[참고문헌] : 본문의 각주로 대신함.

## 토론문 1

## 「법천사의 공간구성」에 대한 토론문

김왕직(명지대학교 건축대학 전통건축전공)

원주 법천사는 법상종의 고승 지광국사 해린의 하산을 계기로 대대적으로 증창하여 지금의 모습을 갖춘 고려 전기를 대표하는 사원이다. 고려 시대 하층에서는 신라 건물지도 확인되었고 그 상부는 조선 시대 부분적으로 증수하면서 임란 전까지 사용하였기 때문에 매우 긴 시간적 층위가 남아있다. 법천사지는 남쪽 일부를 제외하고 중심 사역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역이 발굴되었기 때문에 고려 전기 법상종의 공간구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유산이다.

발표자는 건축전공자로서는 유일하게 종파에 따른 사원의 공간구성을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고려 시대 법상종의 공간구성에 대한 연구성과는 매우 훌륭하며 주목할 만하다. 이에 비해 토론자는 사찰건축 전공자도 아니어서 발표내용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반박할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같은 건축전공자로서 그동안 법천사지를 보아오면서 궁금했던 점 몇 가지를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할까 한다.

첫째, 발표자는 법천사의 공간구성을 설명하면서 동쪽 1구역은 해린의 부도전이 있는 곳으로 승탑원 영역이라고 명명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중심 사역인 2구역은 크게 공간이 田자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남쪽은 금당과 강당이 있는 불전영역으로 당탑원, 동북쪽은 역승들의 요사와 창고 및 식당 등이 있는 고원(庫院) 및 비로전 영역, 서북쪽은 스님들의 생활공간인 승원, 서남쪽은 원관(院館) 영역으로 보았다.

종파와 관계없이 불전 영역의 북쪽과 동과 서쪽에 승원 영역을 배치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식이다. 그런데 서북쪽의 '2-가' 영역은 발굴보고서에서도 전후퇴평면의 중심건물을 중앙에 두고 양쪽에 익랑이 연결되어 있으며 사방에 회랑이 있는 배치이다. 그러나 발굴보고서에서도 사방의 회랑은 일반 회랑과 달리 12호 건물지(회랑)는 격벽이 있고 각 칸에는 'ㄷ'자형 화덕시설이 있어서 생활공간으로 추정하였다. 생활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스님들이 생활하는 요사채, 즉 승원 영역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회랑식으로 단칸이 연결된 방식의 승원 건물은 그 사례를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과연 승원 영역으로 볼 수 있는지, 오히려 남서쪽과 같이 객관영역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는지 궁금하다.

두 번째, 불전 영역은 쌍탑, 금당, 강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치와 물리적인 모습만으로는 태현계 법상종의 차별화된 특징을 엿보기 어렵다. 고려시대 법상종 사찰로 알려진 금산사, 법주사,

동화사 등은 미륵전이나 미타전, 비로전 등이 독립된 영역을 갖고 있어서 미륵보살회나 아미타회가 충분히 설행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물론 법천사에서 금당에 미륵불을 모시고 강당에 아미타불을 모실 수는 있다. 두 부처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유물이 발굴되었다면 최상이었겠지만 아쉽게도 유물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다만 아미타회를 추정할 수 있는 광명대가 발굴되어서 간접적으로 아미타불이 어느 전각인가에는 봉안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법천사지 금당과 강당은 너무 보편적인 쌍탑식 가람의 평면과 배치를 하고 있어서 오히려 현화사와 비교하여 금산사나 법주사 등과 또 다른 태현계 법상종의 모습을 설명할 수는 없는지 궁금하다.

셋째, 중심 영역의 앞쪽은 건물지가 발굴되지 않았기 때문에 황룡사나 분황사와 같이 전면 광장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또 금당의 중심축에서 전시관으로 연결되는 중앙도로 양쪽은 아직 발굴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사방이 담으로 구획된 독립된 살림집 모습의 건물들이 마치 마을을 이루듯이 배치되었다. 전시관이 들어선 자리도 마치 마을과 같이 일정 간격으로 우물이 배치된 민가형 건물들이 발굴되었다. 당간지주 안쪽이고 출토된 유물로 판단했을 때 사찰 영역에 속한 건물들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 건물들의 성격이 문제이다. 불전 영역으로 통하는 중심축 도로 양쪽에 이러한 건물을 배치한 사례가 있는지와 그 쓰임이 무엇일지가 궁금하다.

법천사지는 입지가 남한강 수로에 있는 사찰로 같은 교통로 사원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둔사, 흥법사, 고달사 등과 아울러 그 공통점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해린의 고려왕실과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개성과의 수로를 통한 문화교류 차원에서도 법천사의 성격을 고찰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또 법상종 승려들은 <금광명경>의 교리를 기반으로 개인적 참회, 멸죄, 사신, 자비를 넘어 호법과 소재(消災)라는 국가적 명분으로 이어져 방생법회, 우정중수, 숙박시설 건립 등의 사회적 실천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법상종이 추구했던 소재의 일환으로 숙박시설에 방점을 둔다면 중심 영역의 서쪽 별원을 원관 영역으로 추정하듯이 중심도로 양쪽의 살림집들도 독립된 거주형 원관시설로 볼 수는 없는지 궁금하다.



발표 2

법천사 중심사역의 배치 및 건축 특징

현 승 욱  
(강원대학교)



## 법천사 중심사역의 배치 및 건축 특징

현승욱(강원대학교 건축학과)

### 목 차

- I. 머리말
- II. 배치 특징
- III. 개별 건축 특징
- IV. 맺음말

### I. 머리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원주 법천사지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조사는 2001~2002년 시굴조사로 시작되었다. 이후 법천사지 중심사역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는 2015년 10차 발굴조사에서 이루어졌는데, 조선후기 건물 유구를 걷어내고 그 하부의 고려 전기 법천사 관련 유구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금당지와 강당지의 전체모습이 확인되었고, 금당과 강당을 연결하는 답도(보도시설)와 금당 전면 에 2개소의 탑지, 그리고 각 탑 앞에 공양보살상 등을 설치했던 별도의 석조물도 확인되었다.<sup>1)</sup>

본 논고에서는 기 발굴조사된 법천사 전체사역 중 중심사역의 배치와 건축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1. 법천사지 II구역 및 중심사역 발굴조사 현황도  
(출처 : 강원고고문화연구원·원주시, 『원주 법천사V:원주 법천사지 별원권역(II-나구역)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023. p.33)

1) 강원고고문화연구원·원주시, 『원주 법천사III:II구역 발굴조사 보고서』, 2017, pp.23~26

## II. 배치 특징

우선, 법천사 전체 가람배치를 살펴보자. 법천사 가람배치는 다른 고려시대 사찰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고대 가람배치의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법천사는 고대 가람 형식의 중심사역과 그 주변의 여러 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이전시기 사원을 계승하거나 기존 사원터에서 개창, 중창이 이루어졌던 고려시대 사찰의 조영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둘째, 뚜렷한 다원화(多院化)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고려시대 불교의 융성으로 인한 다양한 불교의례 실행 및 승려의 증가, 교리 및 종파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공간 조영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나타난 현상이다. 또한, 당시 동아시아 불교사원의 보편적인 배치 경향 중 하나이기도 하다.

셋째, 비교적 자유로운 배치를 보인다. 법천사는 완만한 경사지에 조성되어, 지형 지세를 최대한 고려하여 축대를 쌓아 단을 구성하고 여러 좌향 및 중심축을 설정하는 등 고대 가람에 비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건물을 배치하였다.

이제, 법천사 중심사역의 배치를 살펴보자. 발굴조사보고서에서는 법천사 중심사역의 시기를 출토유물에 근거하여 고려 전기로 추정하고 있다. 이 시기는 지광국사 해린의 하산소로 지정되면서 기존의 건물들이 대규모 증창되었던 시기와 일치하며, 법천사의 가장 번성한 시기로 인식되는 시기이기도 하다.<sup>2)</sup>

다음 그림과 같이, 고려 전기 법천사 중심사역의 범위는 북, 서, 남 회랑형 건물이 경계를 이루고 있는, 남북 72.6m, 동서 52.5m 정도이다. 중심사역 내 남북 중축선 상에 중문(추정), 금당, 강당이 차례로 놓이는데, 이들은 답도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금당 전면에 동서 삼층 석탑, 즉 쌍탑이 배치되어 있고, 각 탑 앞에 별도의 석조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아마도 확인되지 않은 동편 회랑형 건물을 포함하여, 사방의 회랑형 건물이 이들을 둘러싸고 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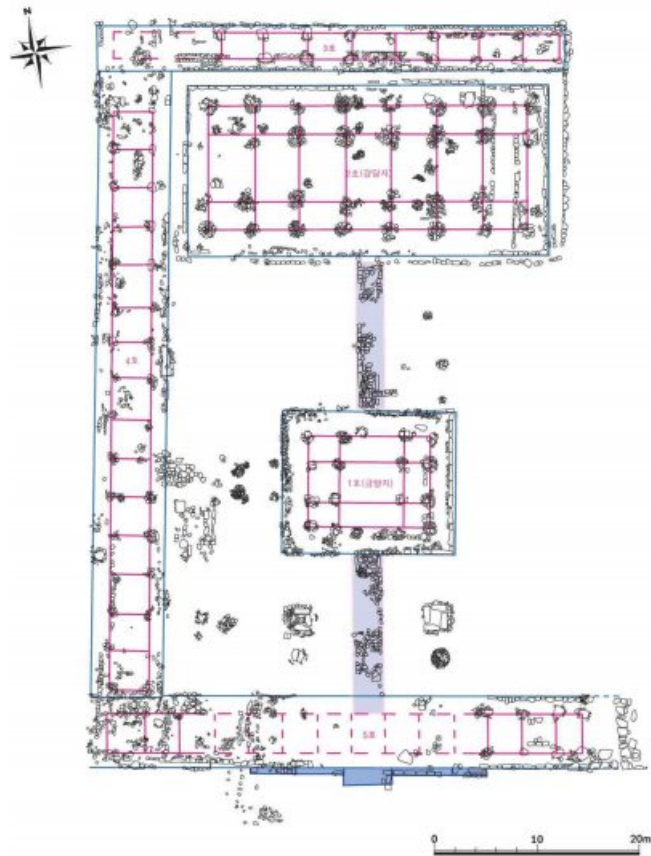


그림 2. 법천사 중심사역 발굴평면도

(출처 : 강원고고문화연구원·원주시, 『원주 법천사Ⅲ:Ⅱ구역 발굴조사 보고서』, 2017, p.52)

2) 강원고고문화연구원·원주시, 『원주 법천사Ⅲ:Ⅱ구역 발굴조사 보고서』, 2017, p.51

### Ⅲ. 개별 건축 특징

#### 1. 금당, 답도(남), 동·서 석탑 및 석조공양보살상

##### 1) 금당

금당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이다. 건물지 북동편에 지대석 위로 6매의 면석이 확인되어, 가구식 기단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면 주칸거리는 서에서 동으로 2.9m - 6.2m - 2.9m 이고, 측면 주칸거리는 남에서 북으로 2.4m - 4.0m - 2.4m이다. 평면 기둥 배열로 볼 때, 내외 진형 평면을 가진 팔작지붕 건물로 추정 가능하다.

발굴보고서에는 “좌우 협칸의 주칸거리는 2.9m이고 정칸의 주칸거리는 6.2m로 정칸과 협칸의 거리차가 2배정도 차이가 있어 감주법을 사용하여 정칸을 넓힌 것으로 판단된다.”<sup>3)</sup> 라고 하였다. 하지만 감주법은 기둥 배열 내에서 내주 일부를 생략하는 것이지 기둥열 한줄 전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특히 보통 금당에서의 감주법은 일부 전면 내주를 없애 예불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감주법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원래의 계획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협칸의 2배가 넘는 6.2m짜리 정면 주칸을 설정한 의도는 무엇일까?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황룡사지 증금당(9×4)과 고려시대 건축인 영천 거조사 영산전(7×3)은 모두 정면 주칸이 5m 정도이다. 경북궁 근정전(5×5)의 정면 주칸은 6.8m 정도로 매우 큰데, 이는 조선을 대표하는 궁궐 정전 건축이기 때문이다. 법천사 금당과 비슷한 규모인 정면 3칸, 측면 3칸 건물 중 정면 주칸이 꽤 큰 편에 속하는 합천 영암사지 창건 금당의 경우에도 5.24m에 지나지 않는다. 10세기에 건립된 중국 화림사 대전(3×4)의 경우, 정면 주칸은 6.51m로 비슷하나, 좌우 협칸도 4.68m이므로 법천사 금당과는 다르다.

필자 생각으로는 법천사 금당은 내진 공간을 특별히 강조한 건물로 보인다. 내부 불상의 규모가 컸거나 수량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고주를 사용한 중층건물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법천사지 출토 대형 치미 역시 법천사 금당의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된다.

##### 2) 답도(남)

남편 답도는 금당 정면 중앙에서 중문(추정)으로 연결된다. 발굴보고서에서는 보도시설이라 표현하였다. 그 폭은 2.7m이며, 좌우에 세장한 장대석으로 틀을 잡고 내부에 상면을 다듬은 할석을 채워 넣어 조성하였다.



그림 3. 법천사지 출토 치미  
(높이 120cm, 너비 74cm)

(출처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치미, 하늘의 소리를 듣다』, 2018, p.103)

3) 강원고고문화연구원·원주시, 『원주 법천사Ⅲ:Ⅱ구역 발굴조사 보고서』, 2017, p.55

## 3) 동·서 석탑 및 석조공양보살상

삼층석탑과 석조공양보살상이 한 세트를 이루어 금당 전면에 동·서 대칭으로 놓여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석탑 및 공양보살상 부재의 미술사적 검토 결과 그 조성연대는 고려 전기로 편년되었다.<sup>4)</sup>

발굴보고서에 실린 석탑 복원도로 그 양식을 살펴보자. 법천사 삼층석탑은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로 구성된다. 기단부는 이중기단으로 상층기단과 하층기단으로 구성된다. 기단 면석에는 모두 우주와 탱주가 모각되어 있다. 탑신부는 총 3층으로 각 층은 탑신석과 옥개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탑신석에는 우주가 모각되어 있고, 옥개석의 옥개받침 층급은 3개층 모두 4단으로 되어 있다. 상륜부는 소실되어 노반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9세기까지의 통일신라 석탑의 옥개받침 층급은 엄격히 5단을 유지하였고, 이후 점차 정형을 벗어나 초층과 2, 3층 옥개석 층급을 다르게 표현하거나 6단, 4단, 3단 등으로 정형성을 탈피하게 되는데,<sup>5)</sup> 법천사지 석탑은 모두 4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통일신라 후기 또는 그 이후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려시대 탑전 석조 공양보살상은 현재까지 개태사지, 신복사지, 법천사지, 월정사 등에서 확인되었는데, 논산 개태사지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강원도 지역으로 전개된 것으로 추정된다. 법천사지 석조 공양보살상은 6각형 연화대좌 위에 세워져 있는데, 원통형 보관을 쓰고, 왼쪽 무릎은 세우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붙이는 우슬착지 자세를 하고 있으며 두 손은 가슴에 모은 것으로 보인다.<sup>6)</sup>



그림 4. 삼층석탑 복원도 및 탑전 공양보살상

(출처 : 강원고고문화연구원·원주시, 『원주 법천사Ⅲ:Ⅱ구역 발굴조사 보고서』, 2017, p.7.8)

4) 강원고고문화연구원·원주시, 『원주 법천사Ⅲ:Ⅱ구역 발굴조사 보고서』, 2017, p.56

5) 홍대환, 「고려 석탑의 건립배경과 제작기법 연구」, 『문화사학』 제43호, 2015.6, p.45

6) 정성권, 「고려시대 탑전 석조공양보살상의 등장과 전개」, 『불교미술사학』 제21집, 2017, pp.54-58, 76-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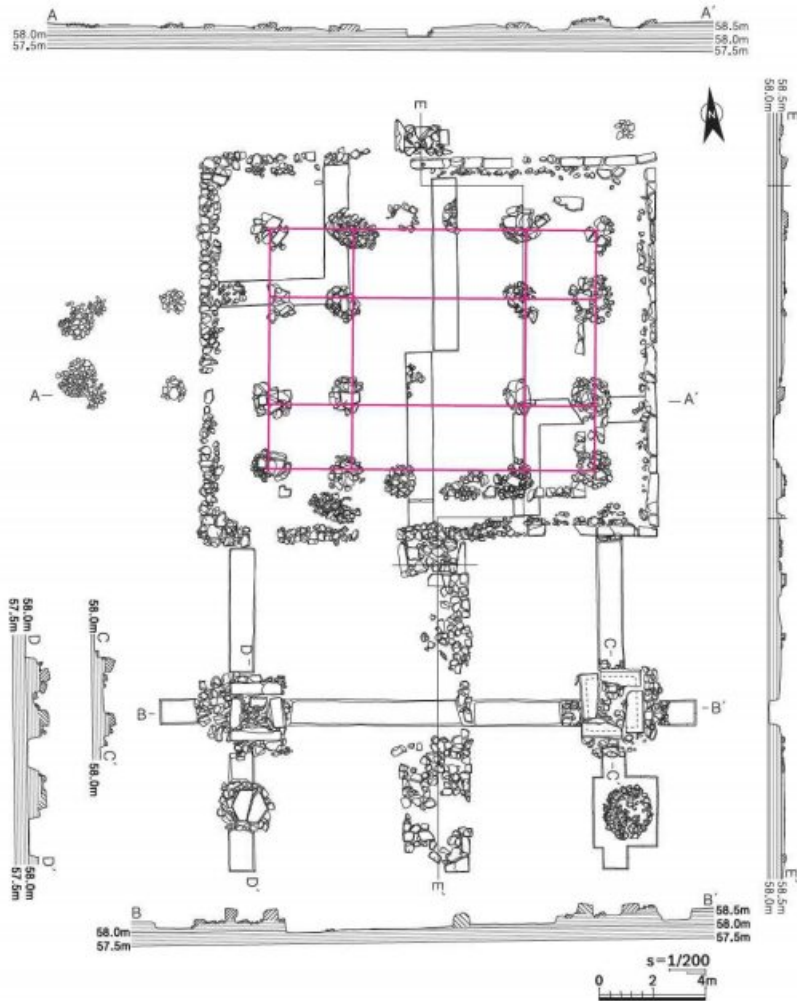


그림 5. 금당, 답도(남), 동·서 석탑 및 석조공양보살상 발굴평면도  
 (출처 : 강원고고문화연구원·원주시, 『원주 법천사Ⅲ:Ⅱ구역 발굴조사 보고서』, 2017, p.54)

## 2. 강당, 답도(북)

### 1) 강당

강당은 정면 7칸, 측면 3칸 규모이다. 건물지 동편과 북편에서 면석 일부가 확인되어 가구식 기단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면 주칸거리는 4.4m로 일정하고, 측면 주칸거리는 남에서 북으로 2.7m - 6.6m - 2.7m이다. 기단 양측면 남쪽에서 출입시설로 추정되는 석열도 확인되었다. 기단에서 약 70cm 떨어진 곳에 210cm 길이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고서에서는 잔존형태와 놓인 위치로 보아 계단시설의 하부구조로 추정하고 있다.<sup>7)</sup>

강당 평면은 전후퇴형 평면인데, 이는 신라 사찰 강당에서 주로 볼 수 있는 평면 유형과 유사하다. 다음 그림과 같이, 황룡사, 감은사, 불국사 등의 강당은 정면 주칸이 동일하고, 양쪽 측면 주칸은 4칸, 내부 측면 주칸은 3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천사 강당의 경우, 정면 주칸은 동일하

7) 강원고고문화연구원·원주시, 『원주 법천사Ⅲ:Ⅱ구역 발굴조사 보고서』, 2017, p.78

나, 양쪽 측면의 중앙 기둥은 없고 양쪽 측면과 내부 측면 주칸이 모두 3칸이다. 이러한 전후퇴형 평면은 강당 내부에 대형 공간을 구성하여 설법과 의례를 행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이며, 그 지붕형태는 맞배지붕으로 추정할 수 있다.<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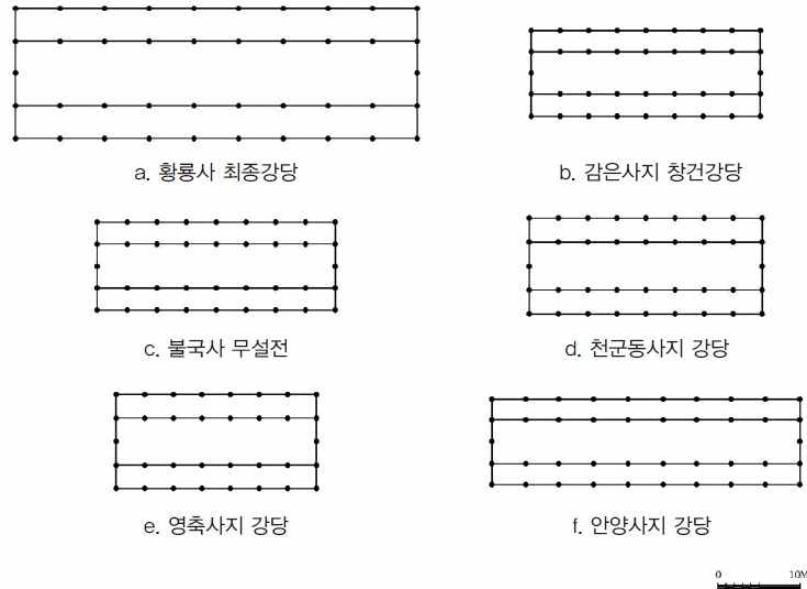


그림 6. 신라 사찰 강당 평면 비교

(출처 : 국립문화재연구소·경주시, 『황룡사 강당 및 강당 동서편 건물·남문 복원심화연구』, 2017, p.60)

## 2) 답도(북)

금당 앞에서 확인된 답도의 북편 연장선상에 또 다른 답도가 확인되었다. 금당 후면에서 강당 전면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확인된 길이는 15.4m, 폭은 1.9m로 나타났다. 조성 방법은 금당 전면 답도와 동일하다. 특히 답도 동편에서 차일고리가 결합된 소형 석주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차양시설의 고정 장치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당시 강당 전면 마당을 활용하여 불교 의례나 의식을 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 강당, 답도(북) 발굴평면도

(출처 : 강원고고문화연구원·원주시, 『원주 법천사III:II구역 발굴조사 보고서』, 2017, p.79)

8) 국립문화재연구소·경주시, 『황룡사 강당 및 강당 동서편 건물·남문 복원심화연구』, 2017, p.59, 60

### 3. 북회랑, 서편 회랑형 건물, 중문 및 남편 회랑형 건물

#### 1) 북회랑

북회랑은 서쪽 유구 상태가 좋지 못하여 정확한 파악은 쉽지 않다. 발굴보고서에서는 잔존 유구를 근거로 정면 9칸, 측면 1칸, 정면 주칸은 4.2m, 측면 주칸은 2.4m로 보았다. 건물 폭이 2.4m이므로 회랑, 즉 통로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건물로 보이며, 그렇다면 중심사역에서 좌측 별원권역(II-가) 구역으로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발굴평면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부에서 강당 선대유구와 호응되는 담장 석열 유구가 확인되었는데, 이를 통해 통일신라기에는 강당 후면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북회랑은 고려 전기 사역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기존 담장을 허물고 건립된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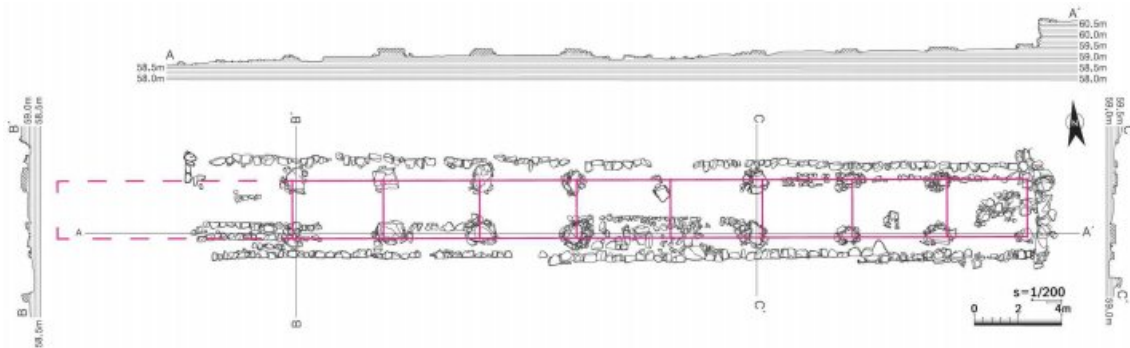


그림 7. 북회랑 발굴평면도

(출처 : 강원고고문화연구원·원주시, 『원주 법천사Ⅲ:Ⅱ구역 발굴조사 보고서』, 2017, p.127)

#### 2) 서편 회랑형 건물

서편 회랑형 건물은 정면 15칸, 측면 1칸 규모이며, 정면 주칸과 측면 주칸이 모두 3.8m로 나타났다. 건물 폭이 3.8m로 매우 커서 일반적인 회랑(단랑)으로는 볼 수 없다. 참고로 고대 사찰 회랑(단랑) 폭을 살펴보면, 황룡사 (원)남회랑 2.78m, (원)동서회랑 3.2m이고, 사천왕사 남회랑 2.6m, 동서회랑 3m이며, 감은사 서회랑 2.9m, 불국사 남회랑 3m, 동서회랑 3.2m, 북회랑 2.8m 정도이다.9) 따라서 서편 회랑형 건물은 아마도 행각과 같이 내부 공간이 있는 형태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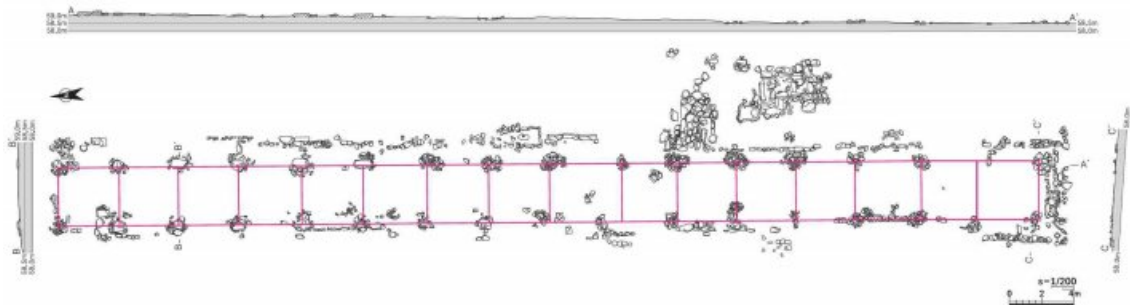


그림 8. 서편 회랑형 건물 발굴평면도

(출처 : 강원고고문화연구원·원주시, 『원주 법천사Ⅲ:Ⅱ구역 발굴조사 보고서』, 2017, p.151)

9) 국립문화재연구소·경주시, 『황룡사 회랑 및 외곽문 영역 복원심화연구 1차』, 2018, p.77

### 3) 중문 및 남편 회랑형 건물

중문 및 남편 회랑형 건물은 유구 훼손이 심하여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발굴보고서에서 남편 회랑형 건물은 일정하지 않지만 정면 주간 3.4m, 측면 주간 4m 정도로 파악되었다. 남편 회랑형 건물 역시 건물 폭이 4m 정도이므로 일반적인 회랑으로 볼 수 없고 서편 회랑형 건물과 같이 행각 형태의 건물로 보인다. 그리고 중문으로 추정되는 중앙부는 교란이 심하여 확인이 어려우나, 남편 회랑형 건물 정면 중앙 기단에서 계단시설이 확인되고, 그 양옆으로 기단이 앞으로 약 70cm 정도 돌출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근거로 중문은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건물로 추정 가능하며, 그 양옆으로 4칸 정도 회랑형 건물이 대칭으로 서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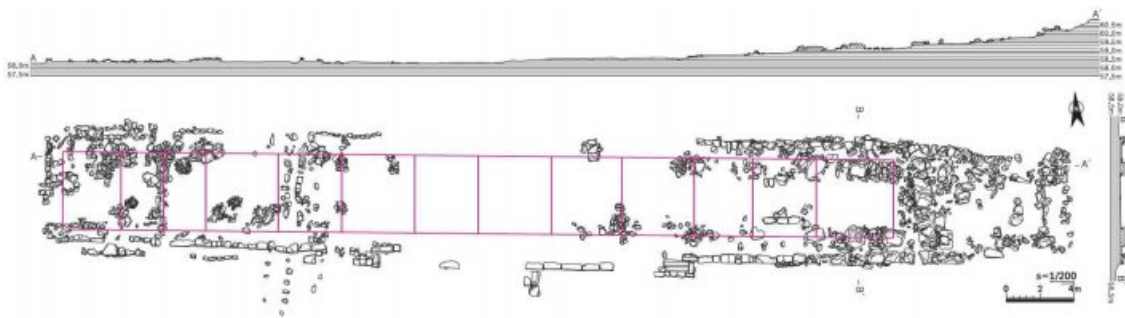


그림 9. 중문 및 남편 회랑형 건물 발굴평면도

(출처 : 강원고고문화연구원·원주시, 『원주 법천사Ⅲ:Ⅱ구역 발굴조사 보고서』, 2017, p.151)

## IV. 맺음말

이상으로 법천사 중심사역의 배치와 건축 특징을 살펴보았다.

고려 전기 법천사 중심사역은 통일신라기 중심사역을 계승, 확장시킨 결과물이다. 그 배치를 살펴보면, 중축선 상에 중문, 쌍탑, 금당, 강당이 차례로 놓이며, 사방에 회랑형 건물을 배치하여 이들을 둘러싸고 있다.

각 건물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금당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내외진 평면 건물로서 정면 주간이 매우 넓은 보기 드문 사례이다. 따라서 대형 불상을 봉안하였거나 중층 구조일 가능성이 높다. 강당은 정면 7칸, 측면 3칸의 전후퇴형 평면 건물이다. 신라 사찰 강당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어 이를 계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명확한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중문의 경우, 남편 회랑형 건물의 정면 기단 유구로 보아, 정면 5칸, 측면 2칸 건물로 대략 추정되나 향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사방의 회랑형 건물은 고려 전기 사역 확장과 함께 새롭게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회랑의 경우, 하부에서 선대 담장 유구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통일신라기 이 곳에는 담장이 설치되고, 강당 좌우에 통일신라기 북회랑이 따로 존재하였을 수도 있다. 그리고 서편과 남편 회랑형 건물은 그 폭이 3.8~4m 정도로 매우 크기 때문에, 회랑이 아닌 행각 용도의 건물로 추정되며, 역시 하부에 통일신라기 회랑 유구 등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참고문헌]

- 강원고고문화연구원·원주시, 『원주 법천사지 10차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15
- 강원고고문화연구원·원주시, 『원주 법천사Ⅲ:Ⅱ구역 발굴조사 보고서』, 2017
- 강원고고문화연구원·원주시, 『원주 법천사Ⅴ:원주 법천사지 별원권역(Ⅱ-나구역)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023
- 국립문화재연구소·경주시, 『황룡사 강당 및 강당 동서편 건물·남문 복원심화연구』, 2017
- 국립문화재연구소·경주시, 『황룡사 회랑 및 외곽문 영역 복원심화연구 1차』, 2018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치미, 하늘의 소리를 듣다』, 2018
- 홍대한, 「고려 석탑의 건립배경과 제작기법 연구」, 『문화사학』 제43호, 2015.6
- 정성권, 「고려시대 탑전 석조공양보살상의 등장과 전개」, 『불교미술사학』 제21집, 2017

## 토론문 2

## 「법천사 중심사역의 배치 및 건축 특징」 발표에 대한 토론문

한 옥(한국전통문화대학교)

불교사원 유적의 발굴유구에 대한 건축적 해석은 대상 사원 내 주요 건물 각각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사찰이 경영되던 시기의 역사적 환경을 알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건물들이 남아있지 않은 고려 후기 이전의 유적에 대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아 이와 같은 간접 자료에 의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서만 그 모습을 추정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실제적인 건물이 남아있는 13세기 이전의 고려 전기와 중기의 경우는 특히나 자료만이 아니라 관련 연구도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적에 대한 건축적 해석은 대부분 고대 시기인 신라와 백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표자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법천사지뿐만 아니라 고려 전기 불교사원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께서는 법천사지의 중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금당을 중심으로 한 영역에 대해 배치 및 개별 건물의 특징을 고찰하였습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저의 무지함으로 인해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발표자는 중심 영역의 배치에 대해 금당을 중심으로 주요 건물이 중문-탑(쌍탑)-금당-강당으로 이어지고 주변을 회랑으로 둘러싸는 배치를 설명하셨습니다. 이는 통일신라시대 이후 주요 사찰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배치유형입니다. 하지만 동측 동회랑의 유구는 분명히 확인하기 어렵고 이러한 양상은 강당 북편의 북회랑 끝부분이 서측의 서회랑과 연결되는 것과는 달리 동측으로는 연결되지 않아 동회랑의 존재를 의심하게 됩니다. 더욱이 금당의 서측으로는 익랑의 흔적이 보이지만 동측으로는 보이지 않아 이 의심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배치도에서 보이는 금당 우측 편이 유구가 동회랑이라고 가정하면 이는 중심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전체적으로는 좌우대칭의 배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회랑의 존재 여부 혹은 중심 영역의 비대칭적인 배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금당에 대해서 정면 3칸, 측면 3칸의 건물로 추정하시면서 금당의 어칸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인해 고주를 사용한 중층 건물일 가능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퇴칸의 평면모양이 직사각인 것으로 미루어 지붕의 모양이 맞배지붕일 가능성이 높고 더욱이 적심의 크기로 보았을 때 안쪽의 적심이 특별히 바깥쪽보다 크지 않으므로 고주의 사용 여부 역시 불확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중층 건물의 모습이 어떠할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강당의 경우에는 정면 7칸, 측면 3칸 규모의 건물로 설명하셨습니다. 설명하신 내용에 대체로 동의하지만, 한가지 발굴유구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가 보여 이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강당의 발굴 도면을 보면 우측면 1열에 세로로 긴 석렬이 보입니다. 또한 북측의 기단 열이 서로 어긋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구들은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유구가 이전 시기 혹은 나중 시기의 것이 중첩된 것은 아닌지, 혹은 다른 평면 형태의 건물로는 해설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 발표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증문의 경우, 제시된 도면에 의하면 정면 주칸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고, 측면 주칸은 회랑의 것과 같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은 일반적인 증문의 모습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증문의 가능한 구조와 형태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언가 명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정답이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이처럼 의문을 가지고 서로 생각을 나누다 보면 보다 정답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3

**법천사 고승공간**  
- 지광국사 해린의 공간

황 정 욱

(강원고고문화연구원)



## 법천사 고승공간 - 지광국사 해린의 공간

황정욱(강원고고문화연구원)

### 목 차

- |   |
|---|
| I. 머리말<br>II. 지광국사 해린의 생애<br>III. 고려 전기의 법천사<br>IV. 맺는말 |
|---|

### I. 머리말

원주 법천사는 고려 불교 법상종의 중심사찰이었으며, 지광국사 해린(智光國師 海鱗)<sup>1)</sup>의 하산소(下山所)로 선정되면서 크게 증창되어 대찰의 면모를 갖추었다. 해린의 사후에는 ‘지광국사탑(智光國師塔)’과 ‘지광국사탑비(智光國師塔碑)’가 세워졌으며, 이 두 석조물의 미술사적 우수성으로 인해 일찍부터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아쉽게도 사지(寺誌)는 전해지지 않아 법천사의 창건과 폐사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현존하는 법천사와 관련된 가장 이른 기록은 928년 석초(釋超)가 지권율사(賢眷律師)로부터 구족계를 받았다는 것<sup>2)</sup>으로, 이를 통해 법천사가 신라 하대부터 지역의 대표적인 관단사원(官壇寺院)으로 자리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sup>3)</sup>. 법천사의 폐사와 관련된 단서는 허균의 『유원주법천사기(遊原州法泉寺記)』에서 찾을 수 있는데, 허균은 1589년 법천사에 머문 적이 있던 승려 지관(智觀)을 따라 1609년 법천사를 방문하였으나 이미 폐사된 것으로 기록<sup>4)</sup>하고 있어 법천사는 임진왜란을 거치며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법천사는 섬강이 남한강으로 흘러드는 합류지점에 입지하는데, 이 지역은 강원내륙지방을 경기도, 충청북도와 연결시키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이후 조운제가 13대 조창으로 정비되면서

1) 海鱗(984(성종 3)~1070(문종 24)) : 속성은 原州 元氏로 고려 목종·현종·덕종·정종·문종 대에 활약한 승려로, 문종 때 國師로 추대되었다.  
 2) 이지관, 1995, 「智谷寺眞觀禪師悟空塔碑」, 『校勘譯註歷代高僧碑文』.  
 한국역사연구회편, 1996, 「지곡사 진관선사 오공탑비」, 『譯註羅末麗初金石文 下』,  
 3) 지현명, 2006, 「법천사지 발굴조사 현황과 과제」, 『북원문화와 법천사-제6회 운곡학회 학술대회』, 운곡학회.  
 4) 許筠, 『惺所覆瓿稿』 卷6, 「遊原州法泉寺記」.  
 “原州之南五十里。有山曰飛鳳。山之下有寺曰法泉。新羅古刹也。… 適有上人智觀訪余于墓菴。因言己丑歲(1589年). 曾住法泉一臘。… 只有餘址顏礎。縱橫於兔閑鹿逕之間。有碑半折。埋於草中。視之。乃高麗僧智光塔碑。… 己酉(1609年)秋九月二十八日。記。”

남한강 유역도 흥원창(興原倉)을 중심으로 경제중심지가 형성되었다. 해린이 입적하였을 때 장례와 천도에 소요되는 경비를 원주 창고[흥원창]에 있는 양곡으로 충당하도록 하였다<sup>5)</sup>는 지광국사 탐비의 기록을 통해 볼 때 법천사가 고려시대 물류유통을 통해 외부와 부단한 소통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국사의 하산소인 법천사에 남한강 유역의 재화가 집중되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sup>6)</sup>.

고려시대 국사와 왕사는 국왕의 추앙과 성대한 책봉의식에 의해 민심을 대변하는 상징으로서, 정치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그를 추종하는 문도들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때문에 국사나 왕사가 최후로 머문 하산소는 정치적으로 종단에 대한 국왕통치의 일면을 보여주며, 지역적으로 불교계의 상징적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sup>7)</sup>.

본 발표문에서는 먼저 지광국사 해린의 생애를 정리하고, 발굴조사를 통해 축적된 고고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산소 선정과 관련하여 증창된 법천사 탐비전지 및 그 주변(고승공간)의 모습을 유추해 보고자 한다.

## II. 지광국사 해린의 생애

고려 태조 왕건은 고려를 건국한 후 선종(禪宗)과 함께 화엄종(華嚴宗)·법상종(法相宗)을 비롯한 교종(敎宗)도 계속 후원하였다. 특히 법상종은 고려 현종 이후 크게 번성하여 고려 귀족불교의 축을 이루었는데, 원주 출신 해린은 국사(國師)로서 고려 전반기 법상종단을 이끌던 승려였다<sup>8)</sup>. 즉 해린은 고려 전기 법상종의 융성에 기반을 닦은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문종 대에 승통으로서 현화사에서 척리(戚里)의 자제들을 교육하여 문벌사회 조성에 불교계의 인물로 일익을 담당하였고, 그 결과 인주 이씨 이자연(李子淵)의 아들 소현(韶顯)을 배출시켜 당시 법상종을 귀족불교의 모습으로 갖추게 하였다<sup>9)</sup>. 나아가 제자 소현을 중심으로 한 법상종 교단은 귀족불교의 정수로서 최고의 안목과 가치를 반영시켜 ‘지광국사탑’, ‘지광국사탐비’와 같은 출중한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이다<sup>10)</sup>. 해린에 대한 『고려사(高麗史)』의 기록은 비교적 단편적이며 모두 왕사와 국사로 삼았다는 내용이다.

○“임오(일)에 왕이 내제석원에 행차하여 승려 해린을 왕사로 삼았다<sup>11)</sup>.”

- 『高麗史』世家 권 제7 文宗 10년(1056) 11월 壬午(4일).

○“무자(일)에 왕이 봉은사에 가서 해린을 국사로, 난원을 왕사로 책봉하였다<sup>12)</sup>.”

- 『高麗史』世家 권 제8 文宗 12년(1058) 5월 戊子(19일).

○“정유(일)에 국사 해린이 연로하여 산으로 돌아가기를 요청하니, 왕이 친히 현화사에서

5) 「智光國師塔碑(文)」, “... 併賜茶香油燭及原州倉穀 以充拔薦之費”.

6) 배상현, 2009, 「지광 해린과 법천사」, 『원주 법천사 I』, 강원문화재연구소.

7) 한기문, 1998, 「제4장 사원의 특수한 기능-국사·왕사의 하산소」, 『고려사원의 구조와 기능』, 민음사.  
박윤진, 2005, 「고려시대 왕사·국사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 김성찬, 2014, 「원주 법천사지의 문헌적 고찰」, 『원주 법천사 II』, 강원고고문화연구원.

9) 최병현, 2006, 「혜덕왕사 소현과 귀족불교」 『한국사 시민강좌39』.

10) 김혜완, 2014, 「고려 전기 지광국사 해린의 생애와 교학」, 『원주 법천사지의 재조명 학술심포지엄』.

11) “壬午 幸內帝釋院 以僧海麟爲王師”

12) “戊子 王如奉恩寺 冊海麟爲國師 爛圓爲王師”

배웅하고 차·약·금은그릇·비단·보물을 하사하였다13).”

- 『高麗史』世家 권 제8 文宗 21년(1067) 9월 丁酉(22일).

해린의 하산과 관련된 내용은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도 기록되어 있다.

○ “국사 해린이 나이를 이유로 은퇴하고 산으로 돌아가기를 청하였다. 왕이 현화사에 서 친히 전별하고, 차·약·금그릇·은그릇·비단·보물을 하사하였다14).”

- 『高麗史節要』 권 제5 文宗 21년(1067) 9월 未詳.



그림 1. 지광국사탑비

13) “丁酉 國師海麟請老還山 王親餞于玄化寺 賜茶藥金銀器皿綵段寶物”

14) “國師 海麟請老還山 王親餞于玄化寺 賜茶藥金銀器皿綵段寶物”

지광국사탑비 중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15)</sup>.

표 1. 지광국사탑비문을 통해 본 지광국사 해린의 생애

연 대	나 이	지광국사 해린 연보
984년(성종 3)	출생	원주에서 출생(原州 元氏). 어릴 때 이름은 수몽(水夢).
991년경	7~8세	이수겸(李守謙)에게 가서 학업을 요청.
	미상	한 노인이 승려의 길을 걸으면, 귀인이 될 것이라 예언.
	미상	법고사(法阜寺)의 관웅대사(寬雄大師)에게 수학.
998년(목종 1)	15세	해안사(海安寺) 준광방장(俊光方丈)에게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됨. 법명 '海濱'.
999년(목종 2)	16세	용흥사(龍興寺) 관단에서 구족계를 받음.
1001년(목종 4)	18세	승교사(崇敎寺) 창건 때 첫 승직을 받고, 이로 인해 자운사(慈雲寺) 창살도량(唱薩道場)에 나감. 창살도량이 끝날 즈음 법천사로 가서 관웅대사를 만남.
	미상	물고기를 잡는 꿈을 꾸 후 법명을 '海鱗'으로 바꾸고, '巨龍'을 자(字)로 삼음.
1004년(목종 7)	21세	왕륜사(王輪寺) 대선장(大選場)에서 급제하여 대덕(大德)에 오름. 법명을 '海鱗'으로 바꿈.
統和年中(983-1011년)		강진(講眞) 홍도(弘道)의 법호를 더함.
1010년(현종 1)	27세	법고사로 향하다 진조(眞肇)에게 역산(曆算)을 배움.
1013년(현종 4)	30세	대사(大師)가 됨.
1017년(현종 8)	34세	명료(明了) 돈오(頓悟)의 법호를 받음.
太平年中(1021-1030년)		중대사(重大師)의 법계과 계정(戒正) 고묘(高妙) 응각(應覺)의 법호를 받음. 수다사(水多寺)에 주석(住錫).
1030년(현종 21)	47세	해안사(海安寺)로 이석(移錫) 함.
重熙年中(1032-1055년)		통제(通濟) 연오(淵澳) 범동(梵棟)의 법호를 더함.
1045년(정종 11)	62세	승통(僧統)이 됨.
문종 즉위 초(1046년 경)		구행(具行) 룡성(了性) 도수(導首)의 법호를 더함.
1048년(문종 2)	65세	문하시중(門下侍中) 이자연의 아들 소현을 해안사로 보내 출가시킴.
1054년(문종 8)	71세	현화사(玄化寺)로 이석(移錫)함.
1056년(문종10)	73세	내제석원(內帝釋院)에서 왕사에 책봉 됨.
1057년(문종11)	74세	융소(融炤)의 법호를 더함.
1058년(문종12)	75세	봉은사(奉恩寺)에서 국사에 책봉 됨.
1059년(문종13)	76세	백고법회(百高法會)의 제1설주가 되고, 낭철(朗徹)의 법호를 더함.
1067년(문종21)	84세	법천사(法泉寺)로 하산(下山)
1070년(문종24)	87세	문종의 여섯째 왕자도생승통 왕탱(道生僧統 王纘) 해린의 제자 소현에게 출가. 지광국사 해린 입적(세수 87세, 승랍 72년).

15) 지광국사탑비 비문은 여러 명의 연구자에 의해 번역되었는데 본 장의 내용은 김성찬과 최연식의 번역을 바탕으로 원문과 비교하였으며, 남동신과 김혜완에 의해 정리된 내용을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김성찬, 2014, 『원주 법천사지의 문헌적 고찰』, 『원주 법천사 I』·최연식, 2018, 『지광국사탑비문 역주』, 『고려 미·상 지광국사탑을 보다』·남동신, 2018, 『지광국사 해린의 생애와 사상』, 『지광국사탑 본래자리 이전을 염원하는 학술강연』·김혜완, 2014, 『고려 전기 지광국사 해린의 생애와 교학』, 『원주 법천사지의 재조명 학술심포지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천사와 해린에 대한 문헌기록은 남아 있는 것이 많지 않으며 그 중 가장 많은 내용을 전해주는 사료는 해린의 사후에 작성된 ‘지광국사탑비’의 비문이다. 1085년(선종 2)에 건립된 이 비문은 정유산(鄭惟産)이 글을 짓고, 안민후(安民厚)가 글씨를 썼다. ‘지광국사탑비’의 비문은 왕명에 따라 문도들이 제출한 행장을 바탕으로 기술된 봉교찬(奉敎撰)으로 지광국사의 생애를 주로 국왕과의 관계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하였으므로 비문의 내용은 자연스럽게 왕실과의 관계에 치중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정유산이 비문을 작성한 시기는 그의 관직으로 보아 해린이 입적한 지 약 9년 정도 지난 시기로 추산되며, 그의 제자 소현이 교종 최고 승계인 승통(僧統)으로 법상종의 중심사찰인 현화사의 주지를 맡고 있던 때이다. 당시 소현의 위상을 감안할 때 지광국사에 대한 평가에 소현의 의도가 상당 부분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탑과 탑비의 건립 등 추모사업에 고려 왕실과 함께 당시 가장 유력했던 인주 이씨 가문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해린은 현종·덕종·정종·문종 대를 지나면서 왕사·국사의 지위에 올라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승려로서 왕실과 귀족들의 후원 속에서 법상종계를 이끌고 있었다.

해린은 법상종 승려로서 궁중에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을 강설하였다. 또한 유교·음운학·역산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불경과 사상을 섭렵하였다. 지광국사탑비에는 해린의 업적과 탑비를 세우는데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밝히고 있는데, 그의 탑비 건립을 수제자 소현(韶顯) 등과 이에 참여한 약 1,380여 명의 문도들이 승계(僧階) 순서대로 적혀져 있어 11세기 후반 해린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sup>16)</sup>.

해린이 법상종의 대표 승려로 활약하던 때는 고려 왕실과 법상종, 왕실의 인척(특히 인주 이씨)의 유착이 깊어짐에 따라 이를 견제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불교계도 법상종에서 화엄종으로 교차가 이뤄지고 있던 시기였다<sup>17)</sup>. 이러한 시기에 해린은 법상종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고려 왕실(특히 문종)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당대 최고의 세력가인 인주 이씨 가문의 소현을 수제자로 두어 종교계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측면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을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해린이 국사의 신분으로 원주 법천사로 하산하면서 법천사는 교학가람에 고승영역이 더해진 모습으로 크게 증창된다.

### III. 고려 전기의 법천사

#### 1. 고려전기 법천사의 공간구성

본 장에서는 지광국사 하산소와 관련하여 증창된 고려 전기 법천사의 공간구성에 대해, 문화유산 발굴조사의 결과물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원주 법천사의 창건기로 추정되는 유구는 지광국사 하산소 선정에 따라 고려 전기에 증창된 유구 아래에 위치하며, 대체로 중심사역과 그 주변에서 확인된다. 이 선대 유구의 출토유물은 6~7세기대의 신라토기, 7세기 중반의 비교적 고식의 연화문 수막새 등이 가장 이른 시기이며, 나말여초기 유물까지 시간적 단절 없이 확인된다<sup>18)</sup>.

16) 김성찬, 「원주 법천사지의 문헌적 고찰」, 『원주 법천사Ⅱ』, 강원고고문화연구원.

17) 남동신, 2018, 「고려 중기 법상종[자은종]과 해린」, 『고려 미·상, 지광국사탑을 보다』.

18) 최병현, 2014, 「원주 법천사지와 복원소경-법천사의 창건시기를 중심으로」, 『원주 법천사지의 재조명』.



그림 2. 원주 법천사지 전경



그림 3. 원주 법천사지 선대유구 출토유물

이상의 조사 성과를 통해 볼 때, 법천사 중심사역 일대에 늦어도 7세기 중반 이전에 연화문 수막새를 사용한 기와건물이 지어져 고려 전기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지광국사의 하산소와 관련된 대규모 중창과정에서 새로운 건물들로 대체된 것으로 추정된다<sup>1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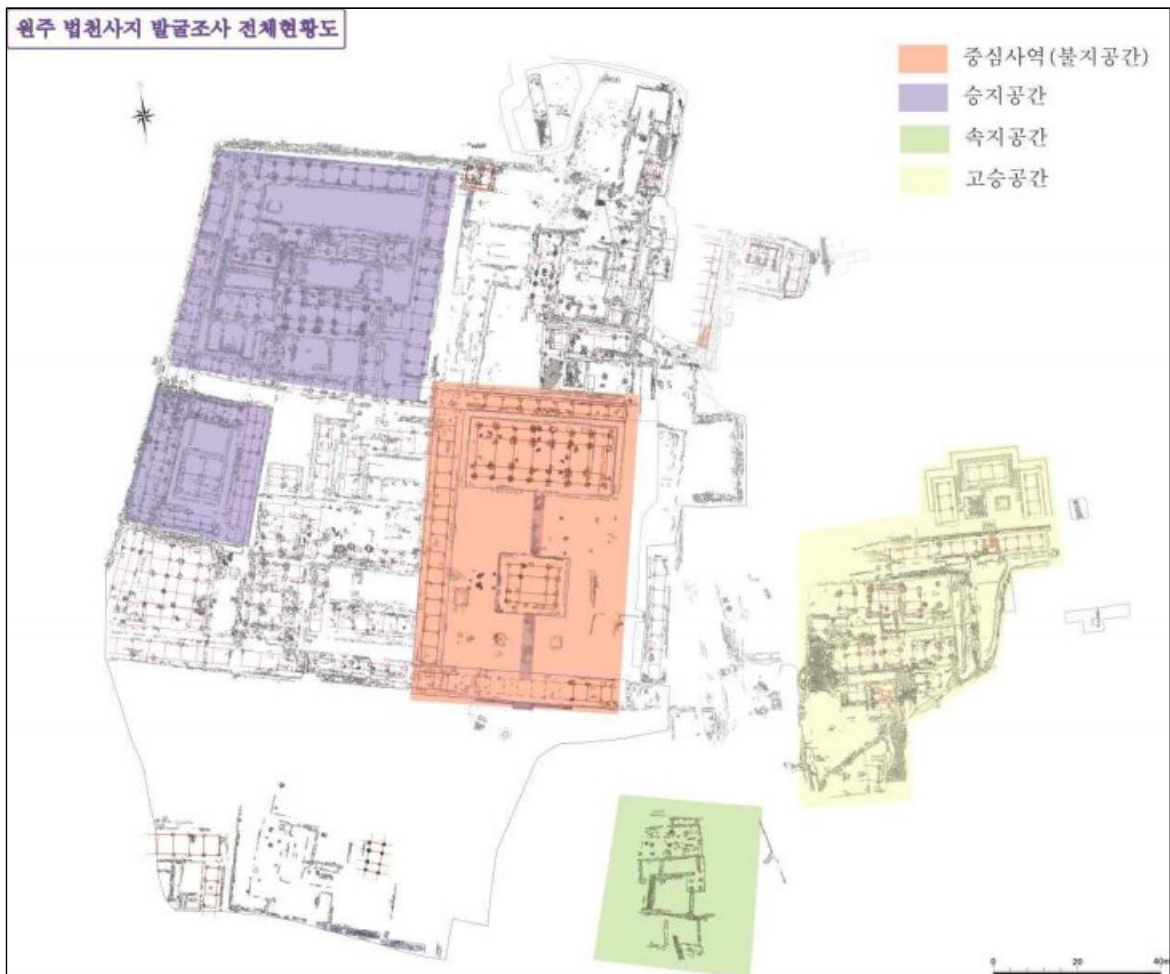


그림 4. 원주 법천사지 발굴조사 현황도

해린의 하산과 관련하여 중창된 고려 전기 법천사의 공간구분은 탑과 금당이 중심을 이루는 중심사역(불지공간(佛地空間)), 승방을 중심으로 하는 승려들의 수행과 생활공간인 승지공간(僧地空

19) 황정욱, 2023, 「원주 법천사관련 문헌검토」, 『박경식 그리고 한국 고고미술』, 학연문화사.

間), 생산 등 승려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속지공간(俗地空間), 그리고 해린만을 위한 고승공간(高僧空間)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20)</sup>.

중심사역(불지공간)은 발굴조사를 통해 금당과 강당을 일직선상에 배치하고, 금당 남편에 두 기의 탑을 배치한 쌍탑일금당(雙塔一琴堂)의 가람배치가 확인되었으며, 외곽에는 회랑을 둘러 여타 공간과 구분한 모습을 확인하였다<sup>2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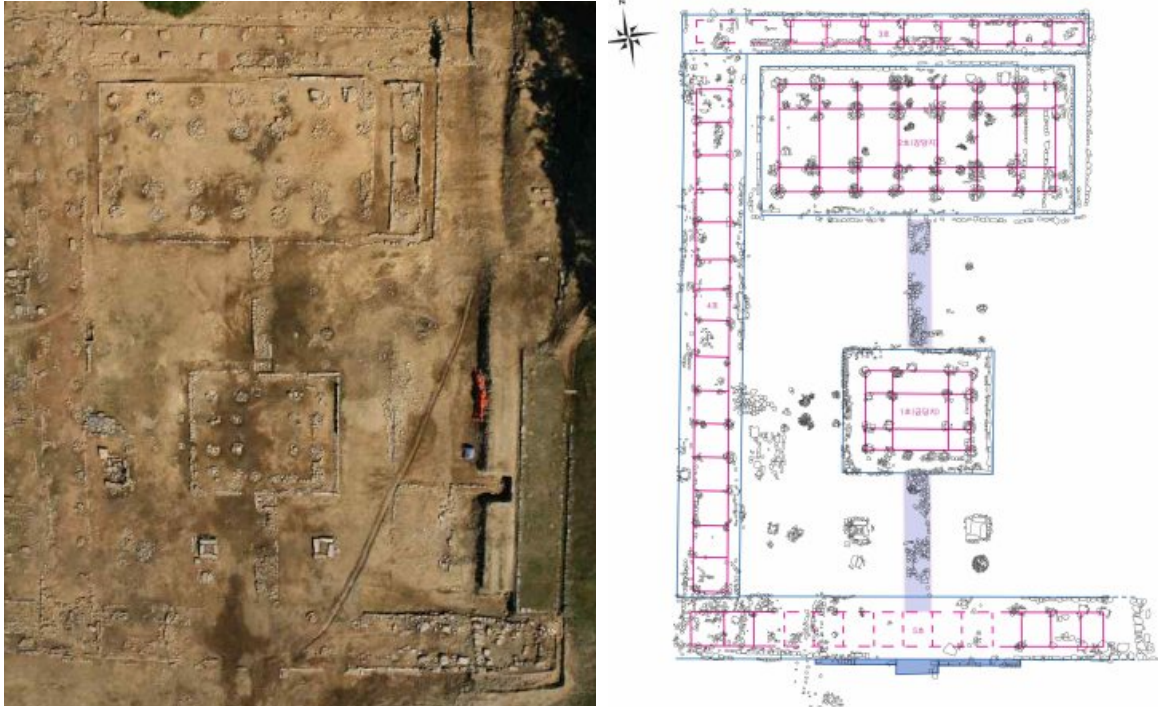


그림 5. 법천사 중심사역(불지공간)

승지공간은 중심사역 주변에 위치하는데, 중앙의 ‘T’자형 주통행로를 중심으로 각각의 별원들이 회랑으로 구분된 다원식구조(多院式構造)로 조성되었다. 이는 여러 개의 복합적인 예불공간을 가진 건물지군이 높고 낮은 축대 사이에 조성되는 것으로 알려진 고려시대 사원건축의 특성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sup>22)</sup>.

속지공간<sup>23)</sup>은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승지공간 내 별원들이 회랑으로 구분되는데 비해 속지공간은 담장으로 구획된 각각의 별원들이 다원식구조로 조성되었다. 또한 속지공간 내의 건물지에서 철재(鐵滓, 슬러그)와 노벽체편이 출토되어 생활뿐만 아니라 생산과 관련된 공간으로 추정하였다<sup>24)</sup>.

20) 공간의 분류는 최태선의 제시 안(최태선, 2016, 「신라·고려 전기 가람의 조영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을 따라 법천사의 상황에 맞춰 정리하였다.

21)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7, 『원주 법천사Ⅲ-Ⅱ구역 발굴조사 보고서』.

22) 김동욱, 2007, 『한국 건축의 역사』.

23) 승지공간과 속지공간에 대한 구분은 명확치 않으나, 회랑으로 각 별원의 공간을 구분한 승지공간에 비해 속지공간은 담장으로 구분한 점, 속지공간의 경우 승려의 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생산과 관련된 공방시설 등이 입지한 점을 들어 양 공간을 구분하였다. 이는 차후 발굴조사에서 확인되는 유구 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4)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23, 『원주 법천사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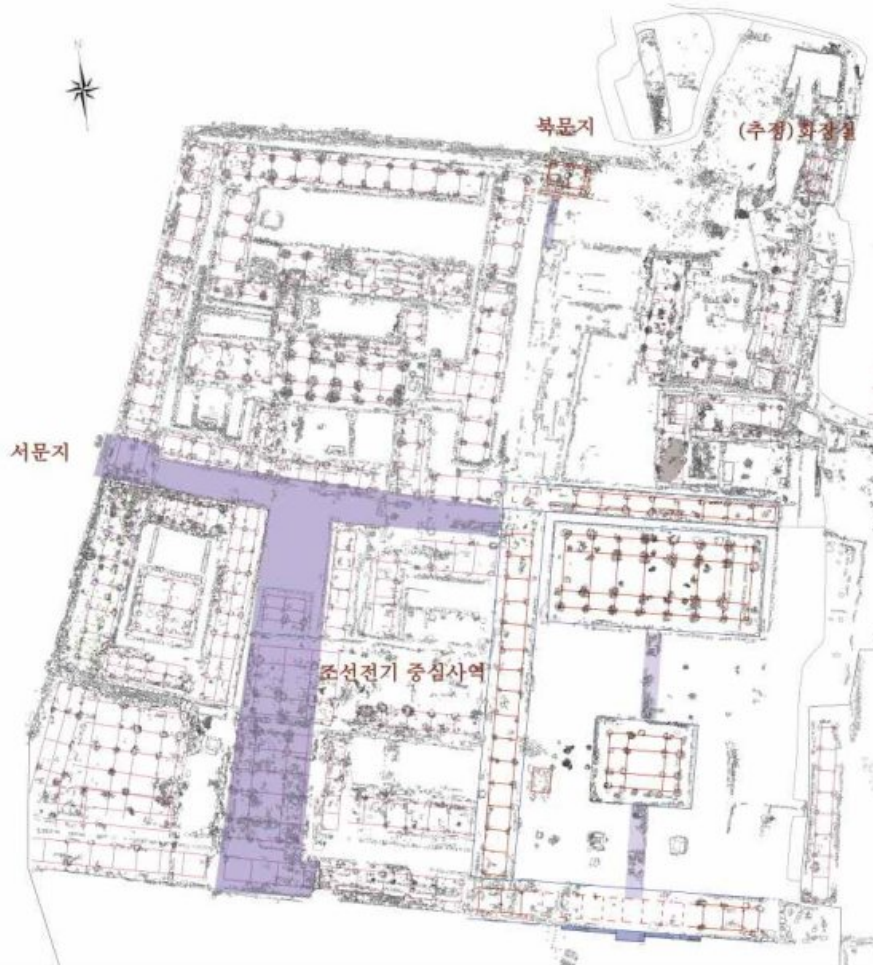


그림 6. 법천사 승지공간

고승공간은 탑비전지와 그 주변으로, 발굴조사를 통해 지광국사탑의 원위치를 확인하였으며, 전체적으로 4개의 단으로 구획된 건물지들을 확인하였다<sup>25)</sup>.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법천사 고승공간<sup>26)</sup>

법천사 고승공간은 사역의 북동쪽 외곽에 위치하며, 지광국사탑지와 탑비가 남아 있어 전적으로 해린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법천사 고승공간은 발굴조사 구획 상 I 구역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발굴조사는 1차 시굴(2001년)·2차 발굴(2002년)·3차 발굴(2003년)·5차 발굴(2006년) 등 4차례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총 20동의 건물지를 비롯하여 다양한 시설물들이 확인되었는데, 모두 동일 시기에 사용된 것은 아니며 통일신라시대(I·II기)부터 고려시대(III기)를 거쳐 조선시

25) 강원문화재연구소, 2009, 『원주 법천사 I-I 구역 발굴조사 보고서』.

26) 본 공간은 지광국사탑과 탑비를 중심으로 3동의 건물을 ‘ㄷ’자 형으로 배치한 탑비전지와 그에 부속하는 건물지군을 포함하는 별원으로, 해린이 하산한 후 생활했던 공간이며, 입적 후에는 의례공간으로 사용된 독립공간으로 파악하였다.

대(Ⅳ기)에 이르기까지 시기를 달리하여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 해린의 하산소로 지정되면서 독립공간으로 편제된 시기는 Ⅲ기에 해당하며, 해린이 1070년(문종 24)에 입적하였고, 1085년(선종 2)에 탑비가 건립되었다는 탑비의 음기를 통해 탑비의 건립이 완료되는 1085년경에는 지금과 같은 모습이 갖춰졌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sup>2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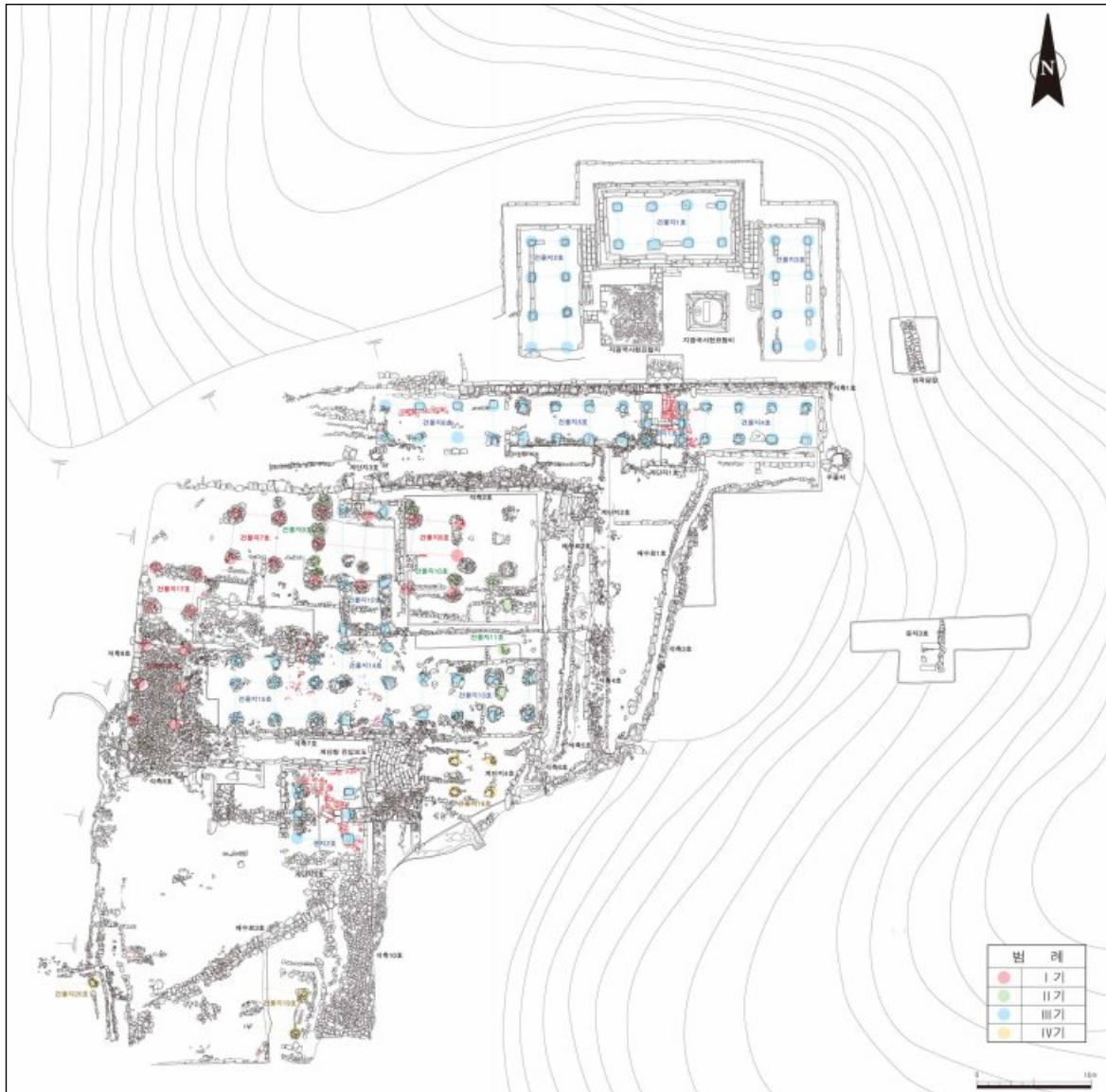


그림 7. 법천사지 고승공간

1) 입지

법천사 고승공간은 사역의 북동단에 위치하며 서쪽만 개방되고 나머지 방향은 나지막한 구릉이 감싸고 있는 등 노출도가 적어 의례장소로서 좋은 입지조건을 갖고 있다.

중심사역에서 일정한 거리를 둔 개방적이지 않은 곳에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하여 고승공간을

27) 강원문화재연구소, 2009, 『원주 법천사 I-제1구역 발굴조사 보고서』.

마련한 이유는 중심사역 내부에 승탑을 두지 않는 기능성의 특수성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자연조건도 여타 건물들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여 밖에서는 조망하기 어려우나 안에서는 사역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다<sup>28)</sup>. 이와 유사한 예는 개성 영통사(靈通寺, 대각국사 의천)와 북한산 삼천사(三川寺, 대지국사 법경)에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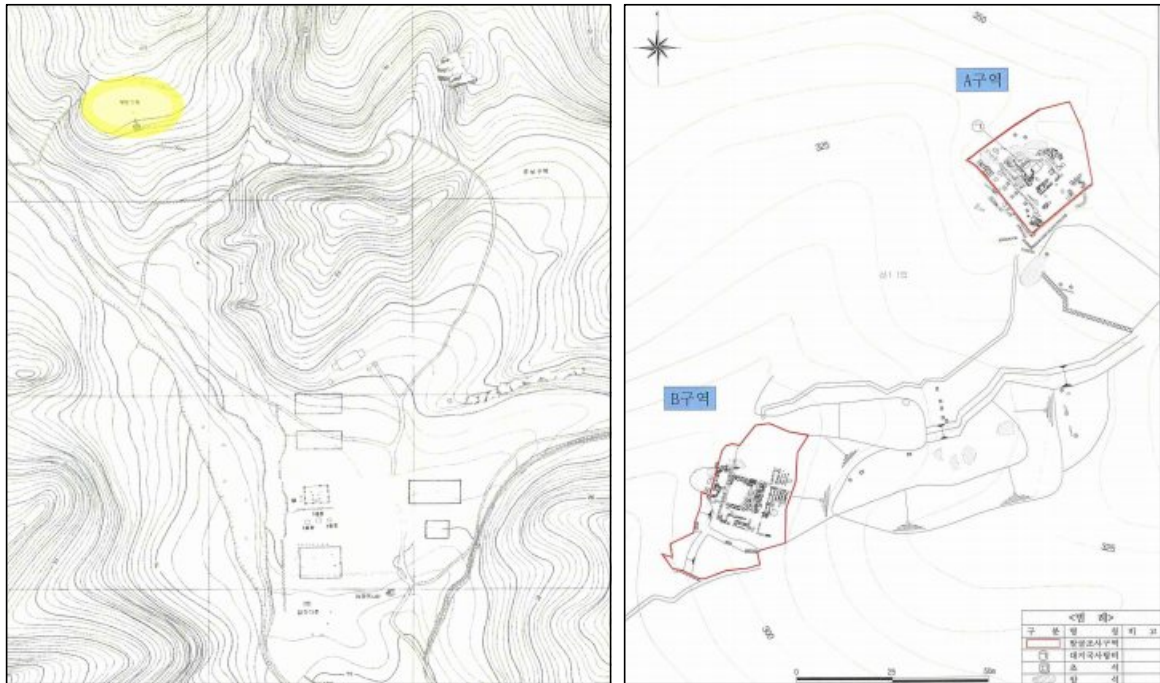


그림 8. 독립적인 고승공간(좌: 영통사<sup>29)</sup>, 우:삼천사<sup>30)</sup>)

개성 영통사지는 북한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와 일본 다이쇼(大正)대학이 함께 발굴조사한 유적으로 천태종의 시조인 대각국사 의천이 출가·수도하였으며, 하산한 사찰이다. 영통사 내 대각국사의 승탑은 중심사역의 북서쪽에 위치한 독립적 공간인 경선원(敬先院)에 위치하는데, '院'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점에서 공간의 독립적인 성격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법천사와 같은 법상종 사찰이었던 삼천사에는 개성 현화사의 창건을 주도하고 초대 주지를 역임한 대지국사 법경의 승탑과 탑비가 확인된다. 삼천사의 고승공간은 <그림 8>의 A구역에 해당하며 중심사역인 B구역에서 동쪽으로 약 100m정도 떨어진 독립공간에 위치한다.

## 2) 구조

법천사의 고승공간은 얇은 계곡부에 4단의 축대를 석축하여 대지를 조성한 후 건물들을 배치하였는데, 탑비전지는 가장 위쪽(북쪽)에 위치한다. 법천사지 발굴조사 보고서에는 각 단의 건물지군을 단지로 구분하였으며, 조사결과 가장 확연히 드러나는 유구는 1단지(탑비전지)의 1·2·3 건물지, 2단지의 4·5·6 건물지와 문지·계단지, 3단지의 12·13·14호 건물지, 4단지의 문지와 계단지이다. 이 중 3단지의 2·5·7호 석축 하부에서 작은 천석을 사용한 비교적 고식의 대

28) 박만홍, 2007, 「고려 부도전 형성과 건축변천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9) 大正大學綜合佛教研究所, 2005, 『靈通寺址-開城市所在』.

30) 서울역사박물관, 2011, 『북한산 삼천사지 발굴조사보고서』.

지조성 기법을 사용한 유구가 조사되어(7·8·9·10·11호 건물지) 법천사가 해린의 하산소로 지정되기 전 건물지를 확인하였으며, 4단지에서는 조선 전기 유물이 포함된 후축 중복 유구가 확인되어(16·19·20호 건물지) 조선 전기 법천사가 지역의 자복사로 선정되면서 정비된 흔적으로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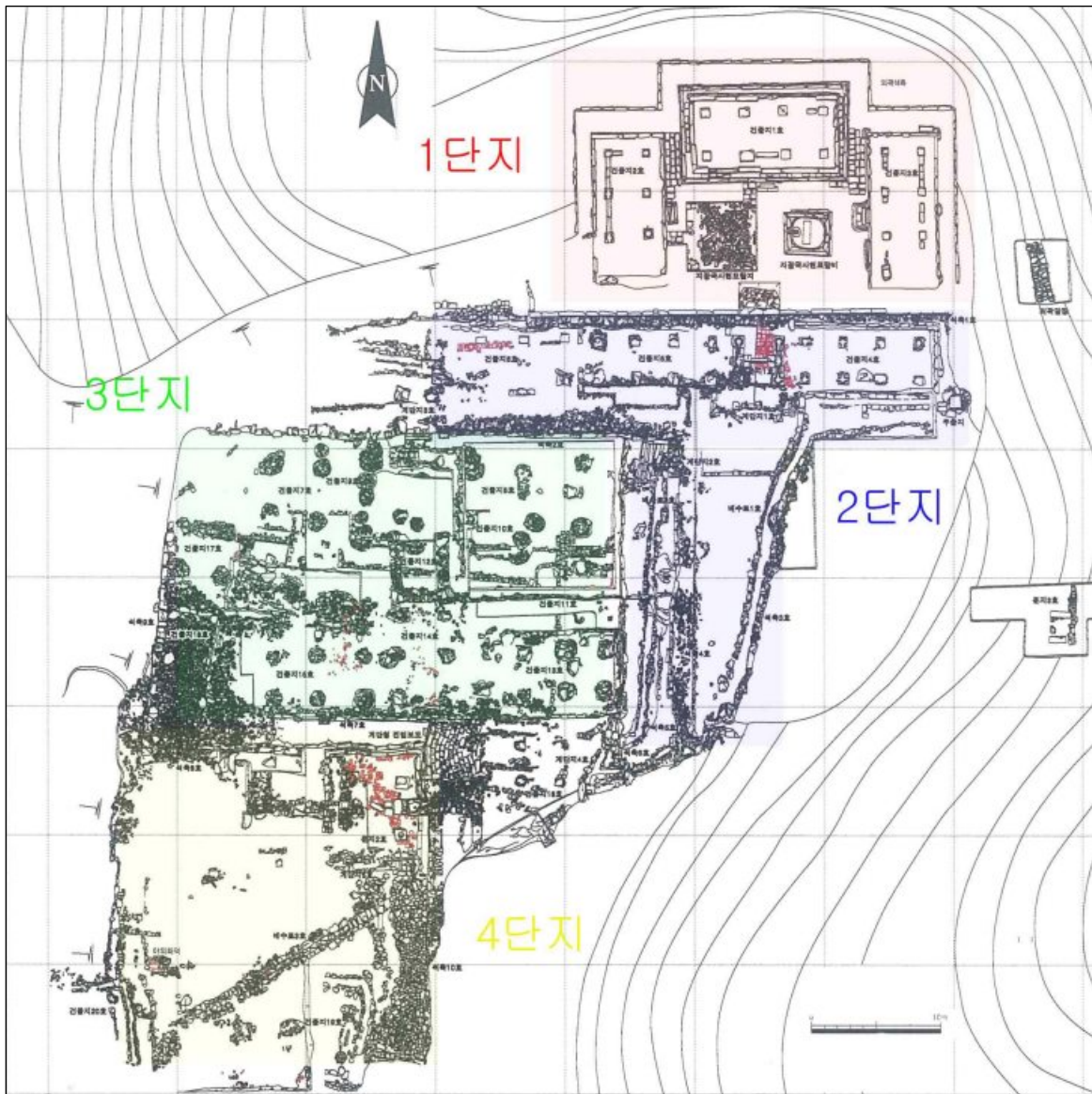


그림 9. 원주 법천사 고승공간

1단지(탑비전지)는 사역의 북쪽 최상단에 위치하며 지광국사탑과 탑비가 세워진 중정(中庭)을 중심으로 정면 3칸·측면 1칸의 건물지 3동이 ‘品’자형을 이루고 있다. 발굴조사를 통해 지광국사탑의 원위치가 확인되어 중정에 탑(서)-탑비(동)가 나란히 위치했음이 밝혀졌다. 이같은 배치는 탑과 탑비의 위치가 다른 점을 빼고 삼천사지에서 유사한 형태가 확인되었으며, 영통사의 경우는 승탑만 배치되었다.



그림 10. 담비전지 건물배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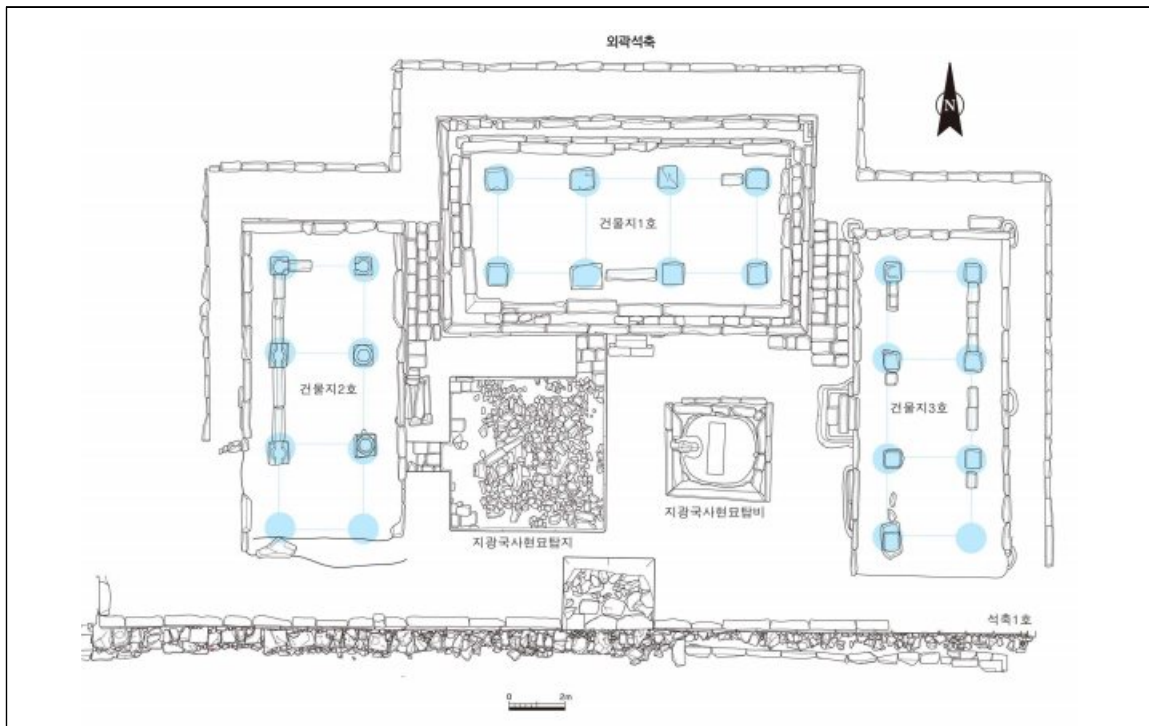


그림 11. 담비전지

북쪽 중앙에 위치한 건물이 중심건물로 생각되며, 이중기단 위에 건립되어 좌우의 건물들과 차별성이 관찰된다. 일반적으로 경내에서 이중기단을 설치한 건축은 불전에 국한되는데, 승려의 영역에 이중기단을 사용한 것은 건물지 내에 불상이 봉안되었을 가능성과 해린에 대한 지극한 존경의 표현의 가능성 등 다양하게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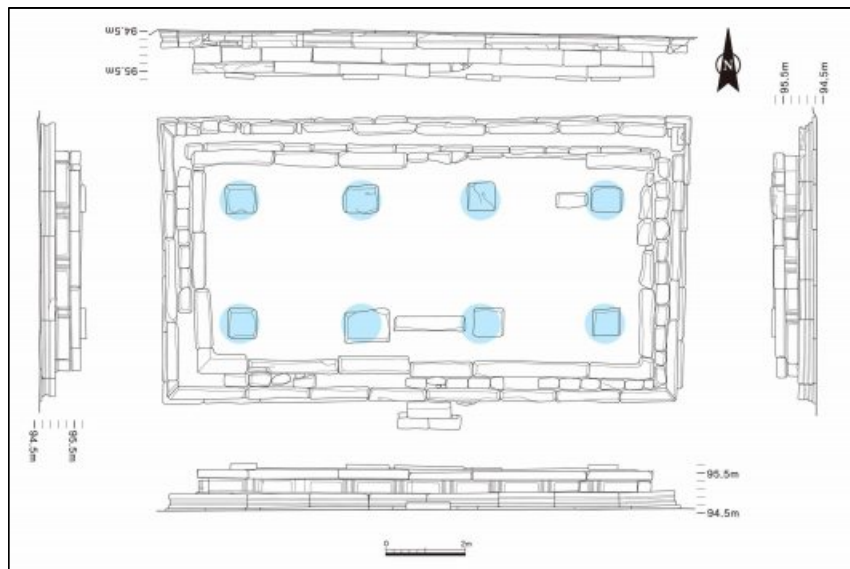


그림 12. 담비전지 중심건물(1호 건물지)

석될 수 있다. 참고로 법천사 중심사역 내 금당과 강당은 가구식 기단으로 조성되었다.

탐비전지의 남쪽에는 공간을 구획하는 석축과 함께 정면에 계단시설이 조사되어 이곳을 통해 진입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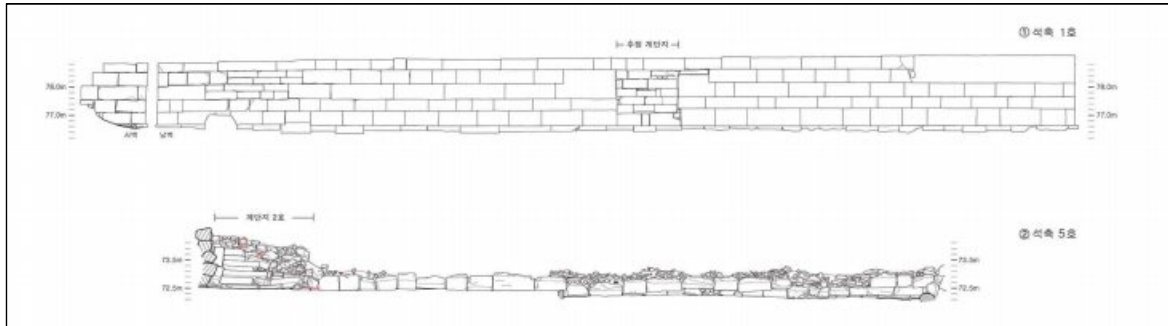


그림 13. 탐비전지 남쪽 석축과 계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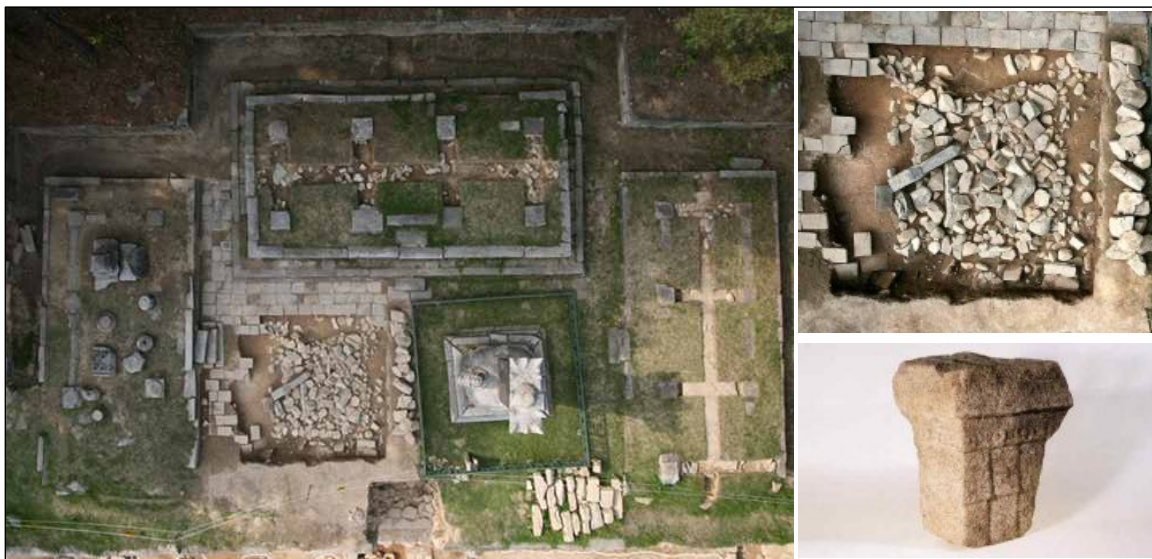


그림 14. 법천사 탐비전지(1단지)

2단지는 2호 석축을 축대로 하여 조성되었으며, 탐비전지로 진입하는 문(1호 문지)과 좌우의 회랑형 건물지(4호~6호 건물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5. 원주 법천사 고승공간-2단지

문지의 좌우에 회랑형 건물지를 배치한 것은 비가림시설이 된 통로라는 기능적 목적과 함께 영역의 경계를 나누는 상징적 요소로 볼 수도 있다<sup>31)</sup>. 단지의 동쪽 끝에는 우물지와 우물지에서 시작하는 배수로가 남쪽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동쪽에는 사역의 동쪽 경계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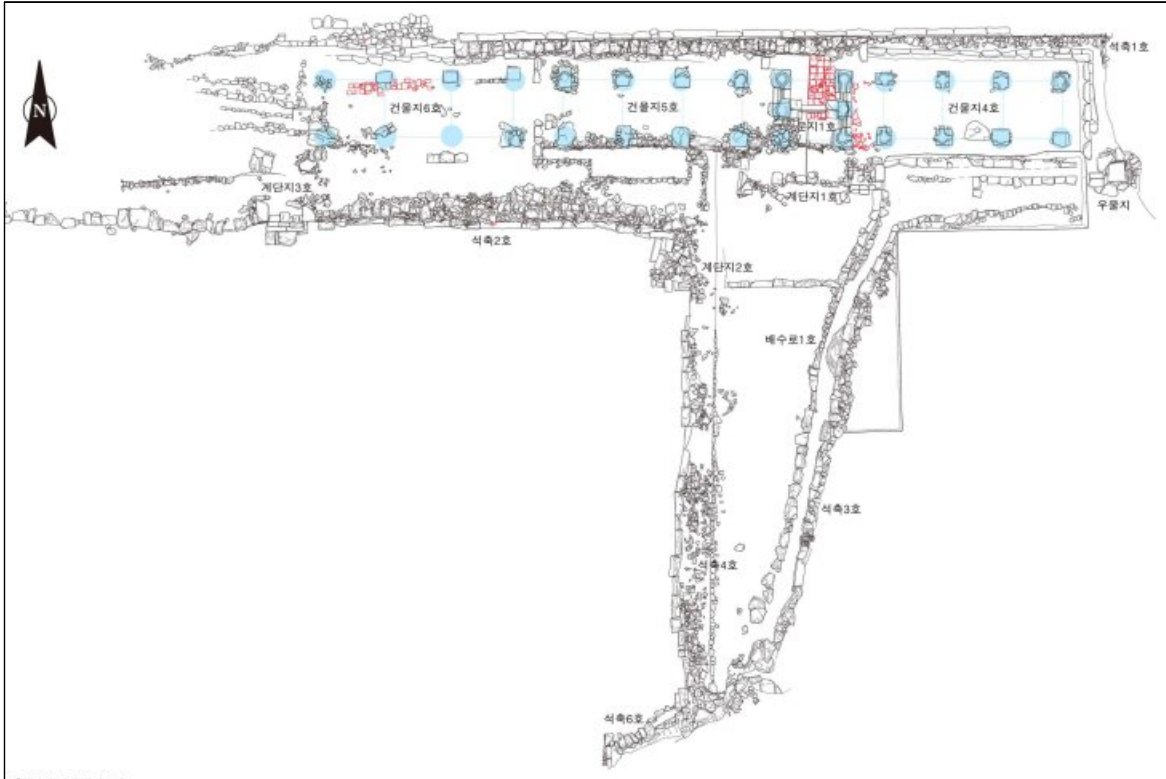


그림 16. 원주 법천사 고승공간-2단지

3단지는 법천사 고승공간에서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장방형의 비교적 편평한 대지를 가지고 있어 나말여초기에서부터 여말선초기까지 다양한 시기 폭을 가진 건물지가 중복되어 확인되었다. 이 중 가장 하층에서 확인된 유구는 7·8호 건물지로 잔존상태는 양호하지 않으나 내부에서 비교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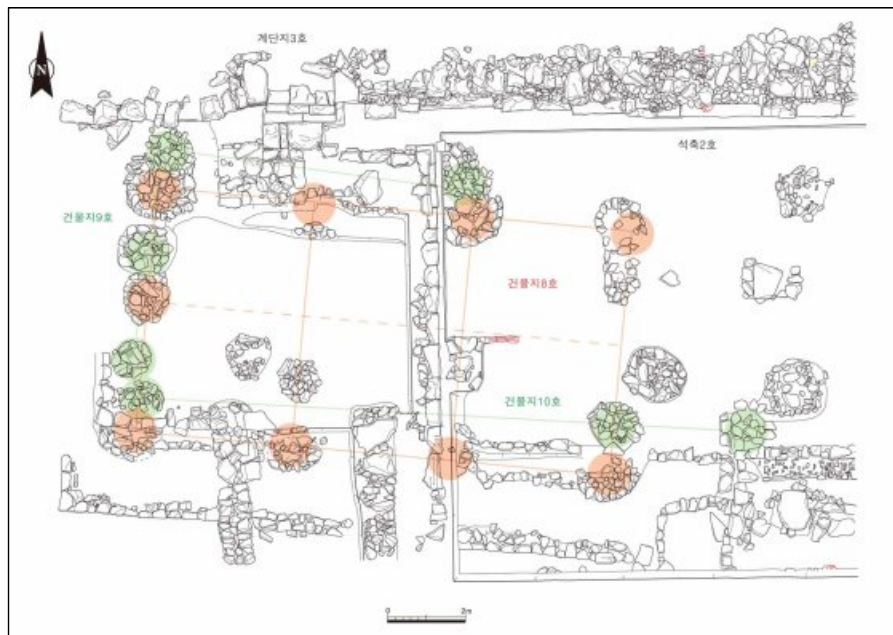


그림 17. 법천사 고승공간-3단지 8~10호 건물지

31) 홍대한, 2014, 『법천사지 지광국사 현묘탑과 탐비연구』, 『원주 법천사지의 재조명』.

고식의 연화문 수막새, 인화문토기 등이 출토되어 통일신라기에 사용된 건물임을 알 수 있으며, 고려 전기 해린의 하산소로 지정되면서 대규모 중창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새로운 건물지로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탐비전지(1단지)는 하부에 중복된 건물이 확인되지 않아 해린의 사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렇다면 법천사로 하산한 해린은 3단지에 새로 조성된 건물(9~11호 건물지)에서 생활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의 사후에 탐비전지가 조성되면서 해당 건물들은 의례를 준비하는 공간(13·15호 건물지<sup>32)</sup>)으로 교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4단지는 7호 석축 남쪽에 해당하며, 문지, 계단형 진입보도 등 출입 및 통행과 관련된 시설들이 확인되었으며, 의미상 의례지역의 내·외부를 구분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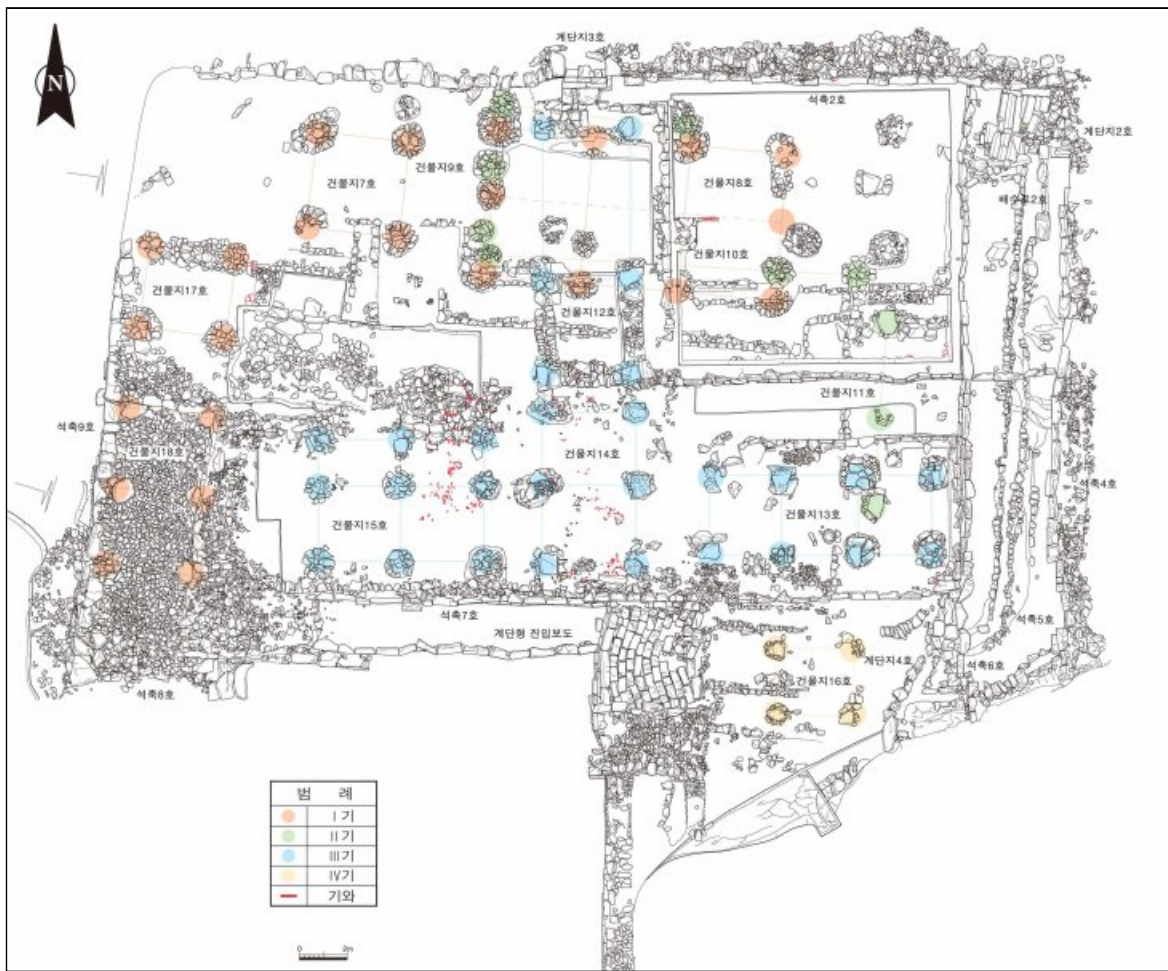


그림 18. 법천사 고승공간-3~4단지

32) 초석열의 배치 상 이 두 건물지는 하나의 건물일 가능성이 있으며, 중앙에 통로 역할을 하는 14호 건물지가 12호 건물지로 연결된 모습일 가능성도 있다.



그림 19. 원주 법천사 고승공간-3단지



그림 20. 원주 법천사 고승공간-4단지

#### IV. 맺는말

원주 법천사는 신라 하대에 창건하여 고려초 관단사원(官壇寺院)으로 선정될 정도의 사격을 가지고 있었다. 고려 전기 법상종 승려 지광국사 해린의 하산소로 선정되면서 크게 증창되어 전성기를 맞게 되었을 뿐더러, 남한강 주변 교통의 요지에 입지하여 역원으로 기능하면서 경제적 부를 누리기도 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화엄종의 자복사(資福寺)로 선정되어 명찰로서의 명맥을 유지하였다. 이후 사세는 급격히 쇠락해진 것으로 보이며, 결국 임진왜란 중 폐사되어 증창되지 못하였다.

법천사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은 지광국사 해린이다. 그는 원주에서 태어나 개경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후 원주 법천사로 돌아왔다. 개경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때에도 법천사를 찾아 관공대사와 교류하며 고향인 원주와 법천사에 대한 애정을 표하였고, 결국 마지막 하산소로 법천사를 선택하였다.

본 발표문은 지광국사 해린이 법천사로 돌아옴으로 인해 증창된 최전성기의 법천사 고승영역의 모습을 찾아보고자, 해린의 하산소로 선정되면서 대규모 증창사업이 이뤄진 고려 전기 법천사의 모습을 발굴조사 결과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해린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고려 왕실과의 돈독한 관계와 종교, 정치, 사회 방면에도 폭 넓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지광국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고려 국사의 하산소로 증창된 원주 법천사는 금당과 탑을 중심으로 이뤄진 중심사역(불지공간)과 승려들의 공공회합장소인 선방을 중심으로 형성된 수행과 생활공간인 승지영역,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명확한 모습을 확인할 수 없으나 생활 및 생산시설이 조성된 속지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역의 가장 높은 곳에 지광국사탑과 탑비를 중심으로 한 고승공간이 조성되었다.

법천사 고승공간은 지광국사탑과 탑비를 중심으로 한 탑비전지와 의례공간, 진입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간적으로는 지광국사의 하산소로 선정되기 이전인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되어 사용되다가 고려 전기 하산소 지정과 관련된 대규모 증창과정에서 새로운 건물들로 교체된 건물들과 해린의 사후에 탑비전지가 조성되면서 필요에 의해 새로 지어진 건물들로 구분할 수 있다.

고려 전기 법천사의 모습은 전통적인 교학가람 안에 고승공간을 포함한 형태로 파악할 수 있으

며, 이는 교종의 바탕 위에 선종의 모습을 담고자 했던 당시 불교의 흐름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국사나 왕사의 하산소에는 고승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문도들이 모여든다. 해당 고승이 입적하면 국왕의 허락을 받아 문도들에 의해 승탑과 탑비가 세워진다. 이후에도 국사의 하산소라는 이름으로 문도들에 의해 사원이 계속 운영되기도 한다. 법천사 역시 지광국사 해린의 하산소로 선정되며 전성기의 가람배치를 갖추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智光國師塔碑(文)」

許筠, 『惺所覆瓿稿』 卷6, 「遊原州法泉寺記」

大正大學綜合佛教研究所, 2005, 『靈通寺址-開城市所在』.

강원문화재연구소, 2009, 『원주 법천사 I』

서울역사박물관, 2011, 『북한산 삼천사지 발굴조사보고서』.

강원고고문화연구소, 2014, 『원주 법천사II』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7, 『원주 법천사III』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23, 『원주 법천사V』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23, 「원주 법천사지(IV구역)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이지관, 1995, 「智谷寺眞觀禪師悟空塔碑」, 『校勘譯註歷代高僧碑文』

한국역사연구회편, 1996, 「지곡사 진관선사 오공탑비」, 『譯註羅末麗初金石文 下』

한기문, 1998, 『고려사원의 구조와 기능』

김동욱, 2007, 『한국 건축의 역사』

박윤진, 2005, 「고려시대 왕사·국사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만홍, 2007, 「고려 부도전 형성과 건축변천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태선, 2016, 「신라·고려전기 가람의 조영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지현병, 2006, 「법천사지 발굴조사 현황과 과제」, 『북원문화와 법천사-제6회 운곡학회 학술대회』

최병현, 2006, 「혜덕왕사 소현과 귀족불교」 『한국사 시민강좌39』

배상현, 2009, 「지광 해린과 법천사」, 『원주 법천사 I』, 강원문화재연구소

김성찬, 2014, 「원주 법천사지의 문헌적 고찰」, 『원주 법천사II』, 강원고고문화연구원

김혜완, 2014, 「고려 전기 지광국사 해린의 생애와 교학」, 『원주 법천사지의 재조명 학술심포지엄』

남동신, 2018, 「지광국사 해린의 생애와 사상」, 『지광국사탑 본래자리 이전을 염원하는 학술강연』

남동신, 2018, 「고려 중기 법상종[자은종]과 해린」, 『고려 미·상, 지광국사탑을 보다』

최연식, 2018, 「지광국사탑비문 역주」, 『고려 미·상 지광국사탑을 보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최병현, 2014, 「원주 법천사지와 북원소경-법천사의 창건시기를 중심으로」, 『원주 법천사지의 재조명』.

홍대한, 2014, 「법천사지 지광국사 현묘탑과 탑비연구」, 『원주 법천사지의 재조명』.

황정욱, 2023, 「원주 법천사관련 문헌검토」, 『박경식 그리고 한국 고고미술』, 학연문화사

## 토론문 3

## 「법천사 고승공간 - 지광국사 해린의 공간」에 대한 토론문

박만홍(국토문화유산연구원)

먼저 이런 뜻깊은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가할 기회를 주신 강원고고문화연구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승공간이라는 중요한 주제로 논의하게 되어 저의 석사논문 주제였던 부도전과 고승공간에 관해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려시대 불교에서는 왕사나 국사제도가 운영되면서 이들이 퇴임하거나 열반에 들었을 때 해당 사찰이 하산소로 지정되고 이에 따라 부도전(탑비전)이 조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려시대 불교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산소에 따른 부도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중요 불전 일괄이 관심사였으며, 부도전의 사례가 많지 않아 부도전에 대한 규명은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법천사지는 전체적인 사역이 발굴되어 부도전의 공간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주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발표문에서는 지광국사의 생애와 법천사의 공간구성 속에서 고승공간이 가지는 입지와 특징을 발표자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본 토론은 발표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나 토론자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점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발표자께서는 고승공간의 영역을 북동쪽 외곽 지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고승공간의 영역을 4개의 단지로 구분하고 각 단지의 특징을 발표문에 언급하셨습니다. 저도 고승공간의 영역이 사역에서 중요한 공간이며, 고려시대 종파불교라는 관점에서 종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도전과 지광국사의 부도와 탑비가 있는 곳이므로 영역의 특징을 알 수 있지만 4개의 단지 모두를 고승공간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부도전의 형태가 당시 정형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성격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북동쪽 전체를 고승공간으로 규정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고승공간 내의 부도전 형성 순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부도전은 4개의 건물로 구성된 형태로 추정되며, 이와 유사한 사례를 삼천사지와 영통사 경선원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천사지의 경우는 석축 1호(고승공간 1단지와 2단지를 나누는 기준)와 부도전 남행랑에 해당되는 문지 1호, 건물지 4, 5호의 관계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축 1호는 남행랑의 건물지와 축선이 맞지 않고 틀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형적인 요인으로 생각

해 볼 수 있으나, 석축 1호의 지대석으로 인하여 건물지 5호 배면에 해당되는 기단면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점은 남행랑이 건립된 이후에 석축 1호가 조성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변의 여타 건물지는 방형 초석 또는 자연석 초석이 사용되었는데 남행랑은 고맥이초석과 신방석 및 쇠시리가 확인되는 것도 다른 건물지와 차이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양상으로 보았을 때, 석축 1호 아래에 지광국사와 관련된 하산소의 가장 중심 건물이 위치하였다가 입적 이후 그 위에 부도전을 형성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발표자께서는 석축 1호와 남행랑의 조성시기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며, 보고서 상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계단지로 확인된 부분의 내부 조사에서 석축 하부에 건물지로 추정되는 부분이 있었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고승영역을 지광국사 부도와 탐비가 있는 지역으로만 국한 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고승영역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여러 의미를 여기서 논하자는 것은 아니며, 지광국사 부도전의 입지와 유사한 곳이 법천사지 내 다른 곳에서도 확인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발표자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III-1 구역에서 주황색으로 표기된 부분도 중심사역과 이격되어 있으며, 사용된 초석의 장식성 또한 지광국사의 부도전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도전은 아니더라도 고승공간의 영역으로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천사지가 오랜 기간 유지되었고, 유가종 사찰의 지방사원 중 매우 주요한 사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고승공간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III-1구역의 고승공간에 부도가 확인되지 않아 부도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수는 없지만, 조사신앙과 관련된 역할을 했던 고승영역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발표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법천사지 부도전과 고승영역으로 추정되는 부분 표시  
(보고서 도면 인용)



III-1구역 고승영역 추정부분 항공사진  
(보고서 사진 인용)

이상으로 문헌과 발굴자료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심도 깊은 논고를 작성해 주신 발표자께 드리는 부족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4

법천사지 IV구역 공간구성에 대한 검토

신 유 리

(강원고고문화연구원)



## 법천사지 IV구역 공간구성에 대한 검토

신유리(강원고고문화연구원)

### 목 차

- I. 머리말
- II. 최근 발굴조사성과
- III. 법천사지 IV구역 공간구성의 특징
- IV. 맺는말

### I. 머리말

원주 법천사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일대에 위치한다. 법천사의 창건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되어 고려시대 법상종의 중심사찰로 번성하였다. 특히, 고려 문종대 국사를 지닌 智光國師 海鱗의 하산소로 선정되면서 증창하여 사세가 확장되었고, 해린의 사후에는 우리나라 석조미술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지광국사탑과 지광국사탑비가 세워져 한국 불교미술사의 중요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선시대의 법천사는 화엄종의 자복사(慈福寺)에 선정되어 지역의 중심사찰로 자리했으나, 임진왜란 이후 폐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천사지에 대한 학술조사는 1938년 일인학자인 小川敬吉에 의해 처음 조사가 이뤄졌고, 1965년 국립박물관에 의해 지광국사현묘탑비 주변에 대한 보수 및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1992년 원주에서 사역전체에 대한 정밀지표조사와 석물 실측조사를 실시하였고, 2001년에는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당시 문화재보호구역이었던 61,687㎡에 대한 시굴조사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고고학적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후, 중간에 조사가 중단된 적도 있었지만 2025년까지 총 18차에 걸쳐 학술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중심사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법천사가 전체 사역을 계획적으로 구획한 다원식 가람배치로 조성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법천사지 별원권역(II구역)과 탑·비전지(I구역) 등은 2021년에 정비복원이 완료되었으며, IV구역 일원은 현재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본문에서는 법천사지 사적지정구역 내 중심사역과 탑비전지를 제외한 법천사지의 서쪽과 남쪽 일원의 최근 조사성과를 살펴보고, IV구역을 중심으로 법천사지의 공간구성과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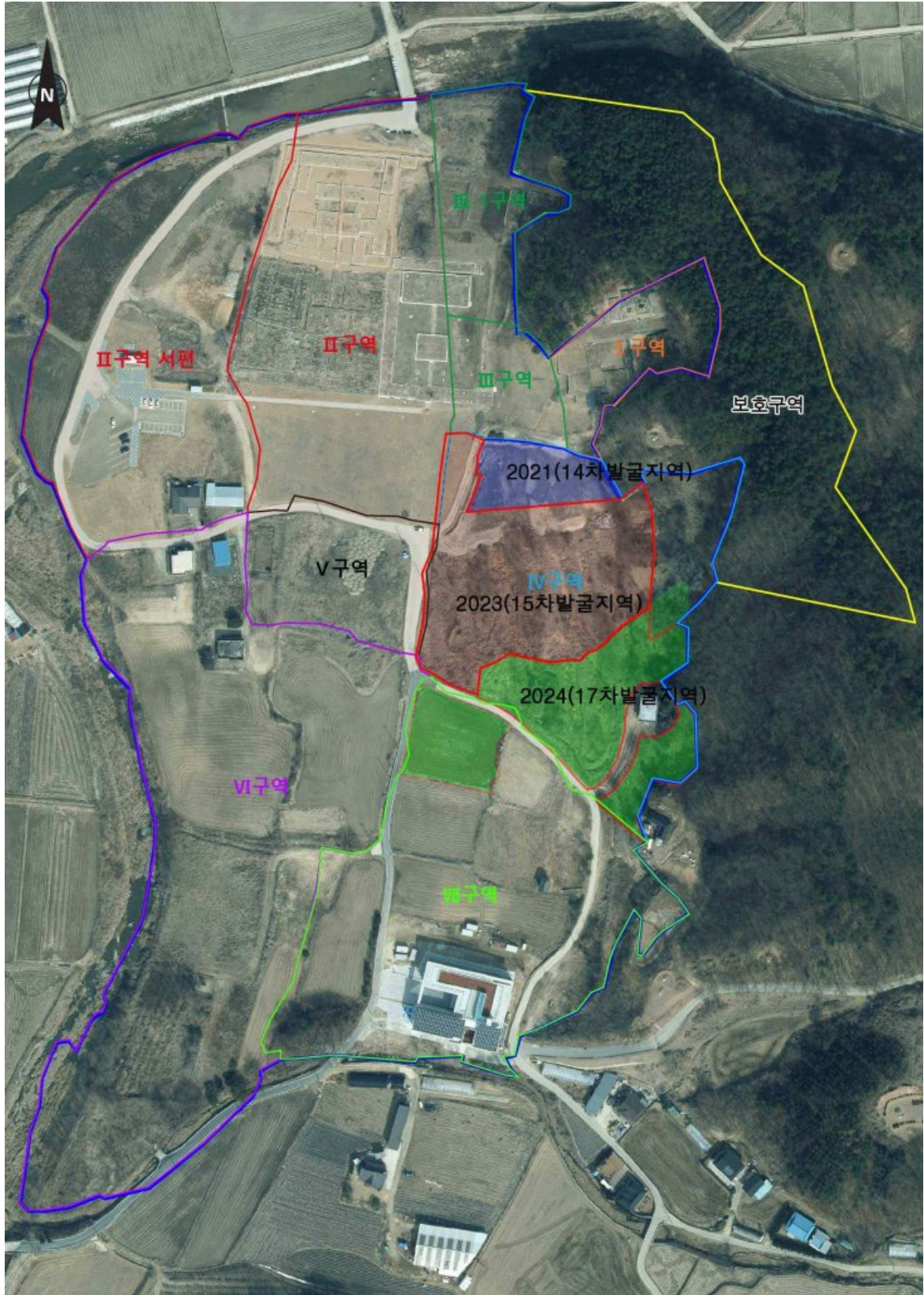
## II. 최근 발굴조사성과

원주 법천사지에 대한 발굴조사는 2015년 중심사역에 대한 조사 이후 중단되었다가 2019년 전시관 이전부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계기로 재개 되었다. 당시 사역의 북쪽구역 일원에 대한 발굴조사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기에 남쪽일원 당간지주 주변에 대한 유구의 분포와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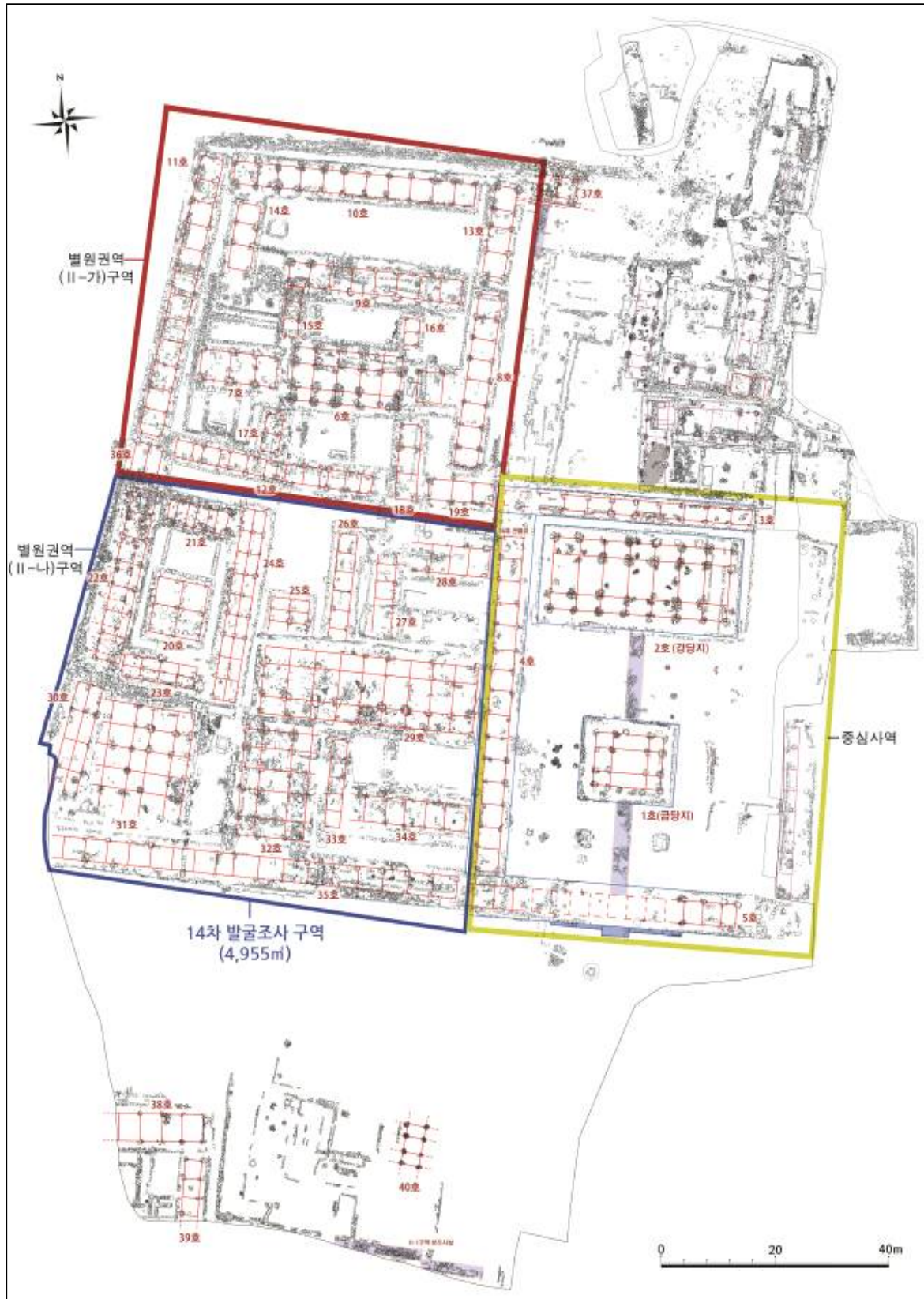
2021년부터는 정밀발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II-나구역과 IV구역 북쪽지역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뤄지면서 본격적으로 중심사역 남쪽지역에 대한 발굴조사가 시작되었다. 여기에서는 최근 10년간 이뤄진 중심사역을 제외한 법천사지 경내의 다양한 구역에 대한 발굴조사 성과를 살펴보고자한다. 아래의 【표 1】은 2025년 현재 법천사지 발굴조사 현황이다.

표 1. 법천사지 발굴조사 현황(2001년~2025년)

구분	조사연도	조사기관	조사지역(면적㎡)	조사내용	조사유형
1차	2001.10~ 2002.07	강원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보호구역 (61,876)	사역범위 확인. II구역 일부확장	시굴
2차	2003.03~ 2003.08	강원문화재연구소	I구역(2,984)	부도전지 일대 전면 확장조사	발굴
3차	2003.09~ 2003.12	강원문화재연구소	III구역(3,076)	I 구역 서편연장. III구역 확장조사	발굴
4차	2004.07~ 2004.12	강원문화재연구소	III-1구역(5,751)	III-1구역 확장조사(서원지 제외)	발굴
5차	2006.09~ 2007.09	강원문화재연구소	I구역(2,747)	I 구역 정밀조사	발굴
6차	2011.05~ 2011.11	강원고고문화연구원	III-1구역(1,600)	서원지 하부유구. III-1구역 정밀발굴조사	발굴
7차	2012.07~ 2012.09	강원고고문화연구원	II구역(1,500)	II구역 내 민가 철거지점 발굴조사	발굴
8차	2013.04~ 2013.11	강원고고문화연구원	II구역(16,741)	II구역 내 유구 현황 파악	발굴
9차	2014.05~ 2014.11	강원고고문화연구원	II,III구역(11,815)	중심사역 파악	발굴
10차	2015.05~ 2015.11	강원고고문화연구원	II구역 (34,061/11,237)	중심사역 정밀발굴조사	시·발굴
11차	2019.06~ 2019.12	국강고고학연구소	정비사업구역 (14,482/2,265)	정비사업부지 시·발굴조사	시·발굴
12차	2019.10~ 2019.11	국강고고학연구소	정비사업구역 (1,874)	정비사업부지 시굴조사	시굴
13차	2020.11	강원고고문화연구원	II구역(812)	별원권역(II-가)구역 하층유구 확인조사	시굴
14차	2021.03~ 2021.11	강원고고문화연구원	II·IV구역(7,160)	별원권역(II-나)구역 하층유구 확인조사, IV구역 추정 연지 발굴조사	발굴
15차	2023.03~2023.11.	강원고고문화연구원	IV구역(10,289)	IV구역 정밀발굴조사	발굴
16차	2023.10.~2023.11	강원고고문화연구원	VI구역(13,528)	VI구역 시굴조사	시굴
17차	2024.03~2024.11	강원고고문화연구원	VI·VII구역(8,500)	IV·VII구역 정밀발굴조사	발굴
18차	2025.05~2025.05	강원고고문화연구원	VI구역(6,537)	IV구역 시굴조사	시굴



도면 1. 위성지도 상의 법천사지 사적지정 범위 내 구역현황



도면 2. 법천사지 북쪽 구역 발굴조사 현황(원주 법천사 V보고서 수록도면)

## 1. II구역<sup>1)</sup>

### 1) II-가구역

II-가구역은 법천사지 발굴조사구역의 가장 북서쪽에 위치한다. 7·8·9차 발굴조사를 통해 건물지의 구조가 동-서방향의 10호, 12호 건물지와 남-북방향의 8호, 11호, 13호 건물지를 담장 삼아 그 내부에 중심건물을 조성한 형태임이 밝혀졌다.

중심건물은 6호 건물지로 동서 24.7m, 남북 13.4m의 기단 위에 조성되었으며, 잔존하는 적심을 토대로 볼 때 5칸×3칸으로 축조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6호 건물지 서편에는 7호 건물지가, 동편에는 8호 건물지가 연결되어 있다. 1호 건물지의 남편기단에 계단지 2개소가 연결되어 있으며, 각각의 계단 남쪽으로 보도를 시설하였다. 보도 사이에는 차면담으로 추정되는 장방형시설이 확인되었다.

7호 건물지는 6호 건물지의 서편익사로 추정되는 건물지로 동서 17.3m, 남북 9m의 기단위에 조성되었다. 7호 건물지의 남편기단에는 계단지 2개소가 연결되어 있으며, 6호 건물지와 마찬가지로 계단 전면에 보도시설이 확인된다.

11호 건물지는 II-가구역의 서단에 동서 6.5m, 남북 50.2m의 기단위에 조성된 세장한 형태의 건물로 동서 1칸 남북 12칸의 규모이다. 건물지의 내부에서는 ‘ㄷ’자 형태의 화덕시설이 확인되어 회랑의 성격이 아닌 생활공간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1. II-가구역 전경



사진 2. II-가구역 6호 건물지



사진 3. II-가구역 9호 건물지 서쪽

1) (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7, 『原州 法泉寺 III -II구역 발굴조사 보고서-』  
 (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23, 『原州 法泉寺 V -원주 법천사지 별원권역(II-나구역)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4, 사적 제466호 『원주 법천사지의 재조명』 학술심포지엄.

2) II-나구역

II-나구역은 중심사역의 서쪽에 위치하며, 북쪽의 II-가구역과 II-나구역의 북쪽일원은 전체적으로品茶형의 평면형태를 보인다.



사진 4. II-나구역 20~24호 건물지



사진 5. II-나구역 25호 건물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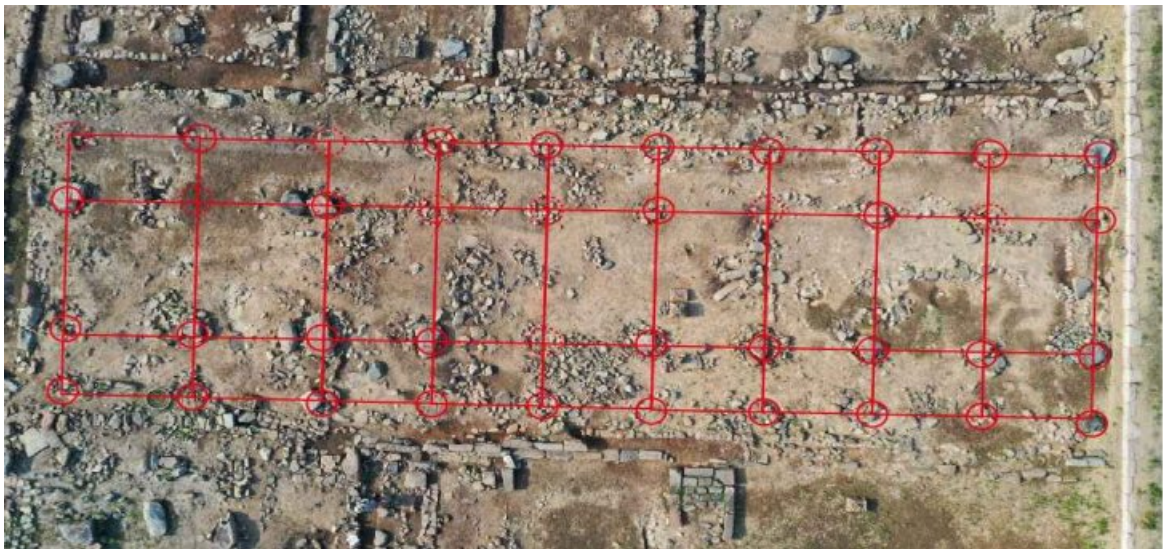


사진 6. II-나구역 29호 건물지 조사 후 전 경



사진 7. II-나구역 35호 건물지 전경

먼저, 20~24호 건물지가 위치하는 북서쪽 구역은 중앙에 방형의 20호 건물지를 중심으로 21호(북)와 22호(서), 23호(남), 24호(동) 건물지가 회랑형식으로 둘러싸여 하나의 공간을 이룬다. 21호 건물지와 24호 건물지 내부는 간이 화덕이 확인되어 생활공간으로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II-나구역 북동쪽에는 26호~29호, 41호 건물지가 분포한다. 이들 건물지는 25호 건물지를 사이에 두고, 20~24호 건물지와 대칭관계를 보인다. 이중, 29호 건물지는 현재, 25호 건물지와 26호, 27호, 41호 건물지의 남쪽에 동서방향으로 위치하는 대형의 조선시대 건물지로 잔존규모는 정면 9칸, 측면 3칸이다. 주칸거리는 동서 415cm, 남북 300cm-568cm-300cm이며, 크기 202cm×110cm~110cm×115cm 내외의 상면만 다듬은 막돌초석을 사용하였다. 29호 건물지 트렌치 조사 결과 남북방향의 선축 기단석렬이 확인됨에 따라 당초 정면 7칸 규모였다가 후에 서쪽으로 확장된 9칸 규모로 증축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남쪽기단과 중앙보도도 함께 개축된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지역 가장 남쪽에 동서방향으로 축조된 35호 건물지는 정면 18칸, 측면 1칸으로 추정되며, 중심사역에서 확인된 5호 건물지와 같이 II-나구역 별원권역의 남쪽을 전체적으로 구획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트렌치 조사에서 현재 건물지와 동서방향으로 거의 비슷한 규모로 폭 1.5m가량의 면을 맞춰 축조한 석렬유구가 확인된 것으로 보아 당초 담장형식이었다가 후대에 회랑형식으로 개축된 것을 알 수 있다.

30~34호 건물지가 위치하는 남쪽지역은 29호 건물지의 증개축과 관련하여 32호와 33호, 34호 건물지 일원에 장대석 기단석렬을 사용하여 개축한 시기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 23호 건물지 남쪽과 30호, 31호 건물지 북쪽의 배수로, 29호 건물지 남쪽과 32호 건물지 북쪽 사이의 암거시설로 보아 남쪽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 2. IV구역2)

IV구역 일원은 2021년 14차 발굴조사에서 북쪽구역을 시작으로 2023년(15차), 2024년(17차) 발굴조사를 통해 건물지 33동, 보도 15기, 담장 27기, 문지, 박석, 기와폐기장, 우물 4기, 석렬 6기, 석축 및 계단지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IV구역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점차 고도가 높아지며, 담장을 통해 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구획된 공간 9곳이 확인되었다. 구역의 서쪽 경계에는 남북방향으로 열을 맞춰 긴 담장이 설치되었고, 조사구역 내에서 확인된 길이는 118m이다. 이 담장을 기준으로 동서방향의 담장을 남북으로 배치하거나 동쪽에 남북방향의 담장을 연결하여 ‘ㄷ’자 또는 ‘ㄱ’자의 공간을 구획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북쪽에 위치하는 IV-1구역과 IV-2구역은 동쪽에 치우쳐 ‘ㄱ’자 형태의 기단에 주축방향이 각각 동서와 남북방향인 건물이 배치되었고, 그 남쪽으로 이와 연결된 보도가 위치하고 있어 두 구역 내의 가람배치양상이 거의 동일하다. 이 중 IV-1구역의 1호 건물지는 정면 5칸 측면 1칸의 규모로 추정되며, 주칸거리는 정면 2.7m, 측면 4.1m이고 초석은 90cm×60cm 크기의 상면만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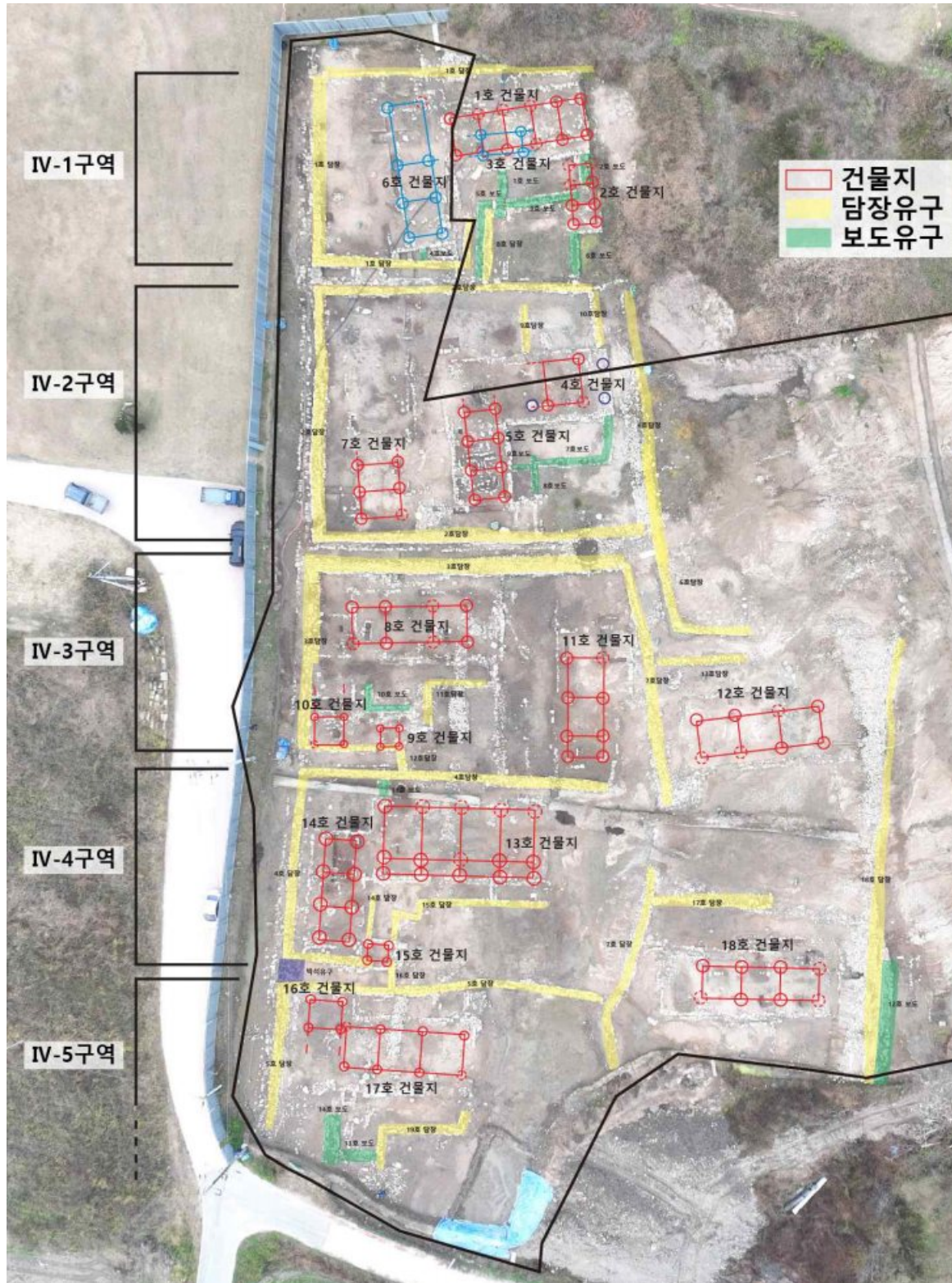
2) IV구역에 대한 발굴조사 보고서는 현재, 북쪽구역 일부에 대해서만 발간되었고, 2023년 이후의 발굴조사 내용은 현재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으므로 약식보고서를 주 자료로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23, 『원주 법천사 V』.

(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23, 「원주 법천사지(IV구역)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24, 「원주 법천사지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제17차) 약식보고서」.

들은 할석을 사용하였다. 건물지 내 화덕이 초석과 초석 사이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벽체가 설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내부 수혈에서 슬러그가 수습되어 공방으로 추정하였다.



도면 3. IV구역(14·15차) 발굴조사 유구 현황

그 남쪽에 위치하는 IV-3구역과 IV-4·5구역은 북서쪽에 동서방향의 건물지, 서쪽으로 남북방향의 건물지가 위치하고, 남쪽에 1×1칸 규모의 문지가 배치된 점, 건물지들 사이에 보도 또는 담장이 구획된 점에서 거의 동일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사진 8. IV-1구역 1호 건물지 내 수혈



사진 9. IV-1구역 수혈 내 수습 슬러그편



사진 10. IV-2구역 2호 담장(좌:서쪽 남북방향, 우:남쪽 동서방향)



사진 11. IV-3구역 8호 건물지 전경



사진 12. IV-3구역 8호 건물지 내 화덕



사진 13. IV-3구역 10호 건물지 내 구들



사진 14. IV-4구역14호 건물지 구들 고래 세부



사진 15. IV-4구역 문지(남-북)

IV-3구역에서 확인된 8호 건물지는 정면 4칸, 측면 1칸 규모로 주칸거리는 남북 4.3m, 동서 3.5~6.7m이며, 내부에 석재로 아궁이를 제작한 화덕 2기가 확인되었다. 남서쪽에서 확인된 10호 건물지에서는 방형의 아궁이와 고래를 갖춘 구들이 확인되었다. 구획의 남서쪽에 위치하는 문지의 주칸거리는 남북 2m, 동서 2.1m로 초석 3기가 남아 있다.

한편, IV-4구역의 14호 건물지는 남북방향이며,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로 주칸거리는 남북 3.5~3.7m, 동서 3.6m이다. 건물지 내부에는 10호 건물지와 같이 고래와 아궁이를 갖춘 구들시설이 확인되어 두 구역간의 건물 배치와 용도상의 유사성이 확인된다.

한편, IV-6·7구역<sup>3)</sup>은 7호 담장을 경계로 한 단 높은 곳에 각각 건물지 1동이 동서방향으로 나란하게 배치되어 서쪽과는 또 다른 공간구성을 보인다. 18호 건물지는 IV-4구역과 IV-5구역의 동쪽 중앙부에 위치하며,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의 건물지로 주칸거리는 동서 4.5m, 남북 3.7m, 퇴칸은 1.45m 규모이다. 각 칸 내에는 화덕시설이 배치되었다.

3) 조사당시에는 각각 IV-4,5구역에 편입하여 설명하였으나 서쪽구역보다 높은지대에 위치하고, 건물지의 배치가 상이한 점으로 미뤄보아 다른 구획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17차 발굴조사 구획 명명시 이들 구역을 IV-6,7구역으로 명명한 것으로 가정하여 뒷번호로 구획번호로 부여하였다.



사진 16. IV구역-7 18호 건물지 전경



사진 17. IV-7구역 18호 건물지 내부 화덕



사진 18. IV-4구역 박석(진입시설)

IV-8구역은 IV-7구역의 남쪽, IV-5구역의 동쪽에 위치한다. 내부에는 19·20호 건물지가 중복을 이뤄 확인된다. 19호 건물지는 평면 ‘ㄱ’자로 20호 건물지가 화재폐기된 후 상부에 축조되었으며, 잔존하는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3칸이다. 적심간 거리는 남북 3.7m, 동서 4.2m이며, 적심의 지름은 110cm 내외이다. 구역의 동쪽 경계는 북쪽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18호 담장이 위치하며, 건물지와 가까운 남쪽 부분은 끊어진 상태로 잔존하는 길이는 5.3m 가량이다.

IV-9구역은 IV구역의 동쪽 경계부에 위치하며, 기존의 구획과는 동쪽으로 이격되어 담장으로 구획된 단독 공간을 이룬다. 20호 담장은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 ‘ㄷ’자 형태로 구획되었으며, 북쪽은 산사면을 향하도록 둔각으로 진행되는 21호 담장과 맞닿아 있다.



도면 4. 17차 발굴조사 유구 현황



사진 19. IV-8구역 유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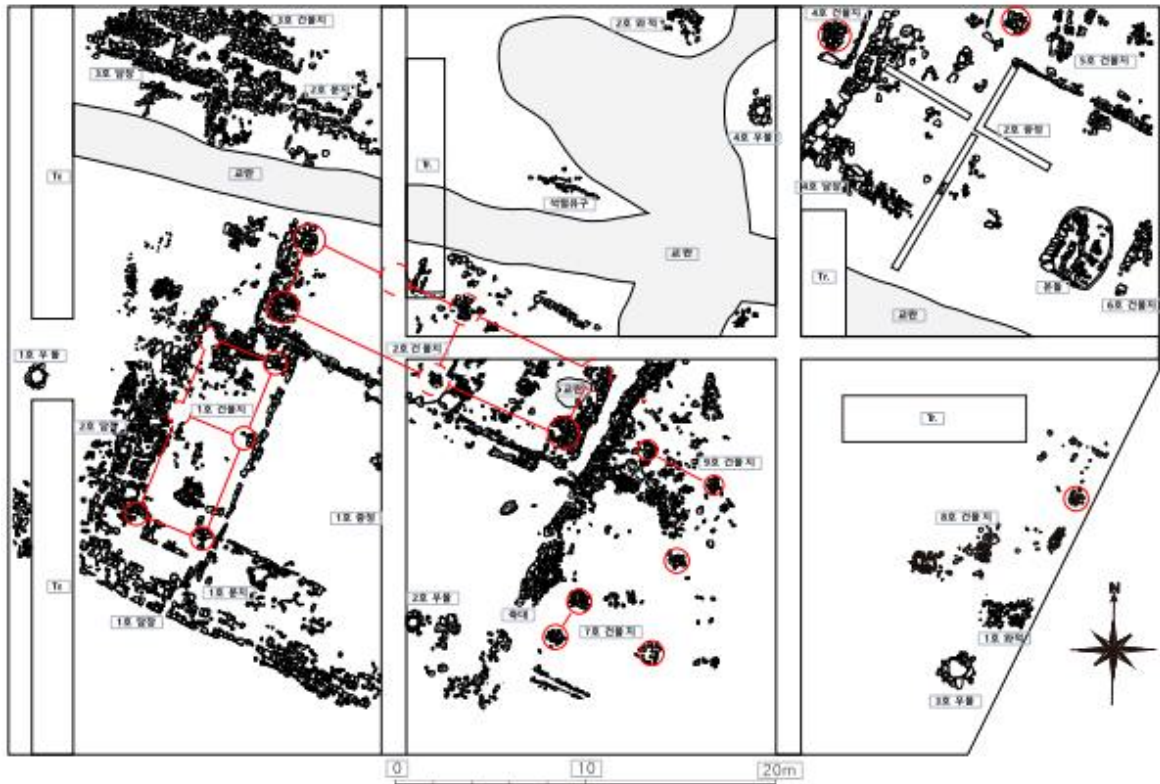
사진 20. IV-9구역 유구 현황

서쪽 중앙에 출입시설을 통해 진입하면 회랑이 담장열과 나란하게 남북방향으로 배치되었고, 박석을 따라 축대 앞의 계단에 이르는 동선으로 추정된다. 가장 동쪽 구역의 가장 높은 지점의 평탄면 위에는 ㄷ자로 건물을 배치하였다. 축대는 2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층 축대의 동쪽으로 pit를 넣어 조사한 결과 안쪽으로 남쪽 모서리와 연결되는 선축된 석축이 확인되어 1회 이상 개축된 것으로 판단된다. 축조는 장대석을 눕혀세워 앞쪽으로 면을 맞춘 형태이고, 일부는 비교적 큰 석재를 활용해 쌓았다. 아래쪽 축대의 남북길이는 25m 가량이며, 상단의 장대석 축대는 남북 26.6m 규모이다. 구역 내에서 건물지 4동과 문지, 담장, 박석, 우물, 석축, 계단지, 배수로 등이 확인되었다.

### 3. VII구역<sup>4)</sup>

VII구역은 법천사지 사적지정범위 내 남동쪽 끝부분에 위치한다. 2019년 11차 시굴 조사 후 VII구역 전지역에서 유구가 확인되었고, 남쪽 유적전시관 건립부지에 대해 12차 발굴조사가 선행되었다. 조사결과 건물지 6동, 문지, 우물 4기, 축대, 담장, 배수로, 와적층 등이 확인되었다. 이후, 17차 발굴조사에서 북서쪽 모서리 부분 일부를 발굴조사 하여 건물지 9동을 비롯하여 담장과 보도, 우물 등의 시설이 확인되었다.

4) 국강고고학연구소, 2021, 『원주 법천사 IV -원주 법천사지(사적 제466호)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도면 5. 11차 발굴조사 유구 현황(Ⅶ구역 남쪽)

건물지들은 IV구역과 마찬가지로 담장, 축대 등으로 둘러싸여 방형으로 구획되었다. 구획 내부에는 건물지와 우물 등이 배치되었고, 11차 발굴조사 구역에서는 중앙부에 빈공간(중정)이 확인된다. 건물지의 축선방향은 N-25°-E내외로 중심사역의 축선보다 20°정도 동쪽으로 틀어져 있다.

11차 발굴조사 구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2호 건물지는 하나의 기단에 연결된 구조로 1호 건물지는 남-북방향, 2호 건물지는 동-서방향으로 배치되었다. 이들 건물지는 보도와 축대 등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1호 건물지의 동쪽으로 문지로 추정되는 공간이 확인된다. 또, 구획공간 남동쪽에는 우물이 확인된다. 2호 건물지에서는 아궁이와 배수구가 확인되었다.

담장과 축대는 평면(장)방향의 길이 20~25m 정도의 구획 공간 둘레를 감싸는 형태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문지가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구획공간 사이에 출입을 위한 도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축대는 남북방향으로 확인되며, 높이가 50cm가량 남아 있다. 서쪽보다 높은 단을 이루며 건물지가 배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대부분 유실되어 형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17차 발굴조사 구역은 11차 발굴조사 구역과 방형의 구획 공간 내 건물지가 배치된 양상이 거의 동일하게 확인되었으나 중앙에 중정 공간에 담장 등이 배치된 점과 우물의 위치가 서쪽에 치우친 점은 차이점이다.

### III. 법천사지 IV구역 공간구성의 특징

법천사지 14차·15차·17차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IV구역은 담장으로 구획된 공간 내에 ㄱ자 형태나 ㄴ자 형태로 배치된 건물지가 분포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구획공간은 총 9곳으로 조사 당시 이들 각각의 구획에 번호를 부여한 바 있다.

IV구역 내의 구획공간은 산록완사면과 연결되는 동고서저의 지형에 따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점차 높아지며 총 3단으로 건물지가 배치되어 있다. 먼저, 가장 서쪽의 1단은 IV-1~5구역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제일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두 번째로 2단은 IV-1~5구역의 동쪽에 위치하며, 해발고도 상으로 약간 높은 지점에 위치한다. 세 번째로 3단은 가장 동쪽 산사면에 방형의 독립적인 구획공간으로 배치되었다.

1단은 서쪽의 남-북방향으로 길게 이어지는 담장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뻗어 있으며, 방형 내지 장방형의 평면형태를 보인다. 현재까지 확인된 IV구역 내의 서쪽 담장의 총 길이는 120m 가량으로 각 구획공간의 규모는 남북 20~27m, 동서 29~39m 가량이다. 담장의 너비는 1.1m 내외 규모로 가장 높게 남아 있는 부분은 3구역으로 5~6단가량 남아 있다.

1단 공간의 건물지는 각각의 구역 내에서 대체로 평면 ㄱ자형으로 배치된 구획을 기본으로 하며, 서쪽이나 동쪽에 건물지가 추가되기도 한다. 이들 건물지의 배치는 IV-1·2구역과 IV-3·4·5구역이 다르게 배치되었다. IV-1·2구역은 ㄱ자형 건물지가 구역의 동쪽에 치우쳐 배치되었으며, 장축방향은 IV-1·2구역이 8°가량 서쪽으로 틀어져 있다. 한편, IV-1구역의 경우는 구획담장과도 축선이 다르게 배치되었는데 pit조사결과 담장이 건물지에 후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IV-3·4구역의 경우는 ㄱ자형의 건물지들이 서쪽에 치우쳐 담장과 나란하게 조성되었고, 건물과 구획담장 남서쪽으로 문지가 연결된 점에서 동일한 배치를 보인다. IV-5구역은 북쪽 구역들과 건물지의 배치는 비슷하나 조사경계와 맞물려 출입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특징적인 것은 동-서방향의 건물지 남쪽으로 배치된 담장시설로, 이들은 남쪽의 문지에 연결되어 있어 시선 차단 효과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단은 IV-3구역의 동편으로부터 남쪽방향으로 형성되었다. 서쪽의 담장을 경계로 1단보다 약간 높은 대지에 위치하며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기에 북쪽부터 IV-6, IV-7, IV-8구역으로 명명하였다. 이들 건물지는 소형의 방형 구획 내에 동-서방향의 건물지가 1동씩 자리하고 있으며, IV-8구역은 중복된 건물지가 위치한다. 건물지의 규모는 12호 건물지는 정면 4칸, 측면 1칸이고, 18호 건물지는 정면 4칸, 측면 2칸으로 퇴칸이 있는 구조이다. IV-7구역 내에 위치하는 18호 건물지는 각 칸의 남과 북쪽에 화덕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단순 거주용 건물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단은 IV-6, 7구역의 동쪽에 위치하며, 동쪽으로 25m 가량 떨어진 사면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 산사면을 경계로 'ㄷ'자형태의 담장구획공간이 확인된다. 구획공간의 서쪽은 진입시설과 함께 남북방향의 회랑이 확인되며, 동쪽은 2단의 축대로 조성한 대지 위에 'ㄷ'자형의 건물이 배치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동쪽의 중심건물과 중첩되어 동서방향의 소성유구<sup>5)</sup> 1기가 확인되어 시설의 용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결과 조선후기로 확인되었다.

5) 17차 발굴조사 당시 소성유구로 명명되었던 유구로 의례와 관련된 유구로 추정된 바 있으나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 조선후기로 확인되어 건물지에 후축된 후대의 유구로 판단된다.



도면 6. IV구역 IV·Ⅴ구역 북쪽 일원 유구 현황(15·17차 합성)

법천사지의 II구역 발굴조사 결과 진입시설은 주로 서쪽에 확인되며, 북서쪽 모서리에 위치하는 II-가구역의 경우 북쪽에도 출입시설이 갖추어져있다. 반면, IV구역의 건물지들은 담장으로 구획되어 외부의 시선이 차단된 공간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발굴조사결과 1단의 구획공간들

은 각 공간별로 출입시설이 남서쪽 문지로 국한된다. 법천사지의 지형이 서고동저형이며, 서쪽에 법천천이 흐르고 있으므로 출입이 서쪽으로부터 이루어진 점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현재 서쪽 담장 열의 서편으로 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이에 맞춰 담장열이 길게 이어지는 점으로 보아 이 도로 하부에 중심사역으로 이르는 도로가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각각의 구획 공간 내 건물지에는 대부분 화덕시설이 위치하며, 공간 내에 건물지 주변으로 우물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5호 건물지 내에는 고래가 확인되었고, 남-북방향의 10호 건물지와 14호 건물지에서는 방형의 아궁이 시설이 확인되어 취사와 관련한 시설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II구역 내 화덕시설을 갖춘 건물지들이 회랑형을 띠고 있는 점과는 건물의 배치와 화덕의 형태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IV구역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물 중 기와류는 막새는 거의 확인되지 않았고, 평기와의 비율이 현저히 높은 편이다. 법천사지 출토유물의 주류를 이루는 청자는 전성기의 청자의 출토비율이 높으나 지방가마에서 생산된 조질의 청자들도 함께 확인되며, 생활용기로 사용되는 도기의 출토비율도 높은편이다. 그밖에 귀면의 소조편과 석조보살상, 소형의 탑, 지붕모양의 와편 등 의례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들도 함께 출토되었다.

발굴조사 과정에서 구획공간의 용도에 대해 선방, 민가, 생산공간, 장기체류 공간 등 다양한 제언들이 있었다. 지금까지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법천사지 경내의 공간들은 지광국사탑과 탑비가 위치하는 탑비전지와 그 서쪽 아래의 금당지, 그 서쪽 별원권역의 선방 등이 있다. 이들은 각각 고승공간, 불자공간, 승자공간으로, IV구역 일원은 속지공간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sup>6)</sup>.

이처럼 최근 발굴조사가 이뤄진 IV구역과 VII구역 일원은 금당지로부터 남동쪽으로 이격된 공간에 위치하며, 다양한 용도의 공간들로 구성된 공간으로 생각된다. 앞서 이뤄진 14차 발굴조사에서는 1호 건물지에 대해 슬래그편 등의 출토를 통해 생산공간 존재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후속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건물지 내의 다양한 화덕시설과 우물의 존재는 건물지들이 거주나 체류 목적의 용도를 지녔음을 방증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주 법천사지의 입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천사지는 고려초기에 설치된 12조창 중에 하나인 흥원창으로부터 4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고려사』에는 정종(靖宗)때(1034~1046) 전국 각 조창에 배치할 조운선의 숫자를 정하면서, 흥원창에는 1척당 200석의 곡식을 실을 수 있는 평저선(平底船) 21척을 두었다고 한다<sup>7)</sup>. 흥원창에 모인 세곡은 한강을 따라 개경의 경창으로 운송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근거리에 있는 법천사가 위치하는 부론면 일대는 재화가 집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상인을 비롯하여 여행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법천사를 방문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때문에 흥원창과 가까운 법천사 일원에 이들을 수용할만한 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상정되며, 법천사에 이와 관련된 역원(驛院)시설이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6) 황정욱, 2024, 「고려 국사의 하산소 원주 법천사」, 『중부지역 고려 왕실 유적의 고고학적 성과』, 중부고고학회 2024년도 정기학술대회.(필자는 논문에서 최태선, 2016, 「신라·고려전기 가람의 조영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의 제시 안을 따라 법천사의 상황에 맞게 정리하였다.)

7) 『高麗史』 권79, 食貨2, 漕運.

#### IV. 맺는말

원주 법천사지는 거둔사지, 흥법사지 등과 더불어 남한강 수계의 고려시대 중요 사찰 중에 하나로 2001년을 시작으로 2025년 현재까지 18차에 걸쳐 발굴조사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법천사지의 대략적인 범위가 설정되었고, 탐비전지와 중심사역을 비롯한 사역의 북쪽공간은 상당부분 복원정비도 이뤄진 성과가 있었다.

본고에서는 최근 10년간 이뤄진 법천사지의 발굴조사 성과를 정리하고 가장 최근 발굴조사된 IV구역 일원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았다. 법천사지 경내의 북쪽구역은 회랑 형식의 건물지들로 둘러싸인 여러 개의 원으로 이뤄진 공간으로 중심사역과 함께 격이 높았던 지역으로 생각된다. 남쪽구역은 최근에 그 전모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데, 담장으로 둘러싸인 방형 공간들이 3단으로 동쪽의 산자락까지 이어지며, 사역의 가장 남동쪽인 VIII구역까지도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공간들은 법천사 경내에서 속지공간으로 여겨지며, 다양한 용도의 공간들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법천사지 남쪽의 도로구역과 그 서쪽구역에 대한 발굴조사성과도 축적된다면 고려시대 사원의 공간구성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생각된다. 발굴조사 과정에서 건물지 사이의 배수체계와 동선 등을 자세히 확인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추후, 증장기 계획에 따른 순차적인 발굴조사 과정에서 넓은 구역에 대한 자료를 단기간에 확보하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밀하고 세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

토론문 4

## 「법천사지 IV구역 공간구성에 대한 검토」에 대한 토론문

조상순(국립중앙문화유산연구소 소장)

법천사(法泉寺)는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법상종(法相宗) 사찰로, 기존 연구자료에 따르면 나말여초의 관단(官壇) 사원으로 추정됩니다. 통일신라시대 성덕왕대에 건립되어 고려시대에 크게 번창하였고, 1126년 이자겸의 난을 계기로 사세가 기울었으며,<sup>1)</sup> 조선시대 들어 임진왜란 이후인 1609년의 기록에는 화재 이후 터만 남게 되었습니다.<sup>2)</sup> 그리고 법천사와 관련된 고려시대 인물로는 진관대사 석초(釋超, 912~964), 지광국사 해린(海麟, 984~1067)이 대표적이며, 특히 해린은 고려 문종의 후원을 받아 법천사를 중심으로 교단을 이끌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sup>3)</sup> 이후 조선 초기에는 유학자인 유방선(柳方善, 1388~1443)은 법천사에 머물면서 학문을 강의하였고, 그의 강의에 다수의 문인이 참석하였다고 합니다.<sup>4)</sup> 서거정(徐居正, 1420~1488) 또한 유방선의 강의에 참석하였으며, 법천사에 머물면서 글을 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sup>5)</sup>

현재 법천사지에 대한 발굴조사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18차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20년부터 강원고고문화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13차 발굴 조사 이후,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른 새로운 고고학적 유구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찰의 건립과 사용에 대한 많은 기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유구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발굴 성과가

- 1) 정창현(현오), 『원주불교의 역사와 발전 방안 연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4, 33쪽
- 2) 원주의 남쪽 50리 되는 곳에 산이 있는데 비봉산(飛鳳山)이라 하며, 그 산 아래 절이 있어 법천사(法泉寺)라 하는데 신라의 옛 사찰이다. 나는 일찍이 듣기를, 태재(泰齋) 유방선(柳方善) 선생이 그 절 밑에 살자, 권길창(權吉昌) 길창은 권남(權擘)의 봉호)·한상당(韓上黨) 상당은 한명회(韓明滄)의 봉호)·서사가(徐四佳) 사가는 서거정(徐居正)의 호)·이삼탄(李三灘) 삼탄은 이승소(李承召)의 호)·성화중(成和仲) 화중은 성간(成侃)의 자)이 모두 쫓아와 배워 이 절에서 업을 익혀 문장으로 세상을 울리고, 혹은 공을 세워 나라를 안정시켰으므로, 절의 명성이 이로 말미암아 드러났으니,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그곳을 말하고 있다. ...(중략)... 험준한 두뿔길을 따라 고개를 넘어 소위 명봉산(鳴鳳山)에 이르니, 산은 그다지 높지 않으나 봉우리가 넷인데 서로 마주보는 모습이 새가 나는 듯했다. 개천 돌이 동과 서에서 흘러나와 동구(洞口)에서 합쳐 하나를 이루었는데, 절은 바로 그 한가운데 처하여 남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난리에 불타서 겨우 그 터만 남았으며, 무너진 주춧돌이 토끼나 사슴 따위가 다니는 길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비석은 반 동강이 난 채 잡초 사이에 묻혀 있었다. 살펴보니 고려의 승려 지광(智光)의 탑비(塔碑)였다. 문장이 심오하고 필치는 굳세었으나 누가 짓고 쓴 것인지를 알 수 없었으며 실로 오래되고 기이한 것이었다. 나는 해가 저물도록 어루만지며, 탁본하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겼다. 중은, “이 절은 대단히 커서 당시에는 상주한 이가 수백이었지만, 제가 일찍이 살던 소위 선당(禪堂)이란 곳은 지금 찾아보려 해도 가려 낼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후략) 출처: 『성소부부고(攄所覆韻稿)』 卷之六〇 文部三 / 記 (한국고전종합DB)
- 3) 조인숙, 「고려불교에서 자은종(慈恩宗)의 전개 양상과 특징」, 『한국불교사연구』, 제27호, 259쪽 참조
- 4) 유태재(柳泰齋, 고려 말 문인)가 북원(北原) 법천사(法泉寺)에서 학문을 강의하니, 수업을 받은 자들이 먼 곳에서 모여들었다. 권람(權擘)·한명회(韓明滄)·강효문(康孝文)·서거정(徐居正) 같은 사람도 모두 참가하였다. 지금도 탑(塔)에 글씨가 남아 있다. 《동국여지승람》(출처: 海東雜錄[四] 權擘 / 本朝[四]) (한국고전종합DB)
- 5) 讀書法泉寺. 用康子武韻. 錄似權正卿學. 출처: 四佳詩集卷之二〇第二 / 詩類 (한국고전종합DB)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토론에 앞서 연구자로서 (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과 원주시, 강원도 관계자분들의 노고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발표자께서는 최근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금당지 남동쪽에 있는 IV구역과 VII구역 일원에서 확인된 유구는 다양한 화덕 시설과 우물 등으로, 거주나 체류 목적의 용도를 지녔을 것으로 추정하셨고, 특히 흥원창과의 거리가 4km임을 고려하여, 이 구역을 역원(驛院)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토론자는 앞서 언급한 고려말 조선초의 기록을 고려할 때, 유학자의 거주 가능성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IV구역(14, 15차 발굴조사 유구)에서는 출입문과 담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비슷한 배치 유형을 갖는 건축군(建築群) 유구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고, VII구역(17차 발굴 조사 유구)에서도 일부 유사한 배치 유형의 건축군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치는 한반도 중부 지역의 일반적인 주거 배치(二자형, ㄱ자형 등)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법천사는 통일신라대에 창건된 교종계인 법상종 사찰입니다. 종교적 계율을 중시하는 종파로서, 사찰 내부는 물론 사찰 외부 영역도 일정한 규율에 따라 조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표자께서는 IV-6, 7구역의 동편에 있는 ‘ㄷ’자 형태의 구획 공간의 성격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동쪽 중심 건물과 중첩되어 확인된 동서 방향 소성 유구의 경우, 토론자는 이를 「지광국사현묘탑비명」을 근거로 하여, 해린의 입적 후 다비를 치른 곳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해린의 입적 후 다비를 치른 곳으로 법천사 명봉산 동쪽 승지(勝地)가 묘사되어 있습니다.<sup>6)</sup> 해린은 법천사를 본사로 활동하였고, 해린의 문하에는 1,370여 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sup>7)</sup> 고려 문종 21년(1067) 9월 법천사로 은퇴하고 그해 10월 입적하였기에, 법천사 권역 내에서 해린이 마지막으로 머물렀을 공간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만 해당 유구에 대한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가 조선 후기로 확인되었지만, 폐사(廢寺)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서 유구의 의미가 변화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법천사와 비슷한 시기에 운영되었던 선종사원 가운데 양주 회암사지는 선종의 수행과 생활을 위한 규범인 「청규(淸規)」를 따라 건물 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열반당(涅槃堂)<sup>8)</sup>과 같은 건물의 명칭이 확인되는 사례가 있음을 고려할 때, 법천사지 동편에 있는 가장 높은 단 영역이 고승의 독립적인 생활영역의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법천사의 중심 권역은 발굴이 완료되었지만,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6) (전략)... 부음을 들은 문종(文宗)은 크게 진도(震悼)하시고 곧 좌가승록(左街僧錄)인 승연(崇演)과 보장정(保障正)인 전삼린(全參蘭) 등을 파견하여 장사(葬事)를 감호하도록 하였으며, 이어 전개(專介)인 특사를 보내서 빈당(殯堂)에 가서 조문토록 하되 정중한 탁제(卓祭)를 치르도록 하는 한편, ‘지광(智光)’이라는 시호를 증정(贈呈)하고 아울러 다향(茶香)과 유촉(油燭)을 하사하였으며, 또 원주(原州) 창고에 있는 양곡으로써 발천위락(拔薦爲樂)의 법요식(法要式)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1월 9일 법천사(法泉寺)의 명봉산(鳴鳳山) 동쪽 승지(勝地)를 선택하여 다비(茶毗)의 예를 거행하였다. 이 때 인간과 영기(靈祇)가 비통하며 슬퍼하고, 천지(天地)가 캄캄하며 새·짐승들은 슬피 울고, 봉만(峰巒)은 처참하게 나열(羅列)되었으니, 유정(有情)과 무정(無情) 등이 모두 국사의 도덕이 끝남에 대하여 슬퍼한 것인저! ... (후략) 출처: 증시지광국사현묘탑비명(贈諡智光國師玄妙之塔碑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지식이음 연구DB 금석문)

7) 신편 한국사-법상종 참조(한국사데이터베이스, db.history.go.kr)

8) 「문경봉암사정진대사탑비(聞慶 鳳巖寺 靜眞大師塔碑, 고려 광종 16, 965)」에 ‘열반당’이 언급되어 있다. 국가유산지식이음 연구DB(portal.nrich.go.kr) 참조  
또한 남송(南宋) 말 무렵 중국 오산십찰도(五山十刹圖)를 순력하며 도면으로 남긴 『오산십찰도(五山十刹圖)』에도 열반에 관련된 시설이 언급되어 있다.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회암사지박물관 연구총서VI-회암사의 건축』, 2018, 54~57쪽 참조

많다고 판단됩니다. 발표자께서 작성하신 발표문에서는 객관적인 발굴 성과 등을 요약 정리하셨다고 보입니다. 다만 오랜 기간 해당 지역 발굴 조사에 참여하여 오신 발표자의 시선으로 볼 때, 앞으로 추가 혹은 보완 조사 등이 필요한 부분과, 앞으로의 바라는 방향을 말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의 질문으로 토론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발표 5  
법천사의 난방시설 검토

이 상 목  
(강원고고문화연구원)



# 법천사의 난방시설 검토

이상목(강원고고문화연구원)

## 목 차

- I. 머리말
- II. 법천사의 난방시설 현황 및 주변 유적의 난방시설
- III. 고려시대 전기 ㄷ자형 화덕과 구들시설이 나타난 시대적 환경적 배경 추론
- IV. 맺는말

## I. 머리말

법천사는 남한강과 섬강의 합수지점 남서쪽 부론면에 위치하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 전 기까지 경영된 사찰이다. 창건 이후 지광국사 해린의 하산소로 선정된 후 대규모의 중창이 이루어져 사세는 가장 융성하였고 이후 조선에 접어들어 쇠락하기 시작해 임진왜란을 거치며 폐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천사에 대한 조사는 2001년 시굴조사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18차례의 시굴 및 발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 금당이 위치한 중심사역을 중심으로 주변에 탐비전지, 별원구역, 등이 배치된, 다원식가람구조의 대규모 복합적 가람을 형성한 사찰로 확인되었다.<sup>1)</sup> 권역에 따라 건물지, 탐지, 담장지, 출입시설, 보도시설, 우물, 등 여러 형태의 유구가 사용 목적에 맞게 배치되었다. 이 중 건물지는 총 104동(533칸)<sup>2)</sup>이 확인되었으며, 일부 건물지 내부에는 ㄷ자형 화덕, 장방형 화덕, ㄷ자형 구들<sup>3)</sup> 등의 난방시설이 확인되었다.

난방시설은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추위를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가장 필수적인 시설로 그 형태는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변화해 왔다. 신석기시대~철기시대 주거지 내부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노지에서 철기시대 주거지 내부 벽에 붙어 나타나는 쪽구들로 이어지고 난방시설로 완성형에 가까운 여러 줄의 고래로 만들어진 전면 구들<sup>4)</sup>까지 발전해 왔다.

1)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7, 『원주 법천사Ⅲ -Ⅱ구역 발굴조사 보고서』.  
 2) 현재까지 발굴조사가 완료된 건물지 규모를 구역별로 살펴보면 탐비전지는 16동(45칸), 중심사역은 6동(78칸), 별원권역 Ⅱ-가 구역은 16동(93칸), 별원권역 Ⅱ-나 구역은 17동(168칸), 기타구역은 7동(31칸), Ⅳ구역은 36동(98칸), Ⅶ구역은 3동(8칸)이다.  
 3) 고려 전기에 주로 나타나는 형태로 고래가 아궁이에서 ‘ㄷ’자로 꺾여 배연부로 연결된다.  
 4) 아궁이와 여러 줄의 고래, 개자리, 굴뚝으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난방시설을 말한다.

하지만, 유구한 역사와 그에 걸맞는 대규모 사찰인 법천사에서 확인되는 난방시설은 그 규모에 비해 발굴조사로 확인된 수가 적고 여러 줄 고래로 축조된 전면 구들이 아닌 작고 소박하다고 할 수 있는 화덕시설과 1열~2열의 고래로 축조된 ㄷ자형 구들만 확인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법천사에서 난방시설로 확인되는 화덕과 구들이 조성된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II. 법천사의 난방시설 현황 및 주변 유적의 난방시설

법천사에서 조사된 난방시설은 형태적으로 분류하면 ㄷ자형·장방형 화덕시설과 ㄷ자형 구들로 구분된다. ㄷ자형 화덕은 고려시대 입식생활을 하던 공간에 주로 나타나는 난방형태로 추정되며, 장방형 화덕시설은 ㄷ자형 화덕이 변형된 형태로 아직까지 사용목적에 대해 알려진 것은 없으나 ㄷ자형 화덕을 사용하던 중 어떤 목적으로 확장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1. IV구역 18호 건물지 ㄷ자형 화덕



사진 2. IV구역 8호 건물지 장방형 화덕



사진 3. VI구역 1호 건물지 ㄷ자형 구들



도면 1. 별원권역에서 확인된 난방시설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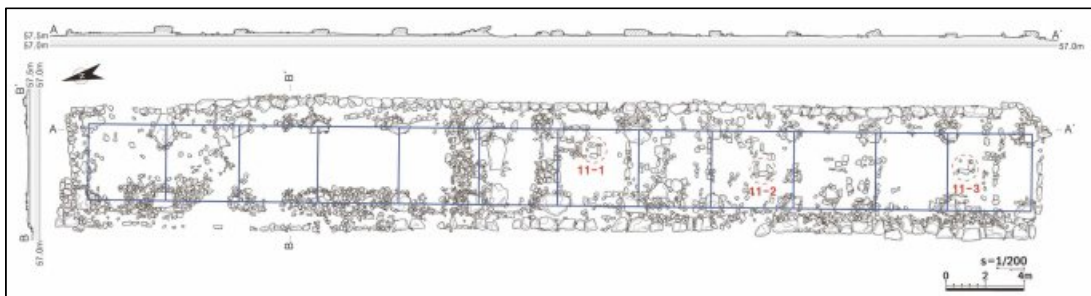
ㄷ자형 구들시설은 고려시대 전기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난방시설로 알려져 있다.<sup>5)</sup> 법천사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는 ㄷ자형 화덕은 치석된 석재를 사용해 3면을 막아 축조하고 나머지 한 면에 붓돌이 잔존하는 형태이고 이맷돌은 확인되지 않았다. 화덕의 트인 부분은 축조된 위치에 따라 동쪽, 남쪽, 북쪽,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붓돌은 확인되나 조사과정에서 고래나 또는 선형의 소결된 바닥면은 확인되지 않아 화덕 단독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붓돌이 확인되어 화덕이 아닌 아궁이였을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 1. 법천사에 분포하는 난방시설<sup>6)</sup>

### 1) 화덕시설

화덕시설의 크게 ‘ㄷ’자형과 장방형의 형태로 축조되었고, 법천사 권역에서 총 10기가 확인되었다. 조성된 위치에 따라 II구역(별원권역)에서는 총 6기는 확인되었고 모두 ㄷ자 형태이다. 중심사역 남동쪽에 위치한 IV구역에서 확인된 4기는 건물의 위치에 따라 ㄷ자형과 장방형 화덕이 다르게 축조된 것이 확인된다. 법천사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금당이 위치한 중심사역 서쪽에 접해있는 별원권역에 나타나는 난방시설이 화덕의 형태로 조성된 이유는 해당 공간을 사용하는 목적이 잠시 쉬거나 차를 마시는 등 짧은 시간 정주하는 것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장기간 거주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화덕만으로도 차물을 데우거나 어느 정도의 난방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IV구역에서 확인되는 화덕은 구조적으로 II구역(별원권역)의 화덕과 유사하지만, 건물지의 공간 구성 및 배치가 독립적이고, 주변에 우물이 위치하는 것으로 보아 ㄷ자형 구들과 함께 축조되어 장기간 독립적인 거주공간에 설치된 것일 가능성<sup>7)</sup>이 높다.



도면 2. II-가(별원권역) 11호 건물지



사진 4. 11-1 화덕



사진 5. 11-2 화덕



사진 6. 11-3 화덕

5) 기전문화재연구원, 2007, 『여주 고달사지II』.

6)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7, 앞의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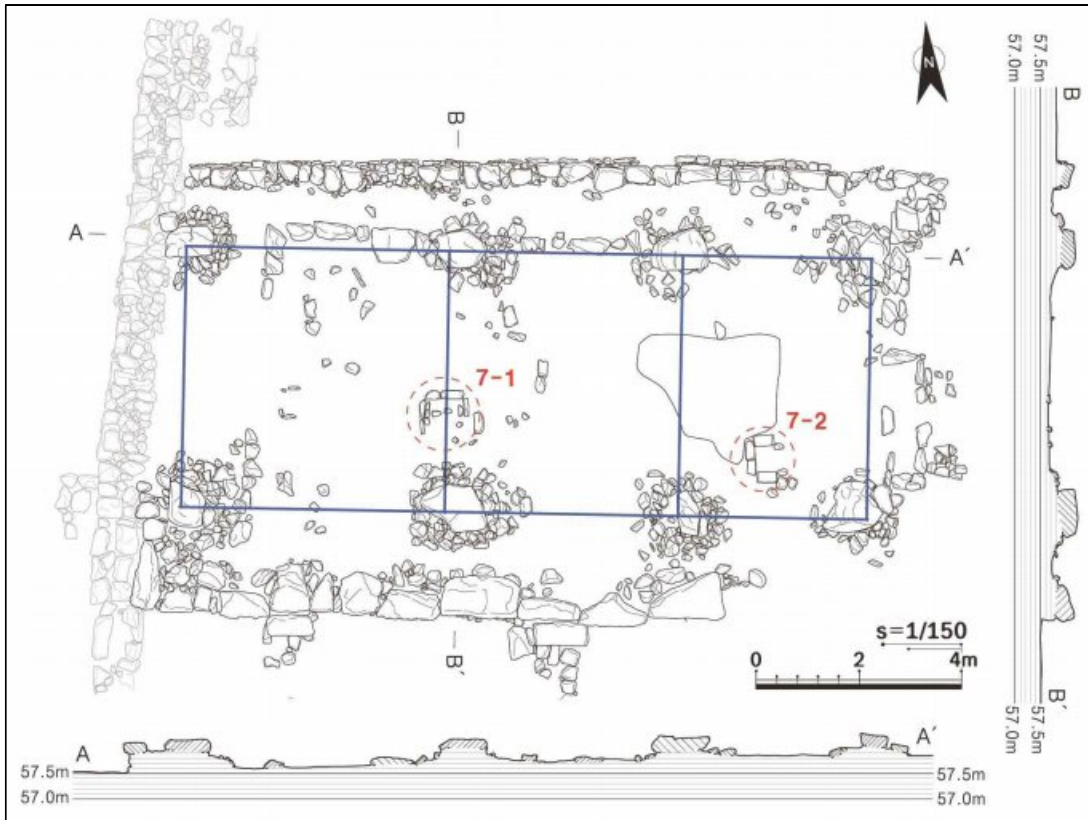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23, 『법천사V』.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23, 「원주 법천사지(IV구역)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24, 「원주 법천사지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제17차) 약식보고서」.

7)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24, 앞의 보고서.

화덕이 축조된 건물지의 위치를 구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II-가(별원권역)구역의 7호 건물지에 2기, 11호 건물지에 3기가 조성되어있고 II-나(별원구역)구역 41호 건물지에서 1기가 확인되었으며 모두 ㄷ자형이다. IV구역에서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ㄷ자형이 1호 건물지, 12호 건물지, 17호 건물지, 21호 건물지에 각1기씩 총 4기가 조성되었고, 장방형은 9호 건물지에 2기가 축조되었다.



도면 3. 별원권역(II-나) 7호 주거지



사진 7. 7-1 화덕



사진 8. 7-2 화덕

조성된 화덕의 배치적 특징을 살펴보면 건물지에 따라 2칸에 1기 또는 4칸에 1기가 협간에 설치되어있어 화덕을 기준으로 2칸 혹은 4칸이 세트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덕은 본래 취사, 난방, 조명 등의 목적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2칸에 1기를 조성하는 것이 4칸에 1기를 조성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다.



도면 4. IV구역, VII구역의 난방시설 위치도



사진 9. IV-1호 건물지 전경



사진 10. IV-12호 건물지 전경



사진 11. IV-1호 건물지 화덕



사진 12. IV-12호 건물지 화덕



사진 13. IV-9호 건물지 전경



사진 14. 21호 IV-건물지 전경



사진 15. IV-9호 건물지 장방형 화덕



사진 16. IV-21호 건물지 화덕

따라서, 법천사 확인되는 4칸에 1기의 화덕이 확인되는 1호, 10호, 13호, 20호 건물지에 축조된 화덕 또한, 2칸에 1기가 조성되었으나 법천사가 증·개축이 이뤄지면서 결실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로 별원권역(II-가)구역 7호 건물지는 12칸 행랑채이기 때문에 조성 당시 6기가 축조되었으나 3기가 결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IV-1호 주거지에서 화덕과 함께 확인된 노지 2기는 제철과 관련된 것으로 주변에서 단조박편들이 확인된다. 노지는 동쪽 협간의 동-서방향 초석열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노지가 확인된 공간은 벽체가 없이 지붕만 얹은 단조작업장(대장간)일 가능성이 있다.

## 2) 구들시설

구들은 IV구역에서 2기, VII구역에서 1기 조사되어 총 3기가 확인되었고 평면형태는 ㄷ자형으로 축조되었다. 구들은 금당이 위치한 중심사역 및 그 주변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IV구역과, VII구역에서 소수 확인되어 법천사의 주된 난방시설은 화덕시설이었고 구들시설은 특수한 목적이거나 화덕에서 구들로 난방시설이 변해가는 과도기적 성격의 난방시설로 추정된다.



사진 17. IV-13호 건물지 전경



사진 18. VII-1호 건물지 전경



사진 19. IV-13호 건물지 아궁이 및 구들모습



사진 20. VII-1호 건물지 구들 근경

구들이 축조된 건물지의 위치별로 살펴보면 IV구역 6호 건물지에서 1기, 13호 건물지에서 1기가 확인되었고 VII구역 1호 건물지에서 1기가 확인되었다. 6호 건물지는 남북 3칸, 동서 1칸의 규모로 구들은 건물지의 좌협간에 축조되었고 아궁이 1기, 천석으로 쌓은 2열 고래, 배연부가 확인되었지만 개자리는 확인되지 않았다. 아궁이는 후대 교란으로 흔적만 확인되고 고래는 아궁이에서 ㄷ자로 꺾여 건물지 서쪽 기단석렬로 이어진다. 개자리는 확인되지 않으나 고래가 이어지는 위치상 서쪽 기단석렬 부근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3호 건물지는 남북 3칸 동서 1칸의 규모로 구들은 정칸과 우

협칸 사이에, 아궁이는 우협칸에 위치하고 고래는 천석을 사용해 2열로 축조해 ㄷ자로 꺾어 굴뚝으로 이어진다. 13호 건물지 구들의 특징은 아궁이가 비교적 대형이며 솔을 받칠 수 있는 지각이 시설된 부뚜막 형태로 축조되어 취사와 난방 모두에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형태는 현재까지 법천사에서 확인된 아궁이 형태 중 유일하다.

VII구역 1호 건물지는 동서 3칸, 남북 2칸의 규모로 구들은 정칸에 축조되어있고 아궁이에서 1열의 고래가 ㄷ자로 꺾여 북쪽으로 이어지며 배연부와 굴뚝은 후대 유구와 중복되는 과정에서 결실되어 확인되지 않는다. 아궁이는 입구에 직사각형으로 치석된 돌을 사용해 2단을 쌓아 조성하고 아궁이 입구 쪽에 이맛돌을 엮기 위한 2개의 붓돌을 시설하였으나 이맛돌은 확인되지 않았다. 고래독은 기와 및 석재를 사용해 견고하게 축조하였다. 구들은 VII구역 1호 건물지 서쪽에 치우쳐 남-북 방향으로 축조되어있다. 붓돌이 시설된 아궁이와 1열 또는 2열의 고래가 확인되고 배연부가 조성된 위치는 후대의 건물지가 축조되면서 교란되어 그 형태를 찾기 힘들다. 이외에도 구들은 법천사지 유적전시관 자리에서 조사<sup>8)</sup>되었으나 건물지 내부가 아닌 중정시설의 동쪽에 치우쳐 6호 건물지와 인접하게 조성되어있어 생활공간보단 공방시설로 사용되었다고 추정<sup>9)</sup>하고 있으나 그 형태나 위치를 보았을 때 후대에 중복된 수혈주거지의 난방시설로 추정된다. 앞서 살펴본 법천사에서 확인되는 난방시설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법천사의 난방시설

구분	형태	조성구역	위치	수량	비고
화덕시설	ㄷ자형	II구역 (별원권역)	7호, 11호 41호 건물지	6기	
		IV구역	1호, 17호, 12호, 21호 건물지	4기	
	장방형	IV구역	9호 건물지	2기	
구들시설	1열	VII구역	1호 건물지	1기	
	2열	IV구역	6호, 13호 건물지	2기	

## 2. 주변유적에서 나타나는 고려시대 난방시설

법천사에서 확인되는 ㄷ자형 화덕 및 구들과 난방시설은 고려시대 전기에 경영되었던 폐사지와 궁성지 등의 건물지에서 다수 확인된다. 하지만 고려시대 후기부터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전면구들에 비해 확인되는 유구의 수가 현저하게 적다. 주변유적으로 법천사와 규모가 비슷한 폐사지를 기준으로 가깝게는 여주 고달사지에서 북쪽으로 파주 혜음원지, 남쪽으로 익산 미륵사지까지 정리해 보았다.

고달사는 여주시 북내면에 위치한 폐사지로 고려시대 대표적인 선종사원이다. 1998년 시굴조사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11차례의 조사를 실시하여 중심사역의 전각구성 및 경영시기, 축조기법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와 고달사지 승탑 및 원종대사탑 주변 일대에 대한 조사 및 고달사지 주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8세기부터 17세기까지의 가람의 변화에 대해 확인하였다.

고달사지에서 확인된 난방시설로는 ㄷ자형 화덕이 가-3호 건물지에 2기, 장방형 화덕이 가-5호 건물지에 1기, ㄷ자형 구들이 가-4호 건물지에 2기가 확인되었다. 가-3호 건물지는 동서 5칸, 남북 1칸의 규모로 ‘ㄷ’자형 화덕 1기와 ‘ㄷ’자형 구들이 각 1기씩 확인되었다. 화덕은 좌2협칸에 위치하고 아궁이 북쪽석재 1매가 결실되었다. 구들은 우1협칸에 위치하며 아궁이와 고래가 확인되나 고래열의 자존상태가 불량하다.

8) 국강고고학연구소, 2021, 『원주 법천사IV』.

9) 국강고고학연구소, 2021, 앞의 책 p273.



도면 5. 고달사 가-3호 건물지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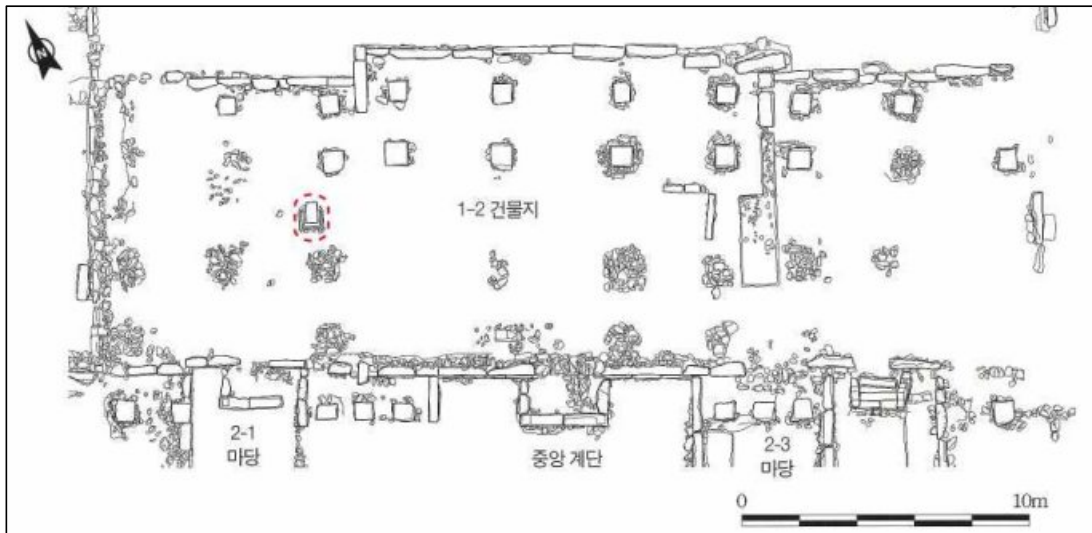
사진 21. 가-3호 화덕



사진 22. 가-4호 건물지 구들



도면 6. 고달사 가-4호 건물지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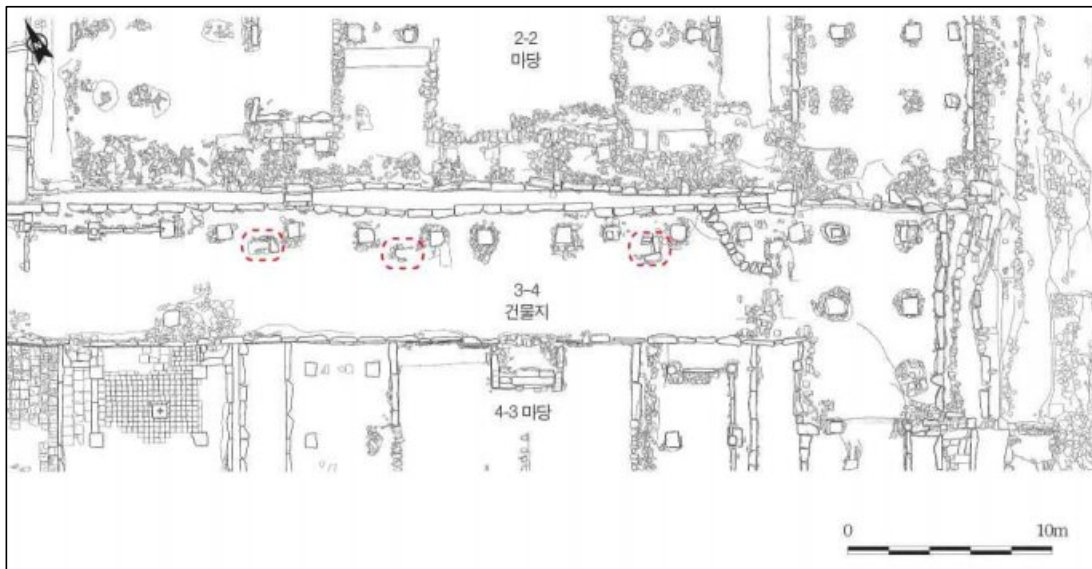
도면 7. 혜음원 1-2호 건물지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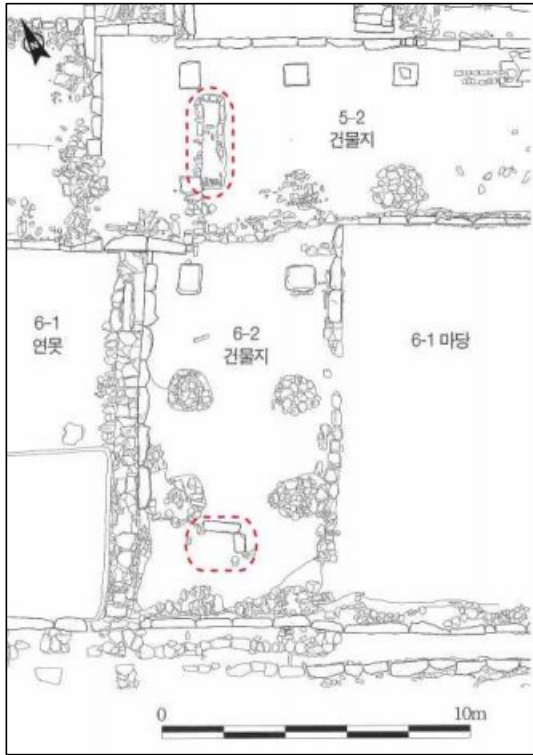
사진 23. 1-2호 화덕



사진 24. 3-4호 화덕



도면 8. 혜음원 3-4호 건물지 평면도



도면 9. 혜음원 5-2, 6-2호 건물지 평면도



사진 25. 5-2 건물지 화덕



사진 26. 혜음원 6-2호 건물지



사진 27. 6-2호 건물지 화덕 근경

가-5호 건물지는 남북 4칸, 동서 1칸의 규모로 장방형 화덕이 우1협칸에서 1기 확인되며 화덕 북쪽부분이 일부 결실되어 확인된다. 가-4호 건물지는 동서 4칸, 남북 1칸의 규모로 ㄷ자형 구들 1기가 우협칸에 위치한다. 이 건물지에는 특이하게 우칸 중앙에 석조 1기가 위치하고 있다. 고래의 높이가 방바닥과 같고 아궁이와 방을 구분하는 벽선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을 들어 구들이 실내에 설치되어 내부 공간으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10)</sup>

혜음원은 파주 광탄면에 위치하며 고려 전기 남경(서울) 개발과 맞물려, 개경(개성)에서 파주 임진진, 무악재를 경유해 서울로 들어가는 새롭게 개척된 도로의 중간 기착지였다. 특히 혜음령 일대에 도적 떼와 호랑이 등이 자주 출몰해 여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 예종의 지시로 여행

10) 기전문화재연구원, 2007, 『고달사지Ⅱ』.

자에게 숙박과 편의를 제공하는 역원이 건립되었고 이후 왕실을 위해 행궁을 추가하였다.<sup>11)</sup>

혜음원은 산지 경사지에 계단식으로 축대를 쌓고 건물지가 배치된 구조로 남쪽에서 북쪽방향으로 높아지며 11단으로 공간을 나누어 건물지를 조성하였다. 난방시설은 1단~6단 사이에서만 확인되고 ㄷ자형 화덕이 6기, 장방형 화덕이 1기, 등이 축조되어있고 구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화덕시설을 위치별로 살펴보면 1단의 2호 건물지에서 1기의 화덕시설이 확인되었다.

1-2호 건물지는 행궁지에 있는 좌익사 건물지로 동서 2칸, 남북 3칸의 건물지이다. 화덕시설은 중앙 우칸에 위치하고 석재를 사용해 3면은 막아 축조한 형식이 아니고 1매의 석재를 방형으로 다듬어 설치한 형태로 유사한 화덕이 화천 계성리사지 A구역 3호 건물지에 시설되어있다. 3단과 4단에서 확인되는 난방시설은 ㄷ자형 화덕으로 3-4호 건물지에서 3기가 확인되고 4-1호 건물지에서 1기가 축조되어 있다. 3-4호 건물지는 동서 9칸의 건물지로 남쪽 초석 및 적심이 모두 결실되었으나 남쪽에 축대가 자리하고 있어 남북 1칸으로 추정된다. 화덕은 잔존하는 북쪽 초석의 2칸에 1기씩 축조되어있고 트인 면이 모두 서쪽으로 동일하다. 4-1호 건물지는 동서 1칸, 남북 3칸의 규모로 화덕은 건물지의 북쪽에 축조되어있고 트인 방향은 북쪽이다. 6-2호 건물지는 동서 1칸, 남북 3칸의 규모로 화덕 1기가 확인되나 서쪽 화덕 벽이 결실되어있다. 장방형 화덕은 5단의 2호 건물지 서쪽 끝에 위치한다.<sup>12)</sup>

봉업사지는 안성시 죽산면에 위치하며 약 8세기~15세기까지 경영된 사찰<sup>13)</sup>로 법천사에서 남서쪽 방향 약 3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봉업사가 경영된 시기가 법천사가 경영된 시기와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봉업사지 북쪽에 위치한 청미천은 남한강으로 합수되는데 그 지점이 법천사지 북동쪽에 인접해 위치한 도리섬이다.



사진 28. 봉업사지 14호 건물지 구들시설

봉업사지에서 확인된 난방시설 중 법천사와 형태적으로 유사한 것은 B13 건물지의 구들이 있다. 조성된 시기가 고려시대 후기<sup>14)</sup>로 추정되나 형태적인 특징이 법천사지의 IV구역 14호 건물지의 구들시설과 매우 유사하다.

계성사지는 화천군 하남면의 장군산(해발851.9m) 남서쪽 계산천 주변에 위치한다. 계성사는 고려 현종때 최사위에 의해 창건되어 18세기 후반 폐사되었다.

계성사지에 A구역과 B구역 난방시설이 확인된다. A구역 3호 건물지에 화덕 시설이 축조되었고 B구역 3호, 15호~18호 건물지까지 총 9기의 난방시설이 축조되어 A구역 보다 B구역에 밀집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sup>15)</sup> 법천사와 유사한 화덕은 A구역 3호 건물지에 1기, B구역 15호, 16호 건물지에 각 1기씩 위치한다. 이외의 난방시설은 아궁이가 건물지 밖에 위치하는 고콜<sup>16)</sup>이거나 화덕의 크기가 건물지 1칸에 약 50%에 달해 법천사의 난방시설과의 유사성은 없다.<sup>17)</sup>

11) 한백문화재연구원, 2017, 『혜음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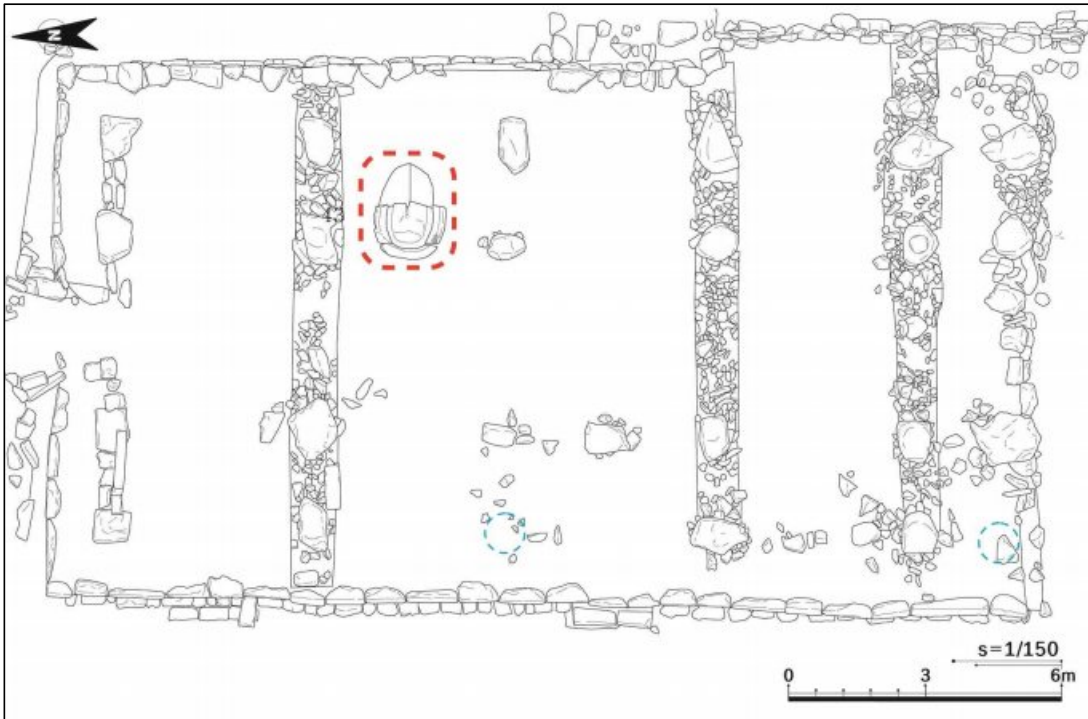
12)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6, 『파주 혜음원지 발굴조사 보고서』.

13) 이진한, 2004, 『안성 봉업사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연구』.

14) 이진한, 2004, 앞의 논문 p45.

15)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22, 앞의 보고서.

16) 일반적인 고콜의 아궁이가 실내에 위치하고 바닥보다 높게 벽에 붙은 형태이나 B구역의 건물지에서 확인되는 아궁이의 위치가 건물지 협칸 밖의 바닥면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아궁이가 있는 밖에서 불을 지피고 축벽에 원통형 또는 직육면체의 공간을 만들어 열기로 벽을 따뜻하게 하고 연기를 위쪽으로 배연하는 구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원도 산간마을의 너와집에는 아직도 고콜이 설치돼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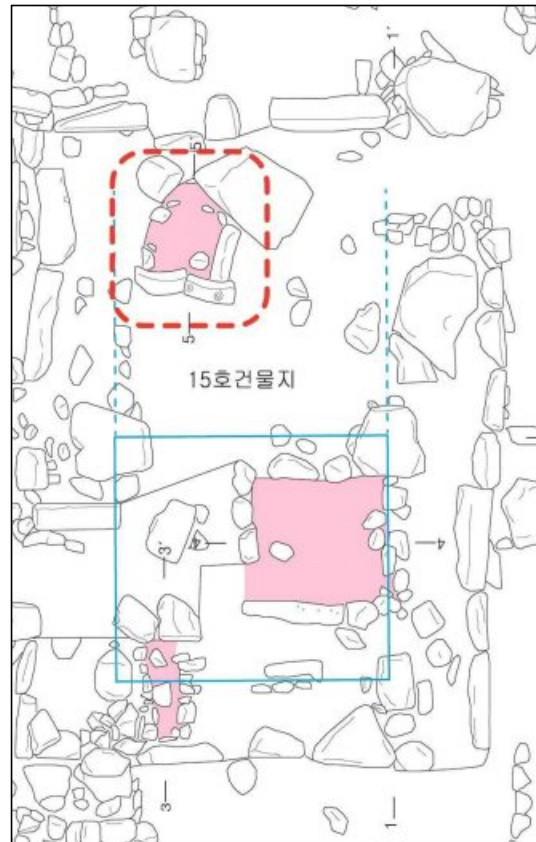
도면 10. 계성리사지 A구역 3호 건물지 평면도



사진 29. A구역 3호 건물지 화덕



사진 30. B구역 15호 건물지 화덕



도면 11. B구역 15호 건물지 평면도

17)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22, 『화천 계성리사지Ⅲ』.

A구역의 3호 건물지는 남북 5칸, 동서 3칸의 건물지로 화덕은 좌협칸의 동쪽 퇴칸에 위치한다. 화덕을 아치형의 석재 상면에 꺾수문과 돌대선을 표현하였고, 내부 바닥석도 곱게 치석하여 설치하였다.<sup>18)</sup> 3호 건물지 화덕은 난방의 목적도 있었으나 만들새가 정교하고 설치된 위치가 계성사지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난방시설보단 의례적인 목적의 화덕시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B구역 15호 건물지는 동서 2칸, 남북 1칸이 잔존하고 화덕은 A구역 3호 건물지의 화덕 같은 재료의 시설이 파괴되자 그 재료를 재사용해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구역 3호 건물지에 2개의 화덕이 시설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B구역 16호 건물지는 동서 4칸, 남북 1칸이 잔존하고 화덕은 좌측 끝 협칸에 1기가 위치한다.

미륵사는 익산시 금마면에 위치하고 있고 기존의 시대적 인식과는 달리 백제 말 7세기 초중반에 창건되어 이후 인위적, 자연적 피해와 복구를 통하여 조선 전기까지는 유지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미륵사지의 난방시설은 승방지로 추정되는 서원 서북편 고려시대 건물지에서 다수 확인된다. 법천사지와 유사한 형태의 화덕시설은 확인되지 않았고 ㄷ자형 구들이 1호, 3호, 9호 건물지에서 확인되었다.<sup>1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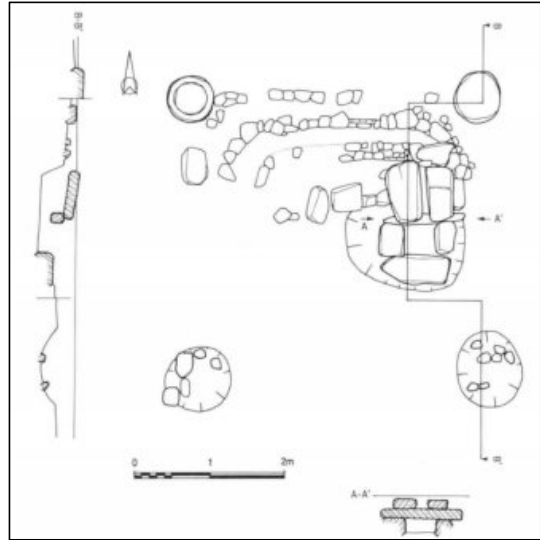
1호 건물지는 승방지 남동쪽에 위치하며 규모는 남북 7칸, 동서 3칸이다. 내부에 3기의 구들시설이 2칸에 1기씩 축조되어 있다. 3기의 구들 중에 2기는 법천사와 같은 아궁이에서 ㄷ자로 2열의 고래가 꺾여 연결되었지만 1기는 아궁이와 3줄의 고래가 연결되어 있다. 난방시설로는 건물지의 가장 북쪽 협칸에 위치한 구들시설은 배연부위가 결실되어 있고, 정칸에 위치한 구들은 일부 구조만 잔존하고 있다. 남쪽의 구들은 아궁이 하나에 3줄의 고래로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이유는 공간을 구성하는 조건에 의해 1열의 고래가 추가되어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3호 건물지는 승방지 남쪽에 위치하고 규모는 동서 6칸, 남북 1칸이다. 내부에 1기의 구들시설이 우협칸에서 아궁이와 2열의 고래가 축조되어있으나 아궁이와 고래가 연결되는 구간과 고래의 끝부분인 배연부가 결실되어 확인된다. 9호 건물지는 승방지 북서쪽에 위치하며 규모는 동서 4칸, 남북 3칸이다. 내부의 좌협칸에 1기의 ㄷ자형 구들시설이 확인되고 법천사 VII구역 1호 건물지에서 확인된 구들과 그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 법천사 구들은 아궁이와 고래만 확인되었지만, 미륵사 9호 건물지의 구들 시설에서는 아궁이와 고래, 배연부인 굴뚝이 확인되었다.

18)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21, 『화천 계성리사지II』.

19)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6, 『미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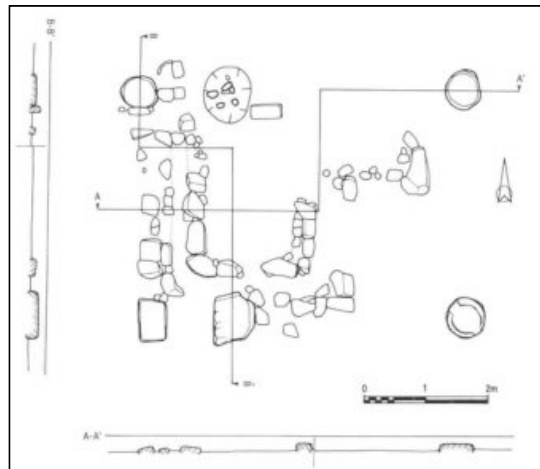
사진 31. 미륵사 1호 건물지 전경



도면 12. 1호 건물지 구들1 평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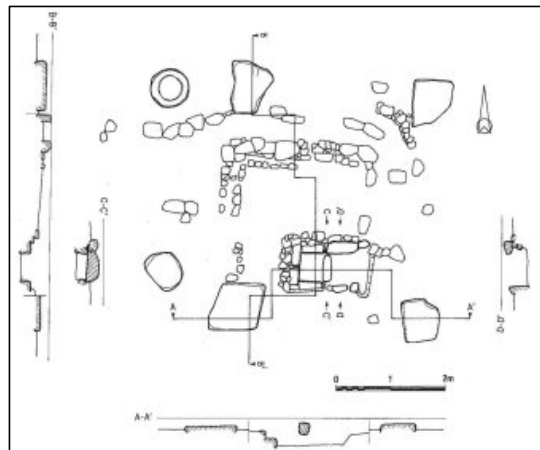
사진 32. 1호 건물지 구들2 모습



도면 13. 1호 건물지 구들2 평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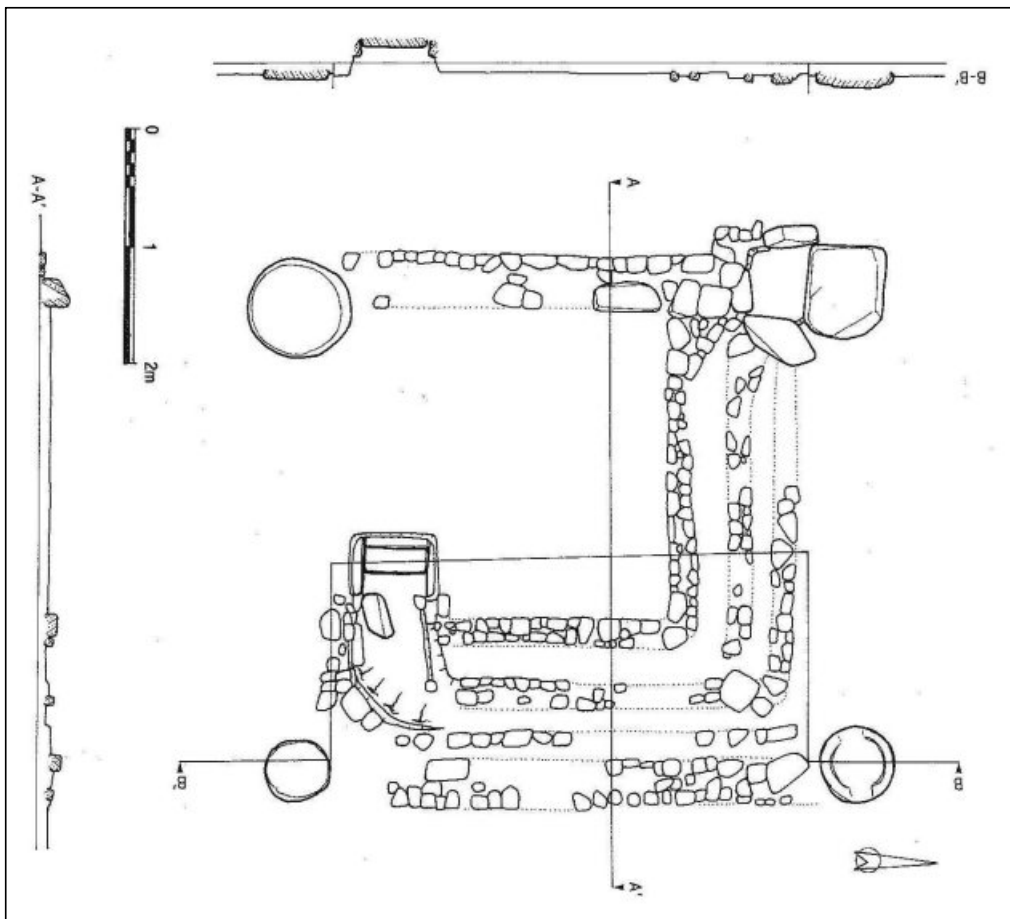
사진 33. 미륵사 3호 건물지 전경



도면 14. 3호 건물지 구들 평단면도



사진 34. 미륵사 9호 건물지 구들 모습



도면 15. 9호 건물지 구들 평단면도

앞서 살펴본 고달사, 혜음원, 계성리사지, 봉업사, 미륵사에서 확인된 난방시설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주변유적의 난방시설

유적	난방시설	구분	구성위치	수량	비고
고달사	화덕	ㄷ형	가-3호 건물지	2	
		장방형	가-5호 건물지	1	
	구들	‘ㄷ’형 구들(1열)	가-4호 건물지	2	
혜음원	화덕	‘ㄷ’형	1-2호 건물지	1	
			3-4호 건물지	3	
			4-1호 건물지	1	
			6-2호 건물지	1	
		장방형	5-2호 건물지	1	
계성리사지	화덕	‘ㄷ’형	A구역 3호 건물지	1	
			B구역 15호 건물지	1	
			B구역 16호 건물지	1	
봉업사	구들	‘ㄷ’형 구들(2열)	B13호 건물지	1	
미륵사	구들	‘ㄷ’형 구들(2열)	1호 건물지	2	
			3호 건물지	1	
			9호 건물지	1	

### Ⅲ. 고려시대 전기 ㄷ자형 화덕과 구들시설이 나타난 시대적 환경적 배경 추론

앞서 확인한 것과 같이 법천사에서 확인되는 난방시설은 고려시대 전기에 나타나는 ㄷ자형 화덕과 ㄷ자형 구들이다. 또한, 법천사와 경영시기가 같은 주변의 사찰에서도 같은 형태의 난방시설들이 확인된다. 이로써, 고려시대 전기에 경영되었던 사찰에서는 ㄷ자형 화덕과 구들이 보편적으로 쓰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고려시대 전기 난방시설은 앞서 살펴본 유적 외에도 고려시대에 경영되었던 폐사지와 궁성지에서 더러 확인되나 현재까지 그에 대한 연구자료가 부족하다.

고려시대 후기 전면구들에 대한 연구<sup>20)</sup>는 종종 이뤄지고 있고 고려시대 수혈주거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내부시설로 T자형, ㄱ자형, 一자형 구들시설에 대해서는 다루지고 있으나<sup>21)</sup> 고려시대 전기 ㄷ자형 구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고려시대 전기 난방시설의 형태가 ㄷ자형 화덕과 ㄷ자형 구들로 나타난 원인에 대해 두 가지로 간략하게나마 추론해보려 한다.

첫 번째 시대적 배경으로 입식생활과 차문화가 보편적인 사회 문화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려시대 이전부터 입식생활은 귀족계층의 주거형태 및 생활에 많은 영향을 가져왔고 이러한 과정에서 입식생활에 필요한 침상과 탁자, 의자, 등의 가구를 배치하기 위해 구들보다 비교적 소형인 화덕을 설치하는 것이 공간활용에 용이하였을 것이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차(茶)와 관련된 제도가 완비되어 왕실과 지배층, 사찰에서 차를 마시는 것이

20) 박종규, 2021, 「고려시대 지상건물지 전면구들의 등장 과정 연구」, 『고고학』-제20권 제2호.

21) 황대일, 2014, 「고려시대 수혈주거지의 구조와 변천」, 『중앙고고연구』.

일반화되었다는 연구가 있다.<sup>22)</sup> 또한, 차문화는 사찰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원관에는 다점(茶店)과 다정(茶亭) 등이 설치되어 승려들이 언제 어디 서나 차를 마실 수 있었던 생활상에 대한 연구<sup>23)</sup> 성과로 보았을 때 법천사의 별원권역에 설치된 ㄷ자형 화덕은 난방의 기능과 더불어 법천사에서 생활하던 승려들이 찻물을 끓이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로 온난한 기후에 따른 난방시설의 변화이다. 우리나라 고려시대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1980년대부터 간헐적으로 연구성과가 나오기 시작하여 2천년대에 들어와서는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펼쳐지고 있다. 그 간의 연구성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10~11세기 기후가 온난했다는 데에 공통된 의견이 모아지는 반면에 12세기 이후에 대해서는 견해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12세기 이후 온난과 한랭이 반복해서 나타나다가 13세기 후반 이후 한랭화로 이어지고 특히 14세기는 한랭화로 보는 추세이다.<sup>24)</sup> 10세기 이전 고려시대와 삼국시대 우리나라 기후에 대한 연구 자료가 부족해 일본의 역사시대 기후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요시노 마사토시는 4세기에서 11세기까지 온난하였고, 온난기의 절정을 8세기부터 10세기까지로 보았다.<sup>25)</sup>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한 날씨가 지속되자 작은 화덕으로 공기의 데우는 방식에서 보다 넓은 면적의 난방이 가능한 구들을 사용하게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로 전면구들이 13세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며<sup>26)</sup> 동시에 입식생활에서 좌식생활로 생활 방식이 변화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 IV. 맺는말

앞서 살펴보았듯이 법천사에는 고려 시대 전기에 나타나는 난방 시설인 ㄷ자형 화덕과 ㄷ자형 구들이 발굴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온난한 한반도의 날씨와 입식 생활과 같은 귀족과 왕실의 상류층 삶의 방식으로 ㄷ자형 화덕과 같은 난방 시설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해보았다. ㄷ자형 화덕의 경우 축조된 방식을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아궁이 입구에 설치되어 연료를 투입하고 출입구를 구획하는 역할의 붓돌이 설치되는 점에서 주변유적의 ㄷ자형 구들과 아궁이의 형태가 유사하다. 하지만, 화덕과 연결되는 고래시설은 확인되지 않았고 발굴조사 중에도 화덕 주변에 고래로 추정되는 어떠한 시설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화덕시설이 단독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확인된 유구의 수가 적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앞으로 유사한 유구가 확인되면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화덕이 단독으로 사용되었다고 가정하면 붓돌의 높이를 보았을 때 ㄷ자형으로 구획된 공간에 벽체 시설이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또한 앞으로 조사되는 유구에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ㄷ자형 구들은 법천사의 중심 되는 공간이 모여 있는 중심사역 주변이 아닌 IV구역과 VII구역에 모두 위치하고 있다. 화덕시설에 비해 구들시설은 장기간 정주하기에 유용한 난방시설이고 IV구역 13호 건물지의 아궁이에는 솔을 걸 수 있는 구조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주방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현황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건물지의 용도를 중심권역 밖에 위치한 장기 거주를 위한 생활공간으로 추정해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주변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뤄지면 건물지 및 공간 구성에 대한

22) 권혁란, 2011, 『차와 선 수행에 관한연구』.

23) 전완길, 「고려시대의 차문화론」, 『민족문화연구』 제20집(1987).

24) 이경미, 2025, 「기후변동으로 보는 고려시대 경기지역 건물지의 지표적 가치」, 『한국중세고고학 17호』.

25) 김문기, 2021, 「중세온난기와 11세기 동아시아의 기후변동」, 『생태환경과 역사 제7호』.

26) 박종규, 2021, 앞의 논문.

성격이 보다 명확히 규명되리라 기대된다.

지금까지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던 건물지의 난방시설에 대해 알아보았다. ㄷ자형 화덕과 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추론을 해보았지만, 아직까지 고려시대 전기 난방시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한정된 자료를 통해 난방시설의 사용에 대한 추론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조사자료와 연구자료가 축적되어 고려시대 난방시설이 보다 명확히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보고서

- 강원문화재연구소, 2009, 『원주 법천사지 I』.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7, 『원주 법천사III』.  
 국강고고학연구소, 2021, 『원주 법천사IV』.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23, 『원주 법천사V』.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23, 「원주 법천사지(IV구역)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24, 「원주 법천사지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제17차) 약식보고서」.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21, 『화천 계성리사지II』.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22, 『화천 계성리사지III』.  
 기전문화재연구원, 2007, 『여주 고달사지II』.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6, 『미륵사』.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6, 『파주 혜음원지 발굴조사 보고서』.  
 한백문화재연구원, 2017, 『혜음원지』.

논문

- 이진한, 2004, 『안성 봉업사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연구』.  
 박종규, 2021, 「고려시대 지상건물지 전면구들의 등장 과정 연구」, 『고고학』-제20권 제2호.  
 황대일, 2014, 「고려시대 수혈주거지의 구조와 변천」, 『중앙고고연구』.  
 권혁란, 2011, 『차와 선 수행에 관한연구』.  
 전완길, 「고려시대의 차문화론」, 『민족문화연구』 제20집(1987).  
 이경미, 2025, 「기후변동으로 보는 고려시대 경기지역 건물지의 지표적 가치」.  
 김문기, 2021, 「중세온난기와 11세기 동아시아의 기후변동」, 『생태환경과 역사』 제7호」.

## 토론문 5

## 「법천사의 난방시설 검토」에 대한 토론문

이승연(건축문화연구소)

원주시 부론면에 위치한 법천사지는 1938년 오가와 게이기치(小川敬吉)가 행한 조사를 시작으로, 1965년 국립박물관의 부도전지 일대 보수 및 발굴조사와 최근 이루어진 18차(2001~2025년)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나말여초에 창건되어 고려중기에 중흥기를 맞고, 조선시대 초 자복사로 지정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폐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발표문에서는 법천사지에서 확인된 총 15기의 고려전기의 난방시설(화덕시설, 구들시설)을 대상으로 현황을 살펴보고, 주변 유적의 사례를 정리한 후, 고려전기 ‘ㄷ’자형 화덕과 구들시설이 나타난 원인에 대해 추론해 보았습니다. 발표자가 언급한 것처럼 고려전기 난방시설은 여러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지만, 건물지 내부에 설치된 화덕의 사용목적과 설치방식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 발표문은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고려시대 건물지 내 화덕을 고려전기 주거문화와 환경의 측면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헌적 근거나 유구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진행되지 못한 시점에서 추론으로 발표문이 마무리되었기에, 온돌 연구자의 입장에서 발표문의 논지와 관련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1. ㄷ자형 화덕의 ‘2칸 1기 설치/동시기 설치/ㄷ자형 구들의 아궁이 혼재 가능성’ 재검토

법천사지의 ㄷ자형 화덕은 2칸에 1기(또는 4칸에 1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추정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이루어진 혜음원지 화덕의 발굴사례와 연관된 해석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ㄷ’자형 화덕의 설치위치를 출입 및 벽체 위치와 함께 살펴보고, 실제 사용했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실의 칸 수나 동시기 설치 여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또한 ㄷ자형 화덕 가운데 붓돌이 남아있는 화덕은 (주변에 고래로 추정되는 시설 확인되지 않더라도) ㄷ자형 구들의 아궁이와 유사한 구조를 보여주므로 화덕의 위치와 사용방법, 주변 흔적에 대한 검토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연후에 시설의 종류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천사지 II구역 7호·11호 건물지의 평면구성(문 위치, 실 구획)과 실내 화덕(구들 혼재 여부) 사용 시 생활문화(좌식·의자식), 3면 중 어느 면(계성리사지 화덕 포함)에 앉아서 어느 곳에 불을 피울지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과 의견을 청합니다. 아울러 ㄷ자형 화덕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ㄷ자형 화덕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두 시설간 유구에서 확인되는 구조나 용도, 설치시기, 실의 위계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보완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2. ㄷ자형 화덕의 출현배경 ‘입식생활과 차문화’에 대한 검토

발표자는 고려전기 ㄷ자형 화덕의 발생원인을 입식생활과 차문화가 보편적인 사회문화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하면서, 법천사의 ㄷ자형 화덕이 집중적으로 확인된 별원권역을 원관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 가정에 선행연구를 인용하며 차문화는 사찰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원관에는 다점과 다정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승려들이 언제 어디서고 차를 마실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정이라면 화덕은 원관 뿐만 아니라 사찰 본연의 기능을 하는 영역(선종사원이라면 방장, 승당, 중료 등)에서도 화덕이 다수 확인되어야 하는데 일정 건물지나 영역에서만 확인되고 있으며, 다기들은 일정 건물지에 집중적으로 출토되기보다 여러 건물지에서 고르게 출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ㄷ자형 화덕의 용도와 차문화는 분리해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되며, 1번 질문의 연장선상으로 화덕이 설치된 공간은 생활면상 좌식공간으로 판단되는데, 입식생활로 추정한 근거에 대한 보완설명을 청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향후 법천사지에서 확인된 다양한 형태의 화덕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연구와 세밀한 보고를 통해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는 고려전기 실내 생활상과 주거문화에 대한 중요한 고고자료를 제공해 주기를 바랍니다.



발표 6

법천사지 출토 기와의 시·공간적 검토

최 영 희

(강릉원주대학교)



# 법천사지 출토 기와의 시·공간적 검토

최영희(강릉원주대학교)

## 목 차

- I. 머리말
- II. 출토 기와의 단계 설정
- III. 기와를 통해 본 가람의 변화양상
- IV. 맺는말

## I. 머리말

智光國師玄妙塔과 塔碑의 존재로 그 위세를 추정케하였던 法泉寺는 25년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광대한 寺役의 실체를 드러내었다. 가지런히 조성된 中心伽藍(佛地)과 부속 건물들(僧地), 층층이 배치된 건물군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塔碑殿, 그리고 다양한 기능과 역할이 제시되는 別院에 이르기까지, 남한강의 드넓은 평지에 자리 잡은 高麗時代 巨刹의 면모가 눈 앞에 펼쳐지게 되었다.

평면 구조와 상-하 층위로 확인되는 종·횡의 복잡한 전개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와의 검토가 필수적이다. 건물별·구역별 교차 상황을 분석하여 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추출해 내는 과정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방대한 수량 및 종류의 기와를 이번 발표에 담아내기에는 솔직히 부담이 크다.

본 발표에서는 법천사 기와 연구의 시론으로서, 시·공간성을 잘 보여주는 자료들에 초점을 맞추어 기와 제작·사용의 단계를 설정한 뒤, 가람의 변화에 대응되는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대상유물은 보고서가 발간된 조사 I~III구역 출토유물을 대상으로 삼았다. 법천사 출토 기와의 시공간적 좌표를 촘촘히 채워나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 II. 출토 기와의 단계 설정

### 1. 1단계 : 통일신라시대 이후

통일신라시대 기와는 해당 시기의 가장 객관적인 지표라 여겨지는 ‘中板打捺型式’의 기본기와(암기와·수키와)에 그 기준을 둘 수 있다<sup>1)</sup>. 기와 볼록면을 상-하로 二分하여 타날을 행하는 방식은 신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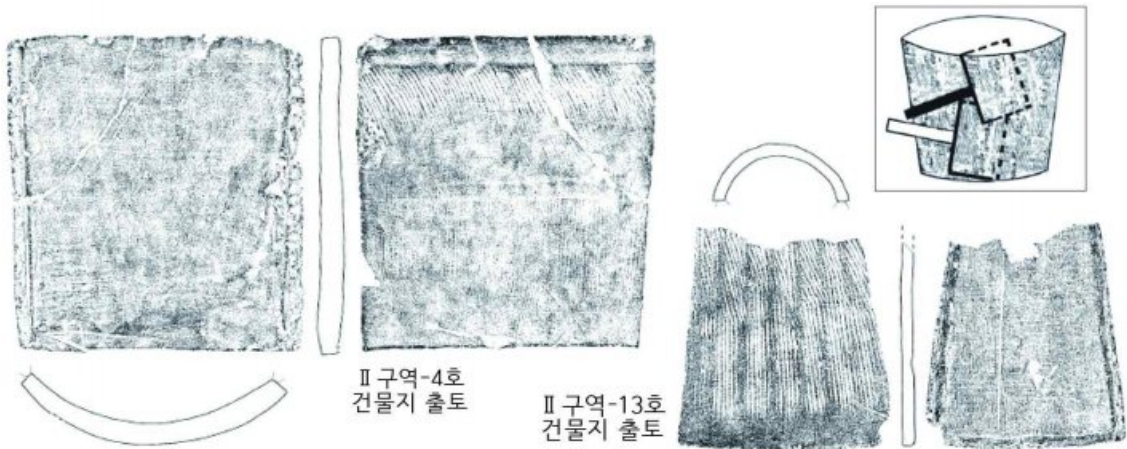


그림 1. 법천사지 1단계 중판타날형식의 기본기와 : 축척부동

의 삼국 통합을 즈음하여 경주지역에서 발생하였고, 소형화·경량화의 규격 변화와 연동되면서 그 시간성과 더불어 도성-지방간 영향 관계를 살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법천사지에서는 소량이나마 寺域 전체에서 중판타날형식의 기본기와가 확인되고 있다(그림1).

다른 논고를 통해서도 출토 언급하였듯이 ‘長板打捺型式’의 등장 시기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 경주를 벗어나면 중판타날형식이 나말여초까지 유지 및 공존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법천사지 출토 기와는 와당의 문양 형식이 古式에 가깝고 2단계 기와에 先行하는 요소들도 비교적 명확히 나타나고 있어, 통일신라시대로 편년하였음을 말해준다.

특히 수막새는 그러한 양상을 잘 보여준다. 중심 가람이 미처 발견되지 않았을 당시, 배수로 조사 과정에서 수습된 素瓣蓮華文 수막새(그림3-③)는 신라가 삼국을 통합하기 이전의 소산으로 언급된 바 있다. 단순한 문양 구성을 제외하더라도, 수키와가 와당 상부에 올려지듯 부착된 ‘수키와 피복 접합기법’, 주연부를 시문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고식 와법의 구조(그림2-上)<sup>2)</sup> 등은 분명 삼국시대 막새 제작의 기술 요소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후, 법천사 발굴조사의 숙원이었던 중심 가람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위의 특성을 가진 古式 수막새의 출토 사례도 증가하게 되었다. 끝이 뾰족한 素瓣蓮華文 3종과 꽃잎의 장식성이 부가된 複瓣蓮華文 2종의 수막새가 바로 그것이다. 성형틀의 크기를 기준으로 삼을 때 와당의 內區 지름은  $11 \pm 0.3\text{cm}$ , 전체 지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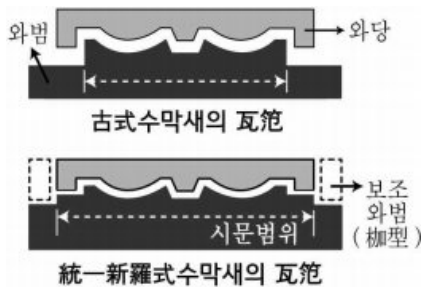


그림 2. 신라 막새 와법의 구조

1) 기본기와는 볼록면에 사용한 타날구의 형식 및 그 사용방식을 통해 시대를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短板타날형식은 토제품의 성형에 폭넓게 사용되는 타날구(수회 타날)→中板타날형식은 7세기후엽 등장한 기와성형의 전용도구(상-하 2분하여 타날 가능한 크기)→長板타날형식은 나말여초에 등장하여 근현대까지 존속한 보다 개선된 타날구(기와의 상-하 길이와 거의 같은 크기)로 이해된다.

최태선, 1993, 「평와 제작법의 변천에 대한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최영희, 2014, 「新羅 造瓦用 타날구에 대한 재검토」, 『江原考古研究』.

2) 古식 와법은 와법의 바깥쪽이 개방되어 주연의 두께가 고르지 않은 경우가 많다. 통일신라식 문양의 출현은 와법의 바깥쪽을 계단식으로 형성하여 주연부를 시문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차이가 있다(그림2). 따라서, 고식 와법으로 제작된 막새의 크기는 주연(외구)을 제외한 내구의 수치를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최영희, 2014, 「統一新羅시기와의 成立과 造瓦體制의 變化」, 『영남고고학』70, 영남고고학회.

14~14.3cm로 비교적 일정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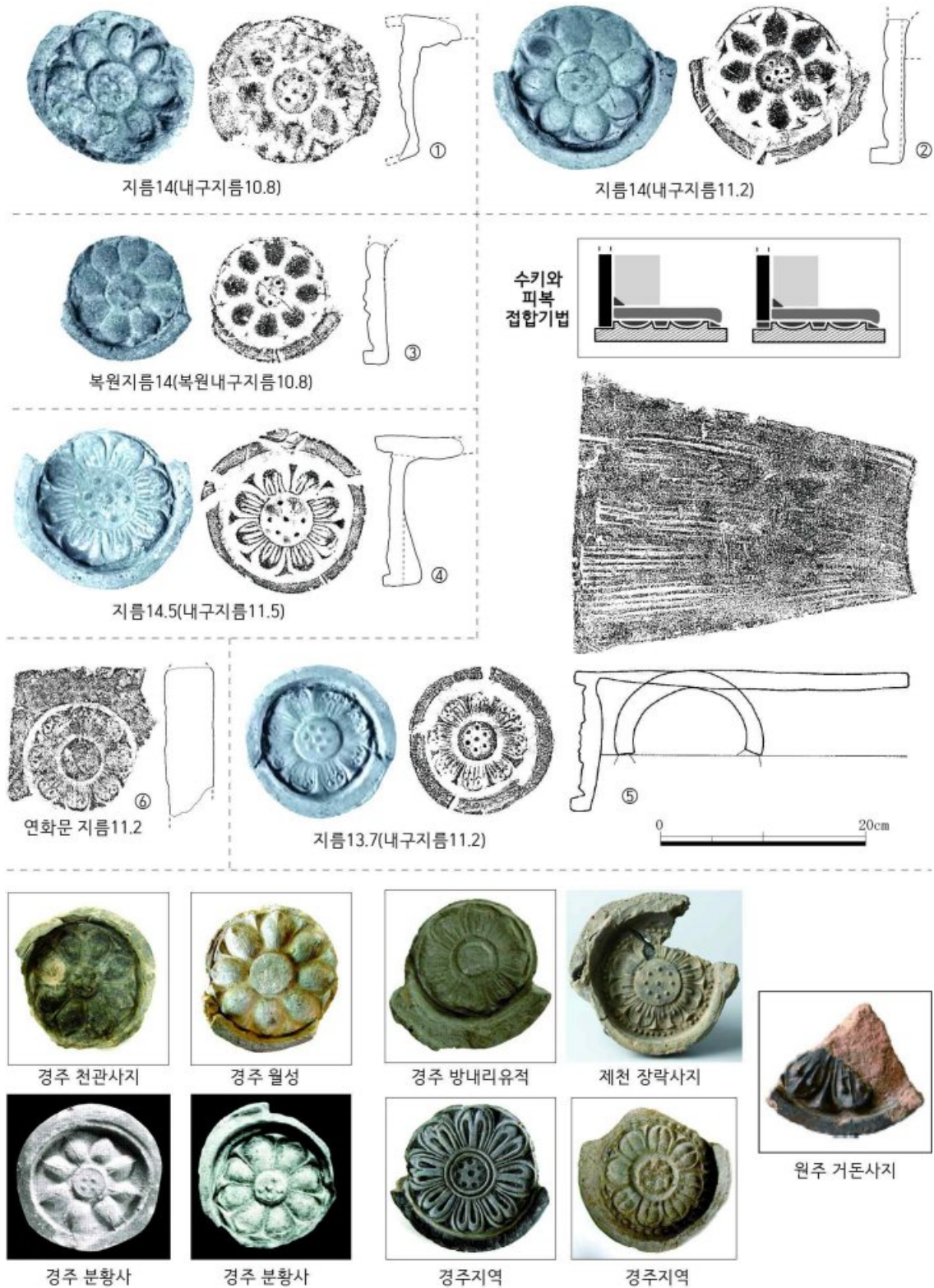


그림 3. 법천사지 1단계 수막새 : 도면-S=1/6, 사진-축척부동, 수치의 단위 cm (이하,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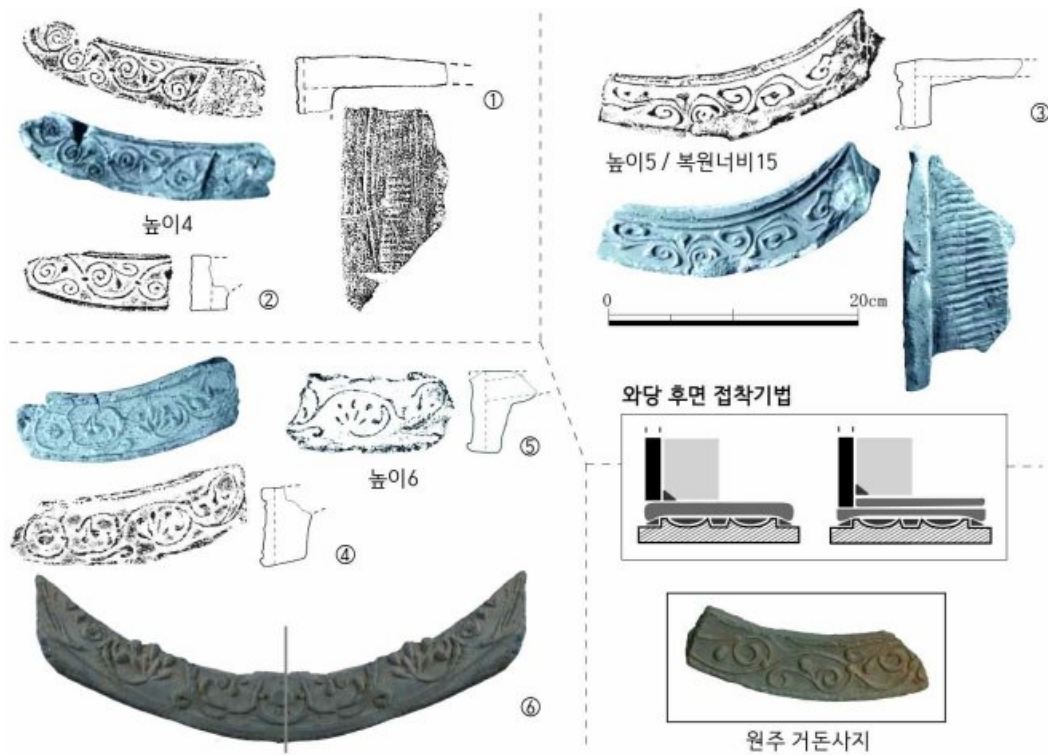


그림 4. 법천사지 1 단계 암막새

이러한 문양 형식은 경주지역 내에서 7세기를 전후한 시점부터 7세기 후엽까지 존재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황사의 창건와, 황룡사 9층목탑의 소용와 등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수막새의 와범을 그대로 짝은 방형의 塼 또한 백제 사비기 및 삼국통합 이전 신라의 경주 지역에서 확인되는 대표적 유물 중 하나이다. 더불어, 법천사지 남쪽으로 직선거리 약 2.5km로 매우 근접한 거둔사지에서 같은 와범에서 제작된 것(同范關係)은 아니지만 무문 주연의 복판연화문 수막새 1종이 확인·보고된 바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신라 고식의 문양 특성을 가진 수막새 중 통일신라식 기술 요소인 중판타날 형식의 토수기와와 접합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4-⑤). 물론 접합된 수기와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중에서도 시간적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법천사지에서는 고식의 연화문 수막새가 증가하는 상황과 달리, 그 문양 형식에 대하여 시간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대응되는 短板打捺型式의 기본기와들을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중판타날형식으로 추정되는 암키와와 접합된 암막새는 주연부가 생략되거나 무문의 주연을 갖는 당초문을 시문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림4-③>은 다소 도식화된 도안을 보이지만, 그 외에는 대체로 매듭을 지으며 뽀어나간 넝쿨의 표현이 유려하다. 와당의 복원너비(암키와의 너비와 일치)는 30cm의 경우가 확인되며, 상-하 높이는 4~6cm 정도로 좁은 편이다. 암막새 역시 그 표현이 매우 유사한 사례가 거둔사지에서 확인되었다.

고식 기와의 요소(와당의 문양과 제작)와 통일신라식 기와의 요소(기본기와의 제작)가 조합되는 현상은 (A)이미 7세기대에 기와제작기술이 이 지역에 도입, 장기간 유지되었고, 이후 새로운 기술요소들이 추가·조합되었을 가능성, 혹은 (B)도성인 경주 지역을 벗어나 타 지역에서 형성된 A의 결과물이 2차적으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현재로서는 답을 내리기 어렵지만, 법천사지 1기로 비정한 수막새의 와당 문양들이 五小京을 포함한 신라의 지방 도시들에 이식된 경주계 기와들과 유사하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근접하는 中原京의 중심 유적 중 하나인 충주 탑평리유적, 그리고 제천 장락사지의 가장 이른 시기 막새들과도 닮아있다<sup>3)</sup>. 현 원주 지역 역시 신라 北原京이 설치되었던 곳이나, 治所의 위치 및 그 적극적인 고고자료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막새의 양상만으로 본다면 법천사지 1기의 사례들은 신라 北原京 내의 가장 이른 기와들로 거론될 수 있다. 고대 지방도시의 형성에 있어 불교사원의 존재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이 기와들의 존재는 차후 다양한 관점을 위한 기준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2. 2단계 : 신라말·고려초

고려시대 기와 연구에 있어 나말여초의 설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sup>4)</sup>. 나말여초의 기와라 하면 편년이 어려운 과도기적 성격을 가진 기와들에 대한 애매한 용어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분명 그 시기는 前代의 기술력에 바탕을 두면서도 새로운 造瓦 요소들을 자유롭게 발현해 나가는 변환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법천사지 출토 기와 중에도 나말여초로 비정할 수 있을 만한 특성들이 존재하는데, 법천사지 1기로 보고된 유구 및 그 출토 유물들이 포함된다. 특히, 塔碑殿 구역(조사 I 구역)에서 1기의 유구를 중심으로 일괄 출토된 다음의 2가지 막새 조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자방 주변으로 특정한 花形의 꽃잎 4엽을 十字形으로 배치한 수막새, 그리고 양측으로 념쿨을 뺀 당초문 암막새의 조합이다. 수막새는 볼록면을 말끔히 물손질 조정한 미구기와, 암막새는 장판타날형식의 선문 암키와와 조합된다(그림5-①②). 다소 거칠게 조각된 長板打捺型式의 선문 타날흔은 나말여초 이후 중판타날형식과 연속 내지는 공존하는 과도기적 산물로 여겨진다<sup>5)</sup>. 이 조합의 경우, 암막새와 동범관계의 문양을 가진 마루 암막새 및 모서리 암막새도 출토되었다.

두 번째는 넓은 자방을 중심으로 세장한 꽃잎을 배치한 單瓣蓮華文 수막새와 등글게 념쿨을 이루며 양측으로 대칭 배치된 당초문 암막새의 조합이다(그림5-③). 이 경우도 수막새는 미구기와와 접합되며, 암키와는 장판의 사격자문 타날흔이 관찰된다. 이 타날흔 역시 九山禪門의 창건와 등으로 사용되는 기본키와의 특징 중 하나이다. 이 조합에서도 암막새와 동범관계인 마루 암막새가 확인되었다.

막새의 두 조합 간에는 약간의 시기 차가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출토 양상을 보아 적어도 일정 기간 함께 지붕에 올려졌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시간 폭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크기 또한 수막새는 와당 지름 14~14.3cm, 암막새는 와당 너비 30cm로 거의 동일하다. 본 발표에서는 도안의 유사성에 기초하여 조합 관계를 설정하였으나, 거둔사지에서는 첫 번째 유형의 수막새와 두 번째 유형의 암막새가 공반되어 조합상이 반대로 나타난다. 동범관계의 마루암막새가 있는 것은 법천사지와 같은 모습이다(그림5-⑧~⑪).

3) 최영희, 2022, 「造瓦樣相을 통해 본 統一新羅時代 地方行政의 展開 -中原京·朔州地域을 중심으로-」 『한국중세고고학』, 한국중세고고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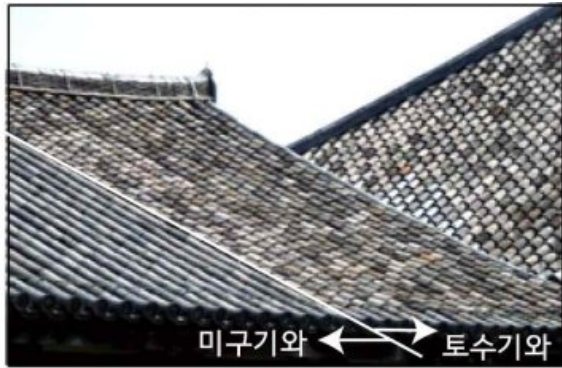
4) 최정혜, 2022, 「후삼국시대 중원지역의 연화문수막새 검토」, 『한국기와학회』5, 한국기와학회.

5) 경주에서는 방나리생활유적의 개체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지방에서도 곳곳에 그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통일신라식 와당과 접합된 삼척 흥전리사지, 대구 부인사지 등의 사례가 이해해 도움을 줄 것 같다.



그림 5. 법천사지 2단계 막새와 마루장식기와

더불어, 기본기와와의 사용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구된다. 위에서 제시한 두 문양의 수막새는 미구기와 접합되는 한편, 같은 타날판을 사용한 토수기와들도 출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수기와



元興寺 極樂房 건물의 지붕 세부



元興寺 禪室 건물의 지붕 세부

그림 6. 일본 元興寺의 지붕 시공 사례

는 토수기과를 사용하는 대신, 수막새 및 마루 축 조용 기과들은 미구기과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그림6). 초기의 장판타날형식 기본기과가 사용되는 나말여초의 유적에서 토수기과가 가장 기본적인 부재로 사용되는 것은 일반적 현상이며, 이것은 통일신라시대의 양상이 이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수막새에 미구기과를 사용하는 사례는 제한적이어서, 법천사 2기 기과의 제작이 지붕 의장에 꽤 공을 들여 계획된 산물임을 엿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법천사지 2단계에는 독특한 도안의 귀면과와 치미도 확인되어, 눈길을 끈다. 귀면과의 경우, 같은 와범으로 성형된 개체 중에서도 하부의 형태를 달리하는 두 종류가 모두 확인되었다. 하부에 반원형의 홈을 두어 수키와 위로 걸터앉듯 시공되는 사례, 그리고 하단을 편편하게 재단하여 이른바 사례와라 불리기도 하는 사례가 그것이다(그림8-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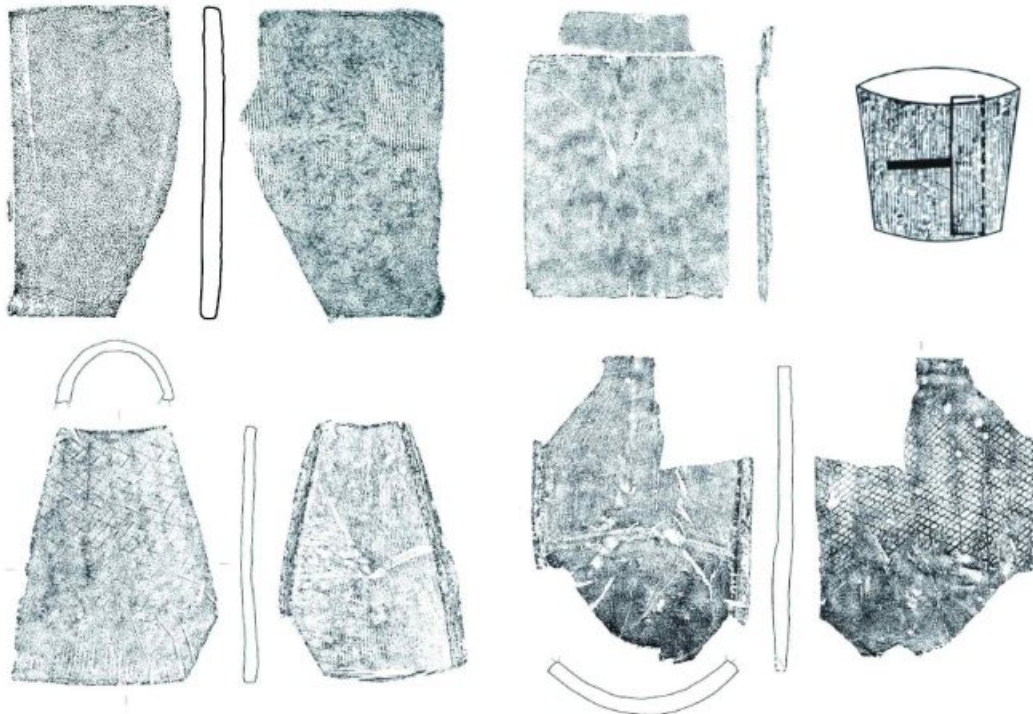


그림 7. 법천사지 2단계 기본기과

6) 일본 元興寺의 極樂殿과 禪房 건물의 지붕이 참고가 된다. 이 지붕에는 8세기대의 나라시대 토수기과와 가마쿠라 시대의 미구기과가 하나의 지붕, 그 한 면에서 열을 달리하며 시공된 사례이다. 수막새의 경우, 모두 미수기과가 접합된 가마쿠라시대의 개체가 올려져 있다.



그림 8. 법천사지 2단계 귀면와, 치미, 마루끝 수막새(망와) : 도면-S=1/6, 사진-축척부동

후자의 경우, 실제로 추녀 끝 사래에 부착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되며<sup>7)</sup>, 전자와 높낮이를 달리하면서 내림마루에 상-하로 배치되지 않았을까 한다.

우선, 두 종류의 장식 기와를 같은 단계, 그중에서도 2단계로 상정한 이유는 방향의 판형 귀면와와 끝이 뾰족한 꼬리(?)를 상부로 들어올린 고대 치미의 전형적인 형태를 가졌다는 점 때문이다. 이것은 통일신라시대의 의장을 그대로 계승한 방식으로, 최근의 성과에 따르면, 지역적 차이는 있지만, 나말여초를 벗어나면서 이전과는 차이가 큰 용두, 취문, 용두와 잡상 등이 출현하면서 의장의 틀이 상당 부분 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8)</sup>. 더불어 문양에 있어서도, 귀면와의 눈 위 장식과 치미의 깃 장식, 즉 반구형으로 돌출된 모티브와 뿔, 혹은 검의 날처럼 각지게 뾰운 부분의 도안이 매우 유사하게 보이기도 한다(그림9).

한편, 이 단계에 이르면, 마루축조에 사용된 장방형 적새와 한쪽 면을 둥글게 재단한 착고가 다수 확인된다. 기본기와와 동일한 타날흔의 검출이 동시기 개체의 검출 기준이 된다. 적새와 착고는 모두 기본기와를 적절한 형태와 크기로 재단한 방식으로 제작되었는데, 소성을 진행하기 직전 분할작업이 이루어진 후의 공정임을 알 수 있다.



그림 9. 귀면와와 치미의 도안 세부-축척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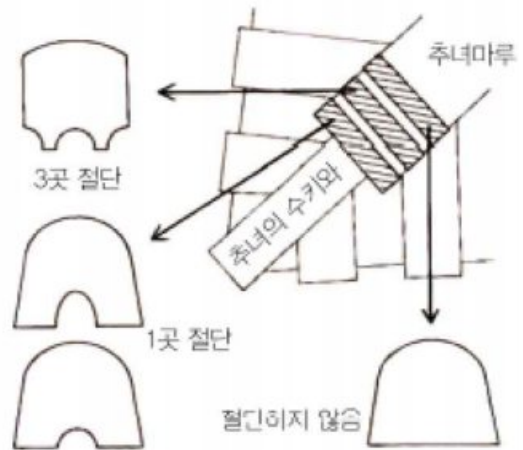


그림 10. 귀면와 절단 방식과 시공위치 (岩戶晶子 2001)

### 3. 3단계 : 11~12세기대

고려 전기의 막새는 매우 다양하게 전개된다. 특히 기와의 사용 범위가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연화문·당초문의 한정된 와당 문양 내에서도 다양한 표현방식이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9)</sup>. 반면, 기본적인 제작방식은 정형화되어 접합기법이나 와법의 구조적 차이 등으로 변화의 기점을 찾아 내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역마다 발현되는 특성 또한 다양성을 증폭시키는 원인일 것이다. 법천사지에서도 이 시기에 해당되는 다양한 기와들이 확인되었으며, 그것은 막새의 문양으로 시각화된다. 이 시기 막새 편년의 객관적 근거를 추출하는 작업은 쉽지 않아서, 타 지역·타 유적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고려 전기로 편년할 수 있는 막새 중 사역 내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그림 11-①~④>의 복판연화문 수막새이다. 이 수막새는 사역 전체에 분포하지만, 특히 II구역 서편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 연자의 개수, 꽃잎의 세부 형태, 전체 크기 등을 통해 같은 문양 형식 내에서

7) 귀면와의 하부 형태와 마루장식의 여부에는 큰 상관이 없다는 연구성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岩戶晶子, 2001, 「奈良時代の鬼面文鬼瓦-瓦葺技術の視点による平城宮式鬼瓦・南都七大寺式鬼瓦の検討-」 『史林』 84-3, 史學硏究會.  
 8) 이현주, 2023, 「고려시대 마루장식기와의 전개」, 『제1회 개성 만월대學的 지평』, 남북역사학자협의회.  
 9) 최정혜, 「고려시대 중원지역의 막새」, 『중원의 와당』,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최정혜, 2019, 「신라말, 고려초 중원지역의 연화문 수막새 검토」, 『중원지역 기와연구와 전환기』, 학술세미나자료집.

도 3종류의 와변별 문양을 확인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사례가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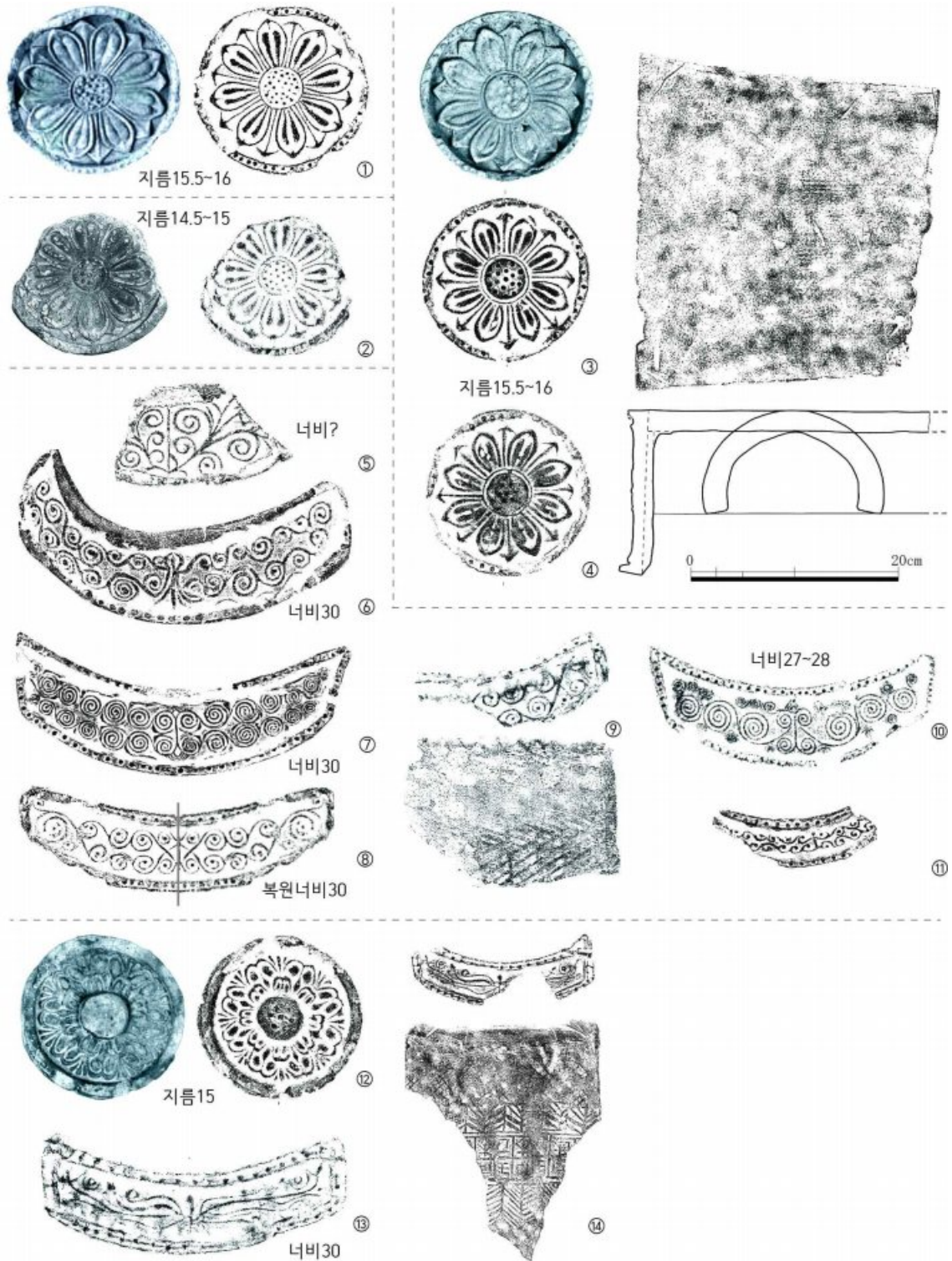


그림 11. 법천사지 3단계의 막새 : ⑭-S=1/10

이 수막새들과 셋트를 이루었던 암막새는 돌돌 말린 당초의 표현이 독특한 <그림11-⑤~⑪>의 문양유형으로 추정된다. 공반 사례가 많고, 다수의 와범별 문양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0)</sup>.

같은 문양유형의 와범이 다수 존재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기와가 필요하였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해당 시기 법천사에서는 사역 전체에 대한 건축 활동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앞의 1·2단계에 비해 수막새 와당의 크기가 약간 커지며, 암키와의 와당 너비는 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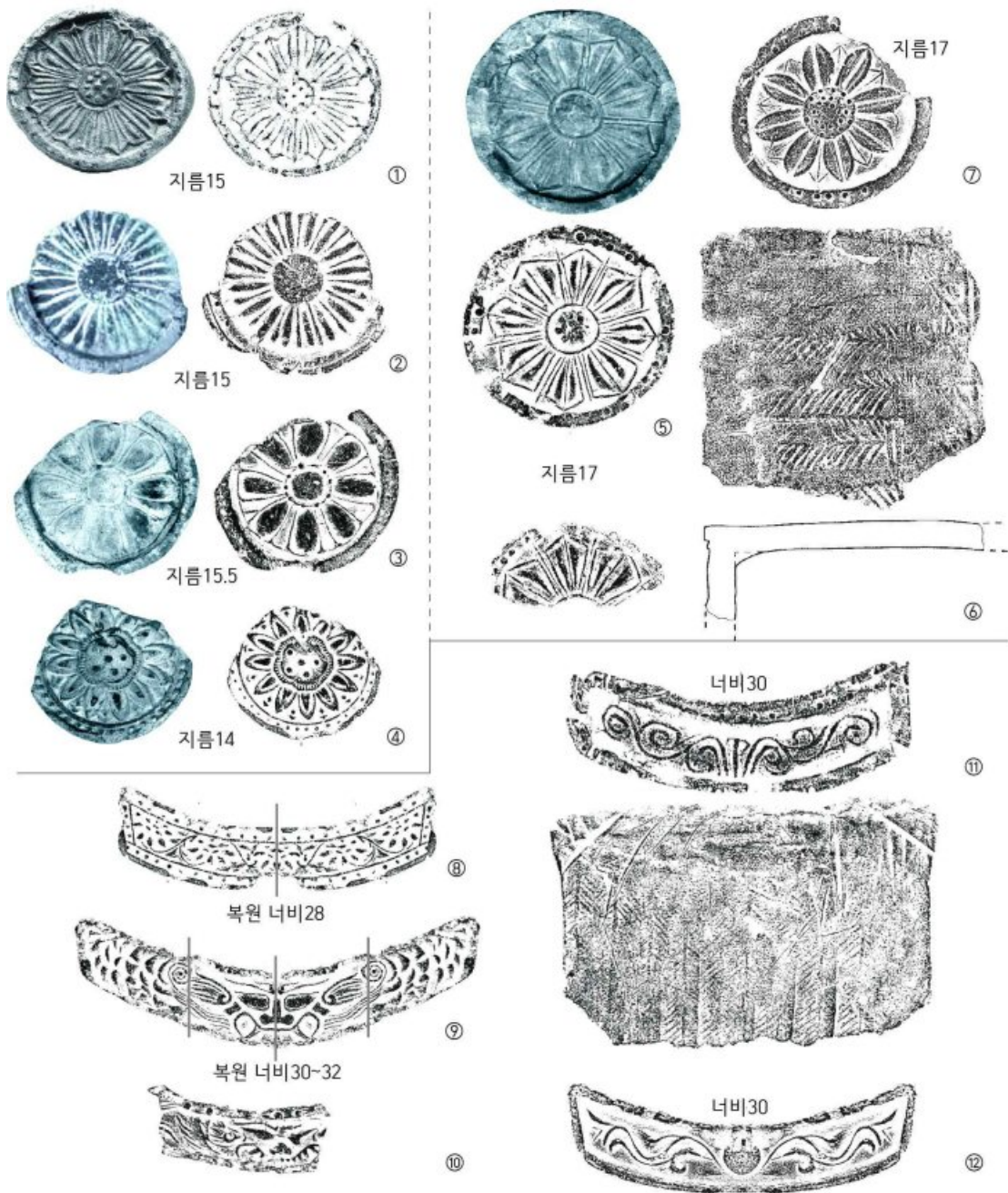


그림 12. 법천사지 3단계의 막새

10) 다만, 암막새의 종류의 더 많고 그중에는 소형의 가능성이 있는 개체도 확인되어, 또 다른 수막새 와당 문양과 교차 조합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한편, <그림11-⑫>의 重瓣蓮華文 수막새와 가는 선으로 당초문을 표현한 <그림11-⑬>의 사례도 그 출토 상황을 고려할 때 함께 제작·사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암막새에 접합된 암키와는 어골문계 복합문의 타날흔이 찍혀있는데, 4분할된 방각 안에 ‘王·日·口·本’의 네 글자를 배치하여 눈길을 끈다.

이 외에도 11~12세기대로 편년할 수 있는 막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수막새는 와당 지름 15cm/17cm, 암막새는 와당 너비 28cm/30cm의 크기이다. 이러한 막새들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분석을 통해 선후관계를 배열해 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나, 금번 발표에서는 그 시간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다만, 몇몇 막새의 경우, 접합된 기본기와와의 타날문 확인을 통해 해당 기술요소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그림13). 사례가 매우 적기는 하나, 암키와의 상부에 서로 다른 포를 겹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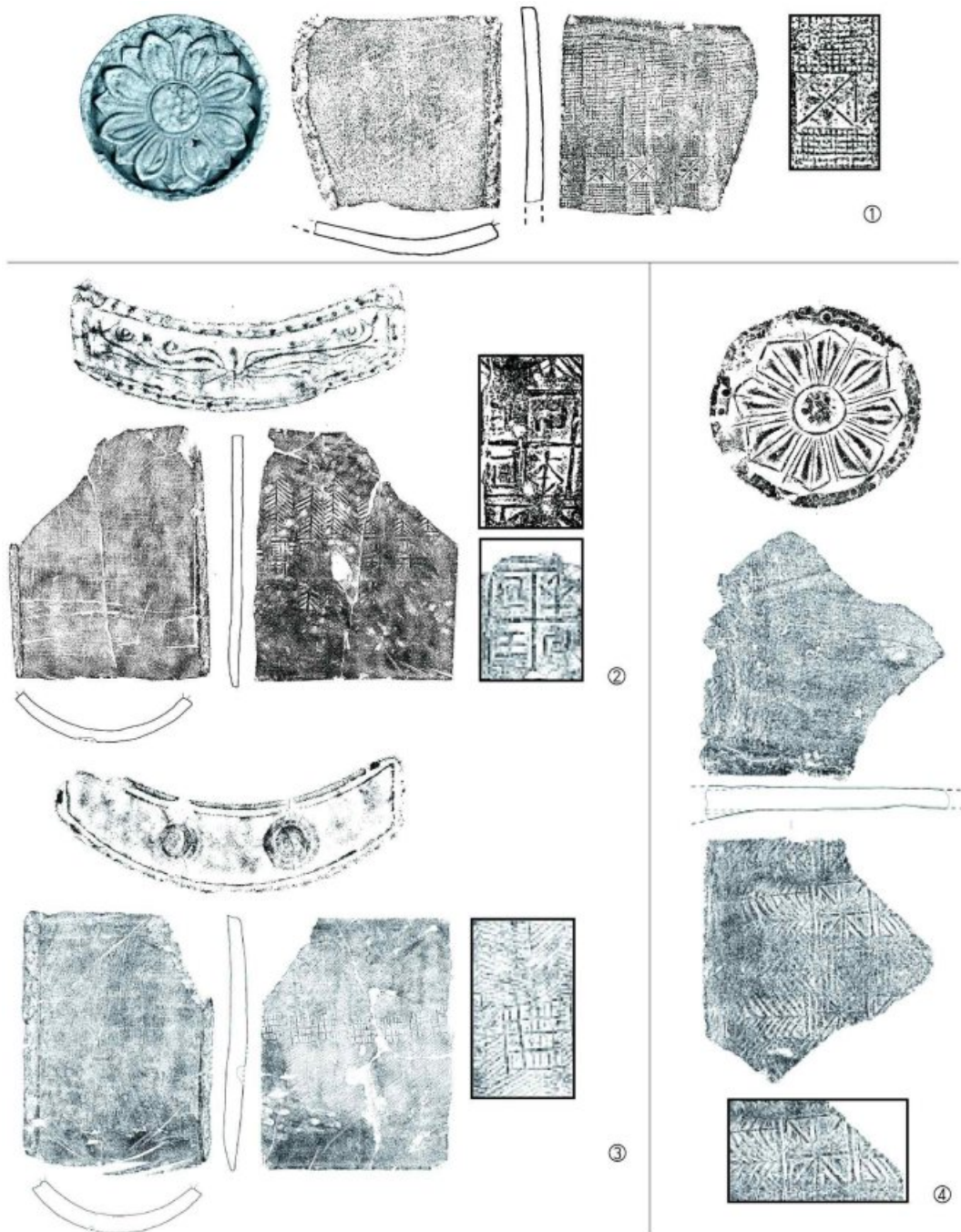


그림 13. 법천사지 3단계의 막새에 접합된 기본기와와의 타날문

연결한 흔적이 관찰되지 않는 특징이 있으며, 수기와는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토수기와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종류별 기와의 교차 정보를 활용하는 작업은 기와의 시·공간성을 검토하는 데 있어 꽤 유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3단계의 기와 중 눈에 띄는 출토 사례로 탑비전의 축대 바로 아래 구역, 즉 탑비전으로 오르는 본격적인 입구 시설인 門址 및 그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된 막새 조합들을 들 수 있다(3단계-1로 명명하고자 함)(그림14)<sup>11)</sup>.

일휘문 암·수막새의 조합과 연화문 수막새 및 모란 당초문 암막새의 두 조합이다. 이 조합의 사례들은 조사 I 구역 내에서도 탑비전과 방향 축을 함께하는 3시기 유구들을 중심으로 출토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하나의 지붕에 함께 올려졌다가 폐기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유구들은 탑비전 및 관련 건물들의 구성을 보여주므로, 그 시간적 좌표는 법천사가 智光國師 解麟(984~1067)의 下山所로 정해진 뒤 入寂한 11세기후엽~12세기초 이후일 가능성이 크다. 즉, 지광국사의 탑비전 조영 시기에 대응되는 기와로 상정할 수 있다.

일휘문 막새는 반구형 자방의 볼륨이 매우 크고 주연부는 돌출되어 단을 이루는 형태로, 개성 고려궁성, 파주 혜음원지 등지에서 보이는 초기의 전형적인 도안과는 차이가 있다<sup>12)</sup>. 연화문 막새는 복판의 꽃잎을 균형있게 배치하였으며 화형의 자방이 특징적이다. 특히 활엽의 잎을 펼친 모란당초문의 모티브는 고려시대 전기 거란의 영향을 받아 사용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sup>13)</sup>.

이 기와들 중 가장 주목되는 점은 와당의 크기가 체계적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같은 단계에 속하는 막새의 평균치와 그 점유 비율을 고려할 때, 와당 지름 15cm의 일휘문 수막새와 와당 너비 30cm의 일휘문 암막새의 조합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크기임을 알 수 있다. 2단계의 기와들과 비교할 때 수막새의 와당 지름이 살짝 커진 모습이다.

한편, 문지 등지에서 한 지붕에서 폐기된 양상으로 확인되는 연화문 수막새와 모란당초문 암막새는 각각 와당 지름 12cm와 10cm, 와당 너비 27cm, 20cm로, 수막새는 각각 2~3cm, 암막새는 각각 3cm·7cm 축소된 크기로 확인된다. 2~3cm의 차이가 규격으로 정해질 만큼의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도면에서도 보여지듯이 함께 나란히 쓰이기 어려운 것은 확실하다.

또한, 일휘문 수막새는 매우 소량이지만 하나 와당지름 20cm에 이르는 대형의 사례가, 연화문 수막새는 와당 지름 18cm의 대형의 사례가 확인되었다. 가장 대형의 수막새에 대응되는 암막새는 찾을 수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4개의 크기를 가진 규격체계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크기의 차이는 개성 만월대 출토 일휘문 기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北宋時代에 제작된 것으로 전해지는 『營造法式』에 제시된 수치만큼 세분화된 것은 아니나, 비슷한 시기 고려에서도 일련의 규격체계를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것이 일휘문의 등장 시기와 거의 흐름을 함께 하고 있는 것 또한 매우 주목되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다만, 법천사에서는 일휘문 막새와 연화문·모란당초문 막새의 제작에 있어 크기를 차이를 구분·사용하고 있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막새의 크기 차이는 이와 대응되는 기본기와 등에도 크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며, 그것은 건물의 기능 및 지붕 내 위치에 따른 기와 사용이 달랐음을 의미한다. 일휘문 조합과 연화문·모란당초문 조합은 기와의 기능에 따라 크기를 구분한 것으로, 이것이 한 지붕 내에 올려진 것이라면 지붕 의장 면에서 매우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었을 것이다.

11) 본 발표문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3단계-1'로 표기하여, 앞의 기와들과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2) 최정혜, 2020, 「고려시대 일휘문막새의 출현과 전개」, 『한국기와학회』창간호, 한국기와학회.

13) 최정혜, 2020, 「고려막새의 변화양상과 의미」, 『2020 한국중세고고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중세고고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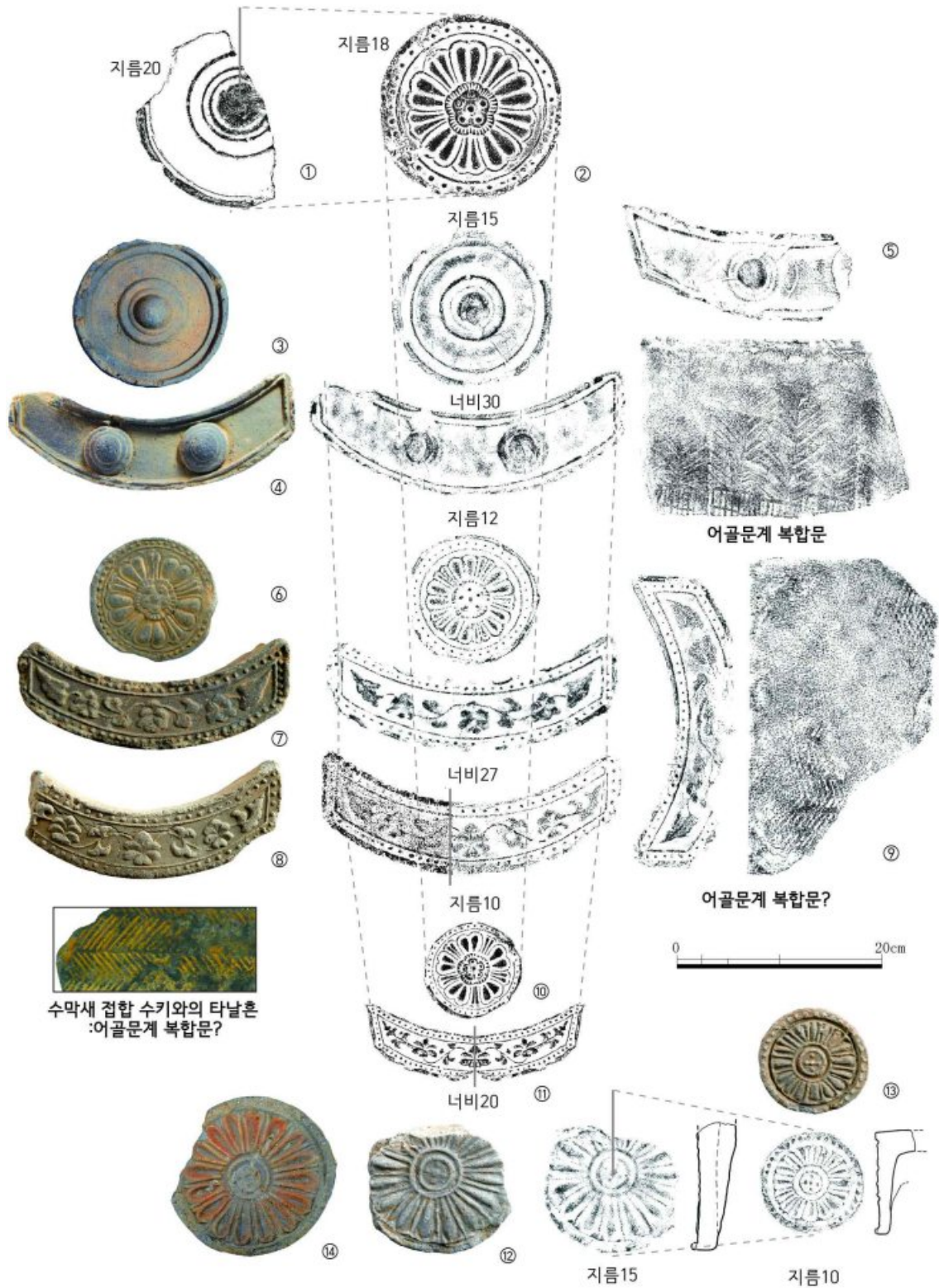


그림 14. 법천사지 3단계-1의 막새와 규격체계

이 외에도 같은 단계로 비정되는 세판연화문 수막새의 경우 외당 지름 15cm와 10cm의 사례를 같은 도안으로 제작하여 앞서 설명한 경우의 객관성을 높인다. 이 중에는 연꽃 부분에 주철을 한 개체

도 포함되어 있다. 해당되는 암막새의 조합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3단계-1의 막새들에 접합된 기본기와는 어골문 혹은 어골문계 복합문의 장판타날흔이 확인되는 사례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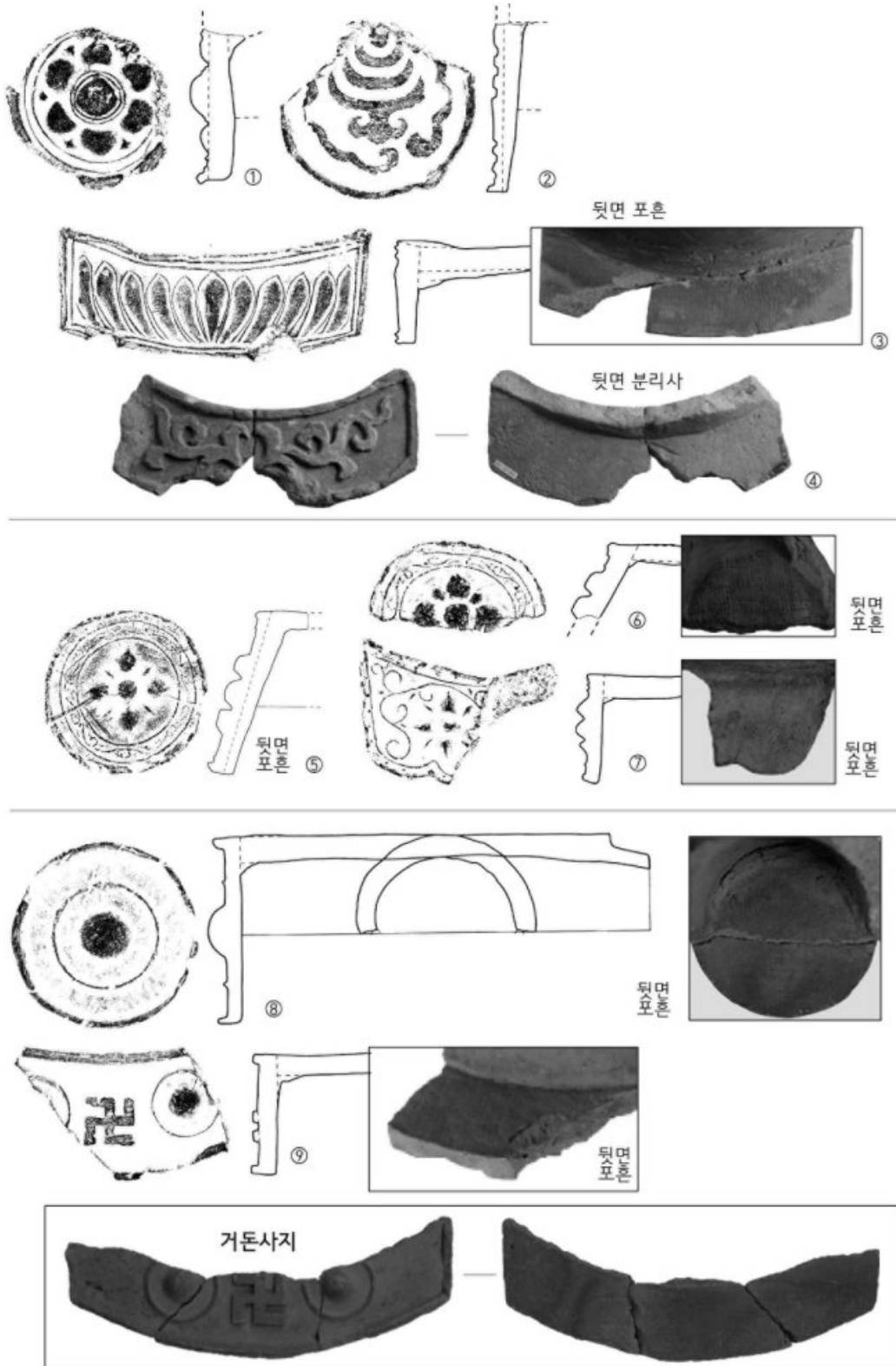


그림 15. 법천사지 4단계의 막새

법천사 3단계의 기와 중에는 소량의 치미편과 방형의 귀면와가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비늘 모양의 장식을 가진 치문, 머리 뒤편으로 깃을 세우고 입을 벌린 용두, 새모양 잡상으로 추정되는 토제품들이 출토되었다. 이와 같이 前代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마루장식기와들은 고려시대 전기에 출현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sup>14)</sup> 그 사례를 함께 제시하였으나, 차후 시기 구분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4. 4단계 : 13세기대

13세기대를 넘어서면, 기와의 와당문양과 제작방식에 있어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양에 있어서는 반구형 자방의 사례가 등장하고, 연화문의 표현은 다소 도식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주연이 점차 평면화되면서 퇴화하는 경우도 많다. 기술적으로는 민속례에 보이듯 ㄱ자로 꺾인 작업대에서 접합을 통한 막새 전체의 형태를 우선적으로 성형한 뒤 와범을 도장처럼 찍어 문양을 시문하는 ‘압날식 시문법’이 나타난다. 이때 기와의 점토가 성형대에서 잘 분리될 수 있도록 포를 깔거나 모래를 뿌리게 되며(分離材), 이 흔적이 와당 뒷면에 남게 된다. 더불어, 와당과 기본기와의 접합각도가 직각에서 둔각으로 변하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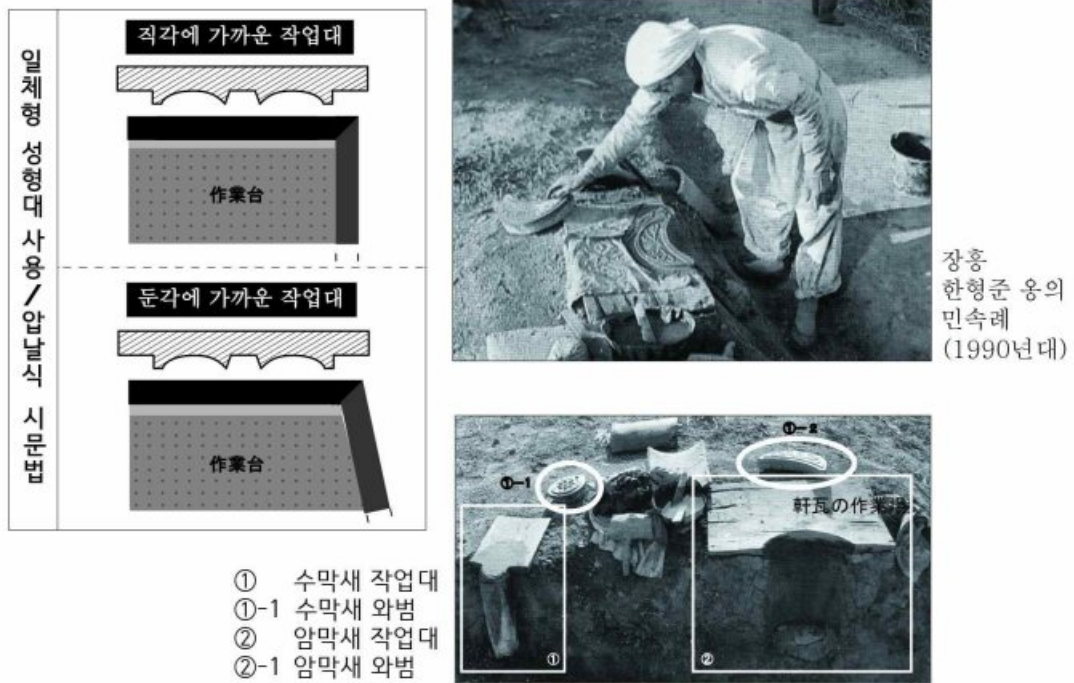
이상의 도상 및 기술요소를 갖춘 막새들을 13세기대로 상정한다면, 법천사지 막새들은 크게 3가지 조합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그림15-①~④>로, 1~3단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성형된 수막새와 ‘와범 압날식 시문법’으로 성형된 암막새의 조합이다. 반구형 자방을 가진 연화문 수막새와 측시형 연화문을 단순하게 표현한 암막새의 조합<그림15-①②>, 그리고 범자문 수막새와 유사한 표현방식의 당초문 암막새 조합<그림15-③④>이다. 모두 직각에 가까운 접합각도를 가지며, 암막새는 와당 뒷면에 분리재인 포흔과 모래가 관찰된다. 수막새와 암막새의 성형방식에 차이가 있는 과도기적 단계가 존재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기술적 조합이 같은 2개의 사례가 확인되었다는 점은 흥미롭게 여겨진다.

두 번째는 <그림15-⑤~⑦>로 당초문과 4엽의 꽃잎을 함께 배치한 문양의 유사성을 통해 조합을 상정하였다. 모두 와당 뒷면에 포흔이 남아있다. 다만, 수막새는 접합각도가 둔각을 띠고 있는 반면, 암막새는 직각에 가까워, 검토가 요구된다.

세 번째는 <그림15-⑧⑨>로 일휘문 막새의 조합으로, 암막새는 중앙에 ‘卍’字를 배치하였다. 수막새는 와당지름 17.5cm, 암막새는 와당너비 34.2cm로 비교적 큰 편인데, 와당 뒷면에 포흔이 남아있지만 접합각도는 직각을 이룬다. 기본기와의 볼록면에는 장판타날의 어골문이 남아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법천사지 4단계 기와 중에는 ‘압날식 시문법’으로 제작된 기와 가운데 직각 접합의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도성인 고려궁성에서도 직각의 접합사례가 있음을 상기시키지만 전체적인 양상을 대응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접합각도에 따른 선후관계를 단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현재 확인되는 유물들에 기초할 때 직각접합→둔각접합으로 진행하되 병용기가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혹은 지역적 차이가 존재하는지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14) 이현주, 2023, 앞의 글.



장흥  
한형준 옹의  
민속례  
(1990년대)

그림 16. 와범 압날식 시문법과 관련 민속례

### 5. 5단계 : 조선시대 전기(서원 출토품 제외)

와당지름 15cm의 도식화된 연화문 수막새와 와당 너비 32cm, 와당 높이 14cm의 범자문(유가심인동문) 암막새의 조합이다. 접합된 기본기와에 수파문이 타날된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초기에 제작·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역삼각형의 암막새 와당 형태와 와당 뒷면의 포흔, 그리고 둔각의 접합 각도는 앞서 언급한 ‘압날식 시문기법’의 성형방식을 잘 보여준다. 수량은 많지 않으며, 기본기와 외에는 이 시기와 연동되는 다른 종류의 개체들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림 17. 법천사지 5단계의 막새

영암 도갑사에서 출토된 수막새의 경우 연화문 위에 범자를 얹은 구조와 주변의 공간을 집선문으로 채우고 둘레에 연주문을 돌린 모습이 꽤 닮아있다. 도갑사 출토 수막새는 ‘弘治元年(1488)銘 명문이 있는 귀목문 암막새와 함께 출토되어<sup>15)</sup>, 법천사지 출토 사례 역시 조선시대 전기로 상정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18. 영암 도갑사 출토 수막새

15) 유금와당박물관의 신은희 선생님께 자료에 대한 조연을 얻었다.

### Ⅲ. 기와를 통해 본 가람의 변화양상

#### 1. 가람의 창건

법천사의 창건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928년 釋超(912~964)가 賢眷律師에게 계를 받았다는 기록을 참고할 때 늦어도 10세기 전반에는 官壇寺院으로서 어느 정도 사격을 확립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sup>16)</sup>. 뒤이어 1032년에는 法相宗의 고승 鼎賢(972~1054)이 德宗의 교지를 받고 주지로 부임하였다는 기록이 있다<sup>17)</sup>. 또한 지광국사현묘탑비에 적힌 法臯寺를 법천사의 前身으로 보기도 한다.

출토 기와를 참고하면, 본 발표문의 가장 이른 시기인 1단계에 속하는 기와들은 고신라식 문양·기술요소를 강하게 유지하는 통일신라시대의 소산으로, 상세한 시기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통일신라시대에 가람이 존재하였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확인되지 않는 자료들 중 신라가 삼국을 통합하기 이전의 기와가 존재할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기와들은 중심 가람의 강당지 조사 중 적심 내에서 확인되고 있어 중심가람의 前代 건물을 추정케 하는데, 출토 범위가 사역 전체로 꽤 넓은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출토 수량 또한 적지 않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1단계의 기와들을 가람 창건과 관련된 개체들로 상정하고자 한다. 즉, 법천사는 늦어도 통일신라시대에는 이미 중심가람과 함께 사역 전체에 일련의 가람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소판연화문 및 복판연화문의 고식 수막새는 7세기중엽 경주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 도시의 형성과 관련이 있는 만큼, 그 존재 이유에 대해 폭넓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2. 법천사 가람의 새로운 시작

나말여초, 법천사에는 장판타날형식의 기본기와와 이전과 다른 문양형식을 가진 막새들이 제작·사용된다. 더불어 적새, 착고와 같은 마루 축조용 기와와 치미, 귀면와, 모서리 장식기와 및 마루 암막새와 같은 마루 장식용 기와도 갖추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크기와 형태는 1기의 사례와 같아서, 전대의 기와들과 혼용 가능하다. 본 발표에서는 그 일련의 기와들을 법천사 2기로 설정하였다. 분포 범위는 1기의 기와와 마찬가지로 법천사의 사역 전체에서 확인되었다.

이 시기의 기와들은 나말여초를 즈음하여 법천사의 새로운 증·개축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잘 보여준다. 특히 조사 I구역(탑비전 하부 구역)과 II구역 중심가람에서의 출토 양상은 이 시기 주된 건물들의 새로운 조영 행위를 증명한다.

#### 3. 법천사의 증·개축과 탑비전 조영

법천사는 智光國師 解麟(984~1067)의 下山所로 정해지고 入寂 후 탑비전이 축조되면서 새로운 전개를 맞이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탑비를 세운 때가 고려 선종 2년(1085)이므로, 묘탑을 비롯한 탑비전의 조영 또한 이 시기를 즈음하여 이루어졌을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탑비전의 조영에 사용된 기와로 한정할 수 있는 사례들을 3단계-1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3단계-1에 속하는 기와는 일휘문 막새의 조합과 연화문·모란당초문 막새의 조합 두 가지이

16) 김혜원 역, 1996, 「智谷寺眞觀禪師悟空塔碑」, 『譯註 羅末麗初金石文』下, 혜안.

17) 허홍식, 1984, 「七長寺慧昭國師碑」, 『韓國金石全文』, 亞細亞文化社.

며, 이 기와들은 수막새의 와당 지름 20/15/12/10cm, 암막새의 와당 너비 30/27/20cm의 규격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각 문양에 해당하는 크기를 의도적으로 달리한 부분도 눈길을 끈다. 특히, 일회 문 막새는 비슷한 시기 고려궁성의 조영을 위해 창출·사용된 새로운 문양형식으로, 이 기와의 체계가 지방의 건축에 도입되었다는 것은 법천사와 지광국사의 위격을 증면하는 것이라 하겠다. 위에서 언급한 두 조합의 기와는 법천사지 내에서도 유독 탐비전 근처에서만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점이다.

한편, 11~12세기에는 위에서 언급한 기와들 외에도 다양한 문양의 막새들이 사용·제작되었다. 이와 더불어 확인되는 기본기와에서도 수종의 타날흔이 확인되어, 이 시기 탐비전의 조영 외에도 다양한 건축활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많은 와범을 통해 다량의 제작이 의도되었던 막새의 조합은 II구역 서편의 僧地 및 부속 건물을 이루는 데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사역의 확장 뿐 아니라, 다양한 기능의 건물들이 형성되면서 법천사의 성격에도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추정해 본다.

#### 4. 고려 후기 이후의 법천사

고려시대 후기 이후로 편년할 수 있는 기와의 종류 및 양은 비교적 적은 편이어서, 이 시기 주목할만한 대규모의 가람 변화를 상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뒷면에 포흔이 있는 직각접합의 막새들은 이 시기에 나타나는 기술적 양상을 도입하면서도 전대의 기와들과 함께 사용될 수 있는 기와, 즉 보수용 목적에 적합한 기와 제작이 주를 이루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즉, 새로운 건물의 축조 보다는 기존의 건물들을 유지하는 건축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인 가람에는 큰 변화가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모습의 기와, 특히 회암사를 비롯한 조선시대 초 대규모 불교 사원에 보이는 범자문을 비롯하여 비교적 화려한 도안의 막새 조합이 나타나는 것은 資福寺의 선정과 관련될 것으로 여겨진다.

## IV. 맺는말

이상으로 법천사지 출토 기와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년하고, 그 특성을 단계별로 살펴보았다. 또한 기와의 시·공간적 정보를 통해, 가람의 전개 양상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25년간 축적된 다량의 기와 자료를 한 번에 담아내기에는 개인적 역량이 부족함을 실감한다. 조언과 질책을 감사히 받아, 꾸준히 보완해 가고자 한다.

법천사는 오랜 기간 서원말 사람들의 생활 터전으로 존재하였으나, 25년간의 발굴조사를 통해 장대한 가람을 드러내면서 옛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고단한 여정을 끝낸 지광국사현묘탑도 모셔져 조금 먼 거리이나마 탐비와 마주하게 되었다. 분명, 더위와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조사에 참여해 온 선생님들과 주민들의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법천사의 발굴은 佛敎寺院을 공부하는 모두에게 화제가 되어왔다. 앞으로의 25년간은 법천사의 고고자료에 기반하여 세심하고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원래의 모습을 펼친 것에 만족하여 오랜 관심과 기대를 저버리는 일 없이, “佛法이 샘솟는 곳. 法泉寺”의 찬란한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더욱 새로운 역사적 가치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참고문헌]

보고서 및 도록

- 강원문화재연구소·원주시, 2009, 『原州 法泉寺』 第 I 區域 發掘調査 報告書.  
강원고고문화연구원·원주시, 2014, 『原州 法泉寺II』 III구역 발굴조사 보고서.  
강원고고문화연구원·원주시, 2017, 『原州 法泉寺III』 II구역 발굴조사 보고서.  
국강고고학연구소, 2021, 『原州 法泉寺IV』 원주 법천사지(사적 제466호)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17, 『중원의 와당』.  
강원고고문화연구원·원주시역사박물관, 2023, 『原州 法泉寺V』 원주 법천사지 별원권역(II-나구역)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한림대학교박물관·원주시, 2000, 『居頓寺址』.

도서 및 논문

- 이현주, 2023, 「고려시대 마루장식기와의 전개」, 『제1회 개성 만월大學의 지평』,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최태선, 1993, 「평와 제작법의 변천에 대한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최영희, 2014, 「新羅 造瓦用 타날구에 대한 재검토」, 『江原考古研究』.  
최영희, 2014, 「統一新羅式기와의 成立과 造瓦體制의 變化」, 『영남고고학』70, 영남고고학회.  
최영희, 2022, 「造瓦樣相을 통해 본 統一新羅時代 地方行政의 展開 -中原京·朔州地域을 중심으로-」, 『한국중세고고학』, 한국중세고고학회.  
최정혜, 2017, 「고려시대 중원지역의 막새」, 『중원의 와당』,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최정혜, 2019, 「신라말, 고려초 중원지역의 연화문 수막새 검토」, 『중원지역 기와연구와 전환기』, 학술세미나자료집.  
최정혜, 2020, 「고려시대 일휘문막새의 출현과 전개」, 『한국기와학보』1, 한국기와학회.  
최정혜, 2020, 「고려막새의 변화양상과 의미」, 『2020 한국중세고고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중세고고학회.  
최정혜, 2022, 「후삼국시대 중원지역의 연화문수막새 검토」, 『한국기와학보』5, 한국기와학회.  
岩戶晶子, 2001, 「奈良時代の鬼面文鬼瓦-瓦葺技術の視点による平城宮式鬼瓦·南都七大寺式鬼瓦の検討-」 『史林』 84-3, 史學研究會.

## 토론문 6

## 「법천사지 출토 기와의 시·공간적 검토」에 대한 토론문

최정혜(前 복천박물관장)

최영희 선생님은 <법천사지 출토 기와의 시·공간적 검토>라는 논고를 통해 법천사지 기와 중 특히 막새의 제작기법과 문양형식을 분석하여 법천사지 기와의 변천 단계를 통일신라부터 조선시대까지 5 단계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기와의 시기적인 특징과 분포양상을 근거로 법천사지 가람의 변화변천과 특정 건물 특히 지광국사 탑비전에 사용되었던 막새 형식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의미가 크다. 그뿐만 아니라 법천사지 출토 기와를 정밀히 분석하여 통일신라부터 조선시대까지 법천사지 가람과 기와의 변화양상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가람 및 기와 연구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자 역시 최영희 선생님의 기본 논지에 대부분 동의하며, 향후 토론자의 학습을 위해 발표 내용 중 궁금한 몇 가지 점에 대해 질의하고자 한다.

질문 1) 발표자는 법천사지 1단계는 통일신라시대 이후로, 2단계는 통일신라말 고려초기로 설정하였다. 1단계 특징은 통일신라 기와의 가장 객관적인 지표라 할 수 있는 중판타날형식의 암키와 수키와에 기준을 두고 있다. 그러나 발표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중판타날형식은 일부 지방에서는 고려초기까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법천사지 1단계 연화문수막새는 고식 수막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무문주연부와 화판부와 주연부 사이에 구상권이 확인되며, 연화문의 문양형식도 고식에 가깝다. 이러한 형식의 연화문수막새는 안양 중초사지나 음성 양덕리유적 등 중원지역에서 확인되며, 후삼국시대(통일신라말 고려초기)로 보는 견해도 있다. 혹시 법천사지 1단계의 연화문수막새 중에서 법천사지 2단계(후삼국)로 볼 수 있는 연화문수막새는 없는지?

질문 2) 발표자는 일휘문막새와 연화문수막새, 모란당초문암막새를 지광국사 탑비전에 사용된 막새로 제시하였다. 일휘문막새는 11세기로 중엽에서 12세기로 편년될 수 있으며, 특히 일휘문암막새는 황룡사지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는 형식이다. 모란당초문암막새는 고려시대에 새롭게 제작되는 형식으로, 고려막새의 특징적인 문양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토론자의 기억으로, 지광국사 탑비에는 모란당초문, 석조물에는 다양한 연화문이 장식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혹시 발표자가 제시한 모란당초문암막새와 탑비에 시문된 모란당초문이 그리고 연화문수막새는 석조물의 연화문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지?

질문 3) 다음은 생산지와 관련 질문인데, 법천사지 1단계 기와부터 4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거둔사지와 유사한 형식의 기와가 출토된다. 특히 동법관계의 당초문암막새도 확인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법천사지 기와의 생산과 공급 양상은 어떠한지? 그리고 거둔사 이외의 남한강유역의 다른 유적(사지)에서 법천사와 같은 형식의 기와가 출토된 사례가 있는지? 참고로 거둔사지에서 출토된 연화문수막새와 동법관계로 보이는 연화문수막새가 충주 추평리유적에서도 확인되는데, 남한강유역에 입지한 사찰의 기와공급 양상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질문 4) 최영희 선생의 발표 논고는 법천사지 출토 기와 전체를 정리,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법천사지에서 출토된 방대한 기와자료를 건물지 연구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지 혹시 생각하고 있는 모색 방안이 있다면?

발표 7

출토 청자를 통해 본 고려시대 원주 법천사의 변천 과정

김 귀 한

(민족문화유산연구원)



## 출토 청자를 통해 본 고려시대 원주 법천사의 변천 과정

김귀한(민족문화유산연구원)

### 목 차

- I. 머리말
- II. 원주 법천사지 출토 청자의 현황과 특징
- III. 고려시대 원주 법천사의 변천 과정
- IV. 맺는말

### I. 머리말

원주 법천사(法泉寺)는 고려시대 법상종(法相宗)의 중심 사찰이었다. 사찰의 창건 연대는 분명하지 않으나 적어도 삼국시대 또는 남북국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1067년 지광국사 해린(智光國師 海麟, 984~1070)의 하산소(下山所)로 선정될 정도로 사격이 높았으며, 해린의 하산소로 결정되면 서 대규모 불사(佛事)를 통해 대찰의 면모를 갖추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후 조선 초에 자복사(資福寺)로 지정되었으나 임진왜란 당시 화재로 소실된 이후 중창되지 못하였다.

원주 법천사지는 2001~2015년에 걸쳐 10차례의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sup>1)</sup> 이후 원주 법천사지 정비복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비사업부지와 법천사의 전성기인 고려 초기 유구의 부존 여부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sup>2)</sup> 그 결과 법천사의 가람배치와 전개 과정, 그리고 공간구성 등 파악할 수 있는 고고학적 자료들이 축적되었다.<sup>3)</sup> 더하여 여기에서는 삼국~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물이 수습되었다. 이 가운데 청자 등 도자기류는 비교적 편년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천사의 전개 과정을 밝히는 데 핵심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발굴조사 보고서에서는 청자를 포함한 자기류에 대한 상세한 고찰을 작성하였다. 유물의 양상과 특징뿐만 아니라 편년, 강진·부안과 법천사지 주변 요지 등 생산지에 대한 문제까지 폭넓게 정리하였던 것이다.<sup>4)</sup>

1) 池賢柄, 2007, 「原州 法泉寺址 發掘調査 現況과 課題」, 『耘谷學會研究論叢』 2; 原州市·江原文化財研究所, 2009, 『原州 法泉寺 I -第 1區域 發掘調査 報告書』; 원주시·江原考古文化研究院, 2014, 『原州 法泉寺 II -III구역 발굴조사 보고서-』; 원주시·江原考古文化研究院, 2017, 『原州 法泉寺 III -2구역 발굴조사 보고서-』. 원주 법천사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유물명〉 + (발굴조사 보고서명(I~V) + 유물 번호)로 제시하였다.

2) 국강고고학연구소, 2021, 『원주 법천사 IV』; 원주시역사박물관·江原考古文化研究院, 2023, 『原州 法泉寺 V-원주 법천사지 별원권역(II-나구역)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3) 최태선, 2016, 『신라·고려전기 가람의 조영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황정욱, 2024, 「고려 국사의 하산소 원주 법천사」, 『중부지역 고려 왕실 유적의 고고학적 성과』, 2024년 중부고고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41~51쪽.

그런데, 원주 법천사지에서 출토된 청자는 크게 해무리굽완을 표식으로 하는 초기 청자와 중기 청자, 그리고 고려 말~조선 초로 추정되는 (분)청자로 구분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비해 고려시대 원주 법천사에 관한 문헌은 해린과 관련된 11세기 중반경에 집중되어 있어 법천사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을 추정하기 어려웠다.

이 글은 원주 법천사지에서 수습된 청자를 통해 고려시대 원주 법천사의 변천 과정에 대해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물론 청자가 출토된 건물지의 성격과 유물의 상호관계라든가 발굴조사 당시 확인된 모든 유물이 발굴조사 보고서에 수록되지 않는다는 점들은 근본적인 한계이다. 그렇지만 유물의 출토양상을 검토하고, 기준토층과 유구의 중복 관계, 나아가 문헌사 연구 성과를 대폭 활용하면 원주 법천사지에서 청자 등이 소비되었던 시기와 배경을 당대의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거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I. 원주 법천사지 출토 청자의 현황과 특징

원주 법천사지는 발굴조사를 통해 고려시대 청자와 백자, 도기, 분청자, 조선백자 등을 비롯하여 중국 월주요 청자와 경덕진·정요계 백자, 요주요 청자와 건요계 흑자 등 다양한 도자기가 출토되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원주 법천사지에서는 모두 773점의 자기(瓷器)가 출토되었다. 이 가운데 고려청자가 631점(82%)으로 출토비율이 가장 높고, 백자는 63점(8%), 중국산 자기는 79점(10%)이 확인되었다고 한다.<sup>5)</sup>

원주 법천사지에서 출토된 청자의 기종은 완·발·접시·잔·잔탁·유병·매병·(편)병·정병·뚜껑·향완·연적·항·발우 등이다. 이와 같은 유물은 사지에서 출토되는 일반적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청자들은 불구(佛具)나 다구(茶具), 그리고 일상생활기명으로 등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sup>6)</sup>

원주 법천사지 출토 초기 청자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해무리굽완이다. 일반적으로 초기 청자는 표식 유물인 해무리굽완, 그리고 이와 공반되어 출토되는 일련의 청자를 의미한다. 해무리굽은 굽의 안바닥과 접지면이 해무리를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해무리굽완은 대표적인 차도구로 대부분의 사찰 유적에서 출토되었다.<sup>7)</sup>

원주 법천사지에서는 선해무리굽완과 중국식 해무리굽완, 그리고 한국식 해무리굽완과 퇴화 해무리굽완이 모두 확인되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완은 내면이 곡면형에서 원각형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굽의 저경과 접지면에도 일정한 변화가 나타난다.<sup>8)</sup> 해무리굽완의 굽 형태가 선해무리굽 → 중국식 해무리굽 → 한국식 해무리굽 → 퇴화 해무리굽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고고학적인 층위로 증명되었다.<sup>9)</sup> 초기청자는 10세기 중반경 제작되기 시작하였다.<sup>10)</sup> 강진 용운리 10-I 층에서는 확인되지만

4) 출토유물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각 발굴조사 보고서의 고찰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한편, 청자의 생산지와 관련하여 법천사지 인근에 있는 손곡2리 4호 요지 출토품과의 비교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이병훈·윤석인, 2014, 「법천사지 청자와 손곡2리 4호 가마터 청자의 도자사적 성격과 과학적 분석을 통한 생산 가마터 추정 연구」,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47-3, , 24~41쪽).

5) 이준광, 2025, 『고려시대 사찰의 자기 소비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9~54쪽, 85쪽. 중국산 자기는 월주요계 청자 42점, 요주요계 청자 1점으로 모두 43점이 수습되었다. 정요계 백자는 6점, 경덕진계 백자는 14점이며, 15점은 잔편으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건요계 흑유 또한 5점이 출토되었다.

6) 이종민, 2004, 「高麗時代 寺址 出土 磁器의 器種과 性格」, 『단호문화연구』 8, 96~121쪽; 한혜선, 2023, 「여주(驪州) 고달사지(高達寺址) 출토 고려시대 도자기의 소비양상」, 『한국문화연구』 44, 7~4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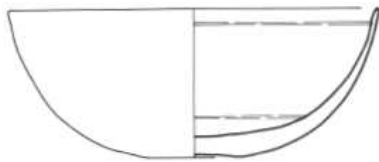
7) 이종민, 2004, 앞의 논문, 110쪽.

8) 이희관, 2003, 「韓國 初期靑磁에 있어서 해무리굽碗 問題의 再檢討」, 『미술사학연구』 237, 10~42쪽.

10-II부터는 수습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무리굽완의 하한은 11세기 후반경 또는 12세기 초반경까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주 법천사는 고려 초기 지속적으로 청자를 소비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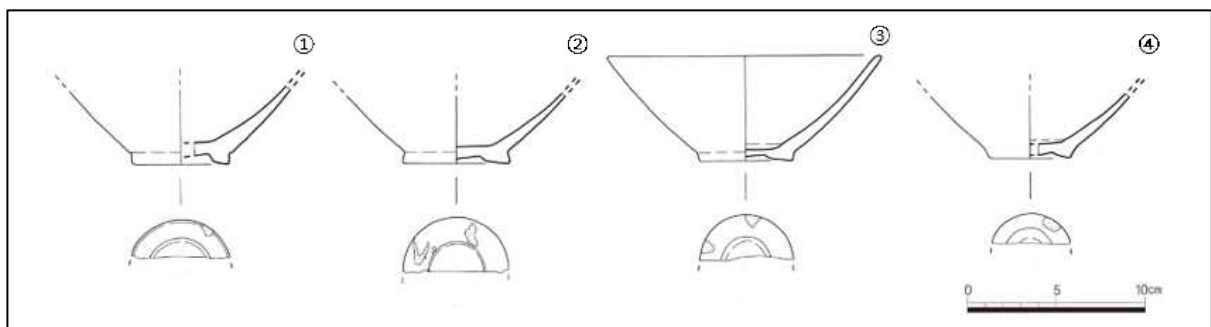
사진 1. 청자향완(II-255, 잔고 11.4cm)



도 1. 청자발우(II-254, 높이 7.2cm)



사진 2. 청자정병(I-381, 잔고 17.5cm)



도 2. 원주 법천사지 출토 해무리굽완(① 선해무리굽완, ② 중국식 해무리굽완, ③ 한국식 해무리굽완, ④ 퇴화 해무리굽완)

- 9) 金載悅, 1988, 「高麗白磁의 發生과 編年」, 『미술사학연구』 177, 3~41쪽; 湖巖美術館, 2003, 『龍仁西里高麗白磁窯 發掘調査報告書 II』.
- 10) 이종민, 2017, 「나말여초 창자요업의 개시 여건과 고고학적 산물의 검토」, 『한국중세고고학』 창간호 56~81쪽; 李喜寬, 2009, 「高麗 初期靑瓷와 越窯의 關係에 대한 몇 가지 門題」, 『사학연구』 96, 1~35쪽; 同著, 2014, 「高麗 初期靑瓷와 越窯」 『진안 도동리 청자』, 국립전주박물관, 40~57쪽; 한광휘, 2023, 「고려 전기 磁器 生産體系에 대한 試論」, 『미술사학』 46, 67~9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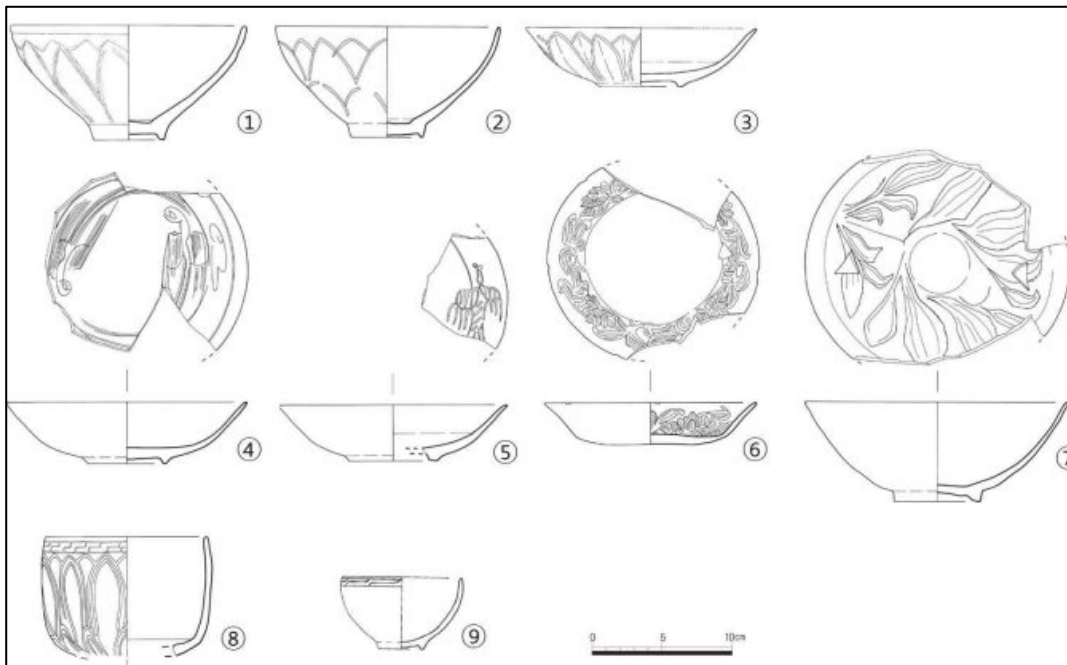
사진 3. <청자완>(III-937, 복원저경 6.3cm)

한편, 중국산 자기 가운데 월주요계 해무리굽완이 출토 되어 주목된다. 월주요계 해무리굽완은 대부분 당말(唐末)~오대(五代)에 제작된 옥환저완(玉環底碗)이다. 발굴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당대 옥벽저완(玉璧底碗)도 2점이 수습되었다. 이에 따라 원주 법천사는 늦어도 9세기경에는 청자를 소비하기 시작하였을 것이다.

원주 법천사지에서 출토된 중기 청자는 대접과 접시, 잔, 그리고 뚜껑 등이 중심을 이룬다. 특히 음각·양각의 연판문발과 앵무문발, 통형잔과 팽이형잔, 압출양각 장식, 절요 접시 등 소위 '강진유형(康津類型)'의 청자들이 다수 확인된다.<sup>11)</sup>



사진 4. 원주 법천사지 출토 중기 청자 번조받침(좌: 내화토비짐, 중: 내화토모래비짐, 우: 규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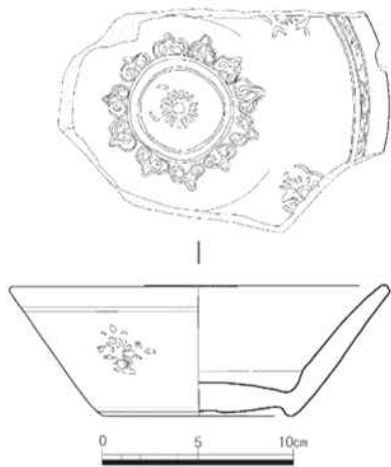
도 3. 원주 법천사지 출토 고려 중기 '강진유형' 청자

- ①<청자양각연판문발>(I-324), ②<청자음각연판문발>(II-243), ③<청자음각연판문접시>(III-452), ④<청자음각앵무문접시>-227), ⑤<청자음각앵무문접시>(II-218), ⑥<청자압출양각연화당초문접시>(II-233), ⑦<청자압출양각모란절지문대접>(II-24  
⑧<청자음각연판문통형잔>(I-414), ⑨<청자음각뇌문팽이형잔>(III-956)

11) 張南原, 2001, 「'康津유형'의 공유 현상을 통해 본 11~12세기 청자의 성격」, 『미술사학연구』 231, 77~100쪽; 同著, 2005, 『고려중기 청자 연구』, 혜안, 199쪽 주) 97.

문양은 화(당초)문과 연판문, 앵무문, 뇌문 등이 표현되었다. 변조받침은 내화토비집과 내화토모래비집, 그리고 규석받침이 확인된다. 품질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강진과 부안에서 생산된 청자는 양질 청자로, 강진이나 부안에서 제작된 품질이 좋지 않은 청자와 원주에 인접한 지방요에서 생산된 청자는 조질청자로 소비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수량은 많지 않지만 상감청자도 확인되었다. <청자상감국화문접시>(III-419)는 굽이 안굽으로 규석을 받치고 변조하였다. 측사면이 직선으로 올라가며 내저면 중앙에 국화문과 여의두문을, 내면에 국화문을 상감하였으며 구연에는 초문을 상감하였다. 외면은 국화문이 확인된다. 이는 사당리 43호 요지 출토품과 매우 유사하다. <청자상감국화문팔각접시>(III-555)는 단면이 'U'자에 가까운 다리굽으로 규석을 받치고 변조하였고, 유색은 비색에 가깝다. <청자상감운학문동체부편>은 내면에 학과 영지형의 운문이, 외면에는 당초문과 국화문 등이 시문되어 있다. 학이 비교적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13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 4. <청자상감국화문접시>(III-419)



사진 5. <청자상감운학문동체부편>(III-316, 잔고 4.5cm)



사진 6. <청자상감보상화당초문완>  
(傳 문공유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청자상감보상화당초문동체부편>(III-961)과 같이 내면에 보상화당초문을 역상감하고 외면에 음각으로 화문을 장식한 예가 주목된다. <청자상감보상화당초문저부편>(III-595) 또한 유사한 문양이 표현되었다. 그리고 내면은 운문을 백상감하고, 외면에 당초문을 흑백으로 역상감한 동체편도 출토되었다(I-360). 이러한 유물은 전(傳) 문공유(文公裕, ?~1159) 출토 <청자상감보상화문완>과 명종 지릉(明宗 智陵 1170~1197, 승하 1202) 출토 <청자상감여지문대접>과 좋은 비교가 된다. 다만, 문공유 출토 유물은 13세기 초에 후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sup>12)</sup> 명종 지릉의 경우 1255년에 재수축할 때 부장된 것으로 추정된다.<sup>13)</sup>

12) 尹龍二, 1993, 『韓國陶磁史研究』, 문예출판사, 126~127쪽.

13) 韓盛旭, 2001, 「高麗後期 靑瓷의 器形變遷」, 『미술사학연구』 232, 66쪽.



사진 7. <청자상감보상화당초문동체부편>(Ⅲ-961, 잔고 5cm)

그리고 상감기법과 함께 동화안료를 사용한 매병편도 수습되었으나 잔편이다. 부안 유천리 요지에서 출토된 <청자상감동화모란문동체편>과 좋은 비교가 된다.

이외에도 국화문을 철백화기법으로 표현한 청자와 철화청자가 소수 확인되었다. 철백화기법의 경우 부안의 고려청자 요지에서 주로 제작되었고, 고려 궁성을 비롯하여 파주 혜음원지, 희종 석릉(熙宗 碩陵, 1204~1211, 1237년 승하) 등 왕릉에서도 출토되어 제작지와 소비시기를 추정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철화청자는 뚜껑으로 회오리문양이 철화로 시문되었다.



사진 8. <청자상감동화모란문매병동체부편>(Ⅱ-268, 잔고 9.1cm)



사진 9. <청자철백화국화문접시>(Ⅲ-422, 잔고 1.5cm)



사진 10. <청자철화회오리문뚜껑>(Ⅲ-143, 잔고 0.9cm)

그런데, 원주 법천사지에서는 청자의 굽 안바닥에 '○'문을 음각한 것으로 추정되는 청자가 1점 출토되었다. 유물을 실견하지 못하여 정확히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발굴조사 보고서 사진에서 굽 안바닥에 '○'문이 확인된다. '○'문 청자는 강진 사당리 8·23·27호 요지 등에서 생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유적인 고려 궁성을 비롯하여 파주 혜음원지와 희종 석릉(1204~1211, 1237년 승하), 그리고 원덕태후 곤릉(元德太后 坤陵, ?~1239)에서도 출토된 사례가 있다. 일본의 경우



사진 11. <청자음각연판문'○'문저부편>(Ⅰ-289, 잔고 2.2cm)

1226~1250년 층위로 추정되는 가마쿠라(鎌倉)의 와카미야(若宮)대로에서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 문 청자의 제작 시기는 1230년대를 중심으로 한 13세기 2/4분기로 추정된다.<sup>14)</sup>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원주 법천사는 고려 중기 소위 강진유형을 대표하는 양질과 조질청자를 비롯하여 (역)상감청자와 동화청자, ‘○’문청자 등 다양한 청자를 소비하였다. 출토유물로 보아 적어도 13세기 초~중반까지는 청자의 수요가 계속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원주 법천사지는 고려 중기 이후 고려 말~조선 초 청자가 집중적으로 확인되었다. 발굴조사 보고서에는 분청사기 또는 분청자로 수록되었다. 기종은 발·대접·접시·잔 등의 일상생활기명과 매병·고족배 등으로 단순하다. 굽은 죽절굽으로 태토비짐이나 모래를 받치고 번조한 특징을 보인다. 문양은 대부분 선상감이나 인화상감기법 등으로 표현되었고, 일부 선각(또는 철화?)기법이 확인된다. 고려 말 청자의 경우 문양은 간략화된 인화기법이 반복적으로 거칠게 시문되는 특징을 보인다.<sup>15)</sup> 그릇의 전체를 문양으로 뺄뺄하게 시문하기도 하였다. 문양은 국화문·연화문, 7~8원문, 우점문, 집단연권문, 연주문, 나비문, 회오리문, 연판문 등으로 다양하다.



사진 12. 원주 법천사지 출토 고려 말 ~ 조선 초 (분)청자 일괄



사진 13. 원주 대안리 요지 수습 고려 말 ~ 조선 초 청자 일괄 (국가유산청)

원주 법천사지 출토 고려 말 청자~조선 초 청자는 강북구 수유동 가마터에서 수습된 유물과 시문기법과 문양이 매우 유사하여 시기를 추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원주 법천사와 인접한 거리에 있는 원주 대안리 요지에서 확인된 청자 편과도 친연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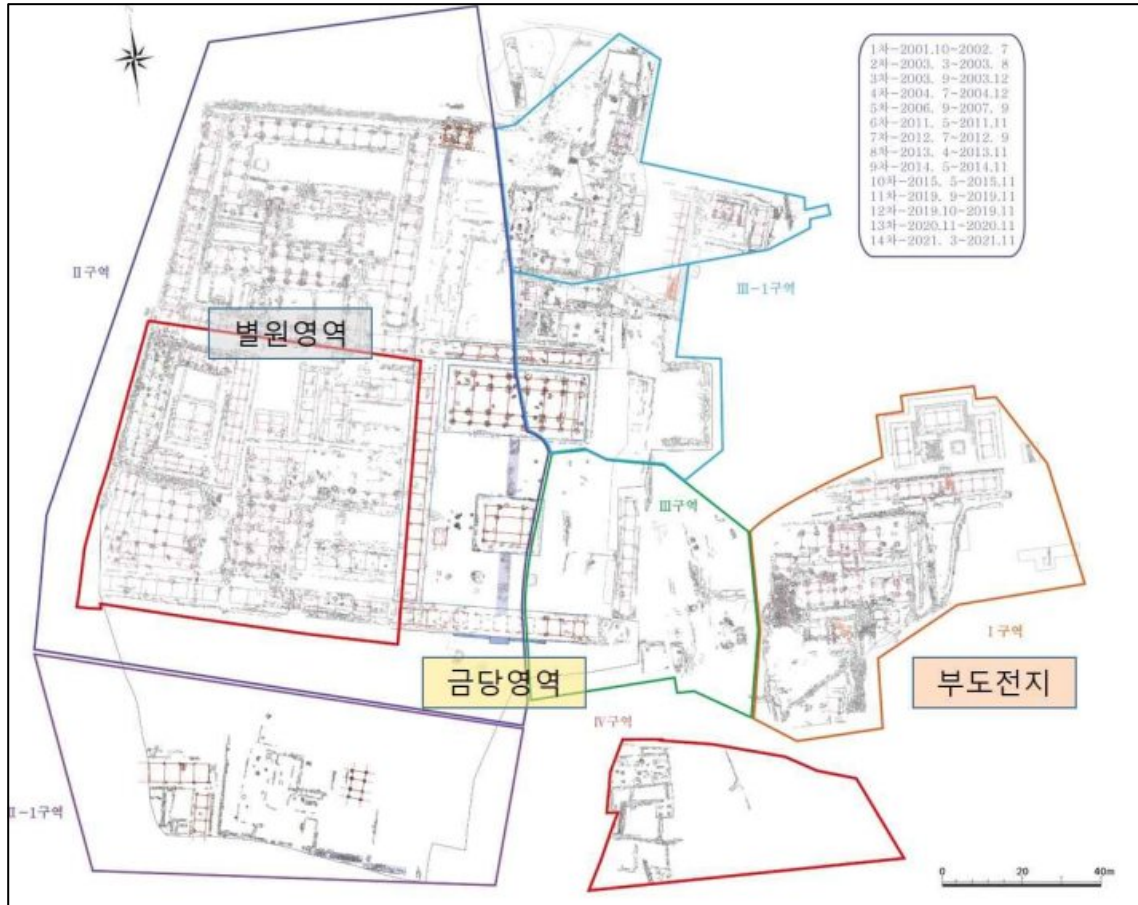
한편, 죽절굽에 태토비짐을 받쳐 포개어 구운 조선백자도 다수 확인되었기 때문에 원주 법천사지는 고려 말 이후 조선 전기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14) 한성욱, 2007, 「고려 음각 ‘○’문과 ‘◎’문청자의 연구」, 『고문화』 70, 133~160쪽.

15) 한성욱, 2001, 앞의 논문, 69쪽.

### III. 고려시대 원주 법천사의 변천 과정

원주 법천사지는 지금까지 모두 14차의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가운데 1~10차 발굴조사를 통해 법천사는 전체사역을 계획적으로 구획한 다원식 가람배치임이 밝혀졌다.



도 5. 원주 법천사지 발굴조사 현황도(『原州 法泉寺Ⅴ』, 37쪽 【도면 4】 일부 수정)

원주 법천사지는 하층 유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창건 이후 크게 4시기로 경영되었음이 밝혀졌다. 특히 I구역의 1기는 지광국사탑과 탑비가 세워지기 이전 시기이며, 2기는 1기와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나말여초로 추정된다. 3기는 지광국사탑과 탑비가 조성된 무렵의 시기로 11세기 후반~13세기이다. 4기는 고려 말~조선 초로 판단된다. 결국 법천사는 나말여초기 → 고려 전기 → 고려 중기에서 고려 후기 → 여말선초기 등 최소 4회에 이르는 불사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다.



도 6. 원주 법천사지 1구역 가람배치 및 시기별 현황도(『原州 法泉寺』, 427쪽 【도면 269】)

원주 법천사의 창건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7세기 전반이나 중반으로 추측되는 연화문 와당과 대부완, 그리고 늦어도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로 비정되는 인화문유개합뚜껑은 법천사가 삼국~남북국시대에 조성되었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물질자료이다.<sup>16)</sup> 문헌에 의하면 928년(태조 11) 유가종의 석초(釋超)가 법천사에서 현권율사(賢拳律師)에게 수계(受戒)를 받았다는 사실은 적어도 10세기 초 법천사가 이미 계단사찰(戒壇寺刹)로서의 사격을 확립하였음을 보여준다.<sup>17)</sup>

고려시대 법상종은 현종 대(1009~1031)인 1018년(현종 9) 현화사(玄化寺)가 개창되면서 이를 중심으로 왕실의 후원을 받아 종세(宗勢)를 급속도로 확장하였다.<sup>18)</sup> 현종은 천추태후의 필박으로 12세

16) 최병현, 2014, 「原州 法泉寺址와 北原小京」, 『사적 제466호 「원주 법천사지의 재조명」 학술심포지엄』, 江原考古文化研究院, 9~22쪽.

17) 김혜원 역, 1996, 「지곡사 진관선사 오공탑비」, 『譯註羅末麗初金石文下』, 해안, 444쪽; 池賢柄, 2007, 124~125쪽.

18) 법상종은 안산 김씨(安山 金氏)와 인주 이씨(仁州 李氏), 수주 최씨(水州 崔氏) 등 문벌귀족과도 연결되어 그들의 후원을 받았다(許興植, 1986, 「瑜伽宗의 繼承과 所屬寺院」, 『高麗佛敎史研究』, 일조각, 216쪽; 金南允, 1992, 「高麗中期 佛敎와 法相宗」, 『한국사론』 28, 122~126쪽).

에 법상종 사찰인 승교사(崇敎寺)에서 출가하여 법상종과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sup>19)</sup> 그는 1020년(현종 11)에 삼천사(三川寺) 주지 왕사(王師) 도승통(都僧統) 법경(法鏡)을 주지로 삼았다. 법경은 1032년(덕종 원년) 국사에 책봉되었다.<sup>20)</sup> 법상종은 혜소국사 정현(慧昭國師 鼎賢, 972~1054)에 의해 크게 떨치게 되었다. 덕종(1032~1034)은 정현을 법천사에 주석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그는 현화사의 주지가 되어 법상종 교단을 이끌게 되었다. 정현은 1049년(문종 3)에 왕사에, 1054년(문종 8)에 국사에 봉해졌다.<sup>21)</sup> 덕종이 정현을 법천사에 주석하게 한 것과 정현이 법천사 다음으로 현화사의 주지가 된 것은 법천사가 당시 법상종 사찰 가운데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일 가능성이 크다.<sup>22)</sup>

고려 초 법천사와 관련한 핵심적인 인물은 지광국사 해린이다. 해린은 속성이 원주 원씨(原州 元氏)이다. 그의 할아버지 원길(元吉)과 아버지 원휴(原休) 모두 향리였다. 일찍이 법고사(法臯寺, 법천사)의 관웅(寬雄)에게 수학하였고, 상경하여 준광(俊光)에게 출가하였다. 해린은 법천사를 본사로 활동하였으며 개경의 해안사(海安寺)와 수다사(水多寺) 등의 주지로 활동하였다. 그는 1048년(문종 2) 이자연(李子淵, 1003~1061)의 다섯째 아들인 소현을 제자로 받아들였다.<sup>23)</sup> 이로써 법상종 교단은 대표적인 문벌귀족인 인주 이씨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그들의 후원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sup>24)</sup> 해린은 1054년(문종 8) 현화사의 주지가 되어 법상종 교단을 이끌었다. 그리고 현화사를 크게 중수하였다. 1056년(문종 10) 왕사가 되었고, 1058년(문종 12) 봉은사에서 국사로 추대되었다. 해린은 1067년(문종 21) 84세에 법천사로 하산하였고, 1070년(문종 24) 세수 87세, 승랍 72세로 입적하였다. 지광국사탑비는 1085년(선종 2)에 건립되었다.<sup>25)</sup>

결국 원주 법천사는 삼국~남북국시대에 창건되었으며, 이미 10세기 초 계단사찰로서의 사격을 가지고 있었다. 법상종은 현종 대(1009~1031) 현화사가 개창된 이후 왕실과 문벌귀족의 후원으로 종세가 급속히 확장되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법상종의 대표적인 고승인 정현이 법천사의 주지가 되었고, 또 해린이 법천사로 하산하면서 11세기까지 법상종 교단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였다. 즉, 원주 법천사는 지광국사탑과 탑비 건립 이전의 시기와 지광국사탑과 탑비가 조성되는 무렵까지 사세를 크게 떨쳤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기는 앞에서 언급한 I구역의 1·2기 유구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를 증명하는 유물은 바로 해무리굽완을 표식으로 하는 초기청자이다. 초기청자가 출토되는 사찰의 경우 해무리굽완 등 다구의 출토비율이 매우 높는데, 이는 불가의 의례나 음다(飲茶)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sup>26)</sup>

한편, 1구역 3기는 지광국사탑과 탑비가 조성된 1085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13세기로 추정되고 있

19) 『고려사』 권4, 세가 4, 현종 9년(1018) 6월 17일. 현종은 이후 1006년에 삼각산(三角山) 신혈사(神穴寺)로 옮겼고, 여기에서 승려들의 보호를 받아 시해 음모를 여러 차례 넘길 수 있었다(『고려사』 4, 세가 4 현종). 현종은 1017년에 안종(安宗)의 모를 개경 영취산(靈鷲山) 아래의 건릉(乾陵)으로 옮겼으며, 그 원찰로서 현화사를 개창하였던 것이다(『고려사』 권90, 열전 3 종실).

20) 『고려사』 권4, 세가 4, 현종 11년(1020) 10월 12일; 「玄化寺碑」(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참조, 더하여 별도의 인용표기를 하지 않는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원문과 변용을 이용하였음을 밝혀둔다).

21) 「七長寺慧昭國師碑」(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참조); 남동신, 2011, 「칠장사혜소국사비명(七長寺慧昭國師碑銘)을 통해 본 정현(鼎賢)의 생애(生涯)와 사상(思想)」, 『한국중세사연구』 30, 483~518쪽.

22) 국사편찬위원회, 2003, 『한국사 16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52~53쪽.

23) 고려시대 법상종이 법맥을 갖추면서 융성하게 된 것은 혜덕왕사 소현(慧德王師 韶顯, 1038~1096년)에 의해서였다고 한다. 소현은 해안사·금산사의 주지를 거쳐 1083년(선종 1) 현화사의 주지가 되어 전국의 법상종 사찰을 관리하는 선리관(繕理官)을 두었다(국사편찬위원회, 2003, 위의 책, 53쪽).

24) 崔柄憲, 1982, 「高麗中期 玄化寺의 創建과 法相宗의 隆盛」, 『韓洵勳紀念史學論叢』, 251~252쪽; 金南允, 1992, 위의 책, 123쪽.

25) 「原州法泉寺址智光國師塔碑」.

26) 장남원, 2011, 「소비유적 출토 도자(陶器)로 본 고려시대 청자의 수용과 다례의 관계」, 『역사와 담론』 59, 414~416쪽.

다. 안타깝게도 문헌의 부족으로 고려 중기 법천사의 실체를 파악하기 한계가 있다. 하지만 원주 법천사지에서는 고려 중기 강진유형(康津類型)의 청자들이 다수 확인될 뿐만 아니라 1230년대를 중심으로 하는 13세기 2/4분기에 제작된 <청자음각연판문‘○’문저부편>(I-289, 잔고 2.2cm)과 <청자상감보상화당초문동체부편>(III-961, 잔고 5cm) 등이 출토되었다. 또한 중국의 경덕진과 정요 등에서 제작된 백자 등 중국자기도 다수 수습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유물들이 고려 중기 원주 법천사에서 소비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1160년(의종 14) 4월 13일 의종의 법천사 행차와 1164년(의종 18) 3월 21일 법천사 주지 각예(覺倪)가 달령원(獺嶺院)에서 의종을 영접한 『고려사』의 기록을 통해 12세기 말까지 원주 법천사가 고려의 중심 사찰로 기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sup>27)</sup> 그러나 1160년(의종 14) 4월 10일 의종이 현화사에 행차하였다가 3일 뒤에 원주 법천사로 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또한 각예가 의종을 영접한 달령원은 장단군(長湍郡) 낙산사동(洛山寺洞)의 달령(獺嶺)에 있는 ‘원(院)’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 사료들에 등장하는 법천사를 원주 법천사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함께 제기되었다.<sup>28)</sup> 1160년(의종 15)과 1164년(의종 18) 『고려사』의 기록에 보이는 법천사는 개성 또는 개경 인근의 사찰일 가능성이 크다.<sup>29)</sup> 따라서 이 기록들은 12세기 원주 법천사의 상황을 추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일찍이 인종이 1137년(인종 15) 법천사의 승중(僧衆)이 동요하자 덕겸(德謙, 1083~1150)을 보내어 진정시켰다는 기록으로 당시 법천사가 대단한 사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이해하기도 하였다.<sup>30)</sup> 물론 이 사료에 보이는 법천사가 원주 법천사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1137년경 법천사의 승려들이 동요한 것은 1126년(인종 4) 이자겸의 난이 실패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전술하였듯이 해린은 이자겸의 아들 혜덕왕사 소현을 제자로 받아들이는 등 인주 이씨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당시 법상종은 해린계가 주류였고, 이자겸의 난 실패는 곧 인주 이씨의 정치적 쇠락과 법상종에서 해린계의 위상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법천사의 횡포가 더욱 심해졌다는 것은 해린계의 저항으로 볼 수 있다.<sup>31)</sup> 인종은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법상종의 정현계 승려인 덕겸을 법천사 주지로 보내었다. 이때의 법천사는 해린과 관련된 원주 법천사일 가능성이 크다.

덕겸은 청주 김씨(淸州 金氏)인 김근겸(金勤謙) 가문 출신이다. 청주 김씨는 3대에 걸쳐 법상종 승려를 배출하였다. 정현의 법맥을 이은 수좌 영념(靈念)과 그의 조카인 삼중대사(三重大師) 순진(順眞), 그리고 순진의 조카인 덕겸은 모두 법상종의 승려였다. 영념은 해린이나 인주 이씨 출신으로 해린의 제자가 된 소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인물이었다.<sup>32)</sup> 이들은 법상종 내부에서 해린계와 대립되는 정현계로 이해되고 있다.<sup>33)</sup>

덕겸은 이자겸을 대표로 하는 인주 이씨 가문을 배경으로 이의장이 현화사에 거처하면서 많은 승려를 자기 세력으로 불리자 이에 대해 “스승이 있는 곳이 도(道)가 있는 곳이다. 어찌 통달한 선비들

27) 『고려사』 권18, 세가 18, 의종 14년(1160) 4월 13일; 『고려사』 권18, 세가 18, 의종 18년(1164) 3월 21일.

28) 황정욱, 2023, 「원주 법천사관련 문헌 검토」, 『박경식 그리고 한국 고고미술』, 532~539쪽.

29) 權相老 著, 1994, 『韓國寺刹事典 上』, 퇴경당권상로박사전서간행위원회, 梨花文化出版社; 황정욱, 2023, 위의 논문, 532~537쪽.

30) 池賢柄, 2007, 앞의 논문, 125쪽; 「圓證僧統德謙墓誌銘」.

31) 김혜완은 이를 법천사가 이자겸의 난에 관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주 이씨가 세력을 상실하게 되자 그의 추종세력들이 일으킨 것으로 추측하였다(김혜완, 2004, 「신라시대·고려전기 원주 불교의 전개와 신앙」, 『사림』 21, 23~24쪽).

32) 崔柄憲, 1982, 「高麗中期 玄化寺의 創建과 法相宗의 隆盛」, 『韓祐勳紀念史學論叢』, 254쪽.

33) 金壽泰, 1997, 「新羅末·高麗前期 淸州金氏와 法相宗」, 『중원문화논총』 1.

이 세력에 핍박되어 도리어 애송이의 문하가 되겠는가”라고 일갈하였다. 이에 의장은 여러 차례 덕검을 해치고자 하였다. 이는 의장과 덕검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법상종 내 해린계와 정현계의 내부 갈등, 나아가 인주 이씨와 청주 김씨라는 문벌귀족을 둘러싼 세력 관계 등 보다 복잡한 정치적 차원의 갈등으로 해석된다.<sup>34)</sup>

한편, 이의장은 1126년(인종 4) 2월 이자겸의 난 당시 현화사의 승려를 동원하였으며, 덕검도 억지로 데려가자고 하였다. 이때 덕검은 병을 핑계로 사양하였고, 삼각산 향림사(香林寺)로 피신하였다. 1126년(인종 4) 5월 이자겸의 난이 평정되고 난 이후 인종은 덕검을 가상하게 여겨 삼중대사를 더해주고 천흥사(天興寺)의 주지로 삼았다.<sup>35)</sup> 이는 이자겸을 따르지 않은 덕검에 대한 인종의 치사였으며, 정국의 안정과 함께 불교계의 분위기 쇄신을 위한 조치로 추측된다. 덕검은 법상종의 고승으로 인종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sup>36)</sup> 인종은 법상종 해린계의 세력을 정리 또는 포섭하기 위해 정현계인 덕검을 원주 법천사의 주지로 삼았다. 덕검은 비슷한 시기에 승통에 올랐다. 그는 원주 법천사의 주지를 맡은 이후 곧 승려들의 소요를 잘 진정시켰고, 1146년(의종 즉위년)에 현화사의 주지가 되었다. 물론 정현계인 덕검에 대한 해린계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이미 이자겸의 난이 실패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저항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덕검이 1146년(의종 즉위년)에 현화사의 주지가 된 이후 관오가 법천사의 주지를 맡았다. 관오는 수주 최씨 최사위(崔士威, 961~1041)의 현손으로 12세 때에 숙부인 현화사 승통 상지(尙之)를 스승으로 출가하였다. 그는 형인 최함은 이자겸의 난 때 궁궐이 불에 타는 상황에서 국새를 가지고 시위하였다.<sup>37)</sup> 이를 통해서 볼 때 덕오 또한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덕오는 1126년(인종 4) 천황사 주지가 되었던 덕검이 1137년(인종 15) 법천사의 주지가 되자 1137년(인종 15) 천흥사 주지가 되었다. 이후 덕검이 1146년(인종 24) 현화사 주지로 옮기자 1146년(인종 24) 법천사의 주지가 되어 각각 선임자와 후임자로 마주하였던 것이다.<sup>38)</sup>

이후 원주 법천사는 1216년(고종 3) 거란이 고려를 침략한 이후인 1217년(고종 4) 거란군과 관련하여 『고려사절요』에 등장한다. 바로 1217년(고종 4) 7월에 중군(中軍)과 전군(前軍)이 충주와 원주 사이의 법천사로 거란군을 추격하다 독점(秃岫)으로 행군을 옮겼다는 내용이다.<sup>39)</sup> 이와 유사한 기록이 『동사강목(東史綱目)』과 이제현(李齊賢, 1287~1367)의 『익재난고(益齋亂藁)』에서도 확인된다.<sup>40)</sup> 원주 법천사는 거란군과의 전쟁으로 일정 부분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몽골의 침략으로 인한 피해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요컨대, 고려 중기 원주 법천사는 고려 초기의 연장선상에서 인주 이씨의 지원을 받는 해린계가 중심이 되었다가 이자겸의 난을 기점으로 왕실의 후원을 받는 정현계가 주도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원주 법천사는 시기적인 차이는 있지만 해린계와 정현계 모두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문벌귀족이나 왕실과 연결된 사찰로 세력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12세기 후반의 상황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13세기 초~중반 거란과 몽골에 의한 피해를 볼 때까지 사세를 유지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sup>41)</sup> 아마 그러한 배경 속에서 다량의 양질과 조질청자를 비롯하여 중국산 자기가

34) 「圓證僧統德謙墓誌銘」; 김보광, 2025, 「덕검(德謙)과 관오(觀奧)의 행적과 고려전기 승정(僧政)의 일면」, 『한국중세사연구』 81 137~140쪽.

35) 「圓證僧統德謙墓誌銘」.

36) 김보광, 2025, 위의 논문, 137~140쪽.

37) 「崔誠墓誌銘」.

38) 「證智首座觀奧墓誌銘」; 김보광, 2025, 앞의 논문, 148~149

39) 『고려사절요』 권15, 고종2 고종 4년(1217) 7월.

40) 『東史綱目』 제10상, 정축년 고정 4년(1217); 李齊賢, 『益齋亂藁』 권6.

41) 1170년(명종 즉위년) 무신정권의 성립이라는 문제가 있지만 이와 관련한 원주 법천사의 동향은 파악하기 어렵다.

지속적으로 소비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진 14. <청자상감 '壬申'명 접시>  
(1332, 국립중앙박물관, 높이 5.3cm)

한편, 원주 법천사지는 고려 후기 청자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청자상감국화문 접시>(Ⅲ)-419)이 간지명 청자인 <청자상감 '壬申'명 접시>(1332)와 비교할 때 전체적인 문양 구성이 유사하다. 그러나 전자가 후자에 비해 유색과 문양 자체의 완성도가 좋을 뿐만 아니라 문양대의 세부적인 구성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청자상감국화문 접시>(Ⅲ)-419)를 14세기 초~중으로 내려보기는 어렵다. 가령 이를 14세기 초~중반으로 내려보더라도 소수에 지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시기는 원주 법천사에 관한 문헌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

려 후기 원주 법천사의 변화 양상은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원주 법천사에 관한 기록은 고려 말~조선 초에 확인된다. 1407년 12월 원주 법천사는 화엄종 사찰로 자복사가 되었다. 즉, 당시 원주 법천사는 자복사로 선정될 만큼 일정한 사격을 갖추고 있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 말의 기록이 주목된다.

김구용(金九容, 1338~1384)의 문집인 『척약재학음집(惕若齋學吟集)』에는 원주 법천사에 관한 내용이 전해진다. 김구용은 1373년(우왕 1) 정도전(鄭道傳, 1342~1398) 등의 친명파와 함께 북원(北元)의 사절을 맞으려는 것을 반대하다가 죽주로 귀양을 갔다. 이후 여흥(지금의 여주)으로 거처를 옮긴 후 시와 술로 날을 보냈다. 그는 동정(東亭) 상공(相公)을 만날 때 법천사 스님이 술을 싣고 와서 마쳤다고 하였다.<sup>42)</sup> 동정(東亭)은 염흥방(廉興邦, ?~1388)으로 예천에 유배되었다가 여주에 침류정을 짓고 척약재(惕若齋) 김구용 등과 교유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여기에 등장하는 법천사 승려는 원주 법천사의 승려일 가능성이 크다.

목은 이색(牧隱 李穡, 1328~1396)은 법천사의 승통에게 글귀를 보내었다.<sup>43)</sup> 이색은 정몽주가 피살된 이후 여주와 장간 등지에서 유배생활을 하였고, 1395년 한산백(韓山伯)에 봉해진 이후 여강으로 가던 도중에 사망하였다. 특히 당시 원주에 거처하던 운곡 원천석(耘谷 元天錫, 1330~?)과의 교유를 알려주는 글이 상당수가 전해지기 때문에 이색이 글귀를 보낸 대상은 바로 법천사의 승통으로 추정된다.<sup>44)</sup>

고려 말 이후 원주 법천사에 관한 문헌이 등장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청자가 원주 법천사에서 출토되는 것은 고려 후기의 상황과 다른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주 법천사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법천사지의 북쪽인 I~Ⅲ구역은 각 중심토층에서 소토·재와 함께 고려~조선시대 기와·도자기가 퇴적된 층이 노출되었다. 이 층은 1217년 거란 또는 13세기 중반 몽골의 침입에 의한 결과로 추정된다. 따라서 소토층 상부는 고려 후기 이후의 문화층일 가능성이 높다. 더하여 고려 후기 청자의 출토 양상을 통해서 볼 때 고려 후기가 아닌 고려 말에 증창된

42) 金九容, 『惕若齋學吟集』 권하. 謁東亭相公 會法泉僧以扁舟載酒而來 夜深痛飲 東亭有詩云 短棹煙波僧載酒 蹇驢風雪客吟詩 相逢一夜情無極 更約仰岳芳草時」 여기에 등장하는 양암(仰岳)은 현 여주시 강천면 이호리 양암진을 가리킨다고 한다. 이 시기에 대한 번역 등 상세한 내용은 김성찬, 2014, 「원주(原州) 법천사지(法泉寺址)의 문헌적(文獻的) 고찰(考察)」, 『原州 法泉寺Ⅱ』, 원주시·江原考古文化研究院, 505~506쪽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43) 李穡, 『牧隱集』, 『牧隱詩藁』, 卷18, 詩. 「走筆奉寄法泉僧統 인명과 석명을 자세히 설명하는 곳에 불교의 현묘한 뜻이 준엄하게 펼쳐지네. 어느 때나 만법이 모두 서로 계합하여 비로의 정상을 평지같이 밝게 될런고」(한국고전종합DB 번역문)

44) 김성찬, 2014, 앞의 논문, 505~506쪽.

유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원주 법천사지는 거란 또는 몽골 침입 이후에 곧바로 증창되었을 확률은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도 7. 원주 법천사지 II구역 그리드 남-북 토층 모습

요컨대, 원주 법천사는 거란이나 몽골의 침입에 의해 일정한 피해를 입었으나 바로 복구되지 않았고, 어떠한 이유로 인해 고려 말에 증창된 것으로 판단된다. 고려 후기 원주 법천사는 전란의 피해를 입지 않은 남쪽 일부만 점유되거나 사찰이었다 하더라도 암자만 있는 등 사세가 약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고려 후기 청자의 소비가 급속히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sup>45)</sup> 이후 고려 말 원주 법천사가 일정하게 증창되면서 왕실의 자복사로 지정되고, 이에 따라 다수의 고려 말~조선 초의 청자가 사용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IV. 맺는말

지금까지 원주 법천사지 출토 청자를 통해 고려시대 원주 법천사의 변천 양상을 추적하였다. 고려 중기~후기 원주 법천사에 관한 문헌이 소략하기 때문에 당시 법천사의 변천 양상을 정확히 밝히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역사고고학적인 측면에서 유물과 문헌을 융합적인 시각에서 정리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몇 가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원주 법천사지에서 출토된 고려시대 청자는 초기 청자와 중기 청자, 그리고 고려 말~조선 초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특히 중기 청자가 다수 수습되었으며, 후기 청자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 특징이 확인되었다.

둘째, 원주 법천사는 삼국시대 또는 남북국시대에 건립되었으며, 10세기 초 이미 계단사찰로 사격이 확립되었다. 법상종은 1018년(현종 9) 현화사(玄化寺)가 개창되면서 이를 중심으로 왕실의 후원을 받아 종세(宗勢)를 확장하였다. 덕종(1032~1034)은 혜소국사 정현(972~1054)를 법천사의 주지로

45) 흥미로운 점은 원주 법천사지에 인접한 여주 고달사지에서도 고려 후기 청자가 수습되지 않는 유사한 양상이 확인된다. 향후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내었다. 지광국사 해린(984~1070)은 법천사를 본사로 활용하였고, 인주 이씨와 연결되면서 그들의 후원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원주 법천사에서 해무리굽완 등의 초기 청자가 소비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자는 불가의 의례나 음다(飲茶)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원주 법천사지에서는 다량의 중기 청자가 출토되었으나 이와 관련된 문헌이 소략하여 당시 법천사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1126년(인종 4) 이자겸의 난 이후로 법상종 내 해린계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덕점으로 대표되는 정현계가 주도세력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덕점은 친왕실적인 인물로 1137년 법천사의 동요를 막기 위해 법천사의 주지로 보내어졌다. 덕점을 이어서 친왕실적인 덕오가 법천사의 주지로 활동하였다. 즉, 법천사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12세기 초반은 인주 이씨, 12세기 중반 이후는 왕실의 지원을 받았고, 그러한 배경 속에서 13세기 거란 또는 몽골의 침입으로 사찰이 피해를 입을 때까지 사세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고려 중기 다양한 청자와 함께 중국자기가 법천사에 유입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원주 법천사지에서 고려 후기 청자는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거란 또는 몽골의 침입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원주 법천사의 사세가 매우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천사지의 북쪽 구역에 대한 조사에서도 거란 또는 몽골의 침입과 관련된 소토층 바로 위에 고려 말~조선 초로 추정되는 유구가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고려 후기 원주 법천사는 전란의 피해를 복구하지 못하고 폐허가 되거나 대찰이 아닌 작은 암자 형태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이유로 고려 후기 청자가 소비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다섯째, 원주 법천사는 정확히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고려 말에 개축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법천사에 관한 문헌이 새로이 등장하며, 1407년 왕실의 자복사로 지정되었다. 이 시기 청자의 출토 수량도 증가하기 시작하여 고려 말~조선 초 청자가 소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언제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는 명확히 설명하기 힘들다. 향후 관련 자료가 더욱 축적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고려사』, 『고려사절요』, 『東史綱目』, 『益齋亂藁』, 『楊若齋學吟集』, 『牧隱集』  
 「原州法泉寺址智光國師塔碑」, 「玄化寺碑」, 「七長寺慧炤國師碑」, 「圓證僧統德謙墓誌銘」, 「崔誠墓誌銘」, 「證智首座觀奧墓誌銘」
- 湖巖美術館, 2003, 『龍仁西里高麗白磁窯 發掘調查報告書 II』.  
 原州市·江原文化財研究所, 2009, 『原州 法泉寺 I』.  
 서울역사박물관, 2013, 『강북구 수유동 가마터 발굴조사 보고서』.  
 원주시·江原考古文化研究院, 2014, 『原州 法泉寺 II』.  
 원주시·江原考古文化研究院, 2017, 『原州 法泉寺 III』.  
 국강고고학연구소, 2021, 『원주 법천사 IV』.  
 원주시역사박물관·江原考古文化研究院, 2023, 『原州 法泉寺 V』.
- 국사편찬위원회, 2003, 『한국사 16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權相老 著, 1994, 『韓國寺刹事典 上』, 퇴경당권상로박사전서간행위원회, 梨花文化出版社  
 金南允, 1992, 「高麗中期 佛教와 法相宗」, 『한국사론』 28.  
 김보광, 2025, 「덕겸(德謙)과 관오(觀奧)의 행적과 고려전기 승정(僧政)의 일면」, 『한국중세사연구』 81.  
 김성찬, 2014, 「원주(原州) 법천사지(法泉寺址)의 문헌적(文獻的) 고찰(考察)」, 『原州 法泉寺 II』, 원주시·江原考古文化研究院.  
 金壽泰, 1997, 「新羅末·高麗前期 淸州金氏와 法相宗」, 『증원문화논총』 1  
 金載悅, 1988, 「高麗白磁의 發生과 編年」, 『미술사학연구』 177.  
 김혜완, 2004, 「신라하대·고려전기 원주 불교의 전개와 신앙」, 『사림』 21.  
 김혜원 역, 1996, 「지곡사 진관선사 오공탑비」, 『譯註羅末麗初金石文 下』, 해안.  
 남동신, 2011, 「칠장사혜소국사비명(七長寺慧炤國師碑銘)을 통해 본 정현(鼎賢)의 생애(生涯)와 사상(思想)」, 『한국중세사연구』 30.  
 尹龍二, 1993, 『韓國陶磁史研究』, 문예출판사.  
 이병훈·윤석인, 2014, 「법천사지 청자와 손곡2리 4호 가마터 청자의 도자사적 성격과 과학적 분석을 통한 생산 가마터 추정 연구」,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47-3.  
 이종민, 2004, 「高麗時代 寺址 出土 磁器의 器種과 性格」, 『단호문화연구』 8.  
 이종민, 2017, 「나말여초 창자요업의 개시 여건과 고고학적 산물의 검토」, 『한국중세고고학』 창간호.  
 이희관, 2003, 「韓國 初期靑磁에 있어서 해무리굽碗 問題의 再檢討」, 『미술사학연구』 237.  
 李喜寬, 2009, 「高麗 初期靑瓷와 越窯의 關係에 대한 몇 가지 門題」, 『사학연구』 96.  
 李喜寬, 2014, 「高麗 初期靑瓷와 越窯」 『진안 도통리 청자』, 국립전주박물관.  
 張南原, 2001, 「'康津유형'의 공유 현상을 통해 본 11~12세기 청자의 성격」, 『미술사학연구』 231.  
 張南原, 2005, 『고려중기 청자 연구』, 해안.  
 장남원, 2011, 「소비유적 출토 도자(陶磁)로 본 고려시대 청자의 수용과 다례의 관계」, 『역사와 담론』 59  
 池賢柄, 2007, 「原州 法泉寺址 發掘調查 現況과 課題」, 『耘谷學會研究論叢』 2.  
 崔柄憲, 1982, 「高麗中期 玄化寺의 創建과 法相宗의 隆盛」, 『韓沍旆紀念史學論叢』.  
 최병현, 2014, 「原州 法泉寺址와 北原小京」, 『사적 제466호 「원조 법천사지의 재조명」 학술심포지엄』, 江原考古文化研究院.  
 최태선, 2016, 『신라·고려전기 가람의 조영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광휘, 2023, 「고려 전기 磁器 生産體系에 대한 試論」, 『미술사학』 46.  
 韓盛旭, 2001, 「高麗後期 靑瓷의 器形變遷」, 『미술사학연구』 232.

- 한성욱, 2007, 「고려 음각 ‘○’문과 ‘◎’문청자의 연구」, 『고문화』 70.
- 한혜선, 2023, 「여주(驪州) 고달사지(高達寺址) 출토 고려시대 도자기의 소비양상」, 『한국문화연구』 44.
- 許興植, 1986, 「瑜伽宗의 繼承과 所屬寺院」, 『高麗佛敎史研究』, 일조각.
- 황정욱, 2023, 「원주 법천사관련 문헌 검토」, 『박경식 그리고 한국 고고미술』, 532~539쪽.
- 황정욱, 2024, 「고려 국사의 하산소 원주 법천사」, 『중부지역 고려 왕실 유적의 고고학적 성과』, 2024년 중부고고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토론문 7

## 「출토 청자를 통해 본 고려시대 원주 법천사의 변천 과정」에 대한 토론문

한혜선(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원주 법천사는 고려시대 중요 사찰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2011~2024년에 걸쳐 모두 17차례의 발굴조사가 진행되었으며, 14차 발굴조사까지의 결과를 다섯 권의 보고서로 엮어냈다. 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적전시관을 개관하여 운영 중이며, 계속해서 정비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그간의 발굴조사 성과를 종합 정리하는 자리로, 공간의 성격에 대한 고찰을 비롯해 출토 기와와 자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치를 조명하고 향후 조사방향과 정비내용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청자는 출토 유물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법천사의 주요 점유시기와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실물자료라는 점에서 발표자의 연구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발표자께서 직접 법천사지 출토 자기를 실견하시고 직접 분석을 하셨기 때문에 발표하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토론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법천사지 출토 자기의 전체 맥락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고려시대 중기의 전국 사찰유적에서 출토되는 청자는 통상적으로 강진과 부안산의 고급품보다는 주변 지방요에서 제작된 것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천사지 역시 그 양상이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직접 유물을 실견하셨을 때 전체 출토 청자에서 강진과 부안산 최고급품과 지방산 조질청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발표자께서 파악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려 중기 청자의 전체적인 제작체계 안에서 품질과 생산지에 따라 소비지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대강이라도 출토 비율을 염두에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보고서에 실린 청자가 전체 양상을 온전히 반영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청자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 못지 않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12~13세기를 중심으로 한 고려 중기 사찰유적 출토 자기는 강진 및 부안산 고급청자, 지방산 조질청자, 중국 자기 등으로 구성되며 대강 비슷한 비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자의 경우 이러한 양상은 당시 대형 사찰에 공급된 청자 및 중국도자의 구성이 공급과 조달체계 안에서 모종의 패턴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도자의 구성이 정요계 백자, 경덕진계 청백자, 요주요계 청자, 건요계 흑자인 것은 당대인들의 선호 또는 유행, 가치에 기반한 것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셋째, 고려시대 사찰유적 중 여주 고달사지의 출토 도자기의 양상을 살펴보면 법당지와 영당지로 추정되는 공간에서 청자향완이 출토된 바 있습니다. 발표자께서 제시하신 법천사지 출토 청자향완과 정병 또한 이러한 성격을 가진 공간에서 출토된 것인지 여쭙습니다. 사찰 건물지의 특성상 중복이 심하고 파괴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건물지의 정확한 성격을 모두 밝히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만 해당 건물지의 위치와 구조, 출토유물을 통해서 일부라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려시대 사찰에 관한 문헌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각 유적별로 출토된 유물, 특히 편년에 적극 활용되는 청자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해당 사찰의 연혁과 성격을 알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표 역시 이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8

법천사지, 앞으로의 조사방향과 정비

최 태 선

(중앙승가대학교)



## 법천사지, 앞으로의 조사방향과 정비

최태선(중앙승가대학교)

### 목 차

- I. 머리말
- II. 법천사지 발굴조사 성과의 주제어(OUV)
- III. 법천사지의 조사 및 연구방향과 활용
- IV. 맺음말

### I. 머리말

국가 사적 원주 법천사지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되어 조선시대(임란 전)까지 존속되던 대가람으로 사역의 동편 구릉에 지광국사를 포함한 다수의 탑비전까지 갖춘 사찰유적이다.

현재까지 18차례의 본격적인 고고학적 조사결과<sup>1)</sup>, 통일신라의 교학가람구조에서 고려시대에는 크게 확장된 가람<sup>2)</sup>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현재의 당간지주 권역까지 사찰의 지원시설(IV구역)은 물론 이들 사역과 축선을 달리하는 건물영역(VII구역:숙박 등 원관시설?)까지 갖추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그 전모에 대한 발굴조사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아울러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 중, 라말여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지역문화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막새와 고려 초기의 치미류(석제치미 포함)들은 당시 이 지역 호족의 심벌과 같은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발표자가 이번에 맡은 주제는 향후의 조사방향과 이에 따른 정비 활용에 대한 것이다. 발굴단에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지속적으로 법천사지 조사현장을 실견할 수 있었던 것에서 막중한 주제를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

주제의 하나인 활용(정비)방안은 발표자에게 매우 과분한 주제임은 분명하다.

새로 지정된 국가유산법이 유네스코의 문화유산 정책에 편승된 ‘국가유산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

1) 법천사지는 1938년 일인학자 小川敬吉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진 이래, 1965년 국립박물관에서 지광국사현묘탑비 주변에 대한 보수 및 발굴조사가 실시되었고, 1992년 원주시에서 사역 전체에 대한 정밀 지표조사와 석물 실측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러한 기초조사 위에, 2001년부터 현재까지 18차에 걸쳐 법천사지 사역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2) 통일신라시대의 쌍탑가람의 좌, 우회랑이 고려시대 건물지는 물론, 마지막 훼손시기까지 존재하고 있는 점에서 고고학적인 해석을 해 볼 수 있다. 국내에서 조사된 대부분의 선종계 가람은 교학가람의 좌, 우 회랑을 터서 승려의 공간을 중심 사역에 전진배치 시키는 구조들인데 비해 법천사지 중심영역(佛地)은 좌, 우 회랑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구조가 고려시대 선종계, 교종계 가람의 구분이 되는지는 좀 더 연구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동편은 조선시대 서원에 의해 교란)

로 바뀌었고, 이에 따른 유적관리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존과 활용영역이 기초 학문으로 성장하기에는 아직 많은 과제와 고민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발굴 조사된 유적의 진정성이 보존과 함께 어느 단계까지의 완전성으로 활용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존까지의 ‘문화재보호법’상에서의 ‘유적 정비’에 비해 조금 더 구체화, 개념화되고, 이에 따른 세밀한 방법론들이 요구되는 것이 현재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최측에서 법천사지 유적의 완전성을 위해 앞으로의 조사방향까지를 발표주제로 요청하였다 이 주제들 정리하는 것은 발표자가 감당하기에는 무거운 것이지만, 이 두 주제는 현재의 법천사지에 대한 키워드인 ‘유적의 활용’이라는 점에서는 연결되는 점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발표자는 이들 두 과정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우선 발굴조사된 유구 및 권역의 진정성들을 나름의 방법으로 설정하고, 이들에게 완전성을 찾으려면 어떠한 조사법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한 것을 발표하여 질타를 받고자 한다.

또한, 활용과 정비는 기존의 조사결과와 향후 이러한 조사에서 얻어진 완전성을 표현하는 방법이 현행의 평면 정비와는 차별화될 수는 없는가에 대한 단상을 정리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 II. 법천사지 발굴조사 성과의 주제어(OUV)

### 1. 유적으로서 완전성에 대한 접근

#### 1) 법천사지의 입지와 고대가람

법천사지의 입지는 거시적으로 보면 섬강이 남한강으로 흘러드는 합류지점에 입지하여 강원내륙과 경기도 충청도를 연결시키는 지점의 거점지이며, 이에 일찍부터 지리 경제사적으로 고려 13대 조창과 관련 흥원창(興原倉)과의 관련성으로 주목되었던 수로를 중심으로 하는 교통망의 거점지이다.

이러한 수로를 이용한 거점답게 법천사지의 주변은 남한강 본류(현 남한강대교지점)와 합류되는 소하천을 따라 동북쪽으로 약 1.4km 거슬러 올라간 지점에 고대가람 입지조건인 하나인 岬地지형이 있고 그 내부 평지에 입지하고 있다.

즉, 법천사지 산간 평지는 서편으로는 서북쪽 주봉인 긴경산(351m)이 남쪽으로 길게 뻗어 있고, 이 산록의 동편으로 소하천이 남쪽 남한강 쪽으로 좁고 긴 산간곡부를 따라 흐르고 있다. 또한, 법천사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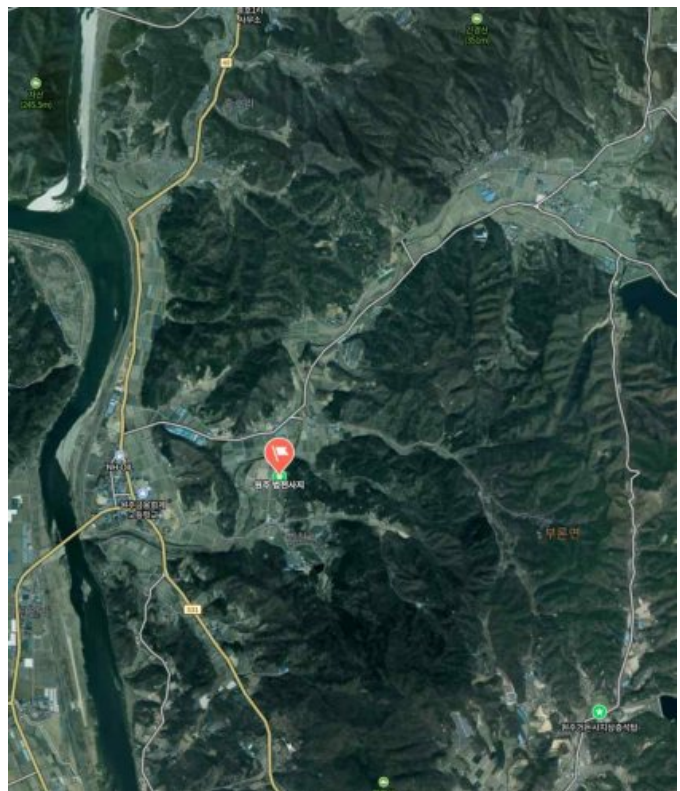


그림 1. 법천사지 입지와 남한강 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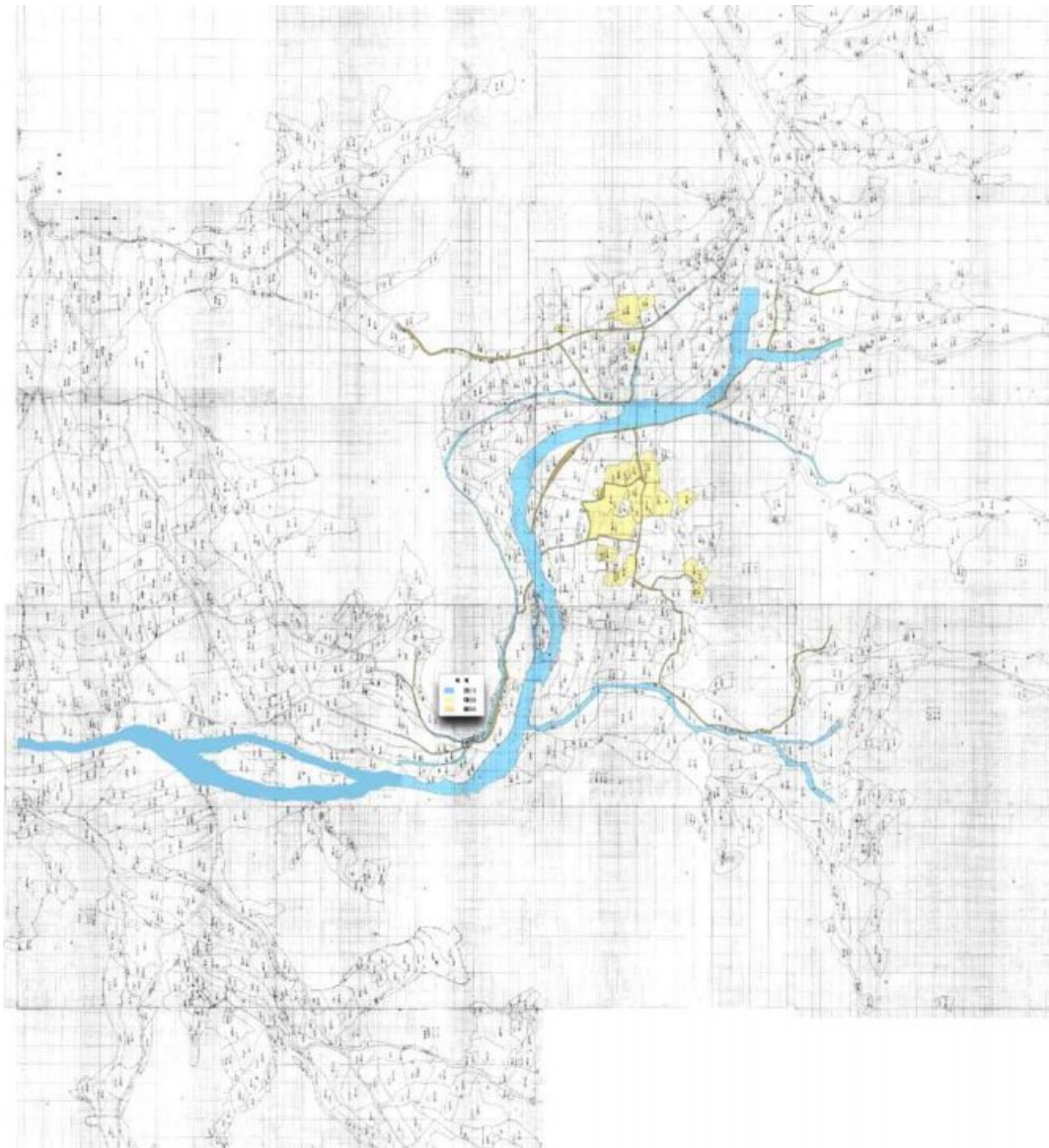


그림 2. 일제강점기 지적도상의 수로와 법천사지 지형(岬地) (재)국토문화유산연구원 작성

동편은 남동쪽 황학산(341.9)에서 북쪽으로 길게 뻗은 능선으로 에워싸여 있고, 그 산간 곡부를 동서로 흐르는 소하천이 현재의 당간지주 남쪽에서 합류하는 형국이어서 岬地의 형국을 이루고 있다<sup>3)</sup>.

수로의 폭이 어느 정도인지, 선박의 이동이 가능한지는 현 지형으로 알 수 없으나, 비교적 넓은 수로가 5리 미만의 거리로 흘러 남한강 본류에 합류되고 있다는 것은 주 교통로가 수로와 연결되어 있음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황학산 지맥을 넘어 남동쪽으로 약 2.9km 직선거리에 거둔사지가 입지하고 있으나 이들 두 사찰은 육로로 연결된 것으로 보이며, 거둔사지가 남한강 수계에 수로로 연결되는 지형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법천사지는 이러한 갑지의 지형을 활용하였는데 서쪽으로는 소하천을 분명하게 경계삼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북주하는 황학산의 지맥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선문 이후의 가람에서

3) 이 소하천은 지금도 정비되어 확인이 가능한데, 일제강점기의 지적도 상에서도 뚜렷이 합각되는 형태로 확인되어서 적어도 조선시대 전후시기까지는 명확한 지세임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지적도 정리는 (재)국토문화유산연구원의 협조를 받았다. 실무는 박만홍 실장이 주도적으로 작성해 주었다. 도움에 감사드린다.

탑비전이 대부분 북서편 사면에 입지하는 것에 비해 법천사지는 북주하는 황학산의 서사면에 위치시키고 있는 점에서 추정할 수 있다.

## 2) 법천사지의 가람구조와 고고학적 성과

2001년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18차의 조사가 진행되어 법천사지의 ①불지, ②승지, ③탑비전의 사역은 물론 남쪽으로 ④당간지주에 이르는 평지지역에서는 금당지(불지) 중문의 축선을 따라 동편에 일정한 구획을 갖춘 ⑤사찰 지원시설들이 밝혀지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현재의 법천사지 전사관 자리에는 법천사지 축선에서 약 20도 편동된 축선상의 ⑥숙박시설(원관시설?)같은 유구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렇듯 종교기능 외에 다양한 구조를 갖춘 사찰의 전모가 고고학적으로 규명된 사례는 극히 드물며, 고대가람인 황룡사지가 왕경 내에 위치하는 유적임을 감안하면 지방사원 특히 고려를 중심으로 하는 사원의 규모가 전체적으로 밝혀지는 경우는 국내의 경우 유일한 경우이다. 아마 동아시아적으로도 고고학적 조사로 전체의 전모가 밝혀지고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3 참조)

발굴조사에 대한 각 유구별 의미와 해석에 대해서는 앞선 주제 발표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위에서 부여한 ①~⑥권역의 주된 특징과 발굴조사와 현재 정비된 유구의 아쉬움에 대해서 발표자의 생각을 정리하기로 한다.

### ① 佛地(III구역)

법천사지의 중심사역인 불지는 남-북상 배치된 쌍탑과 금당이 중문(남)과 강당(북) 그리고 (동),서편 회랑으로 에워싸인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 쌍탑가람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쌍탑 앞에는 팔각대석이 마련되어 있어 강원지역 통일신라 불교의 특이성이라 할 수 있는 탑 앞에 보살상을 배치한 형태로 추정하고 있다.(금당은 현재 가구식 기단형태로 정비되어 있는데, 통일신라시대의 구조임을 감안한다면 이 중기단의 형태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쉬움이 있다. 정비의 문제, 발굴조사의 고증에서의 문제.)

발굴 결과를 기록한 보고서에서의 불지는 강당이 새로운 북편의 담장(회랑?)에 의해 불지의 내부에 들어와 있는 구조로 도면이 작성되어 있다. 이것은 법천사지 최종시기의 구조인 듯 북담장?을 설명하고 있다. 교학가람에서는 동북아시아 전역에서 승려의 최고시설인 강당이 불지의 영역에 포함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발표자는 생각하는데, 이러한 구조가 통일신라가 아니라 고려시대의 변화상이라면, 선종화되는 과정에서 좁은 금당보다 고대 강당을 선종 이후의 법당으로 활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면 선종이후의 가람이 회랑을 터서 승려의 공간을 불지에 전진배치시키는 구조<sup>4)</sup>(원주 거둔사지, 보령 성주사지, 여주고달사지 등)와는 달리 강당의 뒤편을 다시 담장(회랑)으로 둘러 교학적 전통<sup>5)</sup>을 가진 듯한 구조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고민과 해석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동쪽 회랑은 조선시대 서원 유구와 중복되어 있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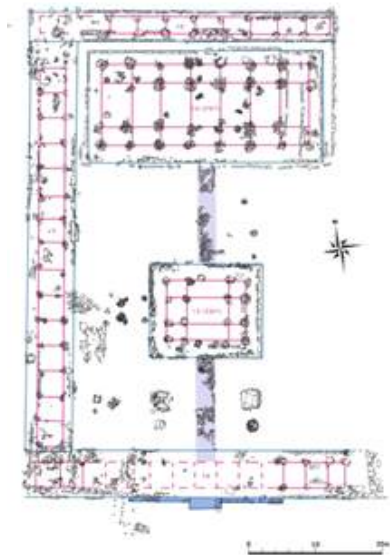


그림 3 법천사지 불지(보고서편집)

4) 최태선, 2016, p184~198.

5) 마하승기울의 불지와 승지의 엄격한 구분틀(최태선,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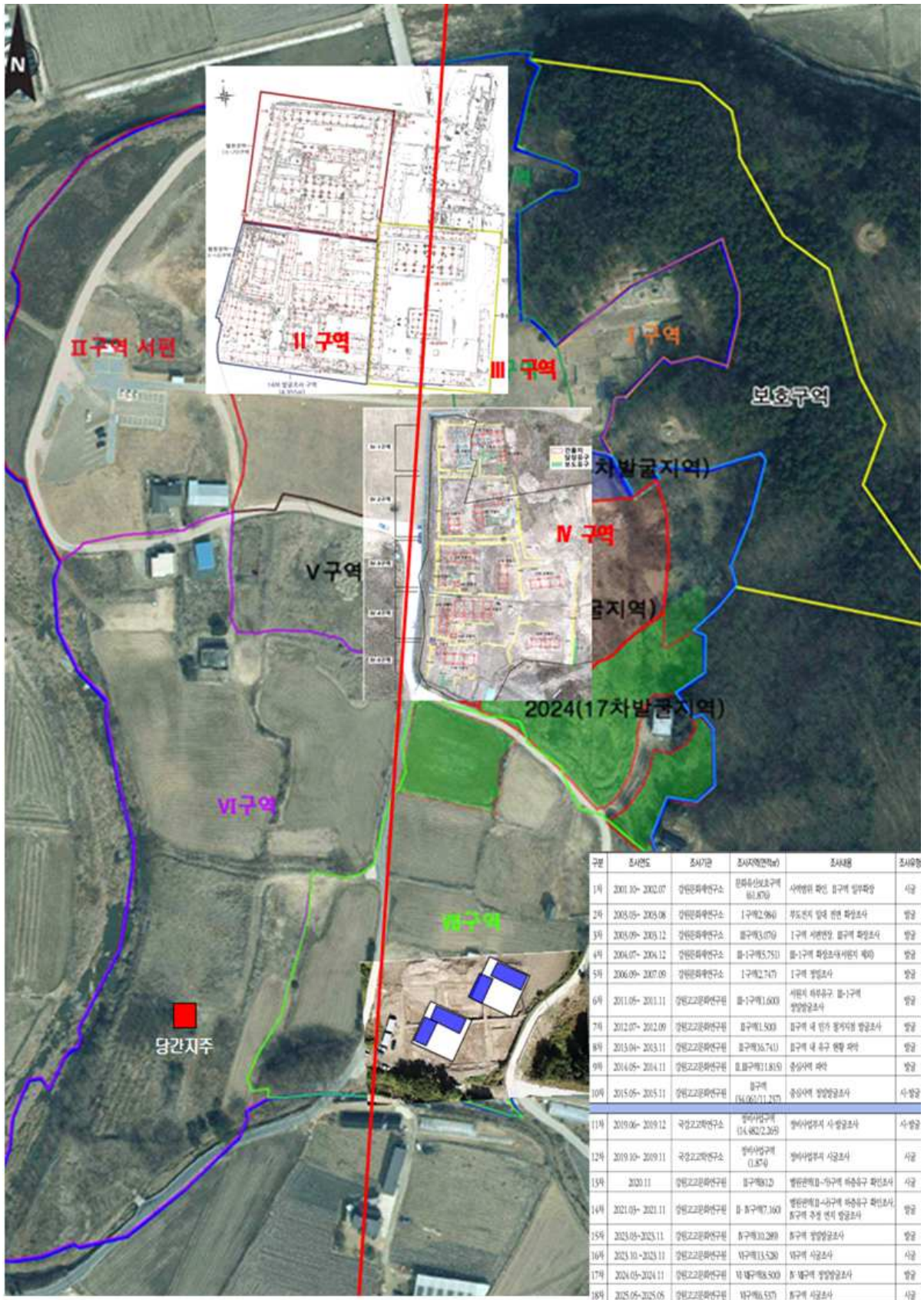


그림 4. 법천사지 발굴조사 현황과 유구배치(각 기관 조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최태선편집)

회랑지보다 상층에 조성된 건물지로 인해 회랑 흔적이 소실된 것으로 판단되며, 발굴조사에서도 書院유구의 기초와 회랑의 흔적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유구(통신?/조선?)의 흔적을 따라 회랑을 추정하고 있어 금당을 중심으로 좌, 우 대칭인 측면 회랑의 해석이 다소 상이하게 정비되어 있어 아쉬움이 있다.(발굴조사 보고서의 세밀한 재해석 등을 통해 검토될 부분이다.)

정비 시에 우리나라 왕조별 철학에 따라 <간접 유적>형태로 확인되는 유구나 유적에 대해서도 국가유산청에서는 표식이나 간접적 방법으로 그 과정은 설명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대부분 유적(특히 사지)에서는 주된 유적으로 정비되고, 기록이나 부차적 표현은 없는 것은 아쉬움이 있다.

## ② 僧地(II구역)

법천사지 승지권역은 2001년 이후 2013년 조사전까지 낭무식 구조로 에워싸인 건물군 2구역이 발굴조사 되었고,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이 권역 내에서 불지와 승지의 구분 또는 선종가람으로서의 변화 등 불교사적, 건축사적으로 10년간 넘게 해석을 두고 논쟁되어 온 구역이다. 2013년 근대도로가 해체되면서 불지가 발굴되었고, 이러한 논쟁에서 불지권역은 해소가 되었고, 현재는 승지로서의 기능으로 해석들이 압축된 느낌이다.<sup>6)</sup>

이들 건물지군의 해석 중 고고학적으로 돋보이는 점은 이번 세미나에서도 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고려시대의 난방구조에 대한 해석들이다. 이들도 발굴이후 정비과정에서 재해석되긴 하였으나, 이들의 고고학적 해석들로 인해 고려시대 입식구조에 대한 문화의 복원이 일진전 되었다는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sup>7)</sup>

그 외 불지의 북편의 승지 권역에서는 승려 생활시설(선종에서는 칠당에 해당)로 비교적 뚜렷한 구조를 보이는 발굴조사에서의 석실형 구조<sup>8)</sup>(화장실)나 욕실과 온실의 구조(선림원지, 황룡곡사지, 부인사지 등)과 같은 고고학적 속성에 의한 건물유구의 적극적 해석은 아직 없어서 아쉬움이 있다.

건축유구에 대해서, 건축문화의 이념과 가치를 진.선.미<sup>9)</sup>로 설명한 윤장섭교수나, 구조물은 '사용'이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의 정수를 다한 건축적 예술적 작품이 탄생한다....라는 정의와 함께 '건축물'이나 '미술품'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사용되기 위한 목적'을 규명해야 함을 강조한 山岸常人<sup>10)</sup>(아마기시 츠네토)등의 이론처럼 이들 각 공간의 고고학, 건축학, 불교학, 승가학 등의 협업을 통해 가치를 규명해야 하는 것은 향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과제인 듯 하다.

이렇게 완벽한 형태로 공간들이 발굴 조사된 결과물을 막연하게 건물지1,2로 설명하기에는 조사된 유적의 범위와 의미가 너무 크다. 흔히 강조되는 칠당가람에서의 칠당기능과 구조만이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규명되는 연구가 법천사지에서는 절실히 보인다.

## ③ 탐비전(I구역)

법천사지 탐비전은 지광국사 부도탐과 탐비로 인해 일찍부터 조사되고 발굴된 구역이다. 탐비전의 구조에 대해서는 별도의 발표가 있으므로 지광국사 권역은 제외하고 여기서는 북단편에 또다른 권역

6) 고고학과 고건축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아직 원관의 기능이 승지에 붙어있을 수 있다(II권역 북쪽시설), 일반인과 승려의 공간은 구분되어야 한다(별도공간) 등의 논란이 완전 해소된 것은 아닌 듯 하다.

7) 이 무렵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건물 2칸 공간마다 화로형 난방구조가 배치되는 구조와 초석상면보다 높게 마련된 외출고래 형식의 난방구조가 고고학적으로 고증되기 시작하였고, 양양선림원지 보고서에서는 고찰 편에 보다 세밀한 형태로 정리되기도 하였다.(양양 선림원지 II, 2020.)/강원역사문화연구원, 정암사 정밀발굴조사보고서/ 최태선, 「정암사 및 수마노탑 관련 문화재 조사의 성과와 과제」『정암사의 역사와 자장율사』, 정암사, 2021.

8) 최태선, 2016.

9) 윤장섭, 『한국건축사』,

10) 山岸常人, 『佛神と建築-その歴史的考察』, 2021.

으로 조사된 추정 탐비전지와 24년도 17차 조사에서 확인된 추정 탐비전지(다비장지?)들이 법천사지 등록을 따라 비슷한 해발상에 위치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고고 조사에서 한 사지를 중심으로 여러 공간의 탐비전 관련 시설이 확인된 곳도 법천사지가 유일한 사례로 생각되는데, 법천사지를 통해 주변시설의 조사 방법론이 새롭게 정리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17차 조사의 다비장과 관련된 해석에 대해서도 당시의 다비의례에 따른 연구와 사찰과의 거리 및 공간구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며, 다비시설을 2차적으로 의례화(사리탑과 지제탑과 같은)된 가능성도 주변의 석축과 위계와 함께 연구될 필요가 있다.

④당간지주 권역 (사역으로의 진입부)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사찰의 창건과 관련된 시기의 석조물이다. 현재 VII구역 동편에 위치하고 있는데, 원위치 여부에 대한 시굴조사 결과 현재의 당간지주 상면레벨이 VII구역에서 확인되는 건물지 기저부 레벨보다 높은 곳이어서 후대에 위치변경이 있었거나 원위치 상에서 새로이 높은 지면상에 정비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천사지를 에워싸는 하천이 합류하는 곳이 현 당간지주의 남쪽에 인접해 있는 점에서 서쪽지류가 훨씬 발달해 있다는 점과 당간지주가 사역으로의 진입의 이정표라는 점에서 당간지주의 원래 위치는 현 범위 일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⑤사찰 지원시설(IV구역)

법천사지의 고고학적 또 하나의 성과는 IV구역의 사찰지원 시설로 추정되는 곳에 대한 발굴조사이다. 이 구역은 발굴조사 이전에는 법천사가 폐사된 이후 근, 현대를 거치면서 지형의 변화로 인해 동측사면을 따라 얇게 형성된 곡부가 모이는 저습지로 남아 있었고, 평면상 중심사역의 앞쪽 측면에 해당하므로 막연하게 연지로 추정되는 구역이었다.

강원고고문화연구원의 끈질긴 조사로 인해 이 저습지 구역이 적어도 고려시대의 취락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고고유적임이 확인되었다.

발굴조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현 전 시관 영역으로 지원시설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발굴조사 결과에 따르면, IV구역은 중심사역 축선의 동편구역으로, 남-북 길이 약 120m 범위에 5구역으로 나뉘어(구역당 남북 20~27m, 동서 29~39m) 있으며, 각 구역은 좁은 소로와 담장으로 구획되어 있는 특징을 가진다.

각 구획으로 진입하는 구조는 불지 중문에서 시작되는 남-북 중심도로에서 동-서로 진행되는 좁은 소로를 따라 진입하다가 다시 북쪽으로 꺾어 정면 1칸 규모의 출입시설을 통해 구역으로 들어가는 형태이다. 각 구획에는 구획외곽 담장을 따라 ㄱ, ㄷ자형으로 건물들이



그림 5. IV구역 유구현황

배치되어 있으며, 구획별 건물 내부에는 각기 다른 형태의 공방시설 들로 보이는 건물지들이 확인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림 6. IV-3구역 유구현황

이러한 구조는 통일신라의 신라왕경 방리제 범위내에 발굴조사된 S1E1구역 내에서 확인된 건물지들 간의 세분된 공간구성과 동선로를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주는 자료로도 생각되는데, 신라왕경 방리의 규격이 167.5m임을 고려한다면 현재 전시관쪽으로 2구역이 더 조사된다면, 그 지점의 면밀한 조사가 시대는 다르지만 도시나 취락의 규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고고학적 결과물이 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다.

발표자가 이들 공간이 사찰 지원시설이라고 추정하는 근거로는 승려의 사용공간으로 규정할 II,III 구역에서 출토되는 막새의 빈도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막새 출토 비율에서도 한 속성으로 삼아 추정해 볼 수 있겠다. 출입시설이나 각 건물지에서 출토되는 막새는 거의 확인되지 않으며, 고려시대 평기와류와 도기 자기류들의 출토빈도가 높다.

⑥숙박시설(원관시설?): VII구역

국강고고학연구소에서 현재의 전시관 부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이다. 이들 유구는 앞선발표들에서 언급되었듯이 기존의 법천사지 축선상 배치된 구역별 건물지들과는 달리 법천사지 중심 축선에서 20도 가량 편동되게 배치된 건물군들이 발굴되었다.

평면상으로만 생각할 때 시기 차에 따른 건물지의 배치로도 생각할 수 있으나, 건물지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마지막 시기의 출토기와와 자기류들이 고려시대 법천사의 유물들과 동종들이어서 동시기의 별도의 위계를 가진 구조물이라 발표자는 생각한다.

기존까지 승지의 발굴조사 결과를 두고 논의되어 온 원관사원의 기능으로도 생각되는데, 정방형에 가까운 □자상의 공간에 ㄱ자 또는 一 자형 건물이 외곽에 배치되어 있고, 한 구획당 별도의 우물이 설치된 점에서 생활시설과 밀접한 영역으로 생각된다. 이 공간에서도 막새류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데 비해, 생활용 도기, 자기류들이 많이 출토되는 속성 등에서 승려생활 시설이 아니라 일반 생활시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 시설들은 당간지주 주변에 배치된 점도 공간상의 위계를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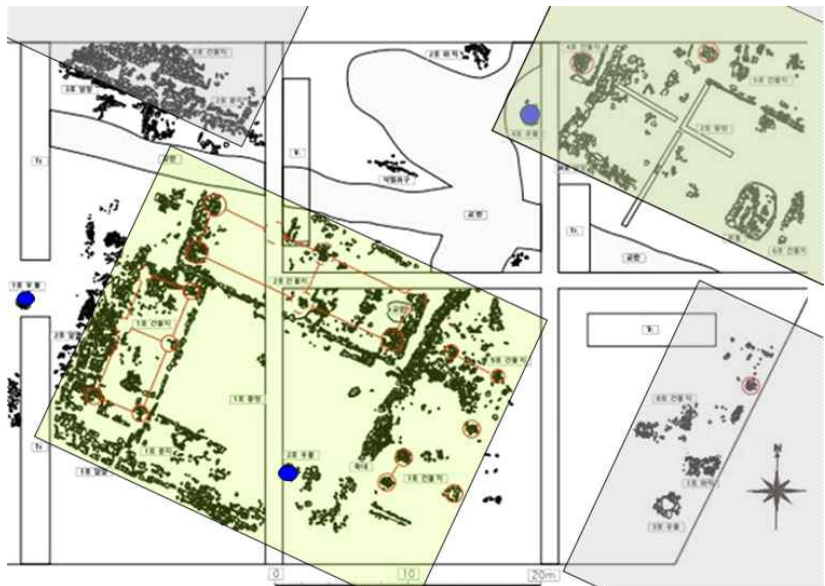


그림 7. VII구역 발굴조사 평면도와 유구배치 추정도(필자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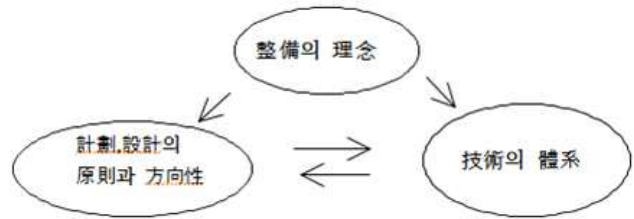
### III. 법천사지의 조사 및 연구방향과 활용

#### 1. 문화유산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제언

법천사지를 어떻게 복원·정비하여 활용할 것인가 라는 주제는 원주시는 물론 국가유산청에서도 안고 있는 과제이다. 특히 발굴조사 결과, 하나의 사지에서 다양한 권역이 설정되어 있음이 확인된 만큼 각각의 가치와 완전성을 어떻게 입증하여 활용할 것인가는 단독 유적의 방법과는 달라야 함은 강조할 필요가 없다.

사적 정비에 대한 정의들에서 ‘정비의 이념’이란, 유적 정비를 위한 목적과 의미를 정확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이러한 이념 틀 속에서 ‘정비를 위한 계획의 원칙과 방향성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후에 그 방향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비와 보존의 다양한 기술적 방법(데코레이션)’을 구현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할 때 제대로 된 유적의 정비를 통한 유적보존과 활용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한다.<sup>11)</sup>



(『史跡等整備のでびき』,同成社,2005.)<sup>1)</sup>

법천사지에 대한 정비, 활용<sup>12)</sup>방안이 수립되었고, 이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구의 평면 정비가 진행되고 있으나, 정비의 이념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정비의 이념을 확정**하기 위한 필요한 과제들이 산재하고 있음도 부정할 수 없다.

##### 1) 드러난 개별 유구의 가치와 완전성 설정

사지와 같은 건축 유구들은 조성되는 시점이 종료 시점인 고분과 같은 점적인 유구와는 다르게 조성 시점(창건)부터 소멸시점까지 각 유구마다 지속되는 조건이 다르고,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 생활유적이다.

따라서 발굴조사되는 시점은 폐기되기 직전의 모습으로 그것도 완전한 구조물의 속성을 대부분 잃어버리고 최하층의 기초만이 확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구나 유적의 완전성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속성들을 하나하나 추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서도 넓은 대지(부동산적 가치) 위에 남아 있어서 빠른 정비와 활용이 상대적으로 요구되는 모순이 있다.

법천사지에 대한 사료와 고고학적 유물로서 정리해 본 연혁을 참고한다면 그 모순점들이 두드러진다. 연혁 표 1에서 처럼 우선 고민되는 정비의 시점과 그 시기의 사세와 각 건물들의 위계를 당시의 것으로 설정하기 위한 학제 간의 접근법과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

근래 이웃나라의 사례를 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문화사 쪽에서 두드러지는 연구법이라 생각되는데, 발굴조사 되었던 고대사원 유적에 대하여 발굴 결과에 대한 ①고고학적 재해석(발굴팀 중심)(유적으로 보는 고대사원의 기능), ②미술사 분야(고대사원의 불상), ③건축분야(고대건축과 고대사회), ④사회학 분야(고대 사원의 네트워크와 사람들) 학제간의 발표에 이어 이들 발표들의 대담 및 토론을

11) 『史跡等整備のでびき』,同成社, 2005. 최태선, 2014발표집 재인용.

12) 2022년 원주시에서 법천사지 정비활용을 위한 종합정비 계획서가 수립된 바 있으며, 당시까지의 표면적 내용을 기준으로 정비 방안이 연구되어 있다.(원주시, 『사적 원주법천사지 종합정비 및 활용계획』, 2022.

표 1. 법천사지의 연혁(사료와 고고자료)

	문헌자료	고고자료	비고
	창건?	(7세기대) 압인문토기 출토	
725	725년(성덕왕24)창건설? (역주 나팔여초금석문(하))		
9C대		(나말려초기의 통일신라계 ) 초석류, 특수문양의 막새류	
928	유가종 석천스님이 법천사에서 현권율사에게 계를 받음 (지곡사 진관선사 비)	10세기 전후 석탑부재 및 불상편	
1032	법상종 鼎賢이 고려덕종의 교지를 받아 법천사 주지로 부임		
1067	지광국사 해린의 하산	?통일전통의 치미, 막새류 /중수시점?	
1070	법천사에서 입적	?통일전통의 치미, 막새류 /중수시점?	
1085	지광국사현묘탑비 건립	부도전(탑비 및 부도 탑비전지의 주초)	
1146	관오스님이 주석 (증지수좌관 요묘비)	복서편 및 서편영역의 건물지?	
1160	의종의 법천사 행차 (고려사)	복서편 및 서편영역의 건물지 불지, 승지의 왕실공간의 설정 및 해석?	
1164	법천사주지 각예스님이 의종을 영접(고려사)	일취문 막새류	
1217	김취려장군 거란군과 교전(법천사) (고려사)	일취문 막새류	
1407	조선시대 자복사로 사세 유지 (조선왕조실록)		
1589	지관스님이 주석(허균의 유 원주법천사기)		
1609	구터만 남음(허균의 유 원주법천사기)		
		정시한(1649~1707)관련 書院 중심사역 동편에 건립(사찰초석 및 석재활용)	

부기한 연구성과<sup>13)</sup>들이 보인다.

또한, 사원에 대한 건축사에서도 사료를 통한 건축물 내에서의 신앙 행위와 공간 규모 등을 연구한 방법론(건축과 불교사와 사회사간의 학제연구의 결합) 등도 주목된다.

이들은 고고학적 관점에서는 발굴된 도면과 당시의 해석이 일차적으로 정확하다는 전제에서 주변 학문과의 연계가 가능하다. 당시의 발굴방법과 해석법으로 최선을 다해 작성한 발굴조사보고서 이지만 몇 개의 고고학적 속성으로 많은 부분을 유추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학문이므로 다른 학문과는 달리 드러난 유구의 팩트 증거가 주요한 고고학에서는 유추가 가지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수년, 수십년 지난 발굴보고서와 도면들을 가지고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하려는 여러학문 분야에서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현실인데, 이러한 갈등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기 발굴조사한 기관에서 새로운 연구법이나 검토 방법을 동원해서 1차원적인 보고서에서 나아가 유구의 위계나 구조의 해석을 새로이 시도하는 보고서리뉴얼작업을 시도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일까? 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이러한 과정들이 유구의 가치에 대한 그간의 연구법에 대한 종합이기도 하고 결국 白晝의 작업이

13) 岩波文庫, 『古代寺院-新たに見えてきた生活と文化』, 2019.

기도 하겠다는 생각이다.

## 2) 드러난 개별 유구의 정비방법의 개선점

법천사에 대한 일차적인 정비가 이루어진 현재, 보다 명확한 유적 정비와 활용을 위해서는 개별유구들의 가치와 완전성에 대한 연구가 더 심화될 필요가 있다. 거시적인 법천사지의 시대별 개관은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고 한다면, 앞에서 제시한 방법들을 포함한 다양한 접근법개발은 물론 이번과 같은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와 학술회의를 통해 개별유구들의 가치들을 심화연구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발굴조사된 일차적 보고서에 의존하여 다소 성급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중심사역인 불지에 대해서는 기단을 갖춘 복원?, 재현? 형태의 정비가 이루어져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한 발더 나아가 살펴보면 발표자가 요약한 불지구역의 문제점과 같이 크게 고민되지 않고 정비되어 있는데 ‘중요 전각이 통일신라시대 표현으로 정비되었다’는 것 외에 당시의 금당이 갖추어야 하는 기단 구조에 대해서는 연구와 고민이 누락되어 있는 듯 하다.

연구는 심화될 수 있으나, 이미 원래의 규격대로 기단이 복원?되어 있어서 심화된 연구결과가 현재의 모습과 다를 경우는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어 보이는 것이 국내의 보편적 정비방법이다.

실제 발표자가 우연한 기회에 불지구역 정비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 고고학을 공부하는 자로서. 매장유산 절차에 따라 ‘정비를 염두에 둔 발굴조사는 기초부의 조성 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피트 조사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주요 건물지는 마지막 시기나 일부 그 하층 중복된 유구의 표면을 겨우 조사하여 결과치를 제출한 데 비하여 복원?정비과정에서 유구의 기저면을 상층 정비시설의 고정과 지내력을 위하여 기초부를 증장비로 다지거나 일부 제거하는 현상들을 지켜 본 바 있어서 정비의 이론에 비해 매우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현재 정비된 법천사지의 주요영역인 불지와 승지(Ⅱ, Ⅲ구역)은 유구가 형성된 구지면에 대한 유존방안 없이, 지상물을 정비한 형태로 알고 있어서, 발굴조사 보고서의 도면과 당시의 해석에 의존하여 가치성을 새로 조합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다.

제 I 구역인 탑비전지는 훨씬 이전에 정비되었으므로 현재에 비추어 보면 크게 다를바가 없을 듯 하다. 탑비전지 하부에 정비된 계단식 전각들에 대한 구조나 해석은 현재의 평면과 당시의 정비를 위한 발굴도면에 의존하여야 하는데, 정비된 평면구조가 근래에 불교고고학이나 불교건축학에서 시도되고 있는 다양한 연구법의 자료로 어느 정도 활용될 수 있을까?

다행스러운 점은 법천사의 중심 사역의 원지면 해발보다 남쪽으로 가면서 ④,⑤,⑥권역의 유구들이 낮은 해발상에 마련되어 있다는 조건이다. 즉, 근대 개설된 간이도로나 경작면보다 1m 내외로 낮은 곳에 유구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배수를 고려한 정비방법으로는 현재의 지면상이나 그 위에 재현적인 방법이 최선이라는 점이 유적의 보호나 정비, 복원(재현)을 위해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향후 법천사지에서 만이라도 유구나 유적의 재현적 방법으로 발굴조사된 원래의 유구가 안전하게 복토된 상면에서 다양한 유구해석과 재현 방법에 의해 정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경우, 만일 더 심화된 연구 결과 새로운 정비가 필요할 경우 재현된 표현물만을 제거하거나 수정하여 국민들에게 활용하더라도 원래의 유구는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다.

실제 동북아시아에서 발굴조사된 건축 유적들은 대부분 원래의 유구보다 높은 새로운 지면 위에 재현적인 방법으로 정비, 활용되고 있는데<sup>14)</sup>, 국내에서는 아직 원래의 위치에 원래의 모습으로 재현하고자 하는 원칙론이 지배적이며, ‘그것은 중국의 경우...’, ‘...그것은 일본의 경우...’로 터부시하는 관념이 강하게 남아있는 것 같다. 당시에 설정한 유구의 진정성과 완전성으로 결정한 <당시의 정비

14) 중국 대명궁, 일본 흥복사지 중금당과 중심회랑 정비사례

의 이념)을 너무 확신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 IV. 맺음말

이상에서 발굴조사된 법천사지의 고고학적 의의와 향후 나아갈 연구방법과 정비방안에 대하여 발표자의 생각을 정리하여 보았다. 어떠한 해결책을 제안하였다기 보다는 결국에는 많은 부분 고민하여야 한다는 일반적 과제만을 던진 느낌이 크다.

법천사지의 고고학적 성과는 앞에서 정리해 본 바와 같이 고고학사에서 엄청난 성과이며, 문헌사에서 다루어 왔던 당시의 불교 사회상을 고고학적 유구, 유물로 제시되는 유적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고고학적 결과물들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정리되고 그것을 토대로 정비·활용되기 위해서는 學際間的 솔직한 용기와 소통을 통한 연구법과 성과들이 절실하다는 생각이다.

법천사지를 직접 조사하는 발굴기관에서는 고고학적 결과를 중심으로 법천사지 고고자료와 건축사, 법천사지 고고자료와 미술사, 법천사지 고고자료와 사회사, 등의 연구시리즈를 통해 고고학적 성과가 검증되고, 사적으로서의 가치를 너머 세계유산으로 진행되길 희망해 본다.

## 토론문 8

## 「법천사지, 앞으로의 조사 방향과 정비」에 대한 토론문

박성진(국가유산청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

발표자께서는 법천사지 발굴조사 성과의 주제어(OUV)와 향후 조사 및 정비·활용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과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단순히 발굴 성과를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적의 진정성과 완전성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발표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토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1. 발굴조사의 ‘완전성’과 해석의 문제

발표자께서는 법천사지의 입지 및 가람 구조에 대한 고고학적 성과를 ①~⑥권역으로 세분화하여 정리하고, 각 권역별로 발굴조사 결과의 아쉬움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법천사지가 단순히 불교 건축 유적이 아니라, 고려시대 지방 거점 사원의 복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임을 강조하기 위해 적절한 접근법입니다.

그러나 발표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현재의 발굴조사 성과만으로는 각 유구의 완전성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강당의 위치, 동쪽 회랑의 해석, 승지의 기능 등은 추가적인 연구와 학제 간 협업이 절실히 보입니다. 이에 대해 발표자께서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궁금합니다.

통일신라시대 교학가람과 달리 법천사지가 고려시대 선종 사원으로서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발표자의 해석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다만, 이것이 ‘선종화’의 결과인지, 아니면 다른 종교적, 사회적 변화의 반영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단순한 ‘강당’이 아닌, 새로운 기능의 ‘법당’으로 활용되었다는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고고학적, 문헌적 증거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표자께서는 승지 내 석실형 구조물(화장실), 욕실, 온실 등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유구의 정비/재현/복원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발굴된 유구의 형태만으로 용도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고고학, 건축학, 승가학 등의 학제 간 협업을 통해 각 공간의 용도와 의미를 적극적으로 규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2. 정비 및 활용의 ‘진정성’과 방법론

발표자께서는 법천사지 유적의 정비 및 활용에 있어 ‘진정성’을 유지하는 방법론에 대해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특히, ‘정비의 이념’과 ‘기술적 방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기존 유구가 훼손될 위험이 있는 현행 정비 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한 부분은 우리 학계와 시민사회 등 모두

가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원래의 유구를 안전하게 복토하고, 그 위에 다양한 해석과 재현 방법에 의해 정비되었으면 한다’는 발표자의 제안은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입니다. 이는 유적의 원형 보존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들에게 다양한 시기의 법천사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원위치에 원모습 그대로 재현’이라는 원칙론에서 벗어나, 유적의 가변성을 인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조선시대 서원 유구와 같이 후대의 간섭으로 생긴 유적에 대해 ‘주된 유적으로 정비되고, 기록이나 부차적 표현은 없는’ 현실에 대한 지적 또한 날카롭습니다. 유적의 역사는 한 시기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시기의 층위가 쌓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법천사지의 경우, 고려시대 사찰의 모습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서원의 흔적도 함께 보여줌으로써 유적의 시간적 깊이를 더하고, 관람객에게 더욱 풍부한 역사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3. '백서' 작업의 필요성

발표자께서는 기 발굴보고서의 리뉴얼 또는 '백서' 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법천사지의 가치를 심화 연구하고, 나아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천사지처럼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유적은 여러 차례의 조사와 연구가 누적되면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백서'는 단순히 발굴 성과를 종합하는 것을 넘어, 시대별 가람의 변화상과 각 권역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재해석하는 중요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고학, 건축학, 미술사, 불교사,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융복합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법천사지의 진정한 가치를 규명하고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천사지는 단순한 사찰 유적을 넘어, 고려시대 사회와 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발표자께서 제시하신 과제들은 비단 법천사지뿐만 아니라, 국내 유적 관리와 연구 전반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법천사지가 고고학적 성과를 넘어, 역사적, 문화적, 교육적 가치를 모두 갖춘 대한민국 대표 유산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발표가 그러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